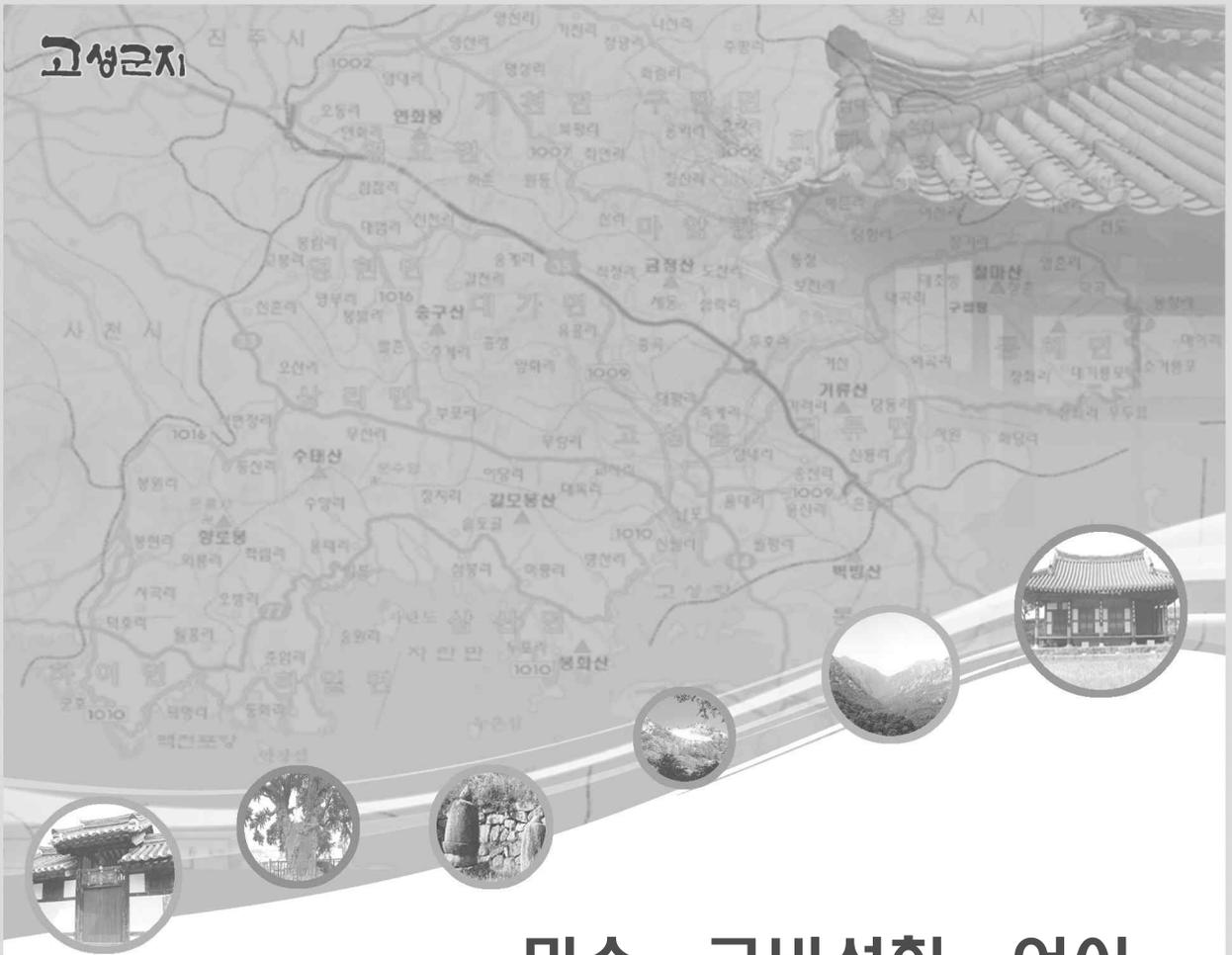


고성군지



제 14편 민속 · 구비설화 · 언어



제 14편 민속 · 구비설화 · 언어

제 1장 민속

I 개 관

민속이란 일반인들의 습속을 줄여 말한 것인데, 이것은 문명국가의 서민 대중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문화로서 민간에 전승되는 풍속(風俗)이나 제도(制度), 습관(習慣), 신앙(信仰) 따위를 계승하여 그 민족 정서를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문화라는 말의 핵심적 의미는 정신적인 현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문화란 한 장소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문화변동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변동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삶의 주인공들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문화란 항상 변동한다는 점이 인류학적 문화이론의 또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변화의 과정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통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다양한 주장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통문화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낸 사회적 삶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문화의 궁극적 목적이자 가치 개념이라면, 스스로 만들어낸 사회적 삶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창조한 모든 생활양식과 유무형의 창조물을 말한다. 당연히 삶의 슬기와 기술이 함께 작동해서 문화적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공동체의 무의식적 합의나 집단적 약속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삶의 틀은 생활양식이나 삶의 문법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무형적 관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의 해명 없이 유형문화가 제대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분야별로 요약해 본다면, 의식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식주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각 지역의 환경과 생활 풍토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의생활을 본다면, 원시시대에는 짐승의 가죽이나 나뭇잎, 나무껍질을 이용하여 몸을 가리기 시작하였고, 차츰 인간의 두뇌 발달로 나무껍질을 이용하여 옷감을 짜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삼베와 명주로 옷을 해 입었다. 고려 말에 문익점(文益漸)이 원나라로부터 목화

를 가져와 재배하여 옷감원료로 사용한 것은 의생활의 큰 변화라 볼 수 있다.

음식문화는 농사와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은 식생활의 주식이다. 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질을 갖고 있는 고성에서는 쌀과 보리가 주식이었고, 바다를 끼고 있어 각종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산물과 해산물이 조합을 이룬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삼한시대 진한(辰韓)의 옛터로 여러 가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사국시대에 속한 가야시대는 소가야(小伽倻)로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서 주거를 형성하여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 전역과 고성지역의 주거형태는 농촌취락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초가이지만, 신분과 계급과 빈부의 차이에 따라 와가(瓦家)의 분포도 높았고, 그 규모도 크게 달랐다.

그리고 통과의례(通過儀禮)를 볼 때, 인간이 태어나 사회에 얽매이면서 죽음과 같이 가는 삶 속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출생의례로부터 시작하여 관혼상제를 거치게 된다.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관례(冠禮)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행해졌던 의식만으로 지칭하는 것 같으나 다른 나라에서도 관례에 해당하는 성인식이 있다. 남녀의 결합인 혼인이 자연발생적으로 내려오다가 의식화한 것과 같이 관례도 발전과정에서 생리적 변이에 따라 어른이 되게 하는 의식이다. 관례의 기원은 남자가 15세에서 20세 사이에서 관례를 행하였는데, 성인(成人)들이 성인에 가까워진 남자를 가족과 여자의 손으로부터 분리시켜 결혼할 때까지 남자 집단을 격리하기 위하여 시작된 의식이다. 관례를 치루고 나면 어엿한 어른으로서의 사회 일원으로 어른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책임도 막중해 진다.

관례의 의식 중 가례(加禮)의 시행이 관례의 중심의식인데, 삼차례(三次例)의 순서를 거쳐 이루어진다. 초가례시(初加禮時)는 치관(緇冠), 계(笄), 복건(幘巾), 심의(深衣), 대대(大帶), 조구(條屨)를 착용하고, 재가례시는 모자(帽子)를 쓰고 조삼(阜衫)을 입고 혁대(革帶)를 두르고 혜(鞋)를 신는다. 삼가례시는 복두(幘頭), 란삼(襜衫), 대(帶), 화(靴)로 쓰고, 입고, 띠고, 신게 되어 있다. 이렇게 삼가례의 절차는 복식(服飾)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혼인(婚姻)이란 남녀가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혼(婚)은 남자가 장가 든다는 뜻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므로 혼인은 남자가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이란 이성(二姓)의 결합이요, 만복의 근원이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로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사람은 성년이 되면 먹고, 입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성(性)의 욕망을 채우게 되는데, 함부로 관계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一夫一妻)의 혼인이라는 관계를 이루어 낸 것이다. 둘째로 혼인이란 특이한 정신적 관계를 가진 것이다. 우선 사랑으로 맺어지고 부부 사이에 서로 공경하며 서로 참아가는 도리를 지키도록 되어 있다. 부부는 평

생 동안 고락을 같이하며, 일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로 혼인은 가정이라는 공동 사회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과정이며, 여기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다 함께 평안하게 사는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 넷째로 혼인은 하나의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도라 함은 관습, 도덕, 윤리, 법률 등 사회의 종합적인 규범을 말한다. 규범이란 우리의 사상이나 현실이 일정한 이상 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 윤리이므로 혼인은 결국 이러한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되고, 이와 같이 혼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의 제도라는 점에서 인류는 역사상 여러 가지로 변천해 왔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서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과 예절로 생활방식을 이어 내려왔으며, 이 전통적 예식도 알고 보면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는 중국의 주나라 시대의 혼례인 육례(六禮)를 갖추어 결혼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자사례(朱子四禮)를 많이 본받아 왔다.

상례(喪禮)는 자기 생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초종장례(初終葬禮), 연제(練祭), 소대상(小大祥), 담사(禫祀)까지 모시는 의례범절을 말한다. 사람의 죽음이란 두 번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떠나는 길이라 같이 살던 가족으로서서는 참으로 서운하고 애통한 마음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식까지 기르고 생활하며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생전에 출타했다가 다시 돌아올 기약을 하고 떠나도 서운한 마음 건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명(幽明)을 달리하는 마지막 마당에 얼마나 비통하고 애달프겠는가? 마음을 가다듬어 조리 있게 정성을 다해 망인을 편안하게 예절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셔야 할 것이다.

예문(例文)에 너무 소홀해서도 안 되며, 너무 지나쳐도 욕이 된다하였으니 상례예문(喪禮例文)에 따라 정성껏 편안히 모시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상례절차가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세속의 변천으로 외국문물이 범람하여 전통 의식절차가 점차 쇠퇴되면서 모든 생활문화가 동서양 혼성(東西洋 混成)으로 국적 없는 의식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만 상례는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망인을 편안히 모셔야 할 것이다.

제례(祭禮)는 언제부터 조상숭배의 의식으로 틀이 잡혔는지 알 수 없으나 씨족사회 때부터 조상의 혼령을 섬김으로서 재앙을 예방하고 후손의 번성을 기원하려는 의도에서 전래되어 왔고, 유교문화가 보급되면서 전통 사회 때의 엄격한 제례방식이 정형화(定形化)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예절을 제례라 하는데, 신명(神明)을 받들어 복을 비는 의식이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 해와 달, 별을 비롯하여 풍사(風師), 우사(雨師), 사직(社稷), 산악(山岳), 강천(江川), 선왕(先王), 선조(先祖), 선사(先

師)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나 그동안 인간 지능의 발달과 과학적 지식의 보급과 외래문화의 영향에 의하여 대부분의 제사 대상이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제사란 신명(神明)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의미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 오늘날 제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선조(先祖)에 대한 추모의 의례로 느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선조를 제사의 대상으로 느끼기 시작한 현상은 유학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조상숭배사상이 보편화되면서부터 나타난 결과이다. 그 가운데 성리학이 수입된 고려 말부터 함께 수입된 주자가례는 우리 민족의 조상숭배사상을 보편화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영향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치국이념(治國理念)을 채택한 조선시대에 들어서 더욱 커졌는데 성리학의 내용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예(禮)’로 보았기 때문이다.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일상생활에서 계절에 따라 관습적으로 되풀이 되는 민속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하나의 관습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지역적인 특성과 사회적 변천, 계절의 특성에 의하여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정착되고 행하여진다. 한국의 세시풍속은 태음력(太陰曆)에 의하여 시계(時季)를 산출하였으므로 중국 하대(夏代)의 역법(曆法)인 음력 정월을 설로 삼는 역법을 채택, 계승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경상남도와 고성은 내륙과 바다를 함께 끼고 있어 내륙적인 농촌의 세시풍속과 바닷가 해안에서 행해지는 어촌의 세시풍속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리고 토속신앙은 마을공동체신앙으로 고구려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마한의 천신제 등에서 보듯이 그 뿌리가 매우 깊다. 마을공동체신앙의 신성한 제의 공간(祭儀空間)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마을제당은 오랜 세월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면서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즉 마을제 기간 중에 금기(禁忌)를 지킨다든지 마을 사람들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 사람들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싹틔운 것이다. 제의가 끝나면 농악이나 가면극이 곁들여져 신명난 잔치로서의 기능은 물론 민속예술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을제는 신성기간을 설정하고, 화합단결을 다지며, 마을공동체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정치적 기능도 가진다. 또 흔히, 농악대, 줄다리기, 굿놀이들을 곁들인 축제기능도 가지며, 아울러서 그러한 예술적 기능을 발휘하여 민속예술의 전승 기반을 이루며 집단적인 예술적 욕구를 표현해 오기도 하였다.

고성에서의 가정신앙으로는 배서낭, 용신제, 부릿독을 들 수 있는데, 배서낭은 배의 서낭기 색깔을 보고 남서낭과 여서낭을 구별할 수 있다. 푸른색과 흰색일 경우 남서낭이고, 붉은색과 흰색이면 여서낭이다. 그리고 배서낭의 울음소리는 경고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태풍과 조난을 당할 여지가 있으면 운다고 한다. 서낭의 신체는 보이지 않으나 주인의 발

길을 따라 다닌다고 한다.

용신제는 7월 7일 저녁에 밀떡을 해서 용신에게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보통 머슴이 주관하는데, 밀떡, 장어, 갈치, 밥, 나물 등을 가지고 논고랑 앞에 진설한 다음 술을 따르고 절을 한다. 제물 가운데 물고기는 장어나 갈치 등 긴 것을 쓰는 것은 긴 물고기처럼 벼가 쪽쪽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다.

동화마을에서는 벼를 수확하면 나락 1섬이 들어가는 채독에 넣는데, 이 부릿독이 채워지면 그 위에 한지를 덮고 원새끼로 고정시킨다. 그런 다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고방제’라 한다. 부릿독은 안방에 두며, 양식이 떨어지면 먹기도 하는 비상 음식인 썸이다. 쌀은 매년 교체되며, 교체된 쌀은 경조사에 쓰지 않으며, 남에게 빌려 주지도 않고 가족끼리만 먹는다.

한국 전통사회의 종교의례로는 혈연중심의 유교적인 조상제사가 있고, 자연 중심의 마을제가 양립하고 있는데, 마을제는 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대동단합의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민속 문화의 뿌리는 신앙에 있다고 한다. 민간신앙은 한국인의 정신사와 생활사의 뿌리로 이루어 왔고, 한국인의 무의식 구조에 자리 잡고 있는 심층문화로서 그 사회적 역할도 컸다.

민속놀이의 범위는 어린애들의 놀이와 어른놀이로 나뉘는데, 놀이는 민속음악과 민속무용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민속놀이는 1~2명의 놀이에서부터 수백만 명이 동원되는 대동놀이까지를 모두 말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과 세시적인 것을 포괄한다.

고성의 민속음악(民俗音樂)은 타지방과 대동소이하며, 농사요(農事謠)와 어로요(漁撈謠)를 비롯하여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는 농악과 지신놀이, 민요무용인 캐지나칭칭나아네, 민요가락, 시조창, 그리고 기악으로 북장단 또는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하다. 고성의 민속음악으로는 고성농요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고성의 민속은 고성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특성을 가진 문화로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지역전통문화는 주변지역과 공유하기도 하며, 유입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음악이 발전하여 우리민족 고유악기를 만들었고, 자기의 염원과 생활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농사일을 하면서까지 노래를 불렀다. 민중들의 생산적 노동 속에서 발생하고, 발전해 오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이 창조된 것이다. 우리의 민족 악기의 큰 특색은 소리 울림이 맑고 부드러우며, 우아하고 처량하면서 강한 음색으로 주변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농악의 시원은 농경과 함께 원시사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역시 노동과 농경도구에서 발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고성의 농요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고성 농요를 비롯한 민요

는 인근지역의 구비문화보다 고성지역에서 채록된 민속놀이, 소리 등이 오히려 가치성이 높으므로 채록된 원음구술자료 및 관련 문헌 등의 보존과 계승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또한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놀이와 농요 역시 민속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구비문화이므로 보존을 위한 여러 방법으로 전승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다.

전통사회에서의 노동과 놀이가 별개인 것 같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예로서 품앗이를 통한 노동과 두레풍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진다. 놀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풍요로운 생산을 염원하는 놀이이면서 독립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특히, 농요 그 자체는 즐기기를 위한 노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면도 있다. 이러한 놀이는 신명을 불러 일으켜 노동으로 인한 고통을 잊게 하고 새로운 노동의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힘과 사기를 불어 넣으며, 고통스러운 중노동을 즐거운 운동으로 전환하여 농민들에게는 노동을 놀이가 되도록 하였다.

노동과 놀이가 결합된 것을 보면, 밭매기소리, 밭갈이소리, 논갈이소리, 씨레질소리,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등 다양한 노동에 놀이가 결부되어 있다.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이 놀이라는 기능을 지녔는데, 놀이 그 자체만으로는 미흡할지라도 놀이인 것이다. 또한 농요는 그 자체를 즐기기를 위한 노래로서 노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동의 기술이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예로서 보리타작 시 도리깨질소리는 도리깨를 돌리면서 타격하여 탈곡하는 것인 만큼 선창자와 후창자가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유지해야만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타작을 할 수 있다. 이때 물러섬/나아감/때림/들어올림과 같은 노동의 절차에 박자를 첨가하여 소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농요는 음악이자 놀이적인 성격을 지녔고, 노동의 기술적인 성격도 지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과 놀이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우리나라 원시농경은 기원전 4,000년 무렵의 신석기시대에 성립되었다고 보는데, 이때 채집이나 포획이 농경과 병행되었다고 보며, 벼농사는 신석기시대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경은 작물을 재배하여 식량을 획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인간 활동이다. 이에 논갈이, 밭갈이, 골타기, 씨뿌리기, 도랑치기, 논둑바르기, 논씨레질, 밭씨레질, 못자리만들기, 모심기, 물대기, 거름주기, 객토넣기, 논매기, 밭매기, 수확(베기, 꺾기, 뽑기, 캐기), 노적거리쌓기, 운반, 타작, 정곡, 씨앗관리, 저장, 도정 등이 있는데, 노동에 농요를 붙였다.

이러한 우리의 노동역사를 볼 때, 우리 민족은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 민족으로, 신라의 향가(鄕歌)에 풍요(風謠)가 있다. 일하면서 노래로 피로를 풀고, 마음을 호소하고 때로는 넘두리까지 했다. 이렇듯 이 노래는 정신위생에도 좋았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행동을 통일해

서 작업의 능률도 올리는 이중 효과가 있었다. 무거운 짐을 메고 나를 때와 말뚝을 박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할 때에도 노래를 불렀다.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중 작업이어서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노래를 부름으로써 오히려 능률이 오른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두레와 같은 집단작업을 할 때에는 풍물을 쳐서 흥을 돋우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힘들고 고된 노동에 노래를 도입해서 즐긴다는 것은 멋있고 풍류 있는 일이다. 즉 예술을 생활화하는 그 생활 자체를 예술화시키는 지혜가 있었다.

이러한 생산과정에는 노동 자체에 재미를 붙여넣는 놀이도 있고, 농업생산을 위한 주술적, 의례적인 행위에 재미를 창출하는 놀이도 있다. 앞쪽은 노동과 관련된 놀이이고, 뒤쪽은 주술 또는 의례에 관련된 놀이이지만, 모두 농업생산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다. 농업놀이의 예로는 벗가랏대세우기, 줄당기기, 호미씻기, 모의논매기, 두레풍물, 농기싸움, 농요 부르기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노동과 놀이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놀이 중 농요에서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은 소리이다. 우리는 단순하게 소리와 노래가 같은 것으로 취급해 버리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소리는 육성(肉聲)이다. 소리는 가슴에서 치솟는 것을, 그리고 마음에서 쏟아지는 것을 타고난 자기의 목을 써서 각자 제 음식, 제 울림으로 소리 내어야만 비로소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육신의 울림, 목숨의 울림 같은 것이다. 노래가 예술이라면 소리는 생명이며, 노래가 재주로 부르는 것이라면 소리는 염통으로 내는 것이다. 소리는 생명 그 자체의 직접적인 자기표현이다. 우리는 명창이나 전통 민요를 부른 사람들을 노래를 잘 하는 가수라 하지 않고 소리꾼이라 부른다.

소리는 인간적인 것의 직접적인 발성이다. 육체적이고 생리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인간의 고뇌, 슬픔, 기쁨의 약동이 소리에 담긴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서러움, 애달픔이 거기 담기는가 하면, 흥과 신명도 거기 담겨서 표현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생리적이고 인간적이다.

특히, 노동요는 소리로 부르는 일터에서의 민요이다. 민요의 기원을 노동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로 볼 때, 민요 가운데 참된 민요가 노동요이고 민요의 중심적 위치가 된다. 지금 남아 있는 민요들도 대부분 구전되어 민중들의 애환이나 그들의 이상과 정서 등이 담뿍 담겨져 있으며, 민중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전해진 것이다.

노동요는 노동하면서 부르고 휴식을 취하며 불렀으며,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여 공동체의식을 다질 때 불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노동요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훈훈한 분위기를 주는 음악적, 정서적 의미가 있고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가 공존한다.

앞에서 언급한 민속의 전반적인 내용은 민간전승으로 형성되는데, 민간전승이란 민중들

사이에서 문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문화현상이다. 이것은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내재문화(內在文化)인 동시에 이상문화(理想文化)로서 도시사회의 표층문화(表層文化)에 반대되는 기층문화(基層文化)이다. 이 문화의 특징은 소지역성(小地域性), 고립성(孤立性), 집단결합성(集團結合性)이 강하다. 또 시간적으로 볼 때는 통시성을 갖고 공간적으로는 기후와 풍토의 영향을 받으며, 민족이라는 주체에 의해 형성되는데, 전통은 물론 인습(因習)까지도 포함된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반도와 남만주 일원에 걸친 기후와 풍토 속에서 우리의 고유문화를 형성하였는데, 그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해 살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경문화(農耕文化)를 형성했다. 따라서 농사와 관련된 세시풍속(歲時風俗)이 많고, 곡신숭배사상(穀神崇拜思想)에서 비롯된 풍년기원축제(豐年祈願祝祭)와 추수감사축제(秋收感謝祝祭) 등이 민족의 신앙세계를 지배해 왔다.

두 번째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환경 속에서 온돌(溫突)문화라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으며, 기후의 변화에 따라 거기에 알맞은 천으로 옷을 해 입었다.

세 번째로, 혈연(血緣)의식이 대단히 강하여 가족이나 친족 간의 연결의식이 두터웠다. 상하 관계도 연령보다는 향렬(行列)이 우선이었으며, 문중조직과 족보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마을의 구조도 집성촌(集姓村=同姓村)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예컨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삼아야 했고, 주거환경도 온돌이 적합하였으며, 경작지 근처에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집성촌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일가친척이 마을을 이루고 함께 살다보니 상부상조하는 협동심이 더욱 강해지게 마련이다. 민속놀이도 줄다리기와 같은 풍년기원제의(豐年祈願祭儀)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풍요와 다산(多産)이 중요한 신앙세계를 형성하였다. 이 외에도 만물유신(萬物有神)의 신관(神觀)으로 말미암아 신앙심이 강하였으며, 인륜(人倫)에서도 부끄러움을 최대의 수치로 여겨 예의와 지조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세대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서구(西歐)사상의 유입과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의 전통문화까지도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옛 것에 대한 향수도 짙어져 가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옛 것에 대한 그리움 그 자체만이 아니고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현대적 가치관을 모색해 보려는 인간성 회복의 욕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생활민속

제 1절 의생활(衣生活)

1. 고성의 전통의상

경남지방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는 없으나 삼베, 모시, 무명길쌈의 고장으로 서민들의 의상재료를 생산하던 곳이라 의상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지방은 산간평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 삼(대마)이나 목화, 뽕나무 등을 이용하여 무명과 삼베 등을 생산한 것을 볼 때, 옛날부터 자급자족하여 왔으며, 옷의 형태와 옷감의 질은 우리나라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겨울에는 솜을 넣어 몸을 따뜻하게 하였고, 여름에는 삼베옷을 주로 입었다. 바닷가의 사람들은 작업을 하기 편한 옷으로 저고리와 바지의 단을 짧게 하여 입었다. 한일합방이후 도시지역에서는 남자는 ‘단꼬즈봉’, 여자는 ‘몸빼’가 유행했으나 보수적 기질이 강한 고성지방에서는 바다 일을 하는 사람 외는 즐겨 입으려 하지 않았다. 양복이 등장한 것은 1930년대쯤이며, 해방이후부터 양복을 많이 입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성지방 사람들은 전통의상을 즐겨 입었다.

전통적인 복장에서 남자의 복장은 바지저고리와 버선이며, 신분여하에 따라 두루마기와 도포, 관모를 착용하였다. 의복의 차림새에 따라 계급이나 신분이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여자 복장은 바지저고리, 치마, 버선으로 구성되어 미적인 맵시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색이다. 저고리의 깃, 소매의 끝동, 겨드랑이의 곁마기를 당홍색이나 자주색의 단을 넣고, 고름에 금박을 넣은 삼회장저고리에 청홍색 수란치마를 받쳐 입었다.

어린이 복장으로 남자 아이는 바지저고리를 입었고, 여자 아이는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그러나 관례를 치르기 전 남자 아이는 두루마기를 입지 않았으며, 여자 아이는 쓰개치마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복은 농사지를 때 입는 복장인데 남자는 흰 중우 적삼이고, 여자는 치마에 적삼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썼다. 필요에 따라 행주치마를 두르기도 했고, 남자는 머리에 흰 수건을 동이거나 햇볕을 가리기 위해 샷갓을 쓰기도 했다. 혼례복은 전향적인 한복 차림에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하였으며, 신부는 원삼(圓衫)과 족두리 차림인데 머리에는 쪽진 큰 낭자에 다래를 얹어 용잠을 꽂고 큰 땡기를 드렸다.

옛날의 상례복은 매우 엄격하다. 부모상을 당하면 짓것이라 하여 거친 광목 베로 상복을 만들고 그 위에 삼베로 만든 중단(中單)을 입고 행전을 치며, 그 위에 다시 큰 상복을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요질(腰經)을 띠고, 머리에는 두건과 굴건(屈巾)을, 또 수질(首經)

을 쓰고 지팡이인 상장(喪杖)을 짚고 짚신을 신었다. 여자 상주 역시 상복 차림을 하고 머리에 수질을 쓰고, 흰 땡기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상장을 짚고 짚신을 신는 것은 남자 상주와 마찬가지로이다.

지금은 화학섬유의 대중화로 여자는 양장을, 남자는 양복이 평상복으로 변했고, 전통 한복은 명절 때나 혼례 때의 예복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리 고유의 전통복장은 보기가 어려워졌다.

2. 습속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흰 옷을 즐겨 입었다. 백색은 고상, 고결, 청아, 담백, 광명, 희망, 정결, 순박, 명랑, 엄숙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성을 표현한 것이다. 옛날에는 평복, 혼례복, 상복 등 세 가지 의복이 있었는데, 문헌기록을 보면,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부여조에 의상백(衣尙白)이라 하였고, 수서(隋書)에도 복색상소백(服色尙素白)이라 하여 흰 복색을 숭상하였고, 고려도경에 귀부인의 포는 남자와 같은 백저포(白苧袍)를 입었고, 백저포로 만든 흰색 모시 겹옷을 입었다고 한다.

흰 옷을 숭상한 이유는 태양숭배 사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민족의 소박함과 결백한 성격을 백의호상(白衣好尙)으로 나타내는 습속이 생겼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백색옷을 입기 시작했는지 문헌이 없어 알 수는 없으나 부여시대부터 백의를 입었다는 고려견문록(高麗見聞錄)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가 맑고 온화하여 계절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 봄에는 겹옷을, 여름에는 홑옷을, 가을에는 진솔옷을, 겨울에는 핫옷을 입었는데, 특히 흰옷을 즐겨 입었기에 “백의민족”이라 불렀을 것이다.

신라시대에는 혁거세 왕 8년(BC50)에 백성들에게 양잠을 권장하였고, 남해왕 9년(AD32)에는 경주를 동서로 나누어 부녀자들로 하여금 베 짜기 대회를 했는데 이를 가배(嘉俳)라 했다.

삼국시대 의복은 옛 사기(史記)나 고분벽화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대체로 저고리 유(梁), 바지 고(檀)와 치마 상(裳), 두루마기 포(梅)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머리에는 관, 허리에는 대(帶), 발에는 화(跳) 또는 이(履)가 첨부되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고급스러운 삼베와 모시를 생산하여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백제 고이왕 52년(285)에 서소 등의 직공을 일본에 보내 베 짜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고려 충렬왕 2년(1276)에는 한 여승이 흰 모시를 왕에게 바쳤는데, “가늘기까매미날개 같고 꽃무늬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충숙왕과 충목왕 때에는 “무늬

있는 모시를 원나라에 보냈다.” 는 기록도 있다. 송나라 서공(徐兢)의 고려도경에 “모시 베가 깨끗하고 희어서 옥과 같다.” 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고려 공민왕 13년(1364)에 당시 재상이었던 문익점(文益漸)이 중국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오면서 붓 뚜껑에 목화씨를 숨겨 온 것이 계기가 되어 무명옷을 입게 된 것이다.

목화가 전래되기 전에는 옷감으로 삼베가 쓰였다. 삼베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오늘날까지 생산이 끊어지지 않고 그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삼베는 전국적으로 생산되지만 특히, 경상북도의 안동포(安東布), 강원도의 강포(江布), 경상북도의 영포(嶺布), 함경도의 북포(北布), 전라남도 곡성의 돌실나이, 경상남도의 남해포(南海布) 등이 유명하다. 그러나 고성에서도 삼을 재배하여 자급자족하였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50년대 이전에는 목화, 삼, 모시를 전적으로 재배하여 조상들이 손수 재봉하여 한복차림이 제법 보였으나 1960년대부터 재배농가마저 없어졌고 현대에 접어들면서 의식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지의 등장과 양복, 교복 등으로 의상이 바뀌면서 전통 의상은 명절이나 의례복으로만 사용되어오고 있다.

우리는 의복을 일반적으로 의례복(儀禮服)과 평상복(平常服), 노동복(勞動服)으로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다. 의례복이란 의례 때 특별히 갖추는 예복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례는 사례(四禮), 즉 관혼상제였으며, 특히 혼례 때 일반가(一般家)에서는 최상의 치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일반 민중들의 의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사례 중에서 관례(冠禮)는 조선 후기 단발령에 의해 많이 약화되어 형식만 남아있고 그 실례가 흔치 않으며 여성의 계례(笄禮)는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치례는 혼례 때이며 이승에서 최상의 치례를 하고 일생에 한번 관리(官吏) 차림과 관리의 행차를 할 수 있는 예우도 받게 된다. 사람은 일생에 두 번 큰 호사 치례를 하게 되는데, 혼례 때와 죽어서의 수의(壽衣) 치례이다. 따라서 수의도 혼례 때와 같은 격식으로 차리게 된다.

상례 때는 상복(喪服)을 착용하는 상주와 수의를 입은 사자(死者) 사이에서 상반되는 대립성을 갖게 된다. 즉 전자는 죄인이라 하여 가장 거친 삼베로 입으며, 후자는 이 세상에서 최상의 치례로서 비단이라고 하는 명주옷을 입힌다.

그리고 제례 때는 의관을 갖추는데, 남자는 흰색의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갓이나 유건을 쓰고 여자도 흰색 옷을 입거나 여유 있는 집에서는 ‘천담복(淺淡服)’이라 하여 엷은 옥색의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장식 없는 검정색 족두리를 쓴다.

평상복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계절에 맞도록 여름옷은 모시나 삼베를 이용하되 홀로 하고 봄과 가을에는 누비옷을 입었으며, 겨울에는 명주나 무명의 겹옷이나 솜옷을 입었다. 여름에는 등(藤)이나 대나무로 만든 등걸이 또는 토시를 사용하여 더위를 이겼고,

겨울에는 솜이나 털로 만든 토시를 끼고, 머리, 귀, 얼굴에도 방한 용구를 써서 추위를 막았다.

남자들은 바지저고리를 기본으로 입었고, 나들이 때에는 겹옷으로 두루마기나 도포를 입었다. 1800년대 말부터 입기 시작한 서양복은 1900년대 와서 많이 보급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한복과 양복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현상이 나타난다.

여자들의 의복은 매우 보수적이었는데, 일부 신식 여성이나 학생,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치마저고리의 한복차림이었으며, 여유 있는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입었다.

기혼 남자들은 망건에다 탕건, 정자관, 갓(黑笠)을 썼는데, 단발령 이후에는 머리카락을 깎아서 남자 어른들은 외출 때 서양식 모자를 쓰기도 하였다. 1895년 의제(衣制)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단발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이었는데 ‘효의 근본이념과 한민족의 얼을 말살시키는 일’이라 하여 단발령은 반일(反日)감정으로 번졌고, 뜻있는 사람들은 자결까지 하였으나 차츰 서양화의 대세에 따라 단발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여성이 ‘몸빼’를 입기 시작한 것이다. 1940년대 초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여성 인력의 동원을 목적으로 간편한 복장이 요구되자 강제로 입힌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치마 여밈은 흔히 ‘양반은 왼쪽으로 여미고 상민은 바른쪽으로 여민다’고 하였으나, 이는 당쟁(黨爭)의 여파가 남긴 일이고, 지역과 가문에 따라 상대방을 멀리해 온 악례일 뿐이다. 남인계(南人系)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에서만 오른쪽으로 여미었고, 대부분이 왼쪽으로 여미었다. 오른쪽으로 여미는 곳은 경상도에서도 남인세력이 강했던 지역과 특이하게 제주도와 거제도 쪽이다. 조선후기로 오면서 당파의 위세는 가문과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었고 이 현상은 여성의 복식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쳤다.

노동복은 여름에 삼베옷, 겨울에 무명옷을 주로 입었고 신발은 짚신을 신었다. 우천시(雨天時)에는 갈대로 만든 삿갓을 썼고, 띠(茅)나 벼짚, 풀을 재료로 엮은 우장(雨裝)이나 도롱이, 접살을 비옷으로 입었으며, 나막신을 신었다.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방과 달리 농부들은 밭일이나 일반 노동을 할 때는 무명옷에 갈물을 들인 ‘갈옷’을 입었고,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자는 무명으로 만든 ‘물소중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

산에서 목축을 하는 목자(牧者)들은 겨울에는 털로 된 것들을 이용하였는데, 털모자나 털옷(가죽 두루마기)을 입었고, 하체에는 허벅지까지 긴 발레(털가죽)를 꿰고 가죽 버선을 신었으며, 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피를 덧신었다.

제 2절 식생활(食生活)

1. 고성의 전통음식

경남지방은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부나 북부지방에 비해 기후가 더운 관계로 조리를 할 때 소금이나 간장, 고춧가루를 많이 쓰는 편이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음식이 대동소이하지만, 경남지역 역시 주식에는 쌀밥, 보리밥, 잡곡밥 등이고, 부식은 간장, 된장, 젓갈, 김치, 요리를 가한 육류, 어류, 채소류, 해조류 등이 있다. 씨래기국, 콩나물국, 미역국 등은 전통적 기호식품이며, 술은 간식으로 꼽는데 탁주(막걸리), 소주, 약주 등은 우리나라의 전래 술이다. 명절이나 고사, 흥사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떡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죽, 묵 등은 식량 절약과 별미로 먹었다. 이러한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된 도구로는 맷돌, 절구통, 방앗간, 장독대 등이 가정마다 필수품으로 비치되었지만, 생활의 과학화, 현대화에 밀려 우리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졌다.

고성지방은 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질로 쌀과 보리가 주식이었고, 바다를 끼고 있어 각종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산물과 해산물이 조합을 이룬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주식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는 흔한 해산물 조리방법이 발달하였으며, 그 중에도 멸치젓이 유명하였다. 소금에 절인 생선이 밥상에 자주 올랐으며, 쌀과 밀, 보리 등을 해산물과 함께 조리하는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는데, 전복이나 대합에 쌀을 넣어 죽을 끓이거나 모자반과 미역을 이용하여 국을 끓여 여기다가 밥을 말아먹기도 하였다. 고성지방은 일찍부터 마른멸치를 우려내어 시원한 국물 맛을 낼 줄 알았고, 우렁챙이(멍게) 데친 것과 대구포 등을 초고추장에 찍어먹었다.

해안지방에는 바지락, 고막 같은 조개류가 많이 잡혀 그 요리법도 다양하며, 야참으로 고막, 게, 가재 등을 삶아 먹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은 조반석죽으로 끼니를 이어가기도 하였으며, 춘궁기에는 김치국밥, 썩밥, 시래기죽, 송기죽 등과 수제비나 칼국수, 콩죽, 우무콩국 등으로 주식을 삼기도 하였다.

일상식으로 면류는 조개 등 해산물로 국물 맛을 내어 썼으며, 김치류는 배추국김치, 동김치, 국물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젓국김치, 파김치, 깍두기 등을 담가먹었는데, 배추김치는 고춧가루 마늘 등 기본양념에 굴, 배, 청각, 멸치젓갈을 넣어 담고, 깍두기는 기본양념에 멸치젓과 불락을 넣어 만들어 먹기도 한다.

간장은 전통 콩장과 멸치젓갈로 만든 멸장을 만들어 먹으며, 해안지방에서는 ‘어장’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이외에 장의 종류로는 된장, 고추장, 막장, 쌈장 등이 있다. 젓갈은



전어젓, 메가리젓, 갈치속젓, 멸치젓 등 여러 가지 젓갈이 있으며, 국은 된장국, 시래기국, 장어국, 갈치호박국, 생선매운탕, 추어탕, 바다고기국, 생선미역국 등 다양하며, 생선미역국을 끓일 때는 낭태, 노래미 등 싱싱한 생선을 넣고 콩장이나 멸장으로 간을 하여 끓인다. 나물은 일반적인 나물 외에 툇나물에 두부를 넣어 무쳐서 먹기도 한

다. 생선회는 콩치나 뱀어회를 즐겨먹는다. 간식으로는 쌀강정, 엿, 유과, 수수엿, 녹두묵양갱 등을 만들어 먹는다.

문헌을 살펴볼 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고성현의 토산(土產)으로는 “녹마(綠磨), 대구어(大口魚), 복(鰻), 해삼(海蔘), 석화(石花), 청어(靑魚), 문어(文魚), 전어(錢魚), 홍합(紅蛤), 곱죽(藿竹), 송심(松蕈), 석류(石榴), 유(柚), 왜저(倭楮), 향심(香蕈), 시(柿), (新增) 황어(黃魚), 석수어(石首魚), 수어(秀魚), 로어(鱸魚), 오적어(烏賊魚), 낙체(絡締), 자하(紫蝦), 맥문동(麥門冬), 녹용(鹿茸), 차(茶)”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 중 향심은 표고(蔞古)로서 경상도 지역의 산지로는 양산, 울산, 동래, 기장, 함안, 고성, 거제, 사천, 하동, 진해 등이라고 하는데, 표고는 맛이 좋아 각종 음식의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의 토산품이라 적고 있으며, 동의보감에 “표고는 성질이 평순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정신을 좋아지게 할 뿐 아니라, 입맛을 나게 하며, 구토나 설사를 멎게 한다. 그리고 향기로우면서 맛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54년)에는 “땅은 벼, 조, 콩, 보리 재배에 적당하다. 토공은 굴, 밀(黃蠟), 표고버섯, 송이버섯, 작설차(雀舌茶), 모래무지, 말린조개(乾蛤), 대구, 문어, 전복(生鮑), 도미(都音魚), 미역(藿), 우무(牛毛), 참가사리(細毛), 부래풀(魚膠), 왕대(蕩), 영지 약재에는 맥문동(麥門冬), 방풍(防風)이요, 토산은 녹반(礮礮)이다(현(縣) 남쪽 주악곶(住岳串)의 임해암산(臨海岩山)에서 나는데, 구워서 만들며 품질이 좋다.” 라 하였고,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1660년경)에는 “녹반은 주구곶 해안에 임한 데서 난다. 대나무(竹), 맥문동(麥門冬), 녹용(鹿茸), 차(茶), 송이버섯(松蕈), 석류(石榴), 유자(柚), 왜저(倭楮), 자란도(自卵島)에 심는다. 향심(香蕈), 감(柿), 소금(鹽), 황어(黃魚), 조기(石首

魚), 송어(秀魚), 농어(鱸魚), 오징어(烏賊魚), 낙지(絡繹), 자합(紫蛤), 대두어(大口魚), 전복(鮑), 해삼(海參), 굴(石花), 청어(靑魚), 문어(文魚), 전어(錢魚), 홍합(紅蛤), 미역(藿)” 등으로, 여지도서, 경상도읍지, 대동지지, 영남읍지, 교남지 등에도 적혀 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각 지역의 음식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지역 특산물로 소개하고 있다. ‘경남의 맛 30선’을 보면, 마산 아구찜, 진주 육회비빔밥과 헛제사밥, 통영 충무김밥과 굴요리와 이순신밥상, 사천 봉장어구이와 물회, 김해 양념숯불장어구이와 진영갈비, 밀양 돼지국밥과 흑염소불고기, 거제 멧게비빔밥과 볼락구이, 양산 산채정식, 의령 메밀소바, 함안 소고기(장터)국밥, 창녕 송이백숙, 남해 죽방렴멸치와 갈치회, 하동 재첩국과 참게탕, 산청 한방오리백숙과 어탕국수, 함양 연잎밥과 흑돼지구이, 거창 원동갈비찜, 합천 황토한우구이와 산채한정식 등과 함께 고성엔 갯장어회를 소개하고 있다.

갯장어는 7~8월에 고성 자란만 일대를 비롯하여 따뜻한 남해 일부 해안에서 주로 서식하며, DHA가 들어 있어 혈전을 예방하고 껍질에는 관절을 튼튼히 해주는 콘드로이친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예방에 좋은 식품이다. 갯장어는 험악한 생김새와 달리 맛이 부드럽고 담백하며 고소하여 얇게 회로 썰어 먹거나 살짝 익혀 샤브샤브로 먹으면 좋다. 옛날에는 뱀처럼 생겼다고 하여 거의 먹지 않았으나, 남성의 보양식이자 여성의 미용식 대용으로 알려지면서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하여,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고성지방의 갯장어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와 지포마을의 ‘돌밭’에서 멸치, 갈치, 농어, 송어 등을 잡았다. 동화리는 해안선이 마을 깊숙이 파고들어 자연을 이용한 바닷가에 돌을 쌓아 고기를 잡았다. 옛날에 동화리 외에 인근마을인 지포, 임포, 가룡, 용태 지역에 각각 2개씩 있었는데 파도로 없어졌다. 돌밭은 돌을 먼저 쌓는 사람이 주인이 되며, 지금으로부터 60여 년전만해도 돌밭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형태가 없어진 것은 40년이 된다고 한다. 주로 잡히는 고기는 멸, 송어 등이며 반디(반두)로 걸어 올리는데, 하루 2번 썰물 때 밭을 보러간다. 밭은 임통 부분 앞에 대나무로 대었고 통밭을 치기도 했는데, 동화리는 60여년 전에 민씨네가 마지막으로 어로행위를 했다고 한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가족, 친족, 이웃 사람끼리 나누어 먹었고 혹은 쌀과 바꾸어 먹었다고 한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마을사람들도 고기를 잡았고 고기를 잡아 간 마을 사람들은 돌밭을 보수할 때 같이 도왔다고 한다.

경남지방의 통상적인 음식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밥 종류로는 쌀밥, 보리밥, 팔밥, 콩밥, 녹두밥, 조밥, 감자밥, 옥곡밥, 비빔밥, 약밥, 고기밥, 굴밥, 김치밥, 무밥, 횃밥 등이 있다. 김치 종류로는 통김치, 나박김치, 보쌈김치, 장김치, 찐김치, 비늘김치, 풋김치, 가지김치, 열무김치, 오이김치, 채김치, 무김치, 속박이, 석박이, 동치미, 신겨지, 찐지, 오이지, 오이소박이, 깍두기, 엇저리, 굴깍두기, 오이깍두기, 멸치젓 깍두기, 곤장이젓 깍두기 등이 있다. 나물 종류로는 가지나물, 고비나물, 숙주나물, 콩나물, 녹두나물, 호박나물, 미나리나물, 풋나물, 박나물, 취나물, 버섯나물 등이 있다. 어육 종류로는 소고기 갈비찜, 간, 천엽, 굽창, 갈비구이, 염통구이, 섭산적, 파산적, 족편, 장조림, 육회, 간조림, 전골, 불고기, 설렁탕, 꼬리고음탕, 족탕, 저육편, 닭고기, 꿩고기, 영계백숙, 닭볶음, 닭찜, 닭고기구이, 닭적, 닭조림, 닭고음탕, 꿩고기구이 등이 있다.

생선회 종류로는 도미회, 전어회, 서대회, 도다리회 등 여러 종류가 많다. 목 종류에는 녹두목, 메밀목, 청포, 도토리목 등이 있다. 국 종류로는 냉이국, 미역국, 아욱국, 토란국, 콩나물국, 고사리국, 조개국, 준치국, 명태국, 조기국, 대구국, 토장국, 산나물국, 버섯국 등이 있다. 떡 종류로는 흰떡, 시루떡, 설기떡, 찰떡, 팔떡, 녹두떡, 개피떡, 서속떡, 쑥떡, 송기떡, 개떡, 호박떡, 경단, 절편, 백편, 녹두편, 느티편, 인절미, 골무떡 등이 있다. 과자 종류로는 강정, 깨엿, 잣엿, 호도엿, 밤엿, 호콩엿, 콩엿, 약과, 생강 전과, 굴전과, 대추단자, 밤경단 등이 있다. 음료 종류로는 수정과, 식혜, 미수, 배화채, 복숭아화채, 귤화채, 딸기화채, 앵두화채, 진달래화채, 보리수단, 얼음수박, 생강차, 꿀차, 인삼차, 유자차, 계피차 등이 있다. 술 종류로는 매실주, 마늘주, 오미주, 죽순주, 송순주, 과하주, 백화주 등이 있다. 죽 종류로는 흰죽, 녹두죽, 팔죽, 잣죽, 보리죽, 조죽, 콩죽, 깨죽 등이 있다.

경상도는 지리적으로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어 전라도와 비슷한 기후이지만 해산물의 종류가 다르며, 곡물도 비교적 골고루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산물이 풍부하여 해산물

을 육지의 고기라고 할 정도로 많이 먹으며, 또 해산물을 회로 먹는 것을 제일로 여기고 있다. 특히 경상도의 음식은 맵고 짠 것이 특징이며, 상차림에 있어서는 다양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으며 해산물을 많이 이용하여 음식이 푸짐하다.

2. 습속

벼농사의 시작은 삼국시대부터라고 보며, 이때부터 쌀밥이 보편화되고 식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의 경우 철기문화의 발달로 농기구 제조기술이 뛰어 났을 것이다. 또한 백제는 수리시설이 뛰어 났으며, 신라는 중엽에 벼농사가 보급되었다고 본다. 삼국시대 하층민의 주식은 피, 조, 기장, 콩 등의 잡곡이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도서지방에 방목장(放牧場)을 두어 육류를 조달하였고, 동해안의 좋은 어장과 잠수 기술도 꽤 발달하여 잠수 어업이 이미 8세기경 성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먹는 빙고(氷庫)의 등장은 신라인의 지혜를 짐작케 한다.

고구려는 사냥으로 잡은 야생동물이나 소, 닭 등을 식용으로 사용하였고, 잉어를 못 속에 양식하기도 하였으며,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민물고기를 잡아먹었을 것이다.

백제는 서남해안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얻었고, 7세기 중엽에는 간장과 된장을 담궈 먹기 시작하였으며, 김치의 등장도 이때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삼국시대의 식생활은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졌고, 벼농사와 곡류 중심의 식생활로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는 우리 식생활 문화의 변천기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살생을 죄악시 하였으므로 어육식(魚肉食)보다는 채식을 주로 하였으나, 몽고의 침입을 받은 후부터 육식도 하였다. 몽고나 원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북방음식이 전래되었는데, 몽고의 설령탕, 원의 소주, 사탕, 후추 등이 그 대표적인 북방음식이다.

육류를 얻기 위해 여러 곳에 목장을 설치하고 전목사(典牧司, 목축을 관장하는 관청)를 두어 말, 소, 닭, 돼지, 오리 등을 사육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 <잡속조(雜俗條)>에 보면, 나라에서는 양과 돼지를 길렀는데 왕공귀인(王公貴人)만이 먹었고, 일반 백성은 수산물인 미꾸라지, 전복, 방합, 진주조개, 새우, 게, 문합, 굴, 거북을 먹었고, 해조, 다시미는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즐겨 먹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수산물을 즐겨 먹은 부류는 서민들이었고, 그 종류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이규보의 『가포육영(家圃六詠)』에 보면, 오이, 가지, 무, 파, 아욱, 박 등의 식품이 나오고 이규보의 시에도 토란국, 냉국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밥과 국이 식생활에서 기본적인 차림이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한림별곡(翰林別曲)」에 황금술, 잣술, 술술, 댓잎

술, 배술 등의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술의 종류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문종 때 도염원(都鹽院)을 두어 소금의 전매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금이 중요한 조미료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고려의 시절음식으로는 삼진날의 화전, 단오의 수리치떡, 중앙절의 국화주, 동지의 팔죽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는 우리 음식의 발달, 완성시대라 하겠는데, 오늘날의 식생활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강희맹의 『금양잡록(衿陽雜錄)』에는 주식의 경우 벼 27종, 콩 8종, 팥 7종, 녹두 4종, 완두 1종, 기장 4종, 조 15종, 파 5종, 당서 3종, 보리 6종이 소개되어 있다. 당서(唐黍)란 옥수수를 말하며, 1700년대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듯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어류 50여종, 패류, 해조류 기타 수산물이 각각 수십 종이 망라되어 있고,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는 여러 종류의 것같이 소개되어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고추는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크게 보급되었으므로 이때부터 매운 김치가 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황식품으로 뺄 수 없었던 고구마는 영조 39년(1763) 조엄이 대마도에서 가져 왔고, 감자는 고구마보다 60년 정도 늦게 북관을 통하여 들어 왔으며, 호박은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에 의해 유입되었다.

기호식품인 담배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남방으로부터 전래되었는데, 처음에는 ‘남초(南草)’ ‘남령초’ ‘담바귀’ 등으로 불렸다. 커피나 홍차는 1890년경 궁중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식생활은 중기를 지나면서 남방식품이 들어오고 동시에 외국의 조리법이 수입되면서 매우 다양해졌는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기록된 풍부한 시절음식으로도 조선시대의 음식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은 음식으로부터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의 발달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일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 한국은 발효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발효미의 종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밥상은 80~90%가 발효음식인데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가 모두 삭혀 먹는 발효식품이고, 김치, 깍두기, 물김치, 파김치, 갓김치 등 김치류가 발효식품이며, 새우젓, 조개젓, 굴젓 등 젓갈류도 발효식품이다.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한국전통 저장발효식품 중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간장과 된장은 콩과 소금을 주원료로 하여 콩을 삶아 이것을 띄워 메주를 만들었다. 메주를 소금물에 담궈 발효시킨 뒤에 남는 여액을 간장이라 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된장이라 하여 식용해 왔다.

고추장은 콩으로부터 얻어지는 단백질원과 구수한 맛, 찹쌀, 멍쌀, 보리쌀 등의 탄수화

물식품에서 얻어지는 당질과 단맛 그리고 고춧가루로부터의 붉은 색과 매운 맛, 간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간장, 소금으로부터의 짠 맛이 한데 어울리는 조화미(調和美)가 섞인 영양 식품이다.

된장은 옛부터 오덕(五德)이라 하여 "첫째로, 다른 맛과 섞어도 제 맛을 낸다(단심) 둘째로,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다(항심) 셋째로,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제거한다(불심) 넷째로, 매운 맛을 부드럽게 한다(선심) 다섯째로,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잘 이룬다(화심)"라고 하였다. 특히, 청국장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만들어 먹는 식품으로서, 콩과 볶짚에 붙어 있는 간상균 분해효소를 이용하여 만든 장이 '청국장'이다. 콩 발효식품류 중 가장 짧은 기일에 완성할 수 있으면서도 그 풍미가 특이하고, 영양적,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

제 3절 주생활(住生活)

1. 고성의 전통주택

경남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라 하겠다. 대표적인 주거유적으로는 1978년 연세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고성군과 가까운 통영시 옥지면 노대리 조개더미(貝塚)로 신석기 유적이 있고, 이곳에서는덧무늬토기와 민토기를 비롯하여 간석기, 숫돌, 밀계, 굽계, 지르계, 톱니날 굽계, 콧날등 밀계 등 후기 구석기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1988년 부산수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산등유적으로, 이곳은 신석기 전기에서 후기에 걸친 사람들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왼팔에 팔찌 3개를 끼고 바로퍼 문기를 한 13세~15세 여자로 추정되는 인골이 나왔으며, 출토된 집석유구(集石遺構)는 조개류를 구워먹던 곳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고성지역의 선사유적으로는 동외동 패총을 들 수 있으며, 이곳은 고성지방의 그 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귀틀집(통나무를 井자형으로 귀를 맞추어 쌓아 올려 벽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지붕을 이은 집)에서 살았다. 후에 농경문화가 싹트고 사람들이 한곳에 정착하여 취락을 이루어 살면서 추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초가집이 생겨났다. 초가는 벼농사를 짓는 내륙지역에서 흥하였고, 주로 해안지방에서는 돌담을 쌓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갈대를 엮어 지붕을 씌웠다. 일반적인 건물의 형태는 본채와 행랑채가 마주보게 되어 있고, 방은 온돌식이다. 구조로는 본채에 큰방, 작은방, 부엌, 마루로 된 3칸이며, 행랑채에 사랑방과 고방, 마루, 대문으로 구성된 3칸~4칸으로 되어

있다. 부엌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특징적으로 본채에는 밥 짓는 부엌이 있고, 행랑채에는 소죽을 끓일 수 있는 부엌이 따로 있었다. 뒷간은 행랑채에 붙어 있거나 뒷곁에 두었으며, 규모가 큰 집 외에는 대문이 거의 없고, 사립문만 있었다. 그리고 땅이 좁은 해안가는 집의 규모가 작아 사랑채를 별도로 두기란 어려웠고, 툇마루와 방 하나로 된 집도 많았다. 특히 바닷바람을 견디고 추운 겨울 보온을 위해 집을 낮게 하고, 돌로 담을 쌓았다.

경남지역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ㄱ자형, 一자형, ㄷ자형, ㄹ자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一자형의 집은 일반적으로 많은 형태로서 부엌이 서쪽 편에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루가 있고, 그 다음이 건넌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루가 없을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집에는 방이 둘 연달아 있는 것으로 이 一자형의 집은 채광이 좋다. 방바닥은 샷자리를 깔고, 그 벽은 물새 및 흙벽 그대로여서 미관상 좋지 않으나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것이 특징이다. 一자형의 집을 초가삼간이라고도 하는데, 고성은 한반도의 남단에 자리 잡고 있어 일본 해적의 침입을 수없이 받아 왔기 때문에 왜적들의 침입이 있을시 언제든지 미련 없이 버리고 피난갈 수 있도록 지어진 관계로 겨우 생활할 수 있도록 허술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
마당			

부엌	안방	건넌방
마당		

• ㄱ자형의 집은 그 모양이 ㄱ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지방의 ㄱ자형 집은 남쪽 편이 부엌, 그 오른쪽이 안방, 그 다음이 마루, 그 다음이 건넌방, 동남쪽으로 구부러져서 문간방, 그 다음이 대문으로 되어 있다. 이 ㄱ자형의 가옥구조는 대부분 두 가지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 ㄱ자형 역시 채광이 잘 들게 되어 있다. 이 ㄱ자형의 집은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조금 생기게 됨에 따라 一자형에서 발전된 것이다.

부엌	안방	건넌방	문간방
	마루		
마당			

부엌	안방	건넌방	문간방
	마루		
마당			

• ㄷ자형의 집은 一자형의 집에다가 동남쪽에 곳간과 뒷간, 장독간이 있으며, 서쪽에는 대문이 있고, 대문을 들어서면 다시 중문이 나온다.

방	방	안방	부엌
마루			
마당			장독대
			곳간
중문			곳간
대문	←	뒷간	→
			곳간

• ㄹ자형의 집은 ㄷ자형의 집에다 서쪽에 행랑채가 있다. 이 행랑채는 작은 집 한 채처럼 마루가 있고, 뒷간이 붙어있으며, 다만 부엌이 없을 뿐이다.

방	방	안방	부엌
마루			
뒷간	마루	방	마루
소문	마루	방	마루
마당			장독대
			곳간
중문			곳간
대문	←	뒷간	→
			곳간

경남지방 고민가(古民家)의 공통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집의 위치는 대개 배산임수를 택

했고, 좌향은 남쪽을 선호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남동향, 남서향을 취하기도 했지만 북향은 거의 없다. 집의 종류는 초가와 와가로 나누는데, 초가는 대부분 농가이며, 와가는 양반이나 세도가들의 저택이다. 집의 구조를 볼 때, 평야지방은 간(間) 사이가 넓은 편이고, 산촌이나 해안지방은 간 사이가 좁고 키가 낮은 편이다.

부엌의 형태는 서울 경기를 포함한 중부지방과 호남서부지역은 ‘一’ 자형과 ‘ㄱ’ 자형을 주로 사용하였고, 호서지방과 경남서부지역은 두 가지 형태의 부뚜막과 원형 주거지에 맞는 ‘호(弧)’ 형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영남 지방 민가들의 부엌 위치는 물이나 쌀을 들여 푸는 방향에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살림채가 위치한 주거의 안쪽으로 복이 들어 오게 하기 위함이다.

경남지방 서민들의 집 지붕 재료는 강이 있는 곳은 갈대지붕이 많고, 산간에는 억새풀을 이용한 셋집도 많았다. 특히 풍수사상에 의해 길지를 택하는 것이 상례였고, 특색으로는 구들에 대청마루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지붕은 우진각 지붕이 가장 많고, 양반가나 부잣집은 팔작지붕을 선호했으며, 맞배지붕도 많은 편이다. 집을 지을 때 평지보다 축담을 쌓고 높게 지었는데, 이러한 것은 습기와 물 빠짐을 고려한 것이고 부엌 만들기와 굴뚝 만들기에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굴뚝은 높게 세우지 않고 지면에 붙여 연기가 잘 빠지도록 하였고, 대청마루를 보면, 양반가는 우물마루를 놓았고, 일반민가에서는 장마루나 텃마루를 놓았다. 그리고 기둥은 네모기둥, 원기둥을 주로 했고, 주춧돌은 자연석을 많이 이용하였다. 대들보와 서까래 모습은 대청마루에서 보면 다 드러나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부잣집에서는 문창살을 주로 완자창, 교자창, 아자창을 썼고, 세도가에서는 더 정교한 창살을 짜기도 했다. 농가에서는 안채와 사랑채 외에 곳간, 외양간, 헛간, 갯간 등을 두고 농사에 이용했으며, 담장은 흙담장이 많았고 산촌에서는 싸리나무와 삭정이 울타리를 하기도 했다. 장독간은 부엌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었다. 집안에 유실수 심기를 좋아했는데, 석류, 매실, 모과, 감 등을 심어 수확하여 먹기도 했지만, 자손의 번창과 부귀 영화를 위한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마당에 많이 심었다.

196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재래식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하였고, 1970년 이후부터는 콘크리트 슬라브 양식으로 가옥구조가 변경되어 큰방, 부엌, 거실, 화장실 등 전부가 연계되어 있어 조상들이 남긴 가옥구조 형태는 점점 줄어들었다.

현재 고성지방의 대표적인 전통가옥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장산리 허씨고가’, ‘송계리 이씨고가’, ‘학림리 최씨고가’, ‘청광리 박씨고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장산리 허씨고가(章山里 許氏古家)’는 경남문화재자료 11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마



암리 장산리 184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이 가옥은 조선말(1800년대)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쳐 나타나는 한식 전통가옥과 화식(和式) 주택이 혼합된 대표적인 가옥이다. 안채와 안 사랑채, 바깥사랑채, 솥을 대문, 가묘(家廟), 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면 4칸 초가집의 안채

는 퇴락하여 헐리고 초석과 기단만 남아 있다. 안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 우진각지붕으로 안 채 전면에 나란히 배치되어 안 사랑채 뒷면의 안마당과 앞면의 사랑마당으로 구분되어 독립된 대청 공간을 배치한 평면 구성을 이루고 있다. ㄱ자형 평면의 바깥사랑채와 2층 구조의 광은 화식 목조건물로 화식 평기와의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고 솥을 대문 및 가묘는 목조건물로 전형적인 전통 가옥의 배치 형식과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송계리 이씨고가(松溪里 李氏古家)’는 경남문화재자료 16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가면 송계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가의 건축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현 소유자인 이겸수(李謙洙)의 말에 의하면, 그의 조부가 90여 년 전에 지었다고 한다. 터를 넓게 잡아 안채와 사랑채를 별도의 건물로 하여 앞뒤로 나란히 놓고 공간 채를 각각 ㄷ자형으로 배치한 전형적인 부농들이 소유한 남부형 민가이다.

안채는 정면 6칸으로 큰 규모이며, 전후 텃간이 있는 오량구조(五樑構造)의 일자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안채는 좌로부터 부엌, 방, 대청 2칸, 방2개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부형 6칸 평면 집에서 흔히 보이는 작은방이 없는 게 특징이다. 대신에 맨 오른쪽 방을 뒷마루보다 한단 높고 다소 넓은 누마루 형식의 뒷마루를 두어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한 게 두드러진다. 사랑방은 정면이 5칸으로 기단을 높게 두어 훤히 칠하게 높게 자리 잡아 마주 보고 있는 대문을 출입할 때 위엄을 느끼도록 했다. 좌측의 중문은 남향으로 하여 규모가 대문 못지않게 큰데 비해 사랑채 좌우에 각각 중문을 두고 있다. 우측의 중문을 정면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작게 하고 동쪽으로 꺾어 놓아 부녀자들만 이용하도록 공간을 분리시키고 있다.



또 ‘학림리 최씨고가(鶴林里 崔氏古家)’는 경남문화재자료 17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일면 학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가는 1800년대에 건립된 전통 주택으로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널리 분포된 부농의 주거 형태이다. 각 건물의 형태는 일자형이고 안채 익랑채, 곳간채, 대문간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평행이 되게 배치되어 있으며, 사랑

채를 지나 안채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마당의 공간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선(視線)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5칸의 우진각 지붕이고 익랑채는 정면 4칸, 곳간채는 정면 5칸의 팔작지붕인데 사랑채는 정면 7칸의 팔작지붕에 처마 네 귀에 활주를 만들었다. 대문간채는 정면 5칸의 맞배지붕 속을 대문이다. 담장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쌓아 마을 골목길의 독특한 풍토성을 보여주고 있다.

봉동리 배씨고가는 경남도문화재자료로 지정(1994. 7. 4.)되어 있으며, 회화면 봉동리 135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가는 배찬열씨 초가이다. 안채는 99년 봄까지 4대째 살아 왔으며, 백찬열씨 조부 때 건립하여 대략 안채는 120여년, 아래채는 70~8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조선 후기 평민농가의 전형적인 개방형 건물이다.



지붕은 초가지붕으로 벽체는 막돌을 쌓았고 진흙으로 틈을 메워 만든 막돌담장과 흡사하여 조상들의 남루했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배치형태는 안채를 중심으로 자(字)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민가에서 가장 원시적이며 규모가 작은 1칸의 전후 양퇴집의 초가지붕이고, 아래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전면 툇간집 초가지붕, 부엌은 안방 좌측에 놓이고 후퇴간을 두어 온돌로 된 부엌방을 두었다. 정면 2칸집이 공간 분화되어 겹집형식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청광리 박진사고가는 경남문화재자료로 지정(2001. 2. 22.)되어 있으며, 개천면 청광리 292-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가는 밀양박씨의 옛집으로 대대로 진사와 효자가 태어났으며, 조선 시대부 가옥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이 집에서 효자 박효근이 출생하였고, 그의 아들 박한희와 손자가 진사를 지냈다. 조선 후기에 조성되어 일제강점기 때 증축된



주택으로 실용성과 전통성이 조화된 전통한옥이며, 조선후기 건축 변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구조는 안채와 사랑채, 곳간채, 대문간채로 구성되어 있고 담장이 잘 보존되어 있고 대문에 효자정려 현판이 있다. 안채는 전면 5칸, 측면 2칸이며, 부엌, d, 대청, 갓방

으로 되어 있고, 안채를 중심으로 동쪽에 담장을 둘러 별당처럼 안사랑채를 배치하였고 중문간채를 바깥사랑채로 이용하였다. 담장은 기와조각을 섞어 모양을 내었다.

2. 습속

주거의 흔적은 대략 기원전 5000년경으로 추정되며, 신석기시대의 유적지에서 알 수 있다. 신석기인의 생활 흔적은 강, 바다, 호수 근처의 구릉지에서 움집터가 주로 발견된다. 경남은 김해 패총과 부산 영도 동삼동 패총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토기와 돌칼, 화살촉 등이 발견되어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자연동굴을 이용하고 움집을 지어 비바람을 피했고,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다가 청동기시대로 접어들면서 농경과 가축을 기르면서 정착화 되었다.

이때의 집은 흙을 파고, 가장자리에 돌을 쌓고, 가운데 기둥을 세워 원뿔형으로 집을 짓고, 풀이나 나뭇가지, 짚 등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다. 움막의 중심에 화덕이 있고, 그 가까이에 구멍을 파서 여러 가지 음식물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었다. 중앙 화덕은 난방, 조명, 취사에 사용했을 것이고 이것이 부엌의 시작이라 추정된다. 즉, 사람들은 농사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정착되었고 집의 구조 또한 생활조건에 맞추어 편리하게 특성을 띄어 갔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부엌은 움집의 평면이 직사각형으로 변해 가면서 화덕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두 개로 나타나고, 저장 시설이 분리되는 등 주거 공간이 용도에 따라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한(漢)대는 건축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규모가 큰 건물이 다양하였으며, 목조 구조를 위주로 하는 건축법이 대부분 완성되었다. 건축의 구조와 형태는 기단, 본채, 지붕이라는 세 부분으로 갖추어졌는데, 이러한 주택은 한족 주거의 원형이다.

우리나라 재래식 가옥은 대개 3칸 또는 4칸의 목조이며, 농가는 대부분 초가이고, 부유

층은 와가(瓦家)였지만 와가는 극히 드물었다. 집 둘레는 토담, 돌담, 나무 설 등으로 울을 막았고, 대문 또는 사립문을 두었으며, 농촌가옥은 대부분 본채에 큰방, 대청, 작은방, 부엌으로 짜여 졌고, 아래채에는 사랑방, 방앗간, 마굿간, 고방, 뒷간 등으로 되어 있다.

가옥을 크게 나누면, 초가와 와가로 대별되는데 초가는 농·공·상·어민 등 평민 대다수 대중의 주거이고, 와가는 지배계급인 귀족양반들의 주거였다. 1970년 이래 새마을운동으로 초가지붕이 기와와 스테트로 바뀜에 따라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초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대도시 주택구조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형식으로 바뀌었으며, 전기가 들어옴으로서 등잔불은 옛 이야기 거리로 남았고, 집도 흙으로 건축된 옛집은 헐어지면서 현대 생활양식에 맞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Ⅲ 통과례

제 1절 개관

일생의례는 그 사회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생활관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발달하였다. 중국에서는 12세기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해서 관혼상제(冠婚喪祭)로 집약하여 정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가례’의 영향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일생의례의 모습으로 지속 변화되어 왔다.

어느 한 개인이 일생동안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생의례는 일상생활의 구성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생의례의 구성요소들은 우주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제시하는 종교적 이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생활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일생의례에는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과 사회의 생활이나 문화 속에서 발달된 인간관과 생사관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출산의례는 여성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고성에서는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영험 있는 절을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일정한 바위를 정하여 비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삼신을 정한 것이라 한다. 요즈음은 예전에 비하면 불을 켜고 비순하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간혹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출산의례를 비롯하여 관혼상제를 요약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요즈음은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지만,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다.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출산해야만 했다. 그래서 출산의례의 기자(祈子)는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 치성을 드린다. 주로 아들을 원하는 여자나 그 시어머니가 절이나 깊은 산, 큰 바위나 샘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삼신을 받아 오기도 한다. 무당과 함께 가기도 한다. 만약 치성을 드리고 아이를 얻게 되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치성 드린 곳을 찾아 정성을 드리기도 한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러 방법을 통해 임신을 기대했다. 아들을 잘 낳는 여성에게 부탁해서 경도가 묻은 속옷을 빌려 입거나, 아들이 많은 집의 남자아이 옷을 빌려다가 자기 딸에게 입히기도 한다. 아들을 원하는 부인은 쇠로 조그만 도끼를 만들어 주머니에 넣거나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을 삼신이 집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삼신을 집안으로 모시고 와야 아이를 가질 수 있

다고 믿는다. 삼신을 모시기 위해 주로 깊은 산에 샘이 있는 곳으로 간다.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시어머니 또는 무당과 함께 가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시어머니가 가임(可妊) 여성이라면 함께 가지 않는다. 애써 받아 온 삼신이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접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동서끼리도 가지 않는다.

삼신 받을 날이 정해지면 굿은 일을 보지 않는다. 특히 문상(問喪)을 가지 않으며, 부고(訃告)조차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삼신을 받는 당일에 사립문에 금줄을 치기도 한다.

임신을 했을 때 아들과 딸을 구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태몽에서 보이는 색이 전체적으로 푸르거나 검으면 아들이고, 붉으면 딸이라고 여긴다. 꿈에 뱀이 나타나면 뱀의 크기나 굵기 등을 보아 아들과 딸을 구분하기도 한다. 크고 굵은 구렁이가 보이면 아들이고, 작은 뱀들이 많이 보이면 딸이다. 또한 꿈에 호랑이와 같은 큰 짐승을 보면 아들이고, 물고기가 나타나면 딸이라 여기지만 푸른 물고기가 나타나면 아들, 조개를 보면 딸이라고 점친다. 그리고 임신부의 행동이나 배 모양을 보고 성별을 구분하는데, 사람들이 임신부가 걸어갈 때 뒤에서 불러 왼쪽으로 돌리면 아들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딸이다. 임신부의 배 모양이 둥글면 아들이고 앞으로 볼록 나왔으면 딸이다. 이처럼 태몽과 행동으로 태아의 성별을 구분했다고 한다.

특히 임신부는 자신의 행동이 태아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음식을 가리고 행동을 조심하였다. 임신부는 약을 먹지 않았고, 오리고기는 특히 금했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손가락이 오리처럼 붙어서 나온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진 짐승의 고기나 병들어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았다. 썰어놓은 음식도 끝부분은 먹지 않고 가운데 가지런히 잘린 것을 먹는다. 임신부는 남의 물건을 말없이 가지고 오거나 담을 함부로 넘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태를 가르는데 이를 ‘삼 가르다’ 고 한다. 산실에 미리 준비해 둔 가위를 사용해 산모가 직접 자르거나 산바라지를 해 준 사람이 자른다. 태를 낫으로 자르면 아이가 명이 길다고 하여 일부러 낫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었다. 태를 자르기 위해서 탯줄에 고여 있는 피를 아이와 산모 쪽으로 훑어 낸다. 아이의 배꼽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을 실로 두 곳을 묶고 그 가운데를 자른다. 태를 자르고 나면 산모는 태에 묶어 놓은 실을 자신의 발가락에 건다. 만약 후산(後産)을 하기 전에 태가 산모의 몸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출산이 끝나면 마당 한가운데에 왕겨 불을 놓는다. 이 불에 태워 출산할 때 함께 생긴 것은 것들을 태운다. 태를 완전히 태우지 않고 잃어버리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태가 완전히 타고 불이 사그라질 때까지

지켜본다. 아예 태우고 재를 물가에 가져다 버리는 지역도 있다.

출산한 산모에게 주는 첫밥은 밥과 미역국이다. 먼저 삼판(삼신판)에 차려 삼신께 올린 후 산모가 먹는데, 삼판은 바닥에 짚을 깔고 밥과 미역국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들일 경우 일곱 칠일까지 삼신판을 차리고 딸일 경우 삼칠일까지만 차리기도 한다. 태어난 아이의 성별이 확인되면, 곧바로 원새끼로 금줄을 만든다. 아들이면 금줄에 고추, 숯, 솔가지, 미역을 꿸고, 딸이면 고추를 꿸지 않는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처음 입히는 옷을 배냇저고리라고 한다. 배냇저고리에는 단추를 달지 않고 끈을 달아 묶게 만든다. 아이의 명이 길라고 끈 대신 명주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아이의 배냇저고리는 3개월 정도 입는다. 아이가 백일이 되면 간단하게 떡을 찌고 미역국을 끓여 집안 식구들이 함께 먹는다. 일 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는데, 장만하는 음식은 백일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집안의 형편에 따라 준비한다. 다만 돌에는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예측하기 위해 돌잡이를 한다.

혼례는 혼례하는 날 신랑이 최고의 어른 대접을 받는다. 예를 들면 신랑의 부친도 신랑 뒤를 따랐고, 신부 집에 도착하면 장인과 장모한테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신랑은 초행을 하는 날과 돌아오는 날에 조상에게 제를 지내며 자신이 어른이 되었음을 알린다. 신행 때 특이한 점은 친정집 부엌 솥뚜껑을 만지고 불 피우기와 시댁 부엌 불 피우기를 하는데, 불 같이 시댁 살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은 예식장의 혼례의식 때문이다.

고성의 혼인 풍습 가운데 신방 엿보기와 신랑 다루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읍내나 도시보다 시골이 정도가 더 심하였다. 다른 고장과는 달리 신방 엿보기는 도전적이며, 적극적이어서 문풍지를 거의 찢어 버리고 신방을 바깥처럼 트이게 만든 후에 긴 장대로서 금침을 헤치든지 심할 때는 베개도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신랑신부가 응전하는데, 물론 신랑이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방법은 물과 고춧가루를 준비해 놓고서 먼저 물을 뿌려 선의의 답례로써 엿보기 끈들을 물러가게 한다. 그렇게 하여도 물러가지 않을 때에는 약간 과격할 수단으로 고춧가루 전법으로 대응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측은 신랑측으로 나이 어린 신랑은 신방엿보기에 응전하다 지쳐서 끝내 울어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다.

화축동방의 신랑신부를 조용히 놓아두지 않는 것은 전국적인 풍습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신방 엿보기는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신방을 엿보는 자는 대개 남녀노소 중에서도 젊은 총각들과 처녀들이다.

그 다음날에는 집안사람들이 심하게 단다. 신랑 다루기는 어느 지방에서나 볼 수 있으나 특히, 서부 경남지역에서는 더욱 성행하고 있다. 신랑이 대례청으로 가는 도중 동네 청년

들이 재(灰)를 몽쳐서 던진다든가, 동상례(東床禮) 석상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입맞춤을 하게 한다든지, 거꾸로 매달린 신랑의 발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마구 때려 결국 족두리를 쓴 신부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끈질기게 따라 다니면서 푸짐한 술상을 차려 올리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화촉동방의 신랑신부를 고문대에 올려놓고 재미를 느낀다.

다음은 상례이다. 고성군은 상례와 장례시 염을 할 때 널빤지나 칠성판 등을 사용하여 시신의 몸을 반듯이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칠성판은 이장을 할 때주로 사용한다. 시신의 몸을 반듯이 만들기 위해서는 굵은 신체는 힘이나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여러 번 주물러서 펴 준다. 그리고 발바닥은 곳곳이 세운다. 주 상주나 막내 상주가 도착하기 전에는 관의 뚜껑에 못질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자식들이 부모의 얼굴을 보아야 여한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상주들이 모두 도착하고 시신의 얼굴을 보면 그때 관에 못질을 한다. 요즈음은 상례의 절차가 간소화되어지고 젊은 층이 없는 관계로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

제례 중 기제사를 지낼 때 아들이 하나이고 딸이 여럿일 경우에는 아들 혼자서 삼헌(三獻)을 한다. 여성은 절대 헌관을 맡을 수 없다고 하나 아들이나 양자가 없을 경우 여자가 삼헌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최근에 바뀐 의례이다.

이러한 전통 통과의례는 조선후기 단발령에 의해 관례가 사라지면서 혼례에 포함되기도 하였고 1973년 가정의례준칙 공포와 2008년 건전 가정의례준칙에 의거 개정되어 전통과 현대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통과의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도 있지만, 특히 고성에서 전해지는 의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 2절 출생의례(出生儀禮)

1. 개요

출생의례는 잉태에서부터 출생한지 만 1년이 되는 돌까지에 이루어지는 의례로서 기자의례(祈子儀禮), 임신의례(妊娠儀禮), 해산의례(解産儀禮), 산후의례(産後儀禮)가 있다.

모든 생물은 개체유지 본능과 종족유지 본능이 있는데, 개체유지 본능은 식욕(食慾)으로 나타나고, 종족유지 본능은 성욕(性慾)으로 나타나며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동양의 전통 윤리관에 따르면 결혼한 여인은 아들을 많이 낳아 자신의 노후를 의탁하고 조상의 제

사를 모시게 해야 한다.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조상에 대해 불효가 되며, 가문의 대(代)를 잇지 못한 책임을 지고 칠거지악(七去之惡)의 명예를 쓴 채 일생을 살아가야 했다. 유교적 봉건사상의 틀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은 남자아이를 낳아서 남존여비(男尊女卑) 사회의 종법(宗法) 체제를 계승하는 것이 결혼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했다. 강력한 부권(父權)에 의해 유지되던 과거 사회에서 여자의 존재는 오직 남아(男兒) 생산과 집안 살림을 돌보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아들을 낳기 위한 수단으로 치성을 드리거나 특별한 것을 먹기도 했으며, 주술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행위를 통틀어 ‘기자신앙(祈子信仰)’ 또는 ‘기자의례’라 한다. 기자의례는 유감사고(類感思考)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데, 제의로는 삼신제(三神祭), 용왕제(龍王祭), 산신제(山神祭), 미륵제(彌勒祭) 등으로 이런 가제(家祭)에서는 부녀자들이 제주(祭主)가 된다. 치성기자의 대상은 다양한데, 명산대찰은 말할 것도 없고 큰 나무, 특별하게 생긴 바위, 마을의 공동우물, 성황당이 주요 신앙대상이었으며, 특히 성기송배신앙은 주술기자(呪術祈子)의 대표적 형태라 하겠다.

2. 진행순서

1) 기자(祈子)

여성들은 아기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특히 아들이 없으면 대(代)를 끊는 것이라 하여 어른들의 눈총을 받았다. “아들이 없으면 만석꾼 집이라고 해도 사립문을 닫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들에 대한 열망이 지대했다. 고성은 옥천사, 계승사, 문수암, 장의사, 보광사 등의 절이 많은데, 절들을 다니면서 빈다.

이렇게 얻은 아기는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키운다. 아이의 명과 복을 빌어주기 위해 절이나 무당에게 아이를 팔기도 하고, 장수한 어른의 옷을 가져다가 배냇저고리를 만들어 입히기도 하였다.

2) 산전(産前)

태몽을 통해 아이의 성별을 구분한다. 꿈에 호랑이, 말, 큰 구렁이, 거북이 등이 보이면 아들이라 생각하고, 소라, 물고기, 작은 뱀 등이 보이면 딸이라고 여겼다.

태중 금기로 아기를 낳는 달이 다 되었을 때는 집을 고치지 않는다. 이때 집을 고치면

부정을 타서 아이에게 탈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방구들, 굴뚝 등도 마찬가지다.

3) 해산(解産)

해산달이 가까워오면 배넛저고리, 포대기, 베개, 미역 등을 미리 준비한다. 옛날에는 산실(産室)이 중요하지 않았다. 방에서 아기를 낳을 때 이불을 걷어내고 맨 바닥에 쌀자루나 비닐 같은 것을 깔았다. 산과가 드물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산과 일을 직접 하였고, 탯줄을 자를 때는 탯줄을 배꼽에서 한 뼘 정도 남겨 놓고 잘 훑은 다음 두 곳에 실로 묶어 중간을 자르는데, 잘라 낸 태는 태우거나 태운 재를 물에 띄운다.

아기가 태어나면 집안의 남자 어른이 금줄(금구줄, 금구지)을 친다. 금줄은 원새끼를 꼬아 만들고, 숯, 미역, 솔잎 등을 꽂았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는 고추를 함께 달았다.

4) 산후(産後)

산실 출입은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은 금줄을 걷기 전에는 출입을 금했고, 출산 후 자손들의 건강을 위해 삼신상을 차렸다. 삼신상을 ‘지양판’이라 하여 짧게는 칠일에서 길게는 칠칠일까지 차리는데, 금줄을 치는 시기와 일치한다. 지양판은 쌀, 목, 미역을 올리며, 쌀과 미역은 그대로 두고 물은 날마다 한 번씩 갈아 주었다. 지양판에 올린 미역은 조금씩 떼어서 산모에게 국을 끓여 준다. 수유(授乳)는 3일정도 지나야 젖이 나오게 되는데, 젖이 없는 사람은 쌀을 씹어서 뺏어낸 것을 끓여 먹었다. 이를 ‘암죽’이라고 한다.

5) 육아(育兒)

처음으로 아기에게 입히는 옷을 ‘배넛저고리’라고 한다. 배넛저고리는 무명베로 만드는데, 따로 천을 구입하지 않고 집에 있는 헌옷을 활용한다. 아기가 일찍 죽는 집에서는 장수한 노인 옷을 가져다가 배넛저고리를 만들어 입히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기의 장수를 위한 것이다. 작명은 족보에 정해져 있는 항렬자를 사용했는데, 이를 돌림자라고 한다. 아이였을 때는 아명이라 하여 친한 이름을 짓기도 하였는데, 친한 이름은 장수한다고 하여 “관개” “관돌” “관세” 등으로 지었다.

아기를 위한 잔치로는 백일과 돌이 있다. 돌 때는 지양판(삼신상)을 차려놓고 삼신을 대접하고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빈다. 그리고 돌잡이를 통해 아이의 미래를 점쳐 보는데, 공책이나 연필은 학자, 실은 장수, 돈이랑 쌀은 부자를 뜻한다고 한다. 아기의 첫나들이는 외가로 가는데, 갈 때 아이의 이마나 콧등에 숯검정을 칠하기도 하고, 고추를 뒷덜미에 달

아 가기도 한다. 숯과 고추는 부정을 방지하는 것이다. 아이가 외가에 도착하면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소마굿간에 먼저 가서 ‘금송아지가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시켰다고 한다.

제 3절 관례(冠禮)

1. 개요

고성지역의 관례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고 전국 각 지역과 동일하였다. 우리나라의 관례는 중국의 예서(禮書)나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으로 매우 복잡하였는데, 중국식 관례에 따른 기록으로는 고려사에서 광종 16년(965) 2월에 황태자에게 원복관(元服官)을 가(加)하여 태자로 삼았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후의 의종조(毅宗朝)에서 제정한 상정례(詳定禮)에서는 왕태자 가원 복의(王太子加元服儀)라 하여 그 절차를 밝히고 있으



며, 조선시대에 내려와서도 오례(五禮)의 가례편(家禮編)에 왕세자 관의(冠儀)와 문무관의의가 있어 또한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를 국교로 삼게 되면서 예를 숭상하여 왕족과 관료계급 사이에 성행하였고, 이와 함께 관료로 나갈 수 있는 양반계급에 있어서도 이를 꼭 치러야 하는 절차로 되어 있었다.

이 관례는 개화(開化)의 물결과 함께 그 풍습이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배경은 관례를 행한다고 지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었고, 조혼과 단발령이었다. 이 중에서도 직접적인 동기는 고종 광무 2년(1898) 12월에 내린 단발령(斷髮令)이다. 단발령으로 상투와 망건이 없어지고 쇠퇴함에 따라 갓 대신 모자를 썼고, 호적법이 제정되자 남자 17세, 여자 16세 이하의 혼인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 교육이 보급되고 외래사조(外來思潮)의 영향을 받아 점차 조혼폐단(早婚弊端)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관례와 계례(筮禮)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혼인을 하는 것과 통하였기 때문에 관례는 혼인에 흡수되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미혼이라면 어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되었다 하여 관례(冠禮)를 치르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남성의 경우 혼담(婚談)이 성사되고 날이 정해지면 집안 어른들이 관례를 치르기 위한 적당한 날을 잡는다. 날을 정하

면 당일엔 집안 어른들을 청하여 집으로 모신다. 오전 중에 집안 어른들이 사랑으로 모이면 학식 있는 분의 주도(主導)로 간략하게 관례를 치른다. 방의 한 쪽에 청수를 한 잔 떠 놓고, 그 옆에 갓 또는 유건(儒巾)을 준비해 놓는다. 관례 당사자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조상님께 절을 하고 나면, 유건을 관례 당사자에게 씌워준다. 그러면 어른들이 술을 한 잔씩 주며, 앞으로 어른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한마디씩 한다. 계례(笄禮)는 15세가 된 여자 또는 약혼한 여자가 올리는 성인의식인데, 관례와 계례가 없어짐에 따라 오늘날에는 성년의 날이 정해졌는데 20세가 되는 해 5월 3째 주 월요일로서 가족들이 성년의식을 치러준다.

2. 진행순서

1) 택일(擇日)

남자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예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택일의 조건으로는 부모가 기년(基年) 이상의 상중(喪中)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즉 조부모나 백숙부의 상(喪)은 기년상(基年喪)이기 때문에 이런 친족의 상중에는 관례를 올릴 수 없었다. 또는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상을 당해서 아직 장사(葬事)를 지내지 않았으면 관례를 치를 수 없다고 하였다. 택일에 대하여는 좋은 날짜를 가려서 예를 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정월에 날을 택하라고 되어 있다. 그 때를 놓치면 4월 1일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관을 쓰는 것을 인도(人道)의 출발로 여기기 때문이다.

2) 사당고사(祠堂告辭)

관례의 택일이 결정되면 주인은 관례일 3일전이나 또는 당일 아침에 사당에 들러 장성한 자식의 관례를 올린다는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삭 모일에 모의 아들 모가 점차 성장하여 모월 모일에 관례를 올리고자 삼가 술과 과일으로써 경건히 고하옵니다.”

3) 준비 및 진설(陳設)

관례일 3일전에 주인이 사당에 고하는데, 이때에 관례 시 읽을 축문을 준비하고 관례일 전에 빈(賓)을 청하는 절차이다. 관례에서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빈이라 한다. 예서(禮書)에는 종손의 친구 가운데서 어질고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을 골라 빈으로 삼도록 되어 있

다. 그리고 관례일 하루 전에는 대청의 동북에 휘장을 쳐서 관례를 올릴 장소를 마련한다. 관례일이 되면 진설을 하여야 하는데, 아침 일찍 관복을 꺼내어 준비를 한다. 그런 다음 주인 이하는 서열(序列)하여 빈을 기다린다. 빈이 찬자(贊者)와 함께 도착하면 주인은 그를 맞이하여 방으로 안내한다.

4) 초가례(初加禮) 창홀(唱忽)이 시작되면서 예식이 진행됨

처음 올리는 예를 초가례(初加禮 또는 시가례(始加禮)라 한다. 초가례는 빈객이 관례자에게 읍(揖)을 하면서 시작한다. 관례자는 쌍계(雙紵)를 하고, 예복인 사규삼(四揆衫)에 능백(勒帛)이라는 띠를 두르고 채리를 신고, 자리에 나와 꿇어앉는다. 옆에서 시중을 하는 찬자가 관례자의 머리를 빗겨 계(笄)를 꽂는다. 이어서 찬자가 관례자에게 띠를 돌려주면 관례자는 방으로 돌아가 사규삼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으며, 큰 띠를 두른다. 다음 그 위에 조(條)를 더하고, 검은 신을 신고 방에서 나와 남쪽을 보고 앉는다.

5) 재가례(再加禮)

관례자가 전해진 장소에 앉아 있으면 빈객이 관례자 전(前)에 나아가 축사를 한다. 찬자는 치포관(縹布冠)을 벗기고 빈객이 입자(笠子)를 씌운다. 이어 관례자는 방으로 들어가 심의를 벗고 조삼(阜衫)과 혁대를 두르고 혜(鞋)를 신고 나온다.

6) 삼가례(三加禮)

관례자가 정해진 자리에 꿇어앉아 있으면 빈객이 나아가 축사를 하고 찬자가 갓을 벗기면, 빈객이 유건(儒巾)을 씌워준다. 관례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조삼을 벗고 난삼(襪衫)을 입으며, 혁대를 두르고 신을 신고 나온다. 그러면 삼가의 예는 일단 마치게 되고, 이어서 초례(醮禮)가 시작된다.

7) 초례(醮禮)

초례는 삼가의 예를 잘 마쳤다는 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술을 마시는 의례이다. 관례자가 정해진 자리에 남향(南向)을 하고 앉아 있으면 빈객이 관례자 전에 나아가 축사를 한다. 관례자가 두 번 절하고 술잔을 받으면 빈객이 답례를 한다. 관례자가 상전(床前)으로 나아가 잔을 상 위에 놓았다가 이것을 다시 들고 물러나 맛을 본 다음 찬자에게 주고 빈객에게 두 번 절하면 빈객이 답례한다. 이로써 초례가 끝난다.

8) 빈자관자례(賓字冠者禮)

관례자에게 자(字)를 지어주는 의례이다. 빈(賓)과 관례자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빈이 관례자에게 자를 지어주고, 이어 자를 부를 때 축사를 한다. 관례자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절을 하면 빈은 절을 받되 답례를 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관례의 모든 의식이 끝이 나지만 예서에 의하면 현묘(見廟)에 나아가 고사(告辭)에 올리도록 되어있다.

9) 현묘(見廟)

주인이 관례자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고사를 읽으면 관례자는 재배한다. 그런 다음 친척과 빈객에게 두 번 절한 뒤 밖으로 나와 선생과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관례를 올렸다는 절을 한다.

제 4절 혼례(婚禮)

1. 개요

혼례란 말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축복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말하며, 지켜야 할 많은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거쳐서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 절차를 혼례라 한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는 일을 양(陽)과 음(陰)이 만나는 것이므로



그 의식의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만나는 날이 저무는 시간에 거행했기 때문에 날 저물 혼(昏)자를 써서 혼례(昏禮)라 했다.

혼인(婚姻)이란 남녀가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혼(婚)은 남자가 장가간다는 뜻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므로 혼인은

남자가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된다. 따라서 혼인이란 이성(二姓)의 결합이요, 만복의 근원이다. 남녀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백년해로(百年偕老)하여 평생을 함께 살고 고락을 같이 할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사람은 성년이 되면 먹고, 입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성(性)의 욕망을 채우게 되는데, 함부로 관계를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남자

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의 혼인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관계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둘째로 혼인이란 특이한 정신적 관계를 가진다. 우선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 서로 공경하며 서로 참아가는 도리를 지켜야 하도록 되어 있다. 부부는 평생 동안 고락을 같이하며 인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셋째로 혼인은 가정이라는 공동 사회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과정이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다 함께 평안하게 사는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넷째로 혼인은 하나의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도라 함은 관습, 도덕, 윤리, 법률 등 사회의 종합적인 규범을 말한다. 규범이란 우리의 사상이나 현실이 일정한 이상 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인 원리이므로 혼인은 결국 이러한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이와 같이 혼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혼인의 절차도 하나의 제도라는 점에서 인류의 역사상 여러 가지로 변천을 하여왔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서의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과 예절로 생활방식을 이어 내려왔으며, 이 전통적 예식도 알고 보면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는 중국의 주(周)나라 시대의 혼례인 주자사례를 많이 본받아 왔다.

고성에서는 신부가 신행하기 전 친정집 부엌에 들어가 솔뚜껑을 만진 다음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가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친정 살림을 시택에 가져가는 것이라고 하며, 시택에 도착한 후에도 먼저 시택 부엌으로 들어가서 불을 피웠다고 한다. 이는 친정 살림을 시택으로 옮겨서 시택 살림이 더 일어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 진행순서

1) 납채(納采)·연길(涓吉)·납폐(納幣)

① 납채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것을 ‘사성(四星)’ 이라 하는데, 사성을 한지에 싸서 작은 봉투에 넣고 붉은색과 푸른색의 겹보자기에 싰다. 보자기의 세 꼭지 점에는 긴 줄이 달려 있다. 사성은 증신애비를 통해 신부의 부친이 받는다.

사성을 사주(四柱), 주단(柱單), 단자(單子)라고도 하는데, 양가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의사를 교환한 뒤 선을 보아 혼인하기를 결심하면 맨 처음 보내는 서신이 사성이다. 사성에는 신랑의 생년월일을 간지로 적고, 그것을 다섯 번 접어 봉투에 넣는다. 봉투의 앞면에는 ‘사주’ 또는 ‘사성’ 이라고 쓰고 뒷면에는 ‘근봉(謹封)’ 이라고 쓴다. 이것을 싸릿대를 쪼개어 끼우고 양끝을 청홍(靑紅)실로 묶은 다음 홍보(紅褌)에 싸서 신부집에 보낸다.

사성을 보낼 때, 서간문(書簡文)의 예문 “伏惟春元(계절에 따라 다름) 尊體候以時萬重 이 仰謂溱區區之至이오며, 弟家兒 親事는 旣蒙契許하오니 寒門慶幸이오이다. 采單을 錄呈 하오니 涓吉回示하심이 如何오리까. 餘不備伏惟 尊照 謹拜 上狀 〇〇〇〇年 〇〇月 〇〇日全州 後人 〇〇 再拜” 해설하자면, “편지를 받자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간에 존체 만중하시옵니까? 저의 자식 혼사는 이미 허락하심을 받았사오니 저의 가문의 다행이며 기쁨이옵니다. 사주단자를 보내오니 혼인일자를 회신하여 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연월일 전주 후인 〇〇 재배” 라 쓴다.

② 연길

사성이 오면 신부 집에서 혼례 날을 받는다. 부모가 혼례를 치른 달은 피하는 게 좋다. 신랑 집으로 편지와 함께 혼례일시와 장소를 적어 보낸다.

③ 납폐

신랑의 초행길에 가져오기도 하고 혼례를 치루기 전에 미리 보내기도 한다. 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함재비(함진아비)’ 라고 부르며, 집안 하인이나 친구가 맡는다.

2) 혼례식(婚禮式)

(1) 초행(初行)

남자는 장가를 가기 전 안방의 윗목에 간단하게 상을 차려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이는 집안의 조상에게 자신이 장가간다는 사실을 고하는 것이다. 그 후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초행길을 나서는데, 옛날에는 신랑이 말이나 나귀를 타고 신부 집으로 갔다. 상객으로는 신랑의 존속친(尊屬親)으로 부친이 따르지만, 없으면 집안의 숙부나 백숙부 또는 나이 많은 어른이 따른다. 수행은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이 바람직하나 없을 때에는 평소에 가까이 모시는 동네 어른도 무방하다. 안부(雁夫)는 전안(奠雁)에 쓰는 나무로 만든 기러기(옛날에는 산 기러기)를 색 비단보에 싸 들고 혼행 앞에서 신랑을 인도한다. 혼례는 해가 지고 나서 올리는 것이므로 옛날에는 시간을 맞추어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하인들이 호롱불을 들고 10리 또는 20리 길까지 마중을 갔다. 신랑은 신부 마을에 도착하면 정방에 드는데, 정방은 신부 집에서는 사처(舍處)라 하여 대문 밖 서쪽에 마련하는데, 신랑이 말이나 나귀에서 내리면 잠시 이곳에서 쉬게 한다. 보통 이웃집의 깨끗한 방을 빌려서 쓰게 되며, 정방에서 요기를 하고 혼례복으로 갈아입는다.

(2) 전안례(奠雁禮)

전안례의 유래는 천상(天上)의 북두구진(北斗九辰) 중에 자미성군(紫微聖君)이 인간의 수복(壽福)을 맡은 천관(天官)이므로 혼인도 자미성군이 마련한 것으로 믿고, 먼저 기러기를 선물로 예를 들인 후 예를 행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나무로 만들어 대용으로 사용한다. 수복과 자손의 번영을 비는 의식이다.

전안례의 절차는 먼저 대례(大禮)를 치루는 예의에 밝은 사람이 문전에서 신랑을 맞아 세 번 읍하는데, 이 때 신랑도 따라서 세 번 읍을 한다. 이때 신랑은 안고 있던 목안(木雁)을 안고 들어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안상(雁床)에 놓는다. 신랑이 목안을 들지 않고 안부(雁夫)가 들고 들어가 안상에 놓는 경우도 있다. 목안을 안상에 놓으면 신랑은 탁자 앞에 꿇어 앉아 분향(焚香)을 한 다음 하늘을 우러러 보고 두 번 절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신부 집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여인이 나와서 안상에 놓여 있는 목안을 안아다가 신부 앞에 놓는데, 이것이 전안의 의식이다.

신랑이 기러기를 들고 혼례장에 들어서면 홀기에 따라 기러기를 상에 놓고 절한다. 그리고 신부 가족이 기러기를 방안에 앉아 있는 신부에게 준다. 기러기가 눕지 않고 반듯이 서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3) 교배례(交拜禮)·합근례(合巹禮)

교배례는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상면하여 서로 예를 교환하는 의식이다. 과거에는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남녀가 중매를 통하여 정혼이 되면 이 교배례의 의식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을 상면(相面)하게 되므로 이 교배례는 그런 의미에서 깊은 뜻이 있었다.

교배례의 식장 장치는 대청(大廳)이 넓으면 그 대청에서 행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일을 치고 마당에다 덕석을 깔고 초례장을 마련했다. 마당에 설치할 때에는 동서(東西)로 놓거나 남북(南北)으로 놓아도 상관없으며, 위치에 따라 편리하게 놓으면 되었다. 교배상을 남북으로 놓으면 병풍은 동서로 쳐야 했다. 교배상에는 축대 한 쌍을 세워 불을 켜 놓고, 송죽(松竹)화병 한 쌍, 백미(白米) 두 그릇, 닭 암수 한 쌍을 양쪽으로 갈라놓는다. 세수 대야 속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물 두 종지를 놓아둔다. 초례상의 진설은 지방에 따라 다르며, 가풍(家風)에 따라 다르므로 풍속대로 하는 것이 좋다.

초례상의 진설이 동서로 되어 있을 때는 신랑이 동쪽에 서고, 신부는 서쪽 편에 선다. 만약 초례상이 남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신랑은 남쪽 편에, 신부는 북쪽 편에 선다.

신랑이 먼저 초례상을 마주하여 서서 읍(揖)하고 있을 때 신부가 들어가야 하며, 신부가 먼저 두 번 계속하여 절을 할 때 신랑은 절 한 번으로 답례를 한다. 신랑이 절 한번으로

답례를 하면 신부는 또 두 번 계속해서 절을 한다. 이 때 신부나 신랑을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축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이런 의식을 거행하고, 신랑은 답례 한 번으로 마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읊하고 꿇어앉으면, 신부도 따라서 꿇어앉는다. 이 때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세수 대야를 신랑신부에게 주면 신랑과 신부는 세수 대야에 담겨 있는 물로 손을 씻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부의 땡기는 친정아버지나 어머니가 풀어주며, 치장은 친인척이나 마을사람이 해준다. 신부는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쓴다. 원삼과 족두리는 마을이나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빌려다 입는다. 팔에는 큰 수건을 감아 길게 내리고, 큰 땡기를 길게 드리워 얼굴을 가린다.

상에는 신부 쪽에 암탁, 신랑 쪽에 수탁을 각각 올린다. 상의 양쪽 끝에는 대나무, 소나무 등 사철나무를 꺾은 병을 놓고, 나무와 나무에 청실홍실을 건다. 두 개의 큰 그릇에 쌀을 놓고 초를 쫓는다. 이 쌀은 양밥(예방)으로 사용하는데, 잘 때 이를 가는 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한다.

혼례순서는 홀기에 맞추어 진행한다. 홀기는 신부 쪽 집안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읽는다. 절은 신랑이 한번하면 신부는 두 번을 하는 등 신부가 배로 올린다. 또 신랑의 술잔은 청실홍실 위로 신부에게 전달되고, 신부의 술잔은 청실홍실 밑으로 신랑에게 전해진다. 혼례가 진행될 때 신랑은 대반이 돕고, 신부는 하님이나 언니들이 돕는다.

합근례(合醮禮) 절치는 다음과 같다. 대례를 집행하는 집사자(執事者)가 ‘합근분치서부지전(合醮分置婿婦之前)’ 이라 말하면, 신랑과 신부를 시중드는 사람들이 표주박과 같은 술잔을 신랑과 신부 앞에 갖다 놓는다. 이때 또 다시 집사자가 ‘시자침주(侍者斟斗酒)’ 라고 말하면, 시중드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 앞에 놓여 있는 술잔에 술을 따른다.

집사자가 술이 잔에 차면 ‘서읍부거음(婿揖婦舉飲)’ 이라고 말하면, 이 때 시중드는 신부측 수모가 신부 앞에 놓여 있는 술잔을 들어 신부에게 주면 신부가 술을 마시지 않고 잔을 받기만 했다가 그 술잔을 다시 수모에게 건네어 준다. 수모는 그 술잔을 받아 신랑측의 시중을 들고 있는 남자에게 건네어 주면 그 술잔을 받아 신랑에게 준다. 그러면 신랑은 술잔을 받아 술을 조금만 마시고 술잔을 도로 시중드는 사람에게 건네어 준다. 시중드는 사람이 그 술잔을 상 위에 올려놓고 이번에는 신랑 앞에 놓여 있는 술잔을 들어 신랑에게 건네어 준다. 신랑은 그 술잔을 받아 다시 시중드는 남자에게 주면 그 술잔을 신부의 시중드는 여인에게 돌려준다. 여인이 그 술잔을 받아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한 모금 마시는 체 하고는 시중드는 여인에게 돌려준다. 다시 여인은 술잔을 받아 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신랑과 신부는 술잔을 서로 교환한 형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집사자가 ‘진찬(珍饌)’ 하고 말한다. 이 말이 있으면 신랑신부를 시종들던 사람들은 각각 안주를 집어 먹여 주는데, 이 때 신랑과 신부는 안주를 먹어도 좋고, 먹기가 어색하면 받아서 상 위에 놓아도 괜찮다. 안주는 세 차례 계속해서 집어 주어 야 하며, 이 후에 축하객 중에 축사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축전이 있으면 집사자가 읽어 준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집사자는 대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필(禮畢)’ 이라 말한다.

(4) 초야(初夜)

혼례식이 끝나는 날 첫날밤을 신부 집에서 지낸다. 초야를 지내는 방을 ‘상방’ 이라 하고 들이는 상을 ‘주무상’ 이라 한다. 상에는 술, 과일, 안주류 등을 차린다. 신랑과 신부는 술을 한잔씩 권하며 어색함을 달랜다.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옷고름까지만 풀어준다. 호롱불은 불어서 끄면 좋지 않다고 여겨 손이나 옷깃을 사용하여 끈다. 초야에 마을이나 집안사람들이 방문에 구멍을 뚫고 훑쳐보는 풍속이 있어 병풍을 쳐서 막기도 하였다.

(5) 신랑다루기

초야를 치르고 나면 다음날 마을 친척들이 모여 신랑을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는데, 이를 ‘신랑다루기’ 라고 한다. 이때 처가에서 술과 음식을 내어 신랑이 매를 덜 맞도록 배려한다. 신랑 다루기를 통해 친정 사람들과 친근해지는데, 그 정도가 심해 신랑이 토라져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고 나면 호기심과 긴장이 일시에 사라지고 신부 집도 가족화(家族化)되고, 처가 식구들도 새 신랑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게 되어 새 출발의 의미가 새로워진다. 신랑은 대개 신부 집에서 사흘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첫날밤을 치른 다음날 새벽에 장인장모에게 인사를 한다. 아침에 떡국이나 깨죽 혹은 잣죽을 신랑 방에 들여 준다.

첫날밤을 새운 신부는 큰방으로 가고, 신랑은 같은 또래 처가식구들과 아침밥을 먹는다. 혹은 신랑신부가 겸상을 하기도 하지만 옛날 풍습이 부부간의 겸상을 용납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의 아침 식사는 처남이나 가까운 처가의 남자친척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아침 밥상에서부터 장난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하루 종일 진행될 신랑다루기의 전초전이 된다.

예컨대 밥그릇에 행주나 작은 그릇을 깔고 위에만 밥을 수북하게 담는 일이나, 막걸리 대신 쌀뜨물을 주전자에 담아와 부어주는 일, 보리 잎으로 부추나물처럼 무치기, 명태 무

침에 관솔나무 넣기, 국그릇에 소금 듬뿍 넣기 등 신랑을 골탕 먹이는 장난은 필수적인 놀이였다. 이것을 두고 혹자들은 신랑에게 빨리 가족으로서의 정(情)을 붙여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신랑의 성격을 알아내는 방법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아침상을 물리고 나면 본격적인 신랑 다루는 놀이가 시작된다. 신랑이 신부측 친인척과 동네 청년을 대접하는 형식으로 음식을 차리고, 초청을 하여 얼굴을 익히는 형식의 하나이다. 술이 몇 순배(巡杯) 돌면 청년들은 친인척과 합세하여 처녀 훔쳐간 도적으로 몰아 함(函)을 지고 올 때의 뿔뿔을 가지고 신랑을 묶어 키 큰 장정이 어깨에 메거나 기둥 대들보 등에 매단다. 묶이지 않으려는 신랑과 묶으려는 청년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결국은 발목을 묶이는 게 순서이다. 이 때 신부는 자기의 방에 들어가 있고 장난의 현장에는 없다.

신랑을 매달아 놓은 후 마른 명태나 방망이로 발바닥을 쳐 신랑이 비명을 지르게 하는데, 신랑은 일부러 ‘나 죽는다.’ 고 엄살을 부린다. ‘처녀를 훔쳐다 어디에 감추어 두었느냐’, ‘어제 밤 신부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한 가지도 빠지 말고 실토해라’, ‘어젯밤 상에 어떠한 음식이 들어 왔는가. 그 물목을 대라’, ‘처녀를 공짜(空資)로 훔치면 되느냐, 그 값을 내라’, 따위의 협박에 못 이겨 신랑은 ‘장모님 나 좀 살려 주십시오’ 하고 고함을 지르면 장모가 ‘우리 사위 살려 달라’ 며 술상을 내어 오는데, 처음에는 술상이 보잘 것 없지만, 그럴 때마다 신랑을 힘껏 다루면, 신랑은 장모에게 좀 많이 차려오라고 사정한다.

그렇게 조금씩 음식이 나와 상이 그득해지면 신랑은 그대로 둔 채 자기들끼리만 먹는다. 신랑이 ‘나도 좀 먹자’ 고 묶인 몸을 풀어달라고 하면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으박지른다. 그러면 신랑이 장모에게 아무 곳에 가면 있으니 제발 그렇게 하라고 사정한다.

신부가 못이기는 척 나타나면 이번에는 ‘신부에게 노래를 시켜라’, ‘서로 입을 맞추어라’ 등의 난처한 일을 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신랑 다루기 놀이는 단순한 장난 이전에 큰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처가의 친인척과 마을 청년들의 얼굴을 빨리 또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고, 정을 돈독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주 가까운 인척 아니면 마을 청년들이나 어른들도 모르고 지내는 오늘날의 세태와 비교하면 전통 혼례에서의 신랑 다루기는 대단히 지혜로운 행사라고 보아진다.

(6) 고성 의 현대 결혼식

고성군내에서도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됨에 따라 대부분 그대로 따랐다. 가정의례준칙은 1973년에 가정의례를 치를 때 허례의식을 없애고 의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데 있었다. 2008년에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하

면, 약혼할 때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사항만 협의하며,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혼인예식의 식순은 개식-신랑입장-신부입장-신랑신부 맞절-혼인서약 및 서명-성혼선언-주례사-양가부모에 대한 인사-신랑신부의 초대 손님에 대한 인사-신랑신부 행진-폐식 순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예식의 간소화에 따라 따랐는데, 현대에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때 주례 대신 양가 부모님의 덕담과 본인들의 성혼 성언 등으로 진행된다. 고성지역의 결혼식장은 다음과 같다.

-웨딩컨벤션홀 : 고성읍 성내로 47(교사리 16-2)

3) 재행(再行)·신행(新行)·현구례(顯舅禮)·근친(覲親)

(1) 재행

신부가 친정에 묵었다가 시집에 가는 경우 신랑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신부집으로 오는데, 이를 ‘재행걸음(재행)’이라고 한다. 재행 때는 신랑이 장인, 장모의 담뱃대를 선물로 가져온다.

(2) 신행

신부가 시집에 가는 것을 신행이라 한다. 신행을 ‘우귀(于歸)’ 또는 ‘근친(覲親)’이라고도 한다. 신행은 혼례당일, 삼일, 칠일, 삼개월, 일 년에서 삼년간 친정에 묵었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행을 떠나는데, 가마 안에 요강을 넣는다. 요강 안에는 솜이나 짚을 넣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시댁에 가마가 도착하면 대문 앞에 짚불을 피운다. 신부를 대문 앞에서 내리게 하여 짚불을 밟게 하거나 넘어가도록 한다. 신부의 가마를 방문까지 가져가는 경우에는 가마를 맨 사람이 짚불을 밟거나 넘어간다. 이는 신부를 따라온 잡귀나 부정한 것이 떨어지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친정에 묵었다 신행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을 해서 오거나 아기를 낳아서 오는 일도 간혹 있다. 이때는 시댁의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혼례식이 신부 집의 잔치라면 신행은 신랑 집의 잔치였다. 요즘에는 쓰이지 않지만 50여년 전만해도 결혼 청첩장에는 반드시 신행일(우귀일)이란 표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신부가 신랑 집에 가는 날을 뜻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예식장이란 것도 없었거니와 혼례식은 신부 집에서 행하는 대례장이 예식장인 셈이었다. 신행일은 좋은 날을 택하여 정했는데, 가문이나 지방의 풍속에 따라 달랐으며, 신랑은 사흘정도 머물렀다가 혼자서 돌아가고, 신부는 그대로 친정에 머물게 되며, 그동안 신랑은 자주 신부 집을 찾아와 놀다가 갔다. 옛

날부터 “ 사위는 백년손님 ‘이라 하여 손님 대접을 받고 돌아가기 때문에 처가 식구들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은 눈총을 받아왔다.

보통 가정에서는 혼례 사흘 후에 신랑과 함께 신행을 가게 되며, 절차는 신행일과 관계 없이 비슷하다.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마가 없으면 달구지를 이용하기도 하며, 절대로 걸어가는 법은 없다. 시(媿)집으로 가는 행렬은 신랑이 장가 들 때보다 더 요란스러웠다. 말 탄 신랑과 가마 탄 신부 일행에는 상객(上客. 신부 아버지)과 웃각시(신부 올케나 언니), 하님(언니나 친구)이 있고, 가재도구와 예단함(禮單函)도 함께 지고 간다. 예단함에는 시부모의 바지저고리, 시삼촌과 시형제의 저고리, 기타 시댁의 친인척에게 줄 버선 등과 예단으로 드릴 여러 가지 예단음식을 장만하여 넣는다. 신부가 시집으로 떠나고 나면 신부집에서는 ‘뒷삼’ 이라 하여 술과 떡을 마을 집집마다 돌리면서 잔치 날 애써 준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후렴잔치’ 라 부른다.

신부가 신랑마을 입구에 닿으면 신랑이 가마문을 열어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게 하여 앞서고, 앞서가는 신랑을 따라 웃각시와 하님의 부축을 받으며 신부가 시댁으로 가는데, 신부는 보(褌)로 얼굴을 가린다. 시댁의 문전에 다다르면 짚단에 불을 붙여 놓는데, 신부는 이 불을 뛰어 넘는다. 이때 콩이나 팥 또는 무명씨 등을 신부의 얼굴에 뿌리기도 한다. 이 풍속은 잡귀를 쫓고 부정을 태우는 의식이며, 어느 지방에서는 바가지를 밟아 깨도록 하는 일도 있다. 바가지 깨지는 소리에 잡귀가 도망가라는 뜻에서이다.

신부가 집안에 들어오면 미리 차려진 마루의 제단(祭壇)에 올라 신랑은 왼쪽, 신부는 오른쪽에 서서 두 번 절하고 잔을 올린 후 다시 절을 한 번 하여 조상님에게 새 사람의 입가(入家)를 고하는 의식을 한다. 이것이 끝나면 신랑은 집안사람들에게 인사하기 바쁘고, 신부는 정해진 방에 자리 잡고, 상객은 행랑에 자리를 정한다.

큰방에서는 예단을 올릴 준비를 서두르는데 폐백(幣帛)은 조부모, 백부모, 부모, 숙부모, 고모, 이모, 형제의 순으로 절을 하고 술을 권한다. 신부를 부축하는 하님은 신부 대신 술을 따라 올리며 절 받은 사람으로부터 쌀 한 되씩 받았다. 그리고 시댁의 폐백 자리에 참석한 최 연장 어른이나 시아버지는 대추 아홉 개와 밤 한 톨을 신부의 큰 치마에 던져 주었다. 까닭은 밤은 부귀를 상징하고, 대추 아홉은 다남(多男)을 뜻했으며, 대추 세 개 씩은 장남 3년,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이렇게 지내는 동안 시집살이를 평온하게 지내면서 부귀영화(富貴榮華), 다복다남(多福多男)하게 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절값’ 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술을 권하고 인주를 드릴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엿이나 찰떡을 드렸는데, 이것은 엿과 찰떡이 입 안에 붙어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폐백이 끝나면 신부는 큰 방의 ‘술자리’ 라고 말하는 아랫목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고 동네 안 할머니와 부녀자들은 신부를 보기 위해 찾아와 방안에 모여앉아 신부를 살핀다. 그러면 초순배(初巡杯)라 하여 간단한 음식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신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요기를 하고, 웃각시는 구경 온 할머니와 부녀자들에게 술을 돌린다. 조금 지나면 신부와 상객은 큰 상(상객상), 신부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신랑상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상을 물리면 남은 음식은 싸서 신부 집에 보낸다. 그런데 신랑의 상객은 즐겁지만 신부의 상객은 고이 양육한 딸을 남의 집에 맡기고 간다는 생각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저녁이 되면, 신부 또래의 이웃 부녀자들이 찾아와 간단한 음식을 즐기며 노는데, 이것은 같은 마을에 살게 된 여자끼리 서로 안면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 신랑 집에서 첫 밤을 보낸 신부는 아침 일찍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며, 신부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보통 사흘이 지난 후 부터이다.

(3) 현구례(顯舅禮)

시부모와 일가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현구고례’ 인데, 이를 ‘폐백드린다’ 라고 한다. 폐백은 방이나 마당에서 한다. 음식은 신행 때 친정에서 준비해 온 고기, 떡 등의 술안주와 두루미에 담아온 술을 드린다. 이때 엿도 한 바구니 가져와서 시부모와 친척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는 시댁 식구들의 입을 붙인다는 의미다. 첫날에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잠을 자는데 그렇게 해야 갈등이 없다고 생각 하였다.

제 5절 상례(喪禮)

1. 개요

거유(巨儒) 김장생(金長生)이 광해군 12년(1620)에 상례비요서주석(喪禮備要序註釋)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마다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관혼상제는 모든 가문에서 일용의 근본으로 통하여 길사(吉事)나 흉사(凶事) 때 하나도 폐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예절의 쓰임이 길상 시에는 쉽게 이루어지나 갑자기 흥변을 당한 때는 실책이 많으니 구차하게 바탕이 없는데, 지도를 받는다 하나 합당한 절차가 어려워져 하나라도 절차에 맞게 한다고 하나 실수가 있는바 이는 후회한들 미칠 바 아니라 효자로서 스스로 다하고자 하는바가 사례(四禮)에 있으니 모두가 중요하고 절실한 것들이다.



공자, 주자의 가례에 소상하게 갖추어 기록되어 있는 바이나 혹 고금(古今)이 달라 마땅히 그 때에 맞지 않게 쓰는 어 중간한 선비가 요령 없이 변통하는 수가 있으니 이것이 병폐라. 나의 친우 신공(申公) 의경씨(義慶氏)가 예학(禮學)에 심취하여 모든 경적(經籍)을 널리 상고(詳攷)하여 그 대요(大要)를 간추려 내

어 한 서책(書冊)을 편집하니 이름이 ‘상례비요(喪禮備要)’라 모든 가례가 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고금의 예를 참고할 것이니 제가(諸家)의 학설이 사안(事案)에 따라 첨가되고 보완하던 중 역시 시속(時俗)의 제도에 따라 실용자의 편의대로 절목(節目)을 심비(甚備)함은 대체적으로 반복하여 상세히 정정한다는 것이 절차를 더하든가 생략함은 어리석은 소치라 규모와 조례를 알고 준행(遵行)함이 주자의 뜻이라 감히 억설(臆說)로 설상가상 미화(美化)시키지 안했으니 어린 몽학자(蒙學者)라도 책을 펼치면 일목요연하게 창졸지간(倉卒之間)에도 터득하는 바 있을 것이다.

예학을 좋아하는 자가 혹 이로 말미암아 실책 없게 자세하고 잘 다듬어 조리정연하게 마무리했음은 성인이 제작한 뜻을 상고하여 온 천하에 질상(秩常)이 바르게 되어가는 도(道)를 다하도록 하였으니 풍속의 교화에 만분지일(萬分之一)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노라”고 하였다. 상례를 정리함에 있어 전통상례와 고성에서 전해지는 상례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하겠다.

1) 신질(慎疾)

환자의 병세가 위독하면 환자를 정침(正寢)으로 옮겨 모신다. 이때 정침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방 안에는 악기나 곡물종자 등을 치우고, 환자는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가 동으로 가게 하여 북쪽 들창 밑에 눕힌다.

2) 속광(屬纊)

속광이라 함은 부드러운 햇솜을 환자의 코나 입 앞에 대고 솜털의 움직임을 보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자일 경우는 여자의 손으로, 여자일 경우는 남자의 손으로 코앞에 대고 기다림을 말한다.

3) 임종(臨終)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운명(殞命)’ 이라 하고, 운명을 조용히 지켜 드리는 것을 ‘임종’ 이라 한다. 운명은 예견할 수 없으므로 가족들은 모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곁에서 지켜드려야 하나 부득이 외출해야 할 적에는 반드시 행방과 소재를 분명히 하여 언제든지 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달려올 수 있도록 한다. 환자를 모신 방이나 운명한 후 시신을 모실 방에는 잔 세간들은 모두 치워 청소하고, 운명하면 갈아 입혀드릴 옷은 평소에 입던 옷으로 세탁한 것으로 준비한다.

환자가 혼수상태에서 그대로 조용히 숨을 거두는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허우적거리는 수도 있어 곁에서 지켜보는 자손들 자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애달프고 측은한 마음으로 환자를 붙들고 울부짖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시즉(時則) 숨을 거두게 되는 사람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시끄럽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죽는 이로 하여금 안정을 잃게 할 수도 있으니 마음을 억누르고 조용히 운명하도록 지켜드리는 것이 예의이다. 혹시나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라도 있을지 모르니 더욱 조용히 지켜보아야 한다.

시즉생사(時則生死)의 갈림 길에서 숨을 모우고 있는 상황에서 침착(沈着)하기란 제3자의 입장에서나 할 말이지 자녀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황해서 허둥대다 실수할지 모르니 조심해서 엄숙한 순간을 절도 있게 행하여 편안히 운명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실수를 해서 평생에 한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눈동자가 풀려 초점을 잃고 숨을 갈딱갈딱하면서 잔 숨을 삼킨다. 사람이 죽으면 휘었던 허리가 바닥으로 내려 앉아 바닥과 허리 사이에 공간이 없어 손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손을 허리 밑으로 넣어 확인을 한다. 임종과 관련한 동물 속신으로는 까마귀가 울면 누군가가 죽거나 병에 걸린다고 해서 까마귀가 가까운 데서 우는 것을 싫어한다.

4) 정제수시(整齊收尸)

이미 운명하면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손으로 쓸어 내려 눈을 감기고, 고운 인상을 남기게 하고, 햇숨으로 코와 귀를 막아 피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입에는 손가락 보다 약간 가는 깨끗한 나무토막을 가로 물려서 염(殮)을 할 때 반함(飯含)하기 쉽게 한다. 이것을 ‘설치(楔齒)’라 한다.

임종 확인 후 20시간이 지나면, 윗목에 침상을 놓고 시신의 머리가 북으로 가게 반듯이 눕히고, 따뜻한 물에 생할을 넣고 적신 후 시체가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를 잘 주물러 펴서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는데,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 손이 위로 가게 포개어서 공수(拱手)하는 자세로 하고, 양쪽 어깨를 백포로 단단히 묶고, 발은 세워서 발끝을 모아 묶은 다음

탈지면에 알콜을 묻혀서 얼굴과 손을 닦아 우선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고, 백포로 얼굴을 덮고, 병풍으로 시신을 가리고, 초종(初終)에 임하며, 온 집안에 공성이 끊이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남녀 모두 머리를 풀고 신발도 벗고 맨발로 다녀야 하며, 상주인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으며, 남상(男喪)이면 왼 소매, 여상(女喪)이면 오른 소매를 빼고 입는다. 상주들은 임종 이후부터 성복까지 식음을 전폐한다. 자녀는 3일 동안, 구월복(九月服)을 입은 사람은 세끼, 오월복(五月服)을 입은 사람은 두 끼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예법이다. 굶고 있는 상주를 위해 친척이나 이웃사람이 싸래기 죽을 끓여 상주들에게 권하는 예가 근간 초상집 관죽으로 변질되었다.

5) 고복(梟復, 또는 招魂)

고복(초혼)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망자가 생전에 입었던 윗저고리를 들고 마당에 서서 흔들며 본관이나 관행을 부르면서 ‘복’을 세 번 외치고 지붕 위로 던진다. 다른 경우는 윗저고리를 마당에서 흔들며 관행이나 본관을 부르면서 ‘복’을 세 번 외친 후에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지붕 위에 걸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집에 초상이 났음을 이웃에 알리는 것이다.

6) 사자상(使者床)

망자의 혼을 데려가기 위해 오는 사자에게 먹으면서 쉬엄쉬엄 저승으로 가라고 음식을 차려 주는데, 초상집의 북쪽에다 차린다. 사자상에는 밥, 물, 김치, 수저, 돈, 짚신 등을 진설한다. 돈은 고인이 저승으로 가는 차비이고, 밥은 같이 온 잡신들도 먹으라고 큰 양푼에 담는다.

7) 발상(發喪)

발상이란 상을 당했음을 발표한다는 뜻으로 집안에 주상(主喪)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의식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나 주상은 당연히 망인의 장자가 되는 것이다. 장자가 사망했거나 질환으로 주상이 될 수 없으면, 장손이 승중상(承重喪)으로 주상이 된다. 그러나 주상이 너무 어리면 전(奠)을 올리고, 빈객접대는 동거인 중에서 존자(尊者)가 대행한다. 이때 주상인 장남과 차남부부는 머리를 풀고 맨발을 하며, 양자 간 아들과 출가한 딸은 비녀만 뽑고 머리는 풀지 않는다. 딸만 있을 경우 장녀가 주상주가 된다.

8) 호상(護喪)

호상은 집안에 덕망이 높거나 인맥이 넓은 사람 중 상례에 밝고 지면도가 높으며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골라 맡긴다. 이 사람은 초종범절을 맡아서 주상을 돕고 대리 지휘감독하며, 의식을 진행한다.

이때 호상 한 사람이 모두 진행하기 어려우니 문상객의 출입상황과 부의록, 구입목록 등을 기장할 사서(司書)와 각종 제수와 음식을 관리할 사화(司貨) 그리고 문상객을 안내할 상례와 제반 의식을 진행할 집사(執事)를 선임하여 초종범절을 절도 있게 진행한다. 그리고 호상소(護喪所)는 주상과 가까운 곳에 마련하고 서로 상의하기 쉽게 한다.

부고장을 보낼 경우 상주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호상의 이름을 보고 문상을 오기 때문이다. 부고장은 절대 집안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대문간 옆이나 화장실 옆에 꽂아 둔다. 초상집에 벌을 키우면 부고장을 제일 먼저 그곳에 붙이는데, 벌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윙윙’ 거리며 울어 주기 때문이다.

출가외인인 딸이 객지에서 마을입구에 도착하면 머리를 풀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서 부모를 잃은 슬픔으로 곡을 하며 초상집으로 들어간다. 상가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곡소리는 상주가 하는 곡과 문상객이 하는 곡이 다르다. 상주는 ‘아이고, 아이고’ 라 하고, 문상객은 ‘어이, 어이’ 라 한다.

9) 전(奠)

초종에서 성복(成服)까지는 돌아가신 분이라도 생시와 같이 식사를 올리는데 포(脯)와 식혜(食醴)를 올린다. 식사상은 시신을 가린 병풍 앞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올리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시신을 모신 방문 밖 마루에 올리기도 한다. 전은 상주가 친히 올리지 않고 집사가 올리며, 포와 과실을 차리고 축관이 술을 따라서 시신의 동쪽 어깨머리에 드린다. 반드시 포혜(脯醴)가 아니더라도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을 올려도 무방하다. 전은 절을 하지 않으며, 이 상은 염습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한번 씩 갈아 드릴 뿐 종일 차려놓으므로 가끔적 마른음식을 차리고, 과실은 아래 위만 자르고 껍질은 깎지 않는 것이 정결해서 좋다. 또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도 제상머리에 꽂아 드리는 것도 무방하다. 이 전을 드리는 의식은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이기 때문이다.

10) 신주명정(神主銘旌), 수의(壽衣), 관(棺), 장지(葬地)

백지로 지방(紙榜)을 접어서 신주를 모시고 오색당사(五色唐絲)실로 동심결(同心結)을

맺어 끼우고 혼백상자 위에 세워서 상기(喪期)동안 빈소에 모셨다가 상기가 끝나면 묘소에 묻어 드리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근세에는 관(棺)을 주문하면 위패까지 갖추어 주므로 비장을 접고 동심결을 맺을 필요가 없으니 지방을 접고 동심결을 맺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더욱이 생전에 찍어둔 사진을 영정(影幀)으로 모시게 되니 지방 혼백을 접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영정을 모시는 방법은 검은 테의 액자에 사진을 끼우고 검은 리본 두 가닥을 액자의 상부중앙에 고정시키고 한 가닥씩 팔자형으로 나누어 액자좌우, 중앙부에 고정시킨다. 영정은 시신을 가린 병풍 앞에 영좌(靈座)를 설치하여 모시고 영좌 앞에 식탁을 설치해서 주과(酒果)를 차리고 조석으로 전을 올리며, 식탁 앞에는 향로향합(香爐香盒), 제주(祭酒)와 생전에 사용하던 빗, 담뱃대, 신 등을 갖추어 놓고, 성복전에는 생전과 같이 모신다. 영좌는 의자에 깨끗한 백지로 덮고 그 위에 영정을 기대어 세워 모시는 것이 제일 간편하다. 영좌가 마련되면 명정(銘旌)도 준비한다. 명정은 순홍색 명주 천 한 폭, 길이 육척에 백서(白書)로 쓴다. 백서로 쓰려면 백색안료 대신 먹을 진하게 갈아 붓으로 쓰면서 먹물이 마르기 전에 밀가루를 뿌려서 말리면 백서가 된다.

수위는 윤달에 삼베를 이용하여 집에서 직접 만드는데 질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관은 미리 만들어 놓는데, 주로 소나무가 많고, 향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등이 사용된다. 관으로 제일 좋은 나무는 은행나무이고, 다음이 오동나무라 한다. 이는 관이 빨리 썩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의 경우는 아래쪽이 넓고, 남자의 경우는 상체가 넓게 관을 짠다.

11) 염습(殮襲)

습(襲)이라 함은 향나무나 쑥 삶은 향탕수(香湯水)로 시신을 깨끗이 목욕시킴을 말한다. 목욕은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씻기는데 상주 이하 모두 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고 곡을 하며 시자(侍者)는 흠이불로 시체를 가리고 병시(病時)에 입었던 옷은 모두 벗기고 햇숨이나 거즈에 탕수를 적서 상체부터 씻기고 물기를 닦은 다음 상체 씻은 물과 수건은 버리고 다시 하체를 씻을 향탕수와 수건, 햇숨을 사용해서 씻고 닦은 후 속옷을 입히고 머리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과 좌우수족의 손톱, 발톱을 다섯 개 주머니에 각각 구별해서 담아 두었다가 입관할 때 이불 속에 넣어 준다. 생전에 이빨 빠진 것이 있으면 같이 넣어 준다. 목욕시킨 물과 기구는 모두 사람의 발이 가지 않는 깨끗한 곳에 파고 묻어버린다.

습을 하기 전에 시신의 눈이 반쯤 떠 있으면 감기고 전신을 반듯이 하여 닦으며 코, 귀, 향문 등을 휴지나 습, 종이, 가재, 명주 등으로 막는데, 이것은 나쁜 온기가 나오는 것과 시집(땃물)이 밖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입에는 양식(쌀)을 넣는다. 이것은

“저승에 가면 술을 파는데, 술 먹지 말고 가라” 는 의미에서 양식을 입에 채워 넣는다고 한다. 쌀을 채운 후 창호지로 막아서 봉한다.

습이 끝나면 염(殮)을 하는데, 시신의 몸에 수의(壽衣)를 입힌다. 수의는 대개 윤월(閏月)에 짓는데, 윤월은 가외(加外)의 달이라 재액(災厄)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수의의 내력은 명나라 복제로서 뒷땀을 뜨지 않으며 실끝을 맺지도 잇지도 않는다. 술기를 떠 보고 실 끝이 약간 여유가 있어야 하며, 치수도 짝수로 하지 않는다. 수의의 천은 명주(明紬)나 마포(麻布)로 한다.

수의가 준비되고 목욕이 끝나면 중의(中衣) 적삼을 입히고 망건을 씌우고 버선을 신긴 다음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의 소매를 차례로 끼워서 시신의 상하좌우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서 상의 위에 눕히고, 상의를 입혀 안설했을 위로 여미고 고름은 매지 않는다.

염의 방법으로는 고인이 임종을 하여도 살아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서 염을 한다. 염은 수의를 입히고 시신의 손을 가슴 위에 엇갈리게 놓고 매듭을 짓는다. 7매듭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12매듭을 하기도 한다. 매듭은 목-가슴-배-다리 순으로 묶는다. 염의 마지막에는 새끼를 꼬아서 다시 7매듭으로 묶는다. 염이 끝나면 시신을 입관한다. 시신을 관에 넣거나 관을 상여에 넣을 때 사용하는 줄을 ‘절간줄’ 이라고 한다. 입관이 끝나면 혼백을 만든다.

12) 반함(飯含), 소렴(小殮), 대렴(大殮)

이상 심의(深衣), 소렴할 물품이 갖추어졌으면 반함을 한다. 반함은 시신의 입에 쌀과 무공주(無孔珠 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를 입에 넣어주는 절차이다. 상주는 곡하며 왼쪽 소매를 빼어서 앞으로 돌려 오른편 허리띠에 꽂고 입에 넣을만한 쌀의 양과 무공주 3개를 담은 그릇에 버드나무 수저를 걸치고, 시신의 동쪽 발치에서 서쪽 두상(頭上) 머리를 향해 꿇어앉아 명목(瞑目)을 벗기고 설치해 두었던 나무를 빼고 입을 벌려 버드나무 수저로 쌀을 떠서 오른쪽 중간 왼쪽 순으로 세 번 떠 넣고 무공주도 이와 같이 넣고 입을 단게 한 다음 함령(頤頤)으로 턱을 받쳐 끈으로 묶는다. 베개를 바른 자세로 고우고, 좌우 귀에 충이(充耳)하고, 복건을 씌우고, 명목(瞑目)을 씌워 끈을 뒤로 매고, 신을 신기고, 양발 끝이 벌어지지 않게 발끝을 모아 묶고 심의를 입히는데, 오른 섯이 위로 하고, 토수(吐手)를 끼우고, 악수(握手)로 손을 싸 묶고, 양 손을 소매 속에 넣고, 소매 끝을 묶어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개서 배 위에 얹은 다음 대대(大帶)를 묶고, 조대(條帶)를 동심결로 맺고, 시신을 이불로 덮어 다시 시상(屍狀)에 모시고, 병풍을 가리면 습, 염, 반함의 절차가 끝난다. 참고로 무공주는 왕은 옥(玉), 제후는 주(珠), 대부는 벽(璧), 서민은 동전(銅

錢)을 쓴다고 예문에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다.

소렴은 사망한 뒷날 한다고 하나 목욕, 반함에 이어 소렴까지 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소렴상(小殮狀) 위에 먼저 지금(地衾)을 깔고 시체를 가로 묶을 정도 길이로 마포나 면포 세 폭 반을 잘라 가로로 깔고, 베 전폭(全幅)의 양쪽 끝을 가위로 잘라 놓고, 그 위에 시체의 머리와 발을 쌀 만큼 7척 정도로 끊어 길게 깔고, 시신을 그 위에 반듯이 모시고, 베 개를 빼고 생전에 입던 옷을 접어서 머리를 고이고, 양 어깨 사이와 양다리 사이의 빈곳을 접어 채우는데, 상체는 상의로, 하체는 하의로 채우고, 악수, 복건, 두건, 떡목을 다시 살피고 천금(天衾 이불)을 덮은 다음 길게 깔아진 장포로 머리와 발을 싸고, 가로로 깔아진 횡포 세 폭 반을 아래로부터 일곱에 베로 묶는다. 다시 말하면 반폭 한 메와 전폭짜리 세 폭의 양끝이 반씩 쪼개져 여섯메가 되니 일곱메가 된다.

이렇게 소렴이 끝나면 시신을 다시 시상(尸狀)에 모시고 상주는 풀었던 머리를 걷어 올리고 포두건(布頭巾)을 쓰고, 두루마기를 바로 입고 자리에 나아가 애곡(哀哭)하면 집사가 병풍으로 시신을 가리고 전을 올린다.

대렴은 소렴한 다음날 사망한 3일 만에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을 말한다. 집사는 먼저 영좌(靈座)와 소렴전(小殮奠)에 올렸던 상을 한쪽으로 옮기고, 관을 시상 옆에 상하를 가려서 놓고, 관속에 먼저 회(灰)가루를 고르게 깔고, 이어서 칠성판 지금을 펴고, 이불 끝이 관 밖에 나가도록 하고, 시자, 자손 모두 손을 씻고, 시신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싸서 묶은 다음 시신을 들어 관 속에 바르게 모시고, 생전에 빠진 이와 목욕할 때 빠진 머리털을 넣은 주머니와 좌우 손발톱을 깎아 넣은 주머니를 좌우상하 구별하여 관 모서리에 넣고, 관속 빈곳에 생전에 입던 옷을 말아 충관(充棺)을 하는데 충관 하는 의복이 화학 섬유질은 피하고, 공간이 있으면 화장지로 충관을 하고, 먼저 칠성판 위에 깔고, 사망 끝을 관 위에 올려놓았던 지금으로 싸고, 천금을 덮은 다음 관 뚜껑을 덮고, 못질하고, 절관바(원새끼) 50발 정도로 관을 일곱메로 묶는데 절관바를 끊어 쓰지 않는다.

다음 관보(棺槨)를 씌우고 영구를 실외에 한적하고 정결한 곳에 모시는데, 실내에서 관 중앙이 문지방을 넘을 때 관을 세 번 놓았다가 들었다가 하는 마지막 하직인사를 하고, 정해진 곳에 모시는데, 영구가 땅에 닿지 않도록 영상(靈床)을 설치하고, 머리가 서쪽으로 가게 모시고, 관의 뒷면은 포장(布帳)이나 초석(草席)으로 가리고, 앞면은 병풍으로 가린 다음 명정을 병풍 앞 동쪽에 걸쳐 놓고, 병풍 앞에 영좌를 설치하여 그 뒤에 영정신주혼백상자(影幀神主魂帛箱子)를 모시고, 영좌 옆에 생전에 애용하던 도구, 즐(櫛), 담뱃대, 신등을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 놓고, 집사는 분향하고, 주과를 차린 전상(奠床)을 올리고, 대렴절차를 마치며, 성복을 하게 된다.

13) 성복(成服)

염습을 마치면 두루마기를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상복 후 혼백을 방에 모셔놓고 메와 제물로 상주가 술을 올린 후 곡소리를 낸다. 곡소리 후 인사를 하면 성복제가 끝난다. 두루마기는 백관만 입는다. 결혼 한 상주는 두건이 올라간 굴건을 쓰고, 제복을 입고, 허리에 몇 가닥으로 끈 띠를 매고, 손에는 지팡이를 쥔다. 미혼자는 상복을 입지만 허리띠는 없고, 지팡이도 짚지 않는다. 부모의 상인 아버지 상일 경우 대나무 지팡이를 만들고, 어머니 상일 경우 오동나무 지팡이를 사용한다.

기록에 의하면, 성복은 상의 복(服)을 입는다는 말인데, 대령한 다음날 운명한 4일 새벽에 행한다. 양씨가 말하기를 비록 대령에 이어 당일 성복함은 실례라 했으나 근래에는 장례 자체를 3일장 만에 치루고 성복전에는 조객의 접객이 어려우니 생자(生者)의 편의상 대령에 이어 성복 할 수밖에 없다. 주인 이하 모두 중문 밖으로 돌아가서 상복을 입는데, 오복 중(五服中) 각기 자기에게 해당하는 복을 입고, 상청(喪廳)에 나아가 남자는 영구(靈柩)의 동변에서 서향으로, 여자는 서변에서 동향으로 마주 서서 애곡하고, 집안에 조부모나 백부모가 계시면 그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애곡하며 서로 조상(弔喪)한다.

흔히 성복제라 말을 하는데, 성복은 제(祭)나 전(奠)을 올리는 절차나 축문도 없이 새벽에 조곡(弔哭)하는 절차뿐이다. 조곡은 매일 주인 이하 모두 상복을 입고, 영상 옆에 세숫대야, 빗, 등속을 차려놓고 곡하는 절차니 아침에 세수 하라는 절차인 듯하다.

상주 형제는 운명할 때부터 이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이웃 친지들이 상주에게 곡기(穀氣)라도 시켜야 한다고 죽을 끓여 와서 상주에게 권하는 것이 풍습이 되어 초상집 팔죽이 생겨났다. 성복하는 날부터 죽이라도 먹기 시작한다.

상복을 입는데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굴건(屈巾)에 수질(首經 천테)을 끼어 쓰고, 참취(斬衰. 父喪)에는 상복을 삭하지 않은 생마포로 지으며, 실은 끝을 맺지도 잇지도 않고 아랫단을 깎지 않으며, 상장은 죽장(竹杖)을 2척 정도로 짧게 해서 상주는 부모를 잃은 죄인으로 자처하며 허리를 펴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어야 하며, 요질(腰經 대띠)을 띠고, 신은 엄짚신이라고 하여 짚신의 신총이 한쪽에 세 개씩인 신을 신는다. 제취(齊衰. 母喪)의 상복은 익힌 마포로 아랫단을 깎으며, 상장은 오동(梧桐)나무를 쓰고 짚신총은 네 개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14) 조문(弔問), 문상(聞喪)

상주의 성복이 끝나면 그때부터 조문을 한다. 예부터 상주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면, 조문객이 ‘어이 어이’ 하고 곡을 하였다. 조문객이 부조를 할 경우 초, 삼배,

술 등의 물품을 보냈다. 요즘은 부조를 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주를 부조하는 경우가 있다.

상주가 객지에 나가 있다가 부모상을 듣고 급히 돌아오는 것을 문상이라 한다. 부음(訃音)을 들으면 즉시 곡하며, 부음을 전한 사람에게 사례하고 소복(素服)으로 갈아입고, 백포를 타올 만큼 끊어 반으로 접어 양쪽을 조금씩 찢어 머리에 쓰고, 백색 적삼을 입고, 새끼 띠를 매고, 삼신을 신고, 즉각 집으로 돌아오는데, 처음 부음을 들으면 산발하고, 신발을 벗고, 오는 것이 원칙이나 장거리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머리는 걷어 올리고, 신발은 신고 와서 문전(門前)에 도착하여 다시 산발하고 맨발로 들어온다. 먼 곳에서 오면 하루에 백리를 못 오더라도 밤길은 걷지 않는다. 비록 부모상을 당해 일각이 바쁘나 호식(虎食) 등 동물에 의한 피습을 피하기 위함이다. 도중에 슬플 때는 곡을 할 것이나 번잡한 곳을 통과할 때는 곡을 하지 않는다. 그 고을 경계나 그 집이 바라보이면 곡을 한다. 집에 도착하면 영구 앞에서 재배하고, 다시 상복을 입고, 영구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앉아서 곡을 한다.

일포제(日晡祭)란 그날이 막 지나간다고 하여 입관을 하고 해가 질 무렵인 오후 4시경에 지내는 제사이며, 출상하기 전날 밤에 상두꾼들, 앞소리꾼 등이 초상집에 모인다. 이는 출상을 하기 전에 상여를 메고 받을 맞춰보기 위해서다. 이를 ‘상여놀이’ 라고 하고 ‘상여 태운다’ 라고도 한다. 상여놀이는 자기수명대로 복되게 살다가 죽은 호상일 때만 한다. 상여놀이를 하면 상주 집에서 술과 음식을 내고 놀이를 하는 도중에 직계 비속들이 돈을 내기도 한다.

15) 발인(發引)

요즈음은 상을 당하면 보통 삼일장으로 한다. 관이 집에서 나갈 때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의 가짓수는 기제사를 지낼 때와 동일하며, 제의 형식도 같다. 그리고 집 밖의 넓은 마당이나 마을 앞, 마을 삼거리 등 공간이 넓은 곳에서 발인제를 지낸다. 발인제는 상주가 중심이 되어서 제를 진행한다. 이때 발인 축을 읽는다. 이어 명정-공포-운삽-만장-영정-앵여-상여-상주-가족 및 친척 순으로 장지를 향해 출발한다. 앵여에는 혼백을 넣고 고인의 손주가 들고 운반한다. 영정도 역시 고인의 손주가 들고 운반한다.

상여 앞에서 팽과리를 치거나 요룡을 흔들면서 소리하는 ‘앞소리꾼’의 장단에 맞추어 상두꾼은 뒷소리를 하면서 간다. 고인을 그대로 보내기가 서운하다 하여 상여를 쉬게 하고 제물을 진설하여 제를 지내는데, 이것을 ‘길제’ 또는 ‘노제’라 한다. 상여 앞에 새끼 줄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 앞소리꾼이 소리하는 도중 친구, 친지, 사위, 유지 등을 태우고 돈을 꽂게 한다. 이 돈을 ‘월강채’라 하며 상두꾼이 가져가 상포계 운영자금으로 쓴다.

우리의 전통상례를 보면, 대부(大夫)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사(士)는 1개월을 넘겨야 장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 기간 동안 풍수설에 의해 장지(葬地)를 찾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 해도 다섯 가지 우환, 다시 말하면 훗날 도로나 성곽, 구거(溝渠), 촌락, 농경지 등이 들어설 자리는 피해야 한다.

장지가 정해지면 천매(穿埋)구덩이를 파기 전에 산신제를 올려야 한다. 산신제는 주(酒), 과(果), 포(脯)를 진설하고, 산역자(山役者) 중 가정우환이 없는 사람을 골라 제관이 되어 재배하고, 제주(祭酒)를 잔에 채워 잔을 눈높이로 들고 머리를 약간 숙여 헌작한 다음 제상 앞 풀밭에 세 번 기울여 붓고, 다시 신전에 제주를 잔에 부어 잔을 드리고 부복(俯伏)하면 축관이 다음과 같이 독축한다. “祝文 維歲次(太歲) ○○月朔 ○○(日辰) 幼學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處士(學生) 本貫姓公(氏) 擇茲吉辰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清酌胞果 祇薦于 神 尚饗” 독축이 끝나면 제관은 일어나 다시 재배하고 칠물한 다음 지정된 곳을 파고 천광이 다 파지면 숯가루를 밑바닥에 2, 3촌정도 깔고, 석회반(石灰半) 세사(細砂)와 황토를 합해서 반을 고르게 섞어 숯가루 위에 다시 2,3촌 두께로 깔고, 천광중앙을 중심으로 관이 들어 갈 만큼 해서 얇은 판자로 좌우상하 벽에 세우고, 사방공간에 석회, 세사, 황토를 섞은 것을 사촌 높이로 채운다.

견전례(遣奠禮)는 발인제 또는 영결식을 말한다. 날이 썰 때 영구를 상여에 싣는데, 상두꾼이 상여를 안마당에 가져와서 상여 위를 벗기고, 집사는 조전(朝奠) 제물을 철상하고, 축사는 북면에 꿇어 앉아 ‘금천취여감고(今遷就輿敢告)’ 라 고하고, 영좌를 한쪽 옆으로 옮기며, 역부(役夫)를 불러 영구를 상여에 싣고 단단히 묶는다. 이 때 상주는 영구를 상여에 싣을 때 곡하며 지켜본다. 상여 위에 올려 지면 축사(祝師)와 집사는 영좌를 영구 앞 남쪽으로 모시고 조전 때와 같은 제수를 진설하고, 잔을 드린 후 축사가 꿇어 앉아 ‘영이기가(靈輻既駕) 왕즉유택(往卽幽宅) 재진견례(載陳遣禮) 영결종천(永訣終天)’ 이라 고하고 나면 곡하며 재배한다. 이로서 발인제가 끝나면 집사는 포를 거두어 영거 안에 넣어 준다.

16) 하관성분(下棺成墳)

천광(穿壙)해서 회격(灰隔)하고 상여가 묘소에 도착하면 방상(方相)이 창으로 천광의 사방을 찌르며 잡귀의 침범을 막고, 축사는 영거(靈車)에서 영정과 혼백을 받들어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 모신다. 그리고 역부들은 영구를 운구하여 광(壙)의 남쪽에 곡목 두 개를 상하로 깔고, 곡목 위에 머리가 북으로 가도록 모시고, 절간바를 풀어 하관할 때 사용할 줄 네 가닥을 상중하로 걸쳐 놓았다가 하관시간에 맞춰 좌향에 하관하는데, 상주 형제는 곡을 그치고 영구가 바르게 하관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하며, 또 하관시에 호충(互沖)에 걸리는

사람은 하관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

정방위에 방정하게 하관이 되면 불삽, 운삽을 영구의 양쪽에 기대 세우고, 현훈(玄纁)을 축사가, 현은 영구의 동편 위쪽에, 훈은 서편 아래쪽에 바치고, 관 위에 명정으로 덮은 다음 상주들이 취토하고 역부들이 성분한다.

치장(治葬)하는 방법을 간추려 요약해 보면, 장지에 도착하면 흙을 파기 전에 ‘개토제’를 지내고, ‘산신제’를 지낸다. 개토제가 끝나면 관을 꺼내고 하관 준비를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상여를 불에 태운다. 하관을 하고 흙으로 평평하게 덮는데, 이때 상주와 백관이 위에 올라가 밟는다. 그리고 ‘평토제’를 지낸다. 봉분이 완성된 후에 주 상주를 중심으로 ‘성봉제’를 지낸다. 이렇게 하여 산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면 혼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빈소를 차린다. 출상이 끝나면 가족들이나 집안 부녀자들이 고인의 옷가지를 불에 태운다.

17) 우제(虞祭)

우제부터 기제사와 동일하게 제물을 차리고 큰 상주를 중심으로 제를 모신다. 재우제는 출상 다음날에 지내고, 삼우제는 출상 후 3일이 지나면 지낸다. 졸곡제(卒哭祭)는 출상 한 지 3개월 후에 지내는 제사이며, 출상 후 1년이 지나면 소상(小祥), 고인의 임종 후 3년이 지나면 대상(大祥), 그리고 담제(禫祭)는 3년 탈상 후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우제는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말함인데, 초종 이후 지금까지는 조석전(朝夕奠), 소대렴전(小大殮奠), 발인시견전(發靱時遣奠), 반혼전(反魂奠), 모두 전(奠)으로 메를 드리지 않고, 간단한 포혜(脯醢)와 주과(酒果), 단배(單盞)만 드렸는데, 우제부터는 정식제사로 메와 제수(祭需)를 갖추어 삼헌을 드린다.

18) 탈상(脫喪)

망자가 죽은 지 3년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복을 벗는 것을 탈상이라 한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혼백을 산소에 묻는다. 옛 방식대로 탈상을 진행한다면 3년인데, 차츰 형식이 간단해져서 2년, 1년, 49일, 21일, 3일, 2일, 1일 등으로 줄어들었다.

19) 기타

(1) 초분(草墳)

출상을 해야 하는데 장례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관을 산으로 옮겨 관 위에 풀을 덮고 날을 받아 이장한다. 관을 가매장하는 것을 ‘외분’ 이라고 한다. 외분은 장지로 이장하기 전에 시신을 입관하여 집 밖 한적한 곳에 나무 사다리를 만들어 그 위에 올려놓고 이엉을

었다. 살이 빠지고 유골이 되면 장지로 가서 매장을 한다. 외분의 경우 시집이 완전히 빠지는 데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2) 이장(移葬)

이장을 ‘평이’ 라고 한다. 이장할 때 사용하는 판을 칠성판이라 하는데 소나무로 만든 칠성판 위에 창호지를 놓고 시신을 옮긴다. 뼈를 옮길 때는 시신의 머리부터 발을 옮기는 순서로 칠성판 위에 놓는다.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놓은 후 종이로 싸서 묶는다. 이때 종이 줄로 7매듭을 짓는다.

(3) 화장(火葬)하는 경우

화장을 하기 위해 시신을 실은 판을 화장터로 운반한다. 화장 후 가루가 된 시신을 산으로 가져가서 매장하는데 유골단지를 가지고 간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에 묘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시대가 차츰 바뀌면서 장묘문화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배계층과 권력층은 특별히 묘제가 화려하였고 피지배층은 굴장법이나 조장법 그리고 집단묘 등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효도 중 조상의 묘와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 아주 큰 효도라고 생각하였기에 매장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던 것이다.

이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대세도 화장과 납골묘와 납골당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로지 선조를 잘 모시는 것은 후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국토는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 인간은 한평생을 즐겁게 살다가 육신은 없어진다.

2002년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매장기간은 15년씩 3번만 연장되고,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연고자에게 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묘지면적을 기존 상한선의 3분의1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묘지를 불문하고 60년이 지나면 묘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공설 및 사설재단 묘지의 경우 15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만료되면 의무적으로 납골 또는 화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매장할 경우 개인 묘지(선산, 문중묘 등)의 경우 기존 24평에서 9평으로 줄고 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크게 축소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화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버렸다. 화장률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98%, 일본 97%, 홍콩 72%, 영국 69%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률로 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편이다. 2014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전국 화장률이 76.9%로서 사망자 5명 중 3.9명이 화장을 한다고 한다.

(4) 객사(客死)와 미혼자(未婚者)의 죽음

예부터 집이 아닌 밖에서 죽는 것을 ‘객사’ 라고 하였는데, 객사자는 집안에 들어 올수 없기 때문에 처마 밑에 시신을 두고 외빈 또는 빈소를 차려서 초상을 치른다. 미혼자는 장례절차를 행하지 않고 수의를 입혀 조용히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인근 산에 묻는다.

홍역이나 전염병 등으로 죽은 아이들은 땅을 파서 묻지 않는다. 아이의 시신을 독에 넣고 마을 주변의 산으로 가져가서 땅 위에 놓은 후 그 위를 돌로 덮어 무덤을 만드는데, 이를 ‘애기담’ 이라고 한다.

(5) 상례에 관한 계(契)

마을에서 상례와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계를 ‘상포계’ 또는 ‘호상계’ 라 한다. 상포계는 초상이 나면 상포계원들이 부고장을 돌리거나 상두꾼으로 상여를 매고 장지에서 산역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초상에 필요한 일손을 담당하였다. 상포계에서 보관하는 목상여와 상여들은 상여집에 보관하였다. 현재 목상여는 없지만 각 마을마다 상여들은 보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상여들마저 없어지고 대부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평장묘를 쓴다.

(6) 고성외 장례식장 현황(2014년 12월 현재)

- 고성장례식장 : 고성읍 상정대로 390(고성읍 교사로 726-2)
- 고성영락원장례식장 : 고성읍 남해안대로 2607-1(고성읍 동외리 63-7)
- 고성성심병원장례식장 : 회화면 남해안대로 3963-21(회화면 삼덕리 1335-1)
- 더좋은병원장례식장 : 고성읍 동외로 142(고성읍 동외리 267-3)
- 고성영락원 : 고성읍 63-7

제 6절 제례(祭禮)

1. 개요

제사의 종류는 기제사, 차례, 묘사(시제), 생일상, 회갑 제사 등이 있다.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의 대수는 4대 봉사를 기준으로 하지만, 3대 봉사 혹은 2대 봉사를 하는 집안도 있다. 시제는 5대조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는 2대조도 시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시제는 가을에 집안 별초에서 문중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묘사에 위패를 모시고 제를 올린다. 예전에는 집안에 사당이나 감실을 만들어서 신주를 모셨으나, 최근에는 주거형태의 변화로 지방을 쓰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통제례는 제례마다 기간이나 일수를 계산하여 시행되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문중이나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제례를 간편하게 합하여 지내기도 하고 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2. 제례종류

1) 사당제(祠堂祭)

예서(禮書)와 사례편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제례로는 사당제(祠堂祭), 사시제(四時祭), 기일제(忌日祭), 이제(禰祭), 묘제(墓祭)등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 밖에 행해지는 사갑제(祀甲祭), 생신제(生辰祭), 연중절사(年中節祀)가 있으며, 기타 종교식 제례를 제사의 종류로 볼 수 있다.

사당은 조상들의 신주를 모셔두고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사람이 죽으면 혼백신주를 상청(喪廳)에 모시고 제사를 올리다가 상기(喪期)가 끝나면 상청의 영좌(靈座)를 치우며 동시에 신위를 사당으로 모신다.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종가에 지으며, 위치는 정침(正寢) 동쪽에 마련한다. 그리고 사당이 있는 집은 종자(宗子), 종손(宗孫)이 대대로 지키며 참례한다.

2) 사시제(四時祭)

사시제란 계절마다 중월(仲月.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제례를 말한다. 봄에는 2월에, 여름에는 5월에, 가을에는 8월에, 겨울에는 11월에 시제를 지낸다. 그러나 사계 김장생(金長生)은 음력 1월, 4월, 7월, 10월에 시제를 지내도 무방하다 하였으며, 퇴계(退溪)는 국상이 있어 졸곡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해 시제는 마땅히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시제는 반드시 제때에 지내야 하며, 그 시기가 지나면 안 된다. 만일 춘제를 봄이 다 가도록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에 여름에 춘제를 지낼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시제의 대상은 고조부모까지의 조상이며, 5대조이상은 세일제(歲一祭)로 일 년에 한번 제사를 지낸다.

3) 기일제(忌日祭)

기일이란 선조가 돌아가신 날을 말하는데 기(忌)란 금(禁)의 뜻으로 다른 일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또 이 날을 휘일(諱日)이라고도 하는데, 휘(諱)는 피(避)의 뜻으로 기(忌)와 휘(諱)의 뜻이 비슷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기일제를 기제라고도 하는데 해마다 돌아가신 전날에 지내며, 예로부터 그날 첫닭이 울

기 전 자시(子時 밤11시~새벽1시)에 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날은 선대의 음덕을 기리며 추모의 정을 새롭게 하면서 지극한 효성의 마음으로 엄숙하게 제사를 지낸다.

봉사 대수는 대부분 4대 봉사를 한다. 제사문화가 변화하면서 3대, 2대, 1대로 줄여서 봉사를 하는 집안도 있다. 기제사 장소는 안방의 윗목, 거실, 제실, 감실 등에서 지낸다. 제물은 과일, 쇠고기나 돼지고기, 명태포, 생선류, 떡, 전, 닭 등을 올린다. 과일은 밤, 대추, 감, 귤, 사과, 배 등 5가지 이상을 놓는데 ‘조율이시’를 기본으로 지켜야 한다. 수박 등 계절과일은 형편대로 마련하여 상에 올리고 떡을 만들 때는 콩고물을 주로 사용하고 짙은 절대로 넣지 않는다. 생선에는 돔(도미), 조기 등을 올리며, 포에는 문어포를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올린다. 밤, 대추, 귤, 문어는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필수 제물이라고 한다. 제물을 진설할 때는 홀수 줄로 차린다. 보통 기제사는 3줄 또는 5줄을 차린다.

제의 절차는 진설-빈잔-성고-메-수저-초헌-아헌-종헌-첨작-유식-분축-음복-철상으로 이루어진다.

4) 이제(禫祭)

이제란 부모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부모(父廟)를 이(禫)라고 부르는 것은 가깝다는 뜻이다. 이제는 다른 방친(傍親)들의 제사와는 달리 살아 계실 때 입은 부모의 은혜를 못 잊는 자식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또다시 부모에 대한 사모(思慕)의 정을 이기지 못하여 정성들여 지내는 제사이다. 이때는 논밭에서 수확한 햇곡식으로 제수를 마련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제는 기일제와는 달리 일정한 날짜에 지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택일하여 지낸다.

5) 묘제(墓祭)

묘제는 조상의 산소에 제수를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묘제를 지내는 것을 묘사(墓祀)라고도 하며 또는 세일제라고도 부른다. 묘제는 체천위(遞遷位)인 오대조 이상의 선영에다 문중이 함께 제사를 드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청명(淸明), 한식(寒食), 단오(端午), 중양(重陽)에 묘제를 지내왔으나 차츰 삼월과 시월 중에 적당한 날을 택하여 해마다 한 번씩 지내고 있다.

자손들이 음력 10월이나 3월에 묘나 제실에 모여 돌아가신 문중의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시사’라고 한다. 시사는 시제, 묘제, 묘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 시제의 봉사 대수는 보편적으로 시조의 시제부터 시작한다. 제물은 종친회의 유사나 집안의 부녀자들이 모여서 장만을 한다. 제물에는 기제사와 동일하게 밤, 대추, 귤, 배, 사과, 감, 홍시,

수박, 떡, 생선, 육류, 나물(도라지, 미나리, 고사리), 명태포, 문어포, 전(육전, 어전, 소고기포), 술, 초, 향, 탕 등을 준비한다. 탕은 삼탕이나 오탕을 준비하지만 최근에는 일탕을 하여 삼탕의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탕으로 끓여서 올린다.

제의 절차는 진설-빈잔-분향재배-메-수저-초헌-아헌-종헌-침작-유식-분축-음복-철상으로 이루어진다. 진설 후에 빈 잔을 향에 두르는데 이는 세균을 박멸하고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다. 대수별로 선조의 제를 모시므로 축문의 경우도 술잔이 놓인 신위대로 읽는다. 그래서 한 신위 앞에 메, 수저, 탕, 술잔을 각 한 개씩 놓아서 제를 지냈으나 간소화가 되면서 메를 큰 양푼에 담고 수저를 한꺼번에 꽂고 잔만 신위별로 놓는 집안도 있다.

6) 사갑제(祀甲祭)

회갑전에 돌아가신 부모의 회갑이 되는 날에 드리는 제사이다. 살아 계실 때 회갑잔치를 못해 드렸기 때문에 돌아가신 뒤에라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올리는 제사로서 갑사(甲祀)라고도 한다.

7) 생신제(生辰祭)

돌아가신 부모의 생신날을 맞이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그러나 이 생신제는 돌아가신 부모의 3년 상 복중에만 지내고, 그 후에는 지내지 않는다.

8) 연중절사(年中節祀)

연중절사란 명절을 맞아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명절에는 원단(元旦 설), 원소절(元宵節 정월대보름), 유두(流頭 6월 15일), 칠석(七夕 7월 7일), 백중(百中 7월 15일), 추석(秋夕 8월 15일), 중양절(重陽節 9월 9일), 한식(寒食) 등이다. 이러한 명절 중에서 설날과 추석은 가장 큰 명절로 손꼽히는데 이때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올린다. 차례를 올리는 대상은 기제사와 같이 고조부까지이다.

차례(茶禮)를 명절제사라고도 한다. 차례는 설과 추식에 주로 모신다. 차례를 모시는 봉사 대수는 기제사와 동일하다. 4대 봉사를 할 경우는 부모부터 고조부모까지 제를 지낸다. 차례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선종의 직계 자손만이 참여해야 한다. 이는 자기 선영이 있는데 다른 집의 선영 제사에 참석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차례는 주로 아침에 이루어진다. 아침을 먹기 전에 집의 안방이나 거실 등에 병풍을 치고 제물을 진설한 후에 집안의 가장이나 종손이 중심이 되어 제를 진행한다. 설에는 메 대신에 떡국을, 추석에는 햇곡식을 준비하여 송편을 만들어서 상에 올린다.

내외를 하나의 지방으로 쓸 때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쓴다. 제의 진행은 단잔 무축으로 이루어진다. 제사가 끝나면 가족과 함께 산소에 가서 과일과 포를 올린 후 술을 한 잔 올리고 참석자가 전원 재배 하는 것으로 끝난다.

9) 신천사(新薦祀)

추수가 끝난 9월과 10월에 택일하여 햇곡식, 햇과일로 제수를 마련하여 조상께 차례를 올린다.

3. 제사절차

1) 개요

제사진행의 요건은 정성에 있고 정성스럽게 하기 위하여는 경건한 마음가짐과 태도, 엄숙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무렇게나 함부로 못하도록 법도와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 정성으로 절차법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 사전봉심(事前奉審)

(1) 신주(神主)

제사의 대상이 되는 분의 영혼을 말하며, 신위(神位. 位牌)로써 모신다.

(2) 출주고사(出主告辭)

사당으로부터 기일을 맞이하는 신주를 정침으로 내어 모시는 의식이다.

(3) 지방(紙榜)

본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신주를 모시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을 써서 제사를 지낸다. 지방은 깨끗한 백지나 창호지에 쓰며 크기는 길이 일곱치, 너비 두치 정도로 한다. 지방에는 벼슬이 있으면 벼슬을 쓰고, 벼슬이 없으면 ‘현조고(懸祖考)’ 또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 라 쓴다.

(4) 축문(祝文)

제사 모시는 사람이 신명(神明)이나 신주께 고하는 글로 정결한 종이에 쓴다.

(5) 제상(祭床)

제수를 진설하는 나무로 만든 큰 상이며 목재 의자형의 신주좌(神主座)와 같이 한 벌이다. 항상 정중히 간수해야 하며 깨끗이 닦아 진설한다.

(6) 제수(祭需)

제사에 차리는 메, 면, 어, 육, 적, 탕, 과일 등 음식물과 재료를 ‘제수’라 하며, ‘제물’이라고도 한다. 제수재료를 준비할 때부터 숙성, 진설, 예필철상, 음복, 분식 등의 과정까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미리 담아두는 기명(器皿) 등도 깨끗하고 흠이 없는 바른 그릇이라야 하고, 과일 등 곤충이 침범 못하는 곳에 모셔 두었다가 진설한다. 또 제수물의 가격 고저는 정성의 척도가 될 수 없으며, 마련의 과정에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3) 절차(節次)

(1) 기일제(忌日祭)

예로서 기일제만 예시한다. 준비→출주고사→제수진설→강신(降神)→참신(參神)→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첨작(添酌)→계반삽시(啓飯插匙)→합문(闔門)→계문(啓門)→헌다(獻茶)→철시복반(撤匙復飯)→사신(辭神)→철상(撤床)→음복(飲福)

제사의 중요성을 요약해 보면, 옛날에는 제사가 형식에 치우쳐 낭비적인 요소도 많았지만, 자손들 대부분 흠어져 살 수 밖에 없게 된 오늘날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제사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혈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삶의 의미를 자녀들이 터득토록 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정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 기능이 된다고 본다. 제례는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고유의 풍습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미신의 차원에서 나쁘게 여기거나 냉대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엄격한 격식이나 번거로운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옛날에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혈육의 정을 실감하지 못하는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기일을 찾아 제사를 올렸고, 지금도 보편적으로 4대조까지의 제사를 대물림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확정지을 필요성은 없다. 조상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나 교육적인 효과는 조부모까지로 충분하며, 제례의 형식화를 피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모두에게 일치된 틀일 수는 없으며, 집안의 전통을 존중하되 후손이 제사의 뜻과 의미를 살려 나갈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이든 관계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자녀의 뿌리 교육을 위해서도 제사의 뜻과 의미는 계속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4. 고성군 해안마을의 풍속

고성군 동해면 우두포마을과 하일면 지포마을에서 행해지는 어업과 배와 관련되는 관습 및 금기에 대한 것이다.

1) 어업에 관한 관습과 금기사항

우두포에서는 첫 출어날은 용날인데, 개날, 닭날, 원숭이날에 첫 줄어를 하면 재수가 없다고 한다. 첫 출어할 때는 서낭고사인 뱃고사를 지낸다. 날을 받으면 3일에서 일주일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길사인 결혼, 생일, 환갑 등에 참여하지 않고, 흥사에는 참여해도 상관없다.

출어 고사일에 서낭대와 서낭기를 달고, 음식은 이물과 한상에 차리는데, 돼지머리, 떡, 나물, 생선 또는 5월 출어고사에는 수박, 명태, 돼지머리, 참외, 사과, 배, 술을 준비하는데 술은 말술을 준비하고 동쪽에 과일을 놓는다. 어선 출항시는 소금, 쌀을 배에 뿌리고 짚단에 불을 붙여 배를 한 바퀴 돈 후 바다에 버린다. 혹은 선두에서 선미까지 소금과 바닷물을 뿌리는데, 선두는 양을 많이 뿌리고 선미는 양을 적게 뿌린다. 또는 첫 출어기나 계절이 바뀔 때, 매월 보름날에 깨끗한 짚을 3~4단 추려서 달집을 만들고 선두에서 3번 돌린 후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 선미로 가서 바다에 던진다.

던지면서 주문하는데, “1년에 재수 상승하고 아무 사고없이 해달라” 또는 “동해바다 용왕님네 이번 출어에 재수 많이 있게 하시고 선원들 무사하게 해주이소” “동해바다 용왕님네 이번 출어에 선원들 사고없이 고기 많이 잡히도록 해주이소. 재수 상승하게 해주이소” 라고 빈다.

금기사항으로는 ①개나 노루고기와 같은 금기음식과 생일음식을 멀리한다. ②여자관계는 정갈히 해서 조심하고 공을 들인다. ③바다에는 재앙을 가장 많이 가린다. 출산한 집은 가지 않는다. ④초상집,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다. ⑤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시비, 싸움, 욕을 하지 않는다.

금기를 지난 후에도 선주와 선원은 조업기간동안 조심하는데, 상가, 결혼식장, 출산한 집 등을 찾거나 그 집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거나 음식을 먹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들을 배에 태워서도 안 되고 남의 집에서 들어온 음식은 일절 안 먹는다.

선원들이 배에 타면, 배에서 휘파람을 불어서는 안 되는데, 휘파람은 귀신을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배나 배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배에서는 여자, 닭, 원

송이, 뱀, 피, 시체 등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만약 입에 올릴 경우 하선해야 한다. 배에서 술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용왕님과 서낭님께 고시례를 해야 한다. 술은 세 번에 나누어 고시례를 한다.

2) 배에 관한 관습과 금기사항

배의 서낭은 선실이나 기관방에 있다. 서낭의 신체는 명태나 소지종이를 접어서 모셔두는데, 서낭 앞에는 술과 소금이 놓인다. 서낭기(대)는 대를 추리지 않고 1m정도를 세운 후 5색이나 3색천을 단다. 배서낭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색이 달라지는데 남서낭일 경우는 파랑과 흰색, 여서낭일 경우 빨강과 흰색이다.

서낭은 고기가 많이 잡힐 때나 사고가 날 때는 울음소리로 예고한다고 하는데, 우는 소리는 ‘짹짹’ 거리는 쥐 우는 소리라고 한다. 남서당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짹짹거리고 여서낭은 왼쪽으로 돌면서 짹짹거린다. 어떤 경우에는 귀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들리기도 한다. 예전에는 배서낭이 울었고 피조개 채묘를 하는 중에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뱃고사는 선달그믐날과 추석 전날(음력8월14일), 어장을 처음 시작하는 첫 출어날, 동지에 지낸다. 선달그믐날과 추석은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서 올린다. 음식을 차리기 전에 연안의 오물을 청소한 다음에 차린다. 그믐날 밤에는 밤새 전기불을 켜 두거나 촛불을 켜두고 기계를 계속 가동한다. 배를 진수하고 선주 모르게 처녀 총각이 잠을 자면 재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배를 진수하면 도목수를 물에 빠뜨린다. 그리고 ‘큰 떡’을 해서 던졌는데, 큰 떡은 찰떡(인절미)으로 만들었고 큰 떡 속에는 지폐(고액권)를 넣어서 던졌다. 떡을 받아서 먹으면 좋다고 했다.

IV 세시풍속

제 1절 개관

세시풍속이란 일상생활에 있어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민속행위를 말한다. 즉 주기전승(週期傳承)의 의례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시풍속은 철과 절기에 따라 행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보다는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 역(歷)은 생산의 계절을 미리 알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에 맞게 되어 있고, 농경생활을 하는 데에는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달은 불사(不死), 재생(再生), 부활(復活)의 능력과 힘이 있다고 관념되었으며, 따라서 인간의 생명이나 행불행, 생산과 풍요도 모두 이 달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보름(대보름추석)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이 많은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의 세시풍속은 농사의 개시, 파종, 제초, 수확, 저장 등 농경주기와 관련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주기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세시풍속이 행해지는 세시명절이나 그에 버금가는 날이면 놀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각별히 보냈다. 이는 일상생활의 마디로서 긴장에서 이완을 하는 때였으며, 다음 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세시풍속은 일 년을 계절로 나누어 계절의 고비마다 쇠퇴하고 약화된 우주의 생성력을 촉진하고 인간의 생존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통과의례적인 의미를 지닌 계절의례이다.

우리들에게는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세시풍속을 통하여 많은 기대와 변화를 원하기도 하였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풍년과 흉년은 사람들의 노력보다 신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길흉이나 재앙이나 화복이 신의 뜻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여 사람들은 세시풍속을 통한 기축적(祈祝的) 의례행사를 해마다 그때가 오면 되풀이 하는데,

이러한 기축적 의례가 단순히 신에게 직접적인 제의(祭儀)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고사(告祀)나 동신제(洞神祭) 등은 신에게 직접적인 제의를 행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달맞이나 쥐불놀이, 부럼깨기, 연날리기 등 제의를 행하지 않고도 이런 행위들을 함으로서 기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처음부터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신성의례(農耕神聖儀禮)로서 비롯되어 사람들의 재액초복(災厄招福)과 무병장수(無病長壽)와 마을의 안녕 등을 목적인 제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각 지역의 세시풍속은 외형적으로는 별개의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지만 실제 그 행위는 의미나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 2절 전국 및 경남지역 세시풍속

1. 정월

정월 초하룻날 이른 새벽이면 ‘복조리’ 를 팔러 다니는데 복조리를 빨리 살수록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믿고 있다. 설날 아침에는 ‘설빔’ 이라고 하여 새로 지은 옷을 입고, 일찍 세찬(歲饌)과 세주(歲酒)를 마련한 다음 차례를 지내고, 세배(歲拜)를 한다.

정초 행사의 하나로 성묘(省墓)를 가는데, 자손으로서 꼭 해야 할 도리의 하나이다. 초하룻날 밤(지방에 따라 선달그믐날 밤)에는 일 년 동안 머리를 빗을 때 빠진 머리카락을 빗집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불에 사르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소발(燒髮)’ 이라 한다.

음력 정초가 되면 토정비결을 본다. 일 년 동안 닥쳐올 운명에 따라 운수를 맡고 있는 아홉 개의 별이 있는데 각 별에 따라 길흉 액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액을 풀기도 한다.

정초의 놀이로는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돈치기놀이 등이 있다.

24절기 중 하나인 ‘입춘(立春)’ 은 정월에 첫 번째로 드는 절기(節氣)로 새해의 기원을 나타내는 ‘입춘방(立春榜)’ 을 써서 붙인다. 정월 14일은 ‘작은보름’ 이라 하여 오곡밥, 복쌈 등을 먹고, 정월 보름날(上元日) 새벽에 밤, 잣, 호두 등을 깨무는데, 이것을 ‘부럼(腫果)’ 이라고 하며, 1년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원한다. 보름날 이른 새벽에는 귀가 밝아지며 좋은 소식만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밝이술(耳明酒)’ 을 마신다. 한편 세 집 이상의 다른 성(姓)을 가진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그해의 액운이 사라지고 운수가 좋다고 하여 여러 집을 돌며 오곡밥을 먹는 ‘백가반(百家飯)’ 이란 풍속도 있다. 정월 보름에는 새해의 첫 달을 맞는 달맞이를 하며 줄다리기,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등의 놀이를 한다.

1) 설

(1) 차례

- 정월 초하루 아침에 차례를 지낸다.
- 차례를 모시는 신위(神位)는 초헌(初獻)을 올리는 제주(祭主)의 4대조 이하 어른 가운데서 돌아가신 어른의 혼백이다.

- 제주는 만아들 또는 만손자가 한다.
- 제사를 모시는 시간은 대체로 아침밥 때(8시~9시쯤),
- 제상을 진설하는 곳은 대청이 일반적이지만, 대청이 없는 집에서는 큰방에 한다.
- 제수(祭需)는 기제사(忌祭祀) 때와 비슷하나 떡국을 반드시 올린다. 그래서 ‘떡국제사’ 또는 ‘떡국다례’ 라고 한다.
- 비늘 없는 생선은 쓰지 않고, 이름 끝에 ‘치’ 라는 말이 붙은 생선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비늘이 없기는 하나 가오리는 쓴다.
- 설찬(設饌)과 제사 모시는 법은 기제사와 비슷하다.
- 차례를 지내고 음복(飮福)과 아침밥을 먹은 다음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한다.

(2) 설빔

- ‘설옷’ 이라고 하는 설빔을 입는다.
- 어른들은 설날 새벽에 설빔으로 갈아입고 어린아이들은 ‘작은설(까치설날)’ 이라고 하여 선달그믐날 오후에 미리 입기도 한다.
- 처녀와 어린이들은 감사대기와 복주머니를 치장하기도 하고, 꽃신을 신기도 한다.
- 새 옷을 지을 형편이 못되는 경우에는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 다려서 설빔으로 차려 입는다.
- 남자들은 차례를 모시고 세배를 드리기 위해 명주로 안을 받친 무명 두루마기를 설빔으로 입는다.

(3) 설음식

- 찰떡, 시루떡, 절편을 빚어 차례 상에 올린다.
- 가래떡을 빚어 편으로 썰어 떡국을 끓여 차례 상에 올리고 나서 먹는다.
- 시루떡은 일반적으로 팔고물이나 콩고물을 쪄켜이 뿌리고 찐다.
- 옛, 강정, 유과, 밤, 대추, 복어, 포육, 부침이(주로 생선을 이용), 과일 등을 장만하여 먹는데, 옛은 고아서 강정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떡을 찍어먹기도 한다.
- 쌀을 찌서 말린 것을 기름에 튀겨 부풀게 하고 그것을 깨나 콩 볶은 것과 함께 옛에 묻혀 굳힌 뒤 썰어 만드는 강정을 쓴다.
- 제주로 쓰는 술은 ‘설술’ 로 청주(淸酒)를 빚어 썼다. 청주는 막걸리를 담그듯이 빚어 술이 익은 뒤 싸리나 대로 엮은 등글고 기다란 통(용수)을 그 속에 집어넣어 맑고 노란 빛물을 떠낸 것을 말한다. 제주는 차례 상에 올리고 또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쓴다.

(4) 세배와 덕담

- 차례와 성묘가 끝난 뒤 일가 어른들과 동네 어른들을 찾아 세배를 드린다.
- 세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세 편히 쇠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절을 올리면, 세배를 받는 어른은 ‘오냐 과세 잘 했느냐?’ 또는 ‘오냐 금년에는 건강하고 소원성취 하거라’ 등으로 답례를 한다.

(5) 기타

- 설날 꿈에 나락이 쌓여 보이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
- 설날 꿈에 맑은 물을 보면 좋다.
- 설날 꿈에 나락이 흩어져 보이면 흉년이 든다.
- 설날 꿈에 죽순이 보이면 효자가 난다.
- 설날 꿈에 붉은 고추, 대추, 용 따위가 보이면 아들을 낳는다.
- 설날 소금을 온 집안에 흩어 뿌리고 부정을 친다.
-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맑아야 좋다.
- 설날 바람이 잔잔해야 농사에 풍해가 없고 세상도 조용하다.
- 과일나무가 있는 집안에서는 설날 나뭇가지 사이마다 돌맹이를 끼워둔다. 이것을 ‘나무시집보내기’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해 과일나무에 열매가 많이 연다고 생각한다.
- 설날 새벽 복조리장수가 복조리를 팔러 다니는데 조리에 복이 담겨온다고 생각하여 모두가 산다.

2) 정초**(1) 안택(安宅), 용왕먹이기**

- 정초에 집안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안택굿을 한다.
- 고기잡이를 하는 집안 식구는 정초에 용왕께 ‘이십팔시 용왕님께, 안가태평(安家太平)시키시고, 발 없는 선척 타고 댕기더라도 무사히 해 주이소’ 라고 빈다.

(2) 매구치기

풍물패가 마을의 당산, 회관, 선창, 공동우물,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매구를 친다. 풍물패가 매구를 쳐주면 집 주인이나 배임자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기도 하고, 곡식이나 돈을 내어준다. 이것은 마을공동사업에 보태 쓴다.

(3) 등제(洞祭)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제주(祭主)를 뽑아 공동으로 제사를 지낸다.

(4) 입춘

- 입춘과 백로 사이의 날 수가 길면 농사가 늦되고, 가까우면 올된다.
- 입춘날 입춘시(立春時)에 보리뿌리를 뽑아보고 그 가닥수로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짐치게 되는데, 보리 뿌리의 갈래가 한 가닥으로 내려 있으면 흉년, 두 가닥으로 내려 있으면 평년작, 세 가닥으로 내려 있으면 풍년이다.
- 창호지에 좋은 글귀를 써서 대문과 안청, 광의 문, 기둥, 부엌문, 대들보 등에 붙인다. 이것을 ‘입춘첩 붙인다’ 라고 하며, 춘첩을 써 붙이면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삼재가 든 사람은 운수에 관한 좋은 글귀를 써서 붙이면 삼재를 면하게 된다.
- 입춘 시에 입춘첩을 써 붙이고 소리 내어 읽으면 ‘굿 한 번하는 것보다 낫다’ 고 한다.

(6) 기타

- 정초에 쉬는 틈을 타서 5일부터 대보름날 사이에 근친(친정 부모님을 뵈러가는 일)을 가는데, 반드시 대보름날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까닭은 대보름 명절은 시집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 아낙네는 정초에 남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삼간다. 상중인 사람과 아낙네는 치성 드리는 집에 정초 뿐 만 아니라 평소에도 찾아가는 것을 삼간다.
- 정월대보름날 이전에는 집안의 곡식을 내다 남에게 빌려주지도 않으며, 돈도 빌려주지 않는다.
- 정초에 시주하면 그 해 집안이 좋다고 하여 스님이 찾아오면 깍듯이 시주를 한다. 아낙네들은 절에 가서 시주를 하기도 한다.
-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거나, 점장이를 찾아가 신수를 보고 그 해 신수를 점친다.
- 정초의 신수 점괘는 너무 좋아도 좋지 않고, 너무 나빠도 좋지 않으며 그저 평범하면 좋다. 신수점을 볼 때, 그 해 삼재가 든 사람은 액운을 막는 처방을 알려준다. 삼재가 든 사람은 운수가 사나우므로 모든 일에 조심하고, 불공을 드리거나 부적을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 조부모나 부모 가운데 삼재가 든 사람이 있으면 자녀 혼사를 피한다.
- 대한 날 이후 10일째, 입춘 날 이전 5일 되는 날은 귀신들이 모두 하늘에 모임을 하

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 특히 뒷간이나 헛간과 같이 날을 잘 못 받아 손질하면 탈이 나는 곳도 이때에 고치면 아무 뒤탈이 없다고 하는데 이때를 ‘투수시(偷修時)’ 라고 한다.

- 선달그믐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리할매’ 가 첫소날(初丑日)에 도로 올라간다.
- 음력 정월 초여드렛날을 ‘패일(敗日)’ 이라고 하며, 패일과 조금은 지킨다. 또 집 손질과 옷 손질을 하지 않는다.
- 패일을 ‘곡식날’ 이라고 하여, 이 날 잡곡을 볶아 먹으면 좁이 없어진다.
- 패일 가운데 ‘스무사흘날’ 은 조금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조심한다.
- 조금 날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다.
- ‘첫 복단일(伏斷日)’ 에는 집 손질이나 이사 따위를 하지 않는다. 잔치를 하면 해롭다.
- 정월 14일께 소나무를 베어다가 그 장대 끝에 짚으로 술을 비끄러매고 그 끝에 벼, 조, 기장 따위의 이삭을 매달아 마당 한가운데 세워 두었다가 이월초하루날 이른 아침에 치우면서 그 해의 풍년을 빈다. 이것을 ‘유두방’ ‘날가랏대’ ‘벼가랏대’ 라고 한다. 유두방을 치울 때 곡식을 담은 시늬를 하면서 ‘벼가 몇 만 석이요’ ‘조가 몇 천 석이요’ 라고 소리친다.
- 첫 쥐날(初子日)에는 칼질, 송곳질로 구멍을 뚫는 일은 하지 않는다. 구멍 뚫는 일을 하면 그해 쥐가 집안 안팎에 구멍을 쏜다.
- 첫 토끼날(初卯日) 해돋이 이전에 야박네는 대문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남의 집에 가서도 안 된다.
- 첫 용날(初辰日)에는 장을 담그지 않는다.(모든 용날이 해당됨)
- 첫 용날 뿐만 아니라 모든 용날에는 비가 잘 내린다. 정초에 첫 용날이 먼저 들면 그 해 목화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 첫 뱀날(初巳日)은 비가 잘 내린다. 정초에 첫 뱀날이 앞당겨 들면 그 해 목화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장을 담그지 않는다.
- 첫 말날(初午日)에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고 달다.
- 첫 원숭이날(初申日) 원숭이는 방정맞고 재수 없는 짐승이라고 하여 ‘원숭이’ 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잔나비’ 라고 한다.
- 첫 개날(初戌日)에는 개밥을 볶아서 준다. 그렇게 하면 미친 개병을 막을 수 있다.

3) 대보름

-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 대보름날 아침에 물을 길어오면 나들이 때 소나기를 맞는다.
- 대보름날 아침에 집안에 소금을 뿌려 부정을 친다.
- 대보름달이 뜨는 자리와 그 빛깔, 두께로 그 해의 강우량과 농사 사정을 점친다.
- 대보름날 아침 마당에서 여름에 모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깃불을 피운다.
- 대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긴 장대를 가지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후여, 후여’ 라고 소리치며 새를 쫓는 흥내를 내면 그 해 벼논에 새가 오지 않는다.
- 대보름날은 계집아이들과 아낙네들은 반드시 널을 뛰어야 한다. 이날 널을 뛰면 발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 ‘다리밟기’ 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해 다리가 튼튼해지고 발병이 나지 않는다.
- 대보름날 마을마다 청소년들이 나뭇가지를 모아 세우고 달이 뜰 무렵에 태우는데, 이것을 ‘달집태우기’ 또는 ‘달집사르기’ 라고 한다. 달집을 세울 때 주로 솔잎이 달려 있는 솔가지를 두 가닥으로 갈라 서로 기대어 세우며, 그 사이로 달이 뜨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판을 비게 하는데 이것을 ‘달문’ 또는 달집문 ‘이라고 한다.
- 달집을 태우고 나면 달집에서 햇불을 당겨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지른다. 이렇게 하면 그 해 논밭에 들쥐가 사라지고 충해가 생기지 않아 그 해 농사가 잘된다.
- 보름날 아낙네들이 달이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손을 하며 집안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빌고 절을 한다. 이것을 ‘달맞이’ 라고 하며, 절을 많이 해야 소원이 성취된다고 한다.
- 정초부터 이어오던 연 띄우기는 대보름날 저녁을 마지막으로 연을 바람에 날려 보내면서 그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액땀’ 을 하게 된다고 하며, 이것을 ‘액연’ 이라고 한다. 대보름이 지나도 연 띄우기를 하면 ‘상놈’ 이라고 흉을 본다.
- 대보름날 아침밥을 먹기 전에 모두가 술을 조금씩 마시는데, 이술을 ‘귀밝기술’ 또는 ‘귀밝게술’ 이라고 하며, 이렇게 하면 귀가 밝아진다고 한다.
- 보름날 아침에는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을 ‘개보름쇠기’ 라 한다.
- 보름밥은 새벽에 지난해 거뒀던 오곡을 두루 섞어 밥을 지어 먹는다. 이 날은 세끼 모두 찬밥을 그대로 먹는다. 벧짚을 추려 그 위에 나물과 함께 보름밥을 얹어 집 들담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은 까치와 까마귀가 와서 주워 먹도록 한다고 해서 ‘까치밥’ 또는 ‘까마귀밥’ 이라고 한다.
- 부럼(껍질이 단단한 열매나 음식)을 깨물어 먹으면 이가 튼튼해진다.
- 대보름날 아침 보름밥을 먹을 때 김으로 찜을 싸서 먹는데, 이것을 ‘복쌈’ 이라고 한다. 복쌈을 먹으면 그 해 복이 들어온다고 한다. 보름밥을 먹을 때 김치는 먹지 않는다.

- 대보름날 아침나절에 어린이들이 체나 조리를 들고 세 집 이상 다른 성씨의 집집을 찾아다니며 보름밥을 한 술씩 얻어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온다. 이것을동쪽으로 뺨은 디딜방아 가랭이 위에 동쪽으로 바라보고 걸터앉아 혼자서 먹는다.
- 아낙네들이 대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집안의 무사태평과 소원을 빌며 절을 한다. 이를 ‘달맞이’라 한다.
- 대보름날 갯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집안의 무사태평과 풍어를 기원하며 ‘별신굿’을 한다.

2. 이월

동지(冬至) 후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일(寒食日)’이라 하여 불을 사용하지 않는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으며,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또한 농가에서는 나무를 심거나 채소 씨를 뿌려 새해 농사를 시작한다. 동면(冬眠)하던 짐승들이 땅속에서 나오고 초목의 싹이 돋아날 무렵이 되면 ‘경칩(驚蟄)’이라는 절기가 오는데, 이 날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으며, 보리싹의 성장을 보아 일 년의 농사를 예측한다. 풍작을 빌며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초경(初耕)이라는 풍속도 있다.

1) 이월초하루

- 이월에 벼락이 자주 치면 그 해 바다에 잔고기가 흔해져 고기가 많이 잡힌다.
- 이월 초하룻날 저녁밥을 먹은 뒤 쯔생이(昴星)와 달과의 거리를 살펴보고 그 해 농사를 점친다. 이것을 ‘쯔생이 본다’고 한다. 쯔생이가 달을 앞서가면 그 해 농사가 흉년이 되고, 달과 쯔생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
- 초하룻날에는 ‘머슴날’이라고 하여 온종일 집안의 머슴을 쉬게 한다.

2) 영동할만네

- 이월 초하룻날에 ‘영동할만네’가 딸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면 이날에 바람이 불게 되고, 머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면 비가 내린다.
- 초하룻날부터 20일 사이에 바람귀신(風神)에게 치성을 드리는데, 이것을 ‘영동할만네’라고 한다.
- 할만네는 여신이기에 때문에 까다롭고 깨끗한 것을 좋아해 음식이나 그릇을 정갈하게 한다. 제주(祭主)는 그 집안의 살림을 맡아 꾸려나가는 아낙네가 된다.

- 할만네에 바치는 정화수는 그 날 남보다 먼저 떠온 것이 좋다고 하여 전날 밤 샘터에서 밤을 지새다가 첫닭이 울면 물을 길어와 바가지로 떠서 선반의 작수바리(또아리) 위에 얹어놓으며, 메, 나물, 떡은 각각 큰 그릇에 담아 정갈하게 차린다. 정화수는 매일 새벽마다 처음 길어온 물로 떠 놓고, 갈아낸 물은 장독간의 큰독 밑 등 깨끗한 곳에 붓는다.
- 영동할만네에게 비순하며, 풍년과 풍어 그리고 집안 평안과 자식들의 행운을 빈다.
- 영동할만네가 이월 초하룻날에 하늘에서 내려올 때 딸을 세상구경 시켜주려고 데리고 오면 바람이 몹시 일어난다. 이것은 할만네가 딸의 고운 옷을 자랑삼아 바람에 나부끼게 하려고 일부러 바람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이다. 영동할만네가 내려오는 날 바람이 몹시 불면, 그 해 풍해가 심하여 흉년이 든다.
- 이른 봄 꽃이 필 무렵 바람이 몹시 분다. 이 바람을 ‘꽃샘바람’ ‘맞바람’ 또는 ‘화신풀(花信風)’ 이라고 한다.

3. 삼월

삼월 초하룻날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음력 삼월 삼일은 ‘삼진날’ 이라 하며, 이 날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부드러워 진다고 하여 부녀자들은 머리를 감는다. 이 달은 간장을 담그기 가장 적합한 달로 삼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말일(午日)에 담그면 장맛이 좋다고 하여 정성을 다하여 부정을 타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장을 담근다. 대개 이달에 드는 곡우(穀雨)라는 절기에 농가에서는 못자리를 하기 위하여 뱀씨를 담그는데 부정을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1) 삼진날

- 삼진날은 좋은 날로 머슴도 쉬게 하고 명소로 놀러간다. 이것을 ‘삼진놀이’, ‘봄놀이’, 또는 ‘화전회’ 라고 한다.
- 삼진날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겨울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와 뱀 등이 땅속에서 기어 나오고,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간다.
- 삼진날에 아낙네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이것을 ‘삼진불공’ 이라고 한다.

2) 청명·한식

- 한식날에는 성묘를 간다. 한식날 비바람으로 물결이 거세게 일면 봄에 바닷고기가 많

이 잡힌다.

- 청명날은 날씨가 맑아야 좋다.

3) 봄

- 봄에 당산나무 잎이 일시에 피면 비가 알맞게 흠뻑 내려 모심기를 제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 농사가 잘되고, 당산나무 잎이 조금씩 층층이 피면 물이 모자라서 모심기를 여러 번 걸쳐서 하기 때문에 벼농사에 좋지 않다.
- 봄에 물(바닷 말)이 많이 자라면 그 해 농사 시절이 좋지 않다.

4. 사월

석가탄신일인 사월초파일(初八日)은 불가(佛家)의 큰 명절로 절에 찾아가 제를 올리고 저녁에는 연등(燃燈)이라 하여 등(燈)에 불을 붙여 집안과 마을에 밝히고, 신자들은 줄을 지어 등을 들고 제등행렬(提燈行列)을 한다. 사찰에서는 승려와 신자들이 모여 ‘탑돌이’를 하며, 왕생극락(往生極樂)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다. 또한 이 날은 일종의 불꽃놀이인 낙화(落火)놀이를 하기도 한다.

5. 오월

음력 오월 오일을 ‘단오(端午)’라 하는데 농촌에서는 모를 심을 무렵이다. 더운 철로 접어드는 계절의 절기이므로 ‘단오선(端午扇)’이라는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고, 창포(菖蒲)로 만든 창포주를 마시거나 물에 넣고 삶은 창포물에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는다. 이날은 예로부터 석전(石戰)놀이를 하였으며, 씨름을 즐긴다. 부녀자들은 그네뛰기를 하고 활짝 핀 봉숭아를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이기도 한다.

1) 단오

- 오월 초닷새 단오날 새벽에 아낙네들은 깨끗한 시냇가에 가서 용왕먹이기 치성을 드린다.
- 단오날 아낙네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 상중인 집안 말고는 단오날에 차례와 성묘를 하지 않는다.
- 단오날은 농사 일손이 바쁜 철에 들고 있지만, 이 날은 5월의 명절이라 머슴들은 놀게 하고, 마을 사람끼리 모여 가까운 명소로 들놀이를 간다. 이것을 ‘단오회치’라

한다.

- 단오날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다. 또 ‘창포비녀’라 하여 창포뿌리를 깎아 다듬어 그 끝으로 연지를 짚어 바르기도 하고, 비녀로 꽃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몸에 좋다고 한다.
- 단오날은 약초를 캐다가 두고 쓰면 약효가 좋다고 하여 이 날 해돋이 이전에 쑥, 육모초 같은 약초를 캐다가 그늘에 말려둔다.
- 단오날 아낙네들은 그네를 탄다.
- 단오날에 상추 잎 이슬을 받아 분을 개어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고와지고 그 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

6. 유월

음력 6월 15일을 ‘유두일(流頭日)’이라 하며, 더운 날씨에 맑은 냇물을 찾아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으며 즐겁게 지낸다. 또한 햇 밀가루로 국수나 떡을 마련하고 새로 익은 참외와 수박으로 신위(神位)나 토주(土主)에게 유두차례를 지낸 후 나누어 먹는다. 하지(夏至)를 거점으로 세 번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네 번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立秋)로부터 첫 번째 경일을 말복(末伏)이라 하며, 일 년 중 가장 더운 때이므로 각 복날에는 계곡이나 정자 아래에서 개장국이나 삼계탕을 먹으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데 이를 ‘복달임’이라고 한다. 남자들은 경치 좋고 고기가 잘 잡히는 냇가를 찾아 물고기를 잡아 요리한 음식과 술을 먹으며 즐기는 ‘천렵’을 하기도 한다.

1) 유두

- 유두날(6월15일)을 6월 명절이라 하여 음식을 장만하여 개울이나 폭포에 가서 물맞이를 하고, 논에 가서 제물을 차려 놓고 ‘농신제(용신제)’를 지낸다. 논고사를 지낼 때 제물은 일반적으로 밀개떡, 밀가루부침개, 햇과일, 나물, 밥, 술 등을 쓴다. 고사를 지내고 난 음식은 집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논굿 치성을 드리는 제주(祭主)는 논임자(농사를 짓는 사람)가 맡으며, 평상복을 입고 논밭에 제물을 지고 간다.
- 유두날에는 반드시 비가 오는데, 이것을 ‘유두물 진다’고 한다.
- 유두날 목욕을 하면 몸에 좋다.
- 유두날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몸이 튼튼해진다.

2) 기타

- 유월은 일이 고되고 병들기 쉬운 달로 ‘약달’ 또는 ‘액달’ 이라고 한다.
- 복날(삼복)은 가까운 사람끼리 추렴을 해서 강변이나 백사장 또는 개울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서 술을 마시고, 개나 닭을 잡아 고아먹고 몸보신을 한다. 이것을 ‘개잡아 회치 한다’ 고 한다.
- 마파람(남풍)이 불면 비가오고, 셋바람(동풍)이 불면 큰 비가 오고, 갈바람(서풍)이 불면 날이 가문다.
- 공기가 맑아 먼 산이 가까워 보이면 비가 오고, 옅은 안개가 끼어 흐리면 가문다.
- 아침 북새(노을) 또는 저녁 북새가 까맣게 변하면 곧 비가 온다.
- 달 언저리에 별이 가까이 있으면 비가 온다.
- 논매기를 혼자서 하면 고되기 때문에 지루한 일을 거들어 주고 서로 품을 지고 갈는다. 이것을 ‘품앗이’ 라고 하는데 이렇게 품앗이를 함으로서 많고 고된 일을 수월하게 치러낸다.
- 여름철에는 소가 병들기 쉽기 때문에 미리 소의 목 굴레에 붉은 형짚을 메달아 예방을 한다.
-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 뜸질을 하면 신경통이 낫는다고 하여 오뉴월에 모래 뜸질을 한다.
- 여름철 시절음식으로 미숫가루를 해먹는다. 밀개떡, 밀국수, 밀수제비, 산떡국(미역국에 새알심을 넣은 것), 흰죽, 콩국, 찢고구마, 찢옥수수 등과 보리로 음식(보리개떡, 막걸리, 수제비)을 만들어 먹는다.
- 낮에는 들일을 하는 아낙네들이 저녁에 가까운 이웃끼리 모여 한 집씩 돌아가면서 삼을 삼는다. 이것을 ‘두렛삼’ 이라고 한다. 이 때 주인집에서 찢 옥수수와 같은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두 편으로 나누어서 어느 쪽이 삼을 많이 삼는지 음식내기를 하기도 한다.

7. 칠월

음력 칠월 칠일은 ‘칠석(七夕)’ 이라 하여 밀전병을 부치고 가지, 고추 등 햇것을 천신(薦新)하고, 나물을 무쳐서 햇것의 맛을 본다. 또한 여름옷을 빨아 쟁겨두고 책을 넣어 말리는데, 이것을 ‘폭서(曝書)한다’ 고 한다. 농촌에서는 농사일 중 갈고 김매는 일은 일단 끝이 나므로 논을 매고 밭을 매는데 중요한 연장인 호미를 잘 씻어 다음해를 위하여 잘 보관하며,

이것이 끝나면 ‘세조연(歲鋤宴)’이라 하여 술, 떡, 음식을 장만하여 머슴들을 위로한다.

1) 칠석날

- 칠석날은 견우별과 직녀별이 만나는 날로 두 별이 만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까치들이 돌을 머리에 이고 와서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기 때문에 칠석날이 지난 뒤에 까치들의 머리털이 빠져 벗겨진다.
- 칠석날 용왕먹이기 치성을 드린다. 아낙네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 칠석날에 물맞이하러 가는데, 이를 ‘칠석 물맞이’라고 하며, 물맞이를 하면 ‘부스럼이 낫는다’ 또 ‘피부에 좋다’고 한다. 그리고 ‘시집가서 잘 산다’고 한다. 물맞이를 못하면 머리를 감거나 등물이라도 친다.

2) 백중날

- 백중날에 백가지 나물을 무쳐 먹는다. 그래서 이날을 백중날(百種日)이라고도 한다.
- 백중날에 내리는 물은 약물이라고 하여 찬물에 목욕을 한다. 이것을 ‘백중 물맞이’라고 한다.
- 백중날부터 중양절(9월9일)까지 삼삼기를 삼간다. 제사를 못 받아먹는 귀신들이 백중날에 얻어먹게 하다가 중양절에 가두게 되는데, 삼단을 걸어두면 삼에 걸려 잘 다니지 못한다 한다.
- 백중날에는 논매기를 마치고 그 해 농사에 수고한 머슴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인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술을 내어 머슴을 먹고 쉬게 한다. 이것을 ‘머슴날’이라고 한다.
- 백중날 논에 농신대를 쫓아 세우고 음식을 차려 고사를 지낸 다음 상머슴을 뽑아 풍물놀이를 한다.

(3) 기타

- 칠월그믐께부터 조상 묘를 찾아 무덤에 자란 풀을 베기 시작하여 추석 이전에 그 일을 마친다. 이것을 ‘벌초(伐草)’라고 한다. 이때 자손이 번성한 집안에서는 음식을 장만하여 성묘를 겸하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8. 팔월

음력 팔월 십오일은 ‘추석(秋夕)’ 또는 ‘한가위 또는 중추절(仲秋節)’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햇곡식과 햇과일이 무르익는다. 이날 성묘 가서 봉분의 우거진 잡초를 정성껏 깎는 벌초(伐草)를 하고 차례를 지낸다. 또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과 딸이 아버이를 뵈고 문안드리거나 시집간 딸과 어머니, 또는 사돈끼리 만나 안부를 전하고 하루를 즐기는데 이를 ‘근친(覲親)’ 이라고 한다. 한가위 날 밤에는 곱게 단장한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뛰노는 ‘강강수월래’ 를 한다.

1) 추석

- 팔월 추석은 맑아야 좋다.
- 모두 새옷을 차려입고, 머슴에게도 반드시 새 옷 한 벌을 지어주며, 신발도 새 것으로 장만해 준다.
- 추석날 아침에 햇곡식과 햇과일로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천신(天神) 한다. 이것을 ‘추석차례’, ‘추석선영봉사’, 또는 ‘추석제사’ 라고 한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선영의 뒀을 찾아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
- 추석날 배에 서낭기와 깃발을 모두 달고 음식을 차리고 ‘배고사’ 를 지낸다.
- 추석을 쇠고 난 다음날엔 아낙네들이 고운 옷을 차려입고 들 구경을 간다.
- 추석날 마을 장정들이 나서서 풍물을 울리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이를 ‘벼꾸치기’ 라 한다.
- 추석날은 씨름, 윷놀이를 한다.

9. 구월

음력 9월 9일을 ‘중양일(重陽日)’, 또는 ‘중양절(重陽節)’ 이라고 한다. 이때쯤 국화가 만발하는데, 이것을 따서 술을 빚은 국화주와 국화 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국화 화전을 만들어 먹으며 즐긴다.

1) 중양절

- 중양절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뱀이 돌에 입을 닦고 땅속에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고, 모기가 들어가고 갈까마귀와 기러기가 온다.
- 중양절에는 조상 앞에 차례를 지내고 묘에 성묘한다. 상중인 집안에서는 빈소에 차례를 올린다.
- 중양절에는 집을 나가 객사하여 죽은 날을 모르는 사람의 제사를 아침에 지낸다.

2) 기타

- 박 뿌리의 물을 받아먹으면 좋다.
- 갈 까마귀의 흰 빛깔이 많이 보이면 그 이듬해 목화농사가 잘된다.
- 가을에 걷은 목화를 저녁에 ‘씨앗이틀(씨아)’에 넣어 씨를 뺀다. 이렇게 해 두었다가 솜으로 이불을 만들기도 하며, 겨울 내내 물레질을 하여 명주실을 뽑기도 한다.
- 산이나 들에서 나는 열매(머루, 다래, 으름, 고욤 등)를 따서 먹는데, 이 열매들을 ‘산과실’이라 한다.
- 보신거리로 가을에 벼를 베고 난 뒤 물이 잦아진 논고랑에 가서 소쿠리로 미꾸라지를 떠서 고아 추어탕을 해먹는다.

10. 시월

음력 시월 들어 무오일(戊午日)을 가려 무시루떡을 찌서 토주신(土主神)에게 고사(告祀)를 지내는데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하여준데 대하여 감사하고, 집안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음해 농사가 잘되기를 빌고, 온 동네에 떡을 골고루 돌려 나누어 먹는데, 이를 ‘가을 떡 돌린다.’고 한다. 시제(時祭)는 춘향제(春享祭)와 추향제(秋享祭)가 있는데, 가을의 추향제가 일반적이다. 대체로 1일에서부터 15일 안에 지내는 것이 보통인데, 시제답(時祭畓) 또는 시제전(時祭田)이라 하여 일정한 농토에서 생산하는 곡식 중에서 도조(賭租)를 마련하여 그 곡식으로 제물을 장만하여 산소 앞에 차려놓고 자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음력 10월 20일을 ‘손돌이날’ 또는 ‘손돌날’이라 한다. 이날은 겨울옷을 준비하여 월동할 준비를 하게 된다. 또한 입동(立冬)을 전후한 6일 중 날을 택하여 겨울철의 반찬으로 김장을 담근다.

1) 월중

- 시월 보름달은 한 해 중에 가장 밝기 때문에 ‘상달’이라고 하며, 동네의 무사태평을 비는 동제를 지낸다.
- 10월 들어 날을 잡아 5대조 이상의 피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데, 이를 ‘시사’ 또는 ‘시제’라고 한다.
- 가을걷이를 마치고 시월 초하루부터 보름날 사이에 날을 잡아 농사를 잘 짓게 해준데 대한 고마운 뜻으로 고사를 지낸다. 이를 ‘도신제’라고 한다. 처음으로 가을걷이한 햇곡식을 ‘부릿단지(세존단지)’에 담아 정해진 자리에 올리고, 햇곡식으로 장만한

음식을 차려 치성을 드린다. 제주(祭主)는 안주인이 맡으며, 무당과 하랭이를 불러다가 굿을 하기도 한다.

- 무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겨울 날씨가 춥고, 얇게 박혀 있으면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
- 입동이 지나면 김장을 담근다.

11. 동짓달

음력 11월에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인 ‘동지(冬至)’가 있다. 동지는 양력 12월 22일경으로 낮이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 이 날은 ‘동지팥죽’이라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집안이 팥죽을 쑤다. 또한 팥을 삶아 으깨거나 체에 걸러서 그 물에다 찹쌀가루로 새알만큼씩 동그란 단자를 만들어 넣는데, 이것이 ‘새알심(鳥卵心)’이다. 팥죽을 쑤어 놓고 기다리다가 동지시(冬至時)가 되면 대문이나 담벽 등에 뿌린다. 집안에 따라서는 사당에 팥죽으로 차례를 지낸 다음 방, 마루, 장독대 등에 한 그릇씩 퍼다 놓은 뒤에 먹는다. 팥죽은 그 빛이 검붉기 때문에 귀신들은 붉은 빛을 싫어하므로 팥죽을 뿌리면 잡신이 침입하지 못한다 하여 온 집안에 뿌린다. 지방에 따라서는 팥죽을 동네 앞 고목에 뿌려 악귀나 사귀(邪鬼)가 동네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1) 동지

- 동짓날에는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새알심을 만들어 넣고 팥죽을 쑤어 고사를 지내고 온 집안에 흩어 뿌린 다음에 먹는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악귀가 침범하지 못한다 한다.
- 동지 팥죽에는 반드시 새알심을 나이수대로 넣어 먹는다.
- 팥죽에 새알심을 넣어 먹고 나면, 설을 쇠지 않아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한다.
- 동짓날에 상중인 집안에서는 팥죽을 쑤어 차리고 조상 앞에 차례를 지낸다. 이것을 ‘동지차례’라고 한다. 또 팥죽을 쑤어 성주, 조왕에 차려 치성을 드리는데, 이를 ‘동지고사’라고 한다.

12. 선달

동지로부터 세 번째의 미일(未日)을 ‘납향(臘享)’이라 하는데 대체로 음력 12월 중순 쯤 된다. 이날 약을 만들면 1년 내내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옛날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여러 가지 환약을 지어 임금께 진상하였다. 이를 ‘납약(臘藥)’이라 하였으며, 임금은 이 약을 다시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며 병을 고치게 하였다. 또한 일 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신에게 보고하는 날로서, 이날 지내는 제사를 ‘납향제(臘享祭)’ 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풍속이다. 이날 참새를 잡아 구워서 아이에게 먹이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날 내린 눈은 약이 된다고 하여 독에 받아 녹은 물을 두었다가 김장독에 넣으면 김장의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며, 한약을 달일 때 쓰기도 한다. 12월 말일을 ‘선달그믐’ 이라 하며 그믐날 밤을 ‘제석’ 또는 ‘제야’ 라고 한다. 이날 빛이 있는 사람은 해를 넘기지 않고 모두 청산하였으며, 남으로부터 받을 빚이나 외상이 있는 사람은 이날 찾아다니며 받아야 한다. 자정이 넘도록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월 보름까지는 빚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주부들은 세찬이나 차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며, 남자들은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농가에서는 외양간을 치우고 거름도 퍼내어 설맞을 준비를 한다. 한편 방, 뜰, 부엌, 뒷간과 뒤뜰까지 불을 밝히고 잠을 안자는데, 이것을 ‘수세(守歲)’ 또는 ‘해지킴’ 이라고 하며, 자는 사람은 눈썹이 희게 쏜다고 한다.

1) 납일

- 동지가 지나 세 번째로 드는 염소날(未日)을 ‘납일’ 이라고 한다.
- 납일에 내린 눈을 받아 녹인 물을 약으로 쓴다.

2) 선달그믐날

- 선달 그믐날은 ‘작은 설(까치설날)’ 이라 하여 한해를 보내는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을 채비를 한다.
- 선달 그믐날은 객지에 나가있던 사람들도 제 집으로 돌아와서 설 채비를 한다.
- 선달그믐에 웃어른께 소고기, 조기 따위를 보내어 대접하고 돈을 보내기도 한다. 또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보내는데, 이렇게 적선을 하면 복을 받는다.
-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선달그믐날에는 집 안팎을 깨끗이 쓸고 닦는다.
- 선달그믐에는 가마솥에 물을 끓여 목욕을 한다.
- 종가 어른과 한집안 어른에게 묵은세배를 하거나 세찬거리로 고기나 생선을 보내드린다.
- 선달 그믐날 저녁에 온 집안 곳곳에 등불을 켜놓고 다음날인 설날 새벽에 첫닭이 울 때까지 뜯눈으로 밤을 지낸다. 이것을 ‘해지킴’ 또는 ‘장등’ 이라고 한다. 해지킴을 할 때 잠을 자면 ‘곰벙이가 되던지 눈썹이 쏜다’ 고 한다.
- 성주, 부릿독, 조왕께는 각별히 따로 정성껏 불을 켜 모신다. 그 중에 조왕께 바치는 불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데, 이것을 ‘조왕불’ 이라고 한다. 조왕불을 모시는 방식은 부엌의 밥 짓는 가마솥 안이나, 솥뚜껑을 뒤집어 그 위에 쌀을 담은 밥그릇을

엮어 놓은 다음 밥그릇 위에 참기름을 담은 접시를 얹고, 그 안에다 솔심지를 만들어 넣어 불을 켜놓고 안주인이 풍년과 가정의 복을 비는 비손을 한다.

3) 기타

- 12월에 내린 ‘첫눈은 약이 된다’ 고 하여 받아먹는다.
- 보리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날씨가 춥다.
- 설 아래 보리를 밟으면 좋다.
- ‘설 아래 보리를 밟으면 떡 한소쿠리를 얻고, 설을 지나 보리를 밟으면 뺨을 맞는 다’ 고 하여 설 아래 보리를 밟아야 한다.
- 그 해 처음 나는 대구로 국을 끓여 조상에게 천신하고 나서 식구가 나누어 먹는다. 이것을 ‘대구천신’ 이라고 한다.
- 햅쌀로 단술을 담궈 두었다가 겨울철 밤참으로 먹는다.

13. 윤달

음력으로 12월 외에 더 드는 한 달을 ‘윤달’ 이라고 한다. 윤달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귀신이 쉬는 빈 달이기 때문에 부정이나 액이 없으므로 혼인, 집수리, 이사, 뽕 손질 등을 해도 아무런 뒤탈이 없다고 하며, 특히 윤달에 밤나무로 제상(祭床)을 만들면 자손이 밤알처럼 야무지고 번성한다고 하여 밤나무 제상을 만든다. 또 절에 가서 생전의 죄를 사해 주라고 빌며, 극락왕생(極樂往生)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를 올린다.

1) 윤달 속설

- 윤달을 ‘빈달’ 또는 ‘덤달’ 이라고 한다.
- 윤달에는 무슨 일을 하여도 뒤탈이 없다고 하며,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난다’ 는 이야기가 있다.

제 3절 고성 의 세시풍속

1. 정월

정월 초하룻날은 일 년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명절로서 이 날은 설날이라 하여 가족이 모두 일찍 일어나서 새 옷을 갈아입고 세찬과 세주를 갖추어 가묘(家廟)에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나서 조부모나 부모님께 절하고 연하자(年下者)는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는데, 세배하러 온 친척에게 떡, 과일, 술로 대접하고, 세초에 친지나 친구들을 만나면 덕담이라 하여 서로 새해를 축하하는 인사를 한다.

설날의 놀이로 남녀가 다 같이 모이면 윷놀이를 하고, 젊은 부녀자나 처녀들은 널뛰기를, 젊은이들이나 꼬마들은 연날리기를 한다. 또 각 가정에서는 설날 이른 아침에 대로 만든 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두는데, 이를 ‘복조리’라 한다. 그 해의 신수를 보기 위하여 오행점, 윷점 등을 친다. 또 과실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과실나무 두 가지 틈에다 돌을 끼우거나 도끼로 나무를 몇 번 찍는다. 이렇게 하면 과일이 많이 열린다고 한다.

첫 자일(子日)에는 마을 부근 논밭두렁에다 짚을 흩어 놓고 불을 놓아 잡초를 태워서 들판의 쥐와 논밭의 잡충을 제거하고, 입춘날이 되면 대문, 현관, 기둥 등에 ‘춘축(春祝)’의 글귀를 써서 입춘첩을 붙인다. 또 보름 전날 농가에서는 당년의 오곡이 풍성하며, 거두어들일 노적이 높이 쌓이라는 뜻에서 ‘벗가릿대’를 세우며, 이날 밤에는 액년에 당하는 도액(度厄)의 양법(穰法)으로써 처용(處容)이라고 하는 인형을 짚으로 만들어서, 배를 비집어 그 속에 약간의 돈(혹은 쌀)과 함께 그해 액운이 있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시를 적어 넣어 세 갈래 길가나 다리 가에 버린다. 이날 밤 자정이 지나면 각 마을에서는 마을제단에서 동신제를 지내고, 보름날 새벽에는 보름밥(약밥)을 해 먹으며, ‘귀불기술’이라 하여 술 한 잔씩 마시며, ‘부림’이라 하여 날밤이나, 호도, 은행, 잣 등 굳은 껍질의 과실을 깨물고, 해가 뜨기 전에 그해 여름의 더위를 피는데, 아무개 하고 불러 놓고 대답하면, ‘내 더위 다 가져가라’ 하고 놀리기도 한다.

그 해의 풍흉을 점치기 위하여 달불음, 짚불음, 그림자점, 닭울음점 등 여러 가지 점을 치고, 마을내의 악귀를 진압하여 연중 무사하기를 비는 뜻으로 지신밟기, 광대놀이 등을 하며, 기풍(祈豐)놀음으로써 줄다리기를 하는데, 어촌에서는 당해의 풍어를 비는 뜻에서 ‘풍어놀이’를 한다. 또 이날 밤에는 동산에 올라가 달이 뜨는 것과 달의 빛깔을 보고 풍흉을 점치며, 다리의 건강을 바라는 뜻에서 ‘다리밟기’를 한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면 각 가정에서는 소경과 무당을 불러서 안택경을 읽히고, 가신제(家神祭)를 지낸다. 또한 산천초목에게도 한 해의 제액을 위하여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제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바다의 용왕께 지내는 ‘용왕제(龍王祭)’, 산신령께 지내는 ‘산신제(山神祭)’, 칠성께 지내는 ‘칠성제(七星祭)’, 정자나무(木神)에 지내는 ‘정자제(亭子祭)’ 등이 있다.

1) 설

(1) 차례

새해가 밝으면 각 가정에서는 대문을 활짝 열고 차례를 준비한다.

제물은 메와 탕국을 중심으로 떡, 과일, 생선, 나물, 술 등을 올리며, 떡국은 올리지 않는다. 차례 상에 올리는 생선은 이빨이 큰 생선으로 돛이나 조기 등을 쓰며, 과일은 차릴 때 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먼저 놓고, 땅에서 나는 것은 뒤에 놓는다. 탕국은 소고기나 바지락 또는 문어, 두부를 넣고 끓인다. 술은 집에서 직접 빚은 청주를 쓰며, 떡은 흰 팥떡에 콩고물을 묻힌 것을 쓴다. 차례가 끝나고 나면 물밥을 해서 울 바깥에 놓거나 뿌린다. 탈상하지 않은 집에서는 상복을 벗고 차례를 지내고 나서 다시 상복으로 갈아입고 상청에 제사를 지낸다.

- 차례 상에는 비늘 없는 생선은 쓰지 않고, 이름 끝에 ‘치’ 라는 말이 붙은 생선과 송어는 쓰지 않는다. 그러나 비늘이 없기는 하나 가오리는 쓴다.
- 차례를 지내기 전에 성주 상을 간단히 차린다. 상에는 메와 탕을 놓고 과일, 생선, 나물, 한 접시와 술 한 잔을 부어놓는다. 집안이 잘 되길 빌며 간단히 비손을 한다.
- 차례가 끝나면 오갈 데 없는 혼백들이 따라왔을 터이니 조금 얻어먹고 가라고 바가지에 밥과 음식(물밥)을 조금 담아서 담장 위에 올려놓는다.

(2) 설 음식

- 나물로는 고사리, 콩나물, 도라지, 시금치, 미역나물, 무나물, 톳나물, 버섯, 박나물 등을 쓴다.
- 떡국의 장국거리로 조개와 굴, 새우 등을 많이 쓰며, 돼지고기는 쓰지 않는다.
- 엇, 강정(산지), 유과, 밤, 대추, 마른생선, 부침개(생선으로 장만), 과일 등을 장만한다.
- 마을에 초상이 났거나 마마(천연두)가 나돌고 있을 때에는 참기름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침개는 부치지 않는다.
- 제주로 쓰는 술은 ‘설술’로 청주(淸酒)를 빚어 썼다. 청주는 막걸리를 담그듯이 빚어 술이 익은 뒤 싸리나 대로 엮은 둥글고 기다란 통(용수)을 그 속에 집어넣어 맑고 노란 빛물을 떠낸 것을 말한다. 제주는 차례 상에 올리고 또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쓴다.

(3) 세배

차례를 마치고 나면 아랫사람은 웃어른께 세배를 한다. 설 당일엔 친척들에게 세배를 다

니며, 이튿날은 마을 어른을 찾아뵙고 세배 드린다. 부모님에게는 방 밖에서 세배를 하며, 5촌 이상의 친척어른과 이웃어른들에게는 방안에서 세배 드린다. 형제들 간에는 방안에서 맞절로 주고받는다. 어른들에게 “과세 편히 쉬셨습니까?” 하고 세배 드리면 어른은 금년에 소원을 이루라고 덕담을 하고 약간의 음식을 내준다. 세배는 보름 전에 모두 마친다.

(4) 성묘

차례와 세배를 마치면 성묘를 가는데 산소 앞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올린다. 시제와는 반대로 부모의 묘소부터 먼저 살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윗대 조상의 묘소부터 성묘를 한다.

(5) 뱃고사

해안가 마을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차례가 끝나면 오후에 배 위에 올라가서 간단한 뱃고사를 지낸다. 술, 고기, 밥, 떡을 배 위 또는 배 아래에 차려놓고 간단한 비손과 함께 절을 한다. 초이튿날이나 초사흘날에 지내는 집도 있다.

(6) 여자출입금기

정월 초하루에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초사흘날 까지 여자들은 남의 집 출입을 삼간다.

(7) 청참

- 선달그믐날 자시가 넘은 후에 개와 소, 닭 중에 무엇이 먼저 우는가를 보아 그 해 운수를 점친다. 개가 짖으면 그 해 마을의 운수가 좋지 않고, 털이 많은 소나 닭이 울면 그 해 시절이 좋다는 말이 있다.
- 설날 집안의 가축인 소가 일찍 일어나거나 날이 쌀 무렵 까치가 울면 풍년이 든다고 하며, 까마귀나 참새가 먼저 울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 개가 먼저 짖으면 집안에 도둑이 든다고 한다.

(8) 기타

- 정초 꿈에 나락이 보이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
- 정초 꿈에 맑은 물을 보면 좋다.
-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맑아야 좋다.

- 설날 바람이 잔잔해야 농사에 풍해가 없고 세상도 조용하다.
- 콩 12개를 정월부터 선달까지 달을 정해 물에 담가두었다가 콩이 불어난 것을 보고 풍흉을 짐치는데, 콩이 많이 불어난 달이 물이 혼할 것으로 생각한다.
- 설날 밤에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두었다가 태우는데, 이렇게 하면 그 해의 양병(梁病)을 막을 수 있다.
- 설날 밤에 야광귀신이 몰래 들어와 발에 맞는 신발이 있으면 신고 가는데,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해 운수가 나쁘다 하여 신발을 감춰두는 풍속이 있다. 야광귀신을 쫓기 위해 문간이나 대청 벽에 체를 걸어두는데, 이는 야광귀신이 체의 구멍이 몇 개인지 세다가 닭이 울면 놀라서 달아나기 때문이다.

2) 정초

(1) 안택

정초에 점쟁이를 데려다가 안택을 하여 집안의 안녕과 평안을 빈다. 대체로 보름날 안으로 날을 잡아서 한다.

점쟁이나 화랭이(무당)를 찾아가서 미리 날을 받아오면 그 날부터 부정을 가린다. 대문 앞에 막대기를 놓고 술가지를 꽂아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대문 앞에 소금을 놓고, 막대기만 세워 놓기도 한다. 제물로는 시루떡, 과일, 고기, 술, 메를 장만한다. 고사 일이 되면 화랭이가 와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 부정을 물리고 나와서 소금을 마당에 뿌리면서 터주에게 축원한다. 그리고 나서 조왕과 성주 앞에서 경문을 읽고 소지를 올린다.

(2) 용왕먹이기

- 정초에 좋은 날(초닷새날이 많음)을 잡아 뱃고사를 지내거나 용왕을 먹인다. 대체로 부녀자들이 갯가에 나가서 고사를 지내는데 제물로는 과일 한 두개와 생쌀이 전부이다. 저녁 때쯤 갯가에 나가 촛불을 켜놓고 제물을 진설한다. 그리고 비손과 절을 하며 용왕님께 집안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빈다. 고사가 끝나면 가져간 제물은 바다에 던지고 온다.
- 정초에 부녀자들이 생쌀을 밥그릇에 담아가거나 밥을 해서 바닷가로 가져가서 집안의 평안을 위해 비손과 절을 한 후 손으로 쌀 세줌을 뿌린다. 밥을 가져간 사람은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을 떠서 바다에 뿌리고 돌아온다.

(3) 토정비결보기

정초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아 그해 운수를 점친다.

그 해 식구들의 점괘가 좋지 않으면 보름 안에 액막이를 하는데, 부적을 써서 집안에 붙여 놓기도 하고, 팔죽을 쑤어서 소금과 함께 집안 곳곳에 뿌리기도 한다.

(4) 삼재풀이

- 삼재가 들면 삼 년 동안 조심을 해야 한다. 삼재가 들면 집을 지어서도 안 되고, 혼인도 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기간에는 상가에도 가지 않는다.
- 삼재가 든 사람은 삼년동안 조심해야 하는데, 삼재가 들어오는 해를 ‘들삼재’ 라고 하고, 머물러 있는 해를 ‘눌삼재’, 나가는 해를 ‘날삼재’ 라고 부른다. 들삼재는 덜 위험하지만 날삼재는 특히 조심을 하여야 한다. 삼재가 들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횡수를 방지한다. 또 남과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돈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먼 길을 가거나 초상집에 다녀오는 것은 더욱 삼가야 한다.

(5) 장 담그기

정월에 장을 담근다. 장을 담그는 날도 좋은 날을 잡는데, 주로 말날(午日)이나 소날(丑日)에 하며, 뱀날과 용날, 쥐날 그리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날은 피한다. 장을 담그면 단지에 금줄을 두르고 대추, 고추, 숯 등을 넣는다. 이것은 잡귀의 침범을 막고 장에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는 말이 있으며, 이때는 장을 끓이면 맛이 변하는 일이 없다한다.

(6) 지신밟기(매구치기)

정월 초사흘날 저녁부터 매구패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악을 치고 지신을 밟아준다. 매구패가 집 앞에 다다르면 주인이 대문을 활짝 열고 이들을 맞이하며, 마당에 상을 차려 놓는다. 나무그릇이나 놋그릇에 쌀을 담고 그 위에 초를 쫓으며 그 옆에 술과 물을 함께 올린다. 매구패는 조상, 성주, 우물, 장독간 등을 돌며 축원과 덕담을 해준다. 상에 차린 쌀은 매구패가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마을 기금으로 활용한다.

(7) 줄다리기

정초에 택일을 해서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줄다리기를 한다.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줄다리기의 승패를 보아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동편이 이기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생각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끊어 와서 집에 걸어두는데 이는 줄다리기를 한 줄이 재수가 있는 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8) 십이지 짐승날

- 첫 쥐날(初子日)에는 바느질을 하지 말아야 하고, 구멍을 뚫는 일은 하지 않는다. 구멍 뚫는 일을 하면 그해 쥐가 집안 안팎에 구멍을 쏜다. 또 이날 부엌을 고치면 부엌에 쥐가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한다.
- 첫 소날(初丑日)에 갈질을 하면 제 집 소가 여름에 일 할 때 발을 다친다.
- 첫 소날 부뚜막(조왕)에 촛불을 켜 놓고 떡국을 끓여 먹으면 바람머리(두통)를 앓지 않는다.
- 첫 호랑이날(初寅日)이 정초 앞에 들면 호랑이가 털이 많고 좋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해 목화가 풍년이 든다.
- 첫 토끼날(初卯日) 해돋이 이전에 아낙네는 대문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남의 집에 가서도 안 되며, 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샘물(우물물)을 길러 가서도 안 된다.
- 첫 용날(初辰日)에는 장을 담그지 않는다.(모든 용날이 해당됨)
- 첫 용날 새벽에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물에 알을 낳는다. 따라서 아낙네는 이 날 새벽 가장 먼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밥을 지으면 그 집안에 운이 좋다. 용알을 가장 먼저 뜯 사람(우물물을 제일 먼저 긴 사람)은 우물에 지푸라기를 띄워놓고 남에게 알린다.
- 첫 말날(初午日)에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고 달다.

(8) 기타

- 정초에 복조리를 팔러 다닌다. 정초에 복조리를 사서 부엌 조왕이나 방문위에 걸어두면 복을 들인다는 속신이 있어 반드시 구입한다. 복조리를 구입할 때는 값을 흥정하지 않고 부르는 값에 구입한다.
- 정초에 장에 가서 복조리를 사온다. 복조리는 한 번에 두 개씩 구입하며, 붉은 형질을 묶어서 부엌이나 조상 앞에 걸어둔다. 재물이 복조리를 통해 들어오길 바라는 의미이다. 시간이 지나면 복조리를 내어서 주방에서 사용한다.
- 정초에 부잣집에 붙어있는 부적을 훔쳐오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부적을 훔치는 것은 그 집 재산을 훔쳐 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정초에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아궁이 흙을 훔쳐오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 설을 쇠 다음 첫 장날에 키는 까불기 때문에 복이 나간다고 사지 않는다.
- 정초에 대문에 금줄을 치고 며칠 동안 걸어둔다. 상주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집안에 우환이 들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 대한 날 이후 10일째, 입춘 이전 5일 되는 날은 ‘투수시’ 라고 하는데 이날은 귀신

들이 모두 하늘에 모임을 하러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 특히 뒷간이나 헛간과 같이 여느 때 날을 받아 손질해도 탈이 나는 것이라도 이때에 고치면 아무 뒤탈이 없다고 한다.

- 정월 대보름날 이전에는 집안의 곡식을 내다 남에게 빌려주지도 안으며, 돈도 빌려주지 않는다.
- 꼬부랑할망구가 보리 한 말을 가지고 선달그믐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 하루 한 되씩 먹고 지내다가 첫 소날(初丑日)에 하늘로 올라간다.
- 선달그믐에 아이가 울면 ‘꼬부랑할망구(보리할매)가 설 옷 가져갈라’ 하고 달랜다.
- 음력 정월 초여드렛날을 패일이라고 하며, 패일과 조금은 지킨다.
- 패일에는 집 손질, 옷 손질 따위를 하지 않는다.

3) 입춘

(1) 입춘첩 붙이기

입춘날에는 각 집안에서 입춘첩을 써 붙인다. 한지에 먹으로 ‘입춘대길(立春大吉)’, 또는 ‘건양다경(建陽多慶)’ 등의 문구를 써서 대문과 집안 기둥 여러 곳에 붙인다. 춘첩을 써 붙이면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삼재가 든 사람은 운수에 관한 좋은 글귀를 써서 붙이면 삼재를 면하게 된다.

(2) 입춘과 백로

입춘과 백로 사이의 날 수가 길면 농사가 늦되고, 가까우면 올된다.

4) 대보름

(1) 오곡밥 먹기

각 집에서는 보름날 새벽에 첫닭이 울자마자 우물물을 길어와 찹쌀, 보리, 서숙, 수수, 팥 등 다섯 가지 곡식을 섞어 오곡밥을 지어 작년에 말려 두었던 아주까리, 고사리, 취나물, 토란대 등 묵은 나물과 시금치, 도라지, 콩나물 등과 함께 먹는다. 밥이 다 되면 먼저 성주와 조왕신 앞에 올린다. 첫술은 아주까리 잎이나 김에 오곡밥을 싸서 먹는데, 이것을 ‘복쌈’ 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해 나락섬이 많이 들어오고 산이나 보리밭 또는 논 두렁에서 썩알을 줍는다는 말이 있으며, 썩알을 주우면 그 해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한다. 이 날은 하루 세 끼 모두 찬밥 그대로 먹는다.

(2) 보름밥 얻어먹기

- 대보름날 오후에 아이들이 조리나 채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보름밥을 얻으러 다니는데(百家飯), 얻어 온 밥은 절구통 안에 들어앉아서 먹는다. 이때 자기 집 개를 데리고 가서 개를 보고 ‘아바, 아바, 아바’ 세 번 부르고 나서 먼저 세 숟갈 던져 주고 먹는다. 이렇게 하면 그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으며, 부스럼이나 버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 보름날 오후에 성이 다른 다섯 집의 밥을 얻어서 디딜방앗간이나 절구통에 앉아서 먹는다. 이때 얻어온 밥은 숟가락으로 먹지 않고 손으로 먹는다. 이렇게 하면 얼굴에 버짐이 나지 않으며, 또 그 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도 않는다.

(3) 부럼깨기

- 보름날 아침에 껍질이 단단한 열매(호두, 밤, 땅콩 등)나 엿을 깨문다. 1년 내내 이가 튼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 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깨물면 한 해 동안 치통을 앓지 않고 건강해진다고 한다.

(4) 귀볼기 술 마시기

- 오곡밥을 먹기 전에 먼저 ‘귀볼기 술’ 한잔을 마신다. 그해 귀가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귓병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
- 어른이 부르면 귀가 밝아서 잘 알아듣고 빨리 대답하라는 뜻에서 어린아이들에게도 ‘귀볼기 술’ 을 한잔씩 준다.
- 보름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고 나서 술 한 잔을 마신다. 이를 ‘귀볼기 술’ 이라 부르며, 보름날 새벽에 술을 마시면 한 해 동안 귀가 밝아진다고 한다.

(5)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 해뜨기 전에 친구를 만나면 그의 이름을 부른다. 대답을 하면 곧바로 ‘내 더위 니 사가라’ 라고 외친다. 그래서 보름날 아침에는 친구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6) 연날리기

아이들은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연을 날리며 논다. 그러다가 보름이 되면 달집을 태울 때 연에 자기 생년월일시와 이름을 적어 태우거나 날려 보낸다.

(7) 달집태우기

마을 청년들이 보름날 오후부터 대나무와 소나무를 해 와서 마을 앞 논에 원뿔형으로 달집을 짓는다. 가운데에 굵은 대나무를 세우고 여러 개의 대나무와 소나무를 기대어 세운 후 그 위에 소나무 잔가지를 쌓아 올리며, 아랫부분에는 짚을 깔아서 불에 잘 타게 만든다. 달집에는 ‘달문’ 이라고 부르는 문을 동쪽 방향으로 내며,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크게 만든다. 보름달이 떠오르면 마을 사람들은 ‘월광보살 월광보살’ 하면서 달집에 불을 붙여 태우는데, 달집이 탈 때 ‘핑 핑’ 하고 대나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마을의 나쁜 액운이 함께 사라진다고 여긴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정화수를 올린 상을 놓고 정성을 드리기도 하며, 액막이의 한 방법으로 옷의 동정을 떼어서 달집과 함께 태우기도 한다. 달집이 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매구를 치며 그 주위에서 즐겁게 논다.

- 달집에 첫 불을 당긴 사람은 아이를 낳는다고 하여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은 달집을 태울 때 첫 불을 지피게 해달라고 서로 다투어 그 자리에서 술을 내기도 한다.
- 달집이 불타며 넘어지는 쪽 지방이 풍년이 든다.
- 어린이들이 연에 자기의 생년월일시 따위의 간지(干支)와 이름을 적어 놓고 달집을 태울 때 함께 태운다. 이렇게 하면 그해 액땀이 된다. 이것을 ‘액 사른다’ 고 한다.
- 달집태우기 끝에 달집에서 헛불을 당겨 그것으로 논밭두렁에 불을 지른다. 이것을 ‘논두렁 불놓기’ 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해 논밭에서 들쥐가 사라지고 충해가 생기지 않아 그해 농사가 잘된다.

(8) 기타

- 보름날에는 고춧가루, 깨소금, 기름, 김치를 먹지 않는다. 이것들을 쓰면 벼논에 멸구가 생기며, 파래가 끼인다고 한다.
- 보름날에는 칼질을 하지 않는다. 이 날 칼질을 하면 농사지을 때 낫 등으로 손을 베인다고 여긴다.
- 콩밭에 새삼(덩굴식물)이 많이 나면 콩농사를 망치기 일쑤여서 대보름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밭에 가서 양철 조각을 주워온다. 그리고 콩을 볶으면서 ‘새삼 볶자. 새삼 볶자’ 라고 외친다. 이렇게 하면 콩밭에 새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 보름날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이 날 머리를 빗으면 머리에 비듬과 이가 생긴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 정월초하루와 보름날 새벽에 마을 우물에서 물을 가장 먼저 길어오면 그 우물의 복을 모두 받아 온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아낙네들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날

이 새면 물을 뜨러 간다. 먼저 물을 떠간 사람은 물을 흘려 흔적을 남겨 이미 물을 떠갔음을 알린다.

- 보름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면 그 해 여름에 소나기를 맞는다고 하여 삼간다.
- 그 해 운수가 나쁜 사람은 보름날 달이 뜰 무렵에 액막이를 한다. 이를 ‘제웅친다’고 하는데, 보름날 저녁 삼거리에 나가서 짚으로 만든 인형에 돈을 꽂아 눕혀 놓는다. 그 옆에는 밥, 사과, 명태 등 제물을 함께 차린다. 이것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오는데, 이렇게 하면 그 해의 나쁜 액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 보름날에는 밭에 나가기만 해도 밭에 지심(잡초)이 많이 난다고 하여 삼간다. 보름날은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뜻이다.
- 보름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자기 집 울타리를 막대기로 내려치면서 ‘후여 후여’ 하고 외친다. 이것은 가을에 새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양법(방법)이 된다.
- 보름날 소 외양간에 구멍 난 돌을 걸어둔다. 이렇게 하면 소가 병에 걸리지 않고 탈이 없다고 한다. 소가 농가에서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소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쓴 까닭이다.
- 보름날 새벽에 소에게 오곡밥과 나물을 주고 무엇을 먹는지 보아 그해 풍흉을 점친다. 만약에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그해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한다.
- 대보름날 마을 앞 논에서 달집을 태우는 동안 뒷산에 올라 달맞이를 하며 소원을 비는 사람이 달이 뜨는 모양을 보아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만약 달이 밝게 뜨면 그해 물이 많아 풍년이 들지만, 달이 붉으면 가뭄이 들 징조로 여긴다.
- 대보름달이 뜨는 자리와 그 빛깔, 두께로 그 해의 강우량과 농사사정을 점친다. 달이 두꺼워 보이면 풍년이 들고, 얇어 보이면 흉년이 든다고 여긴다.
- 그해 액운이 들었다면 횡수를 막기 위해 ‘허재비’를 버린다. 짚으로 허재비를 만들어 그 속에 동전을 넣고, 액운이 든 사람의 이름을 쓴다. 이를 오색 형짚에 명태와 함께 묶어서 삼거리에 내다 버린다. 아이들도 허재비를 건드리면 귀신이 따라 온다고 하여 건드리지 않는다. 한편 용왕을 먹일 때에도 식구 중에 신수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환자가 있으면 허재비를 바다에 띄워 보낸다.
- 대보름날 새벽에 밥을 지을 때 짚을 모아 마당과 대문의 안과 밖에 ‘목개불’을 피운다. 이 때 목개불이 타는 모습을 보아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목개불 피우는 짚의 끝이 검으면 그해 나락 결실이 좋으며, 가운데 부분이 흰색을 띠면 나락에 병충해가 많고, 뿌리가 희면 썩은 것이 많다고 한다.

- 보름날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짚불을 놓는다. 이것을 ‘목개불’ 이라고 하는데 마당 두 세 곳에 동시에 피운다. 그러면 그 해 여름에 모기한테 물리지 않는다고 한다.
- 대보름 전날 밤에 집안에 불을 밝히고 하인을 시켜 망을 보게 하였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부엌이나 뜰의 흙을 몰래 훔쳐 자기 집 부엌에 바르면 복이 묻어온다고 하여 ‘복도훔치기’ 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 대보름날 새끼줄을 불에 그슬려서 끌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그것을 한길이나 냇가에 내다 버린다. 이것을 ‘뱀치기’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해 집 안에 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 이른 아침에 메나 공이를 들고 밭에 가서 땅을 쪼으면서 ‘디지기 치자, 디지기 치자’ 라고 외치면 두더지가 없어진다. 이것을 ‘디지기 방아 찧는다’ 고 한다.
- 대보름날 저녁에 ‘다리밟기’ 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해 다리가 튼튼해지고 발병이 나지 않는다.
- 대보름날 오후에 인분을 내어 밭에 가서 뿌리고 오는데, 밭에 거름을 줌으로써 그 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한다.
- 대보름날에는 개에게 밥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굶긴다. 이를 두고 ‘개보름 씬다’ 고 한다.
- 보름날 아침에 개에게 밥을 주면 ‘개머리(비루) 오른다’ 한다.
- 보름날에는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한다’ 는 말이 있다. 오곡밥은 차지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 번 먹으라고 하는 말이며, 또한 부지런히 일하라는 의미이다.
- 대보름날 그 해 마른벼집이 피지 않는다고 하여 엿을 먹는다.
- 대보름날 ‘용왕먹이기 치성’ 을 드린다. 제수를 차린 다음에 절을 하고 비손을 하면서 집안의 무사태평과 소원성취를 빌며, 소지(燒紙)를 불사른 뒤 제수를 시냇물과 시냇가 또는 바다와 갯가에 흩어 뿌린다. 이 때 소지가 불타면서 그 재가 높이 올라갈수록 좋다고 한다.
- 대보름날 또는 앞날 긴 소나무 장대 꼭대기에 짚단을 비끄러맨 술을 매달아 그 자리에 벼, 보리, 조 따위의 이삭과 종이꽃 팔랑개비를 꽂아둔다. 그 짚단 밑에 사방으로 새끼줄을 치고 버티게 해서 이것을 2월 초하루 날까지 그대로 둔다. 이 때 사방으로 쳐 놓은 새끼줄에 종이꽃을 매달기도 하는데, 이것을 ‘유지방(벼가릿대)세우기’ 라고 한다.
- 보름날 키가 작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삼이 그 사람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하여 키가 작은 사람의 출입을 꺼린다.

5) 월중

(1) 고마이날

- 열여섯날은 ‘암고마이날’ 이라고 부르고, 그 이튿날은 ‘숫고마이날’ 이라고 부른다. 이날 일을 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살림이 늘지 않는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고 쉰다. 다만 머슴들은 새끼를 꼬는 등 1년 농사를 서서히 준비한다.
- 고마이날에 낮이나 바늘 등 금속을 만지면 다친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날은 신발을 집안으로 들여놓고 잠을 잔다.

2. 이월

이월 초하룻날은 정월 대보름날 세웠던 벧가릿대의 곡식을 풀어 내려서 술과 흰떡을 만들어 먹는데, 술이므로 격지를 놓아서 하므로 ‘술떡’ 이라 한다. 이 떡을 나이 수대로 먹는다. 한국 가옥은 초가집이 많으므로 노래기(일명 산애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것을 쫓기 위한 방법으로 지편(紙片)에다 검은 먹으로 ‘향낭각씨속거천리원거타방(香娘閣氏速去千里遠去他方)’ 이라는 주문을 써서 천정 또는 처마에다 붙이기도 하고, 또 솔잎사귀를 처마 지붕에 꽂아 놓기도 한다. 이것을 ‘노래기 부적’ 이라 한다. 이월초하룻날은 머슴들이 이발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루를 즐긴다. 옛날에는 머슴 새경 반년 분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이 지방 관례로 되어 있었다. 초하루부터 20일까지 사이에는 주로 바닷가(어촌)에서는 ‘할만네’ 가 온다하여 ‘풍신제(風神祭)’ 를 지낸다. 이것을 ‘할만네 바람대접’ 이라 하는데, 이를 위해 미리 가택을 청결히 하고, 밖에서 사립문까지 붉은 황토를 한 주먹씩 양편에 놓는다. 이월초하룻날에는 찰밥과 채소 등 음식을 특별히 장만하여 부엌 한쪽 정결한 곳에 정화수를 떠 놓고, 그 옆에는 소나무 또는 대나무를 화병에 꽂고, 처녀 솜씨 야무지라고 수실 등을 걸기도 한다. 그리고 장만한 음식을 차려 놓고, 금년 운수 대통하고, 바람 없이 무사평안하게 일 년을 하루같이 잘 넘기게 해 달라고 정성껏 소지를 태우면서 식구수대로 성명, 나이를 알리고, 정성껏 비는데, 아침저녁 남보다 먼저 생수를 떠다 갈아 놓으며, 갈아 놓을 때마다 가정의 행운을 빈다. 이 ‘할만네 바람대접’ 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만에 다시 전과 같이 음식을 장만하여 빔고, 또 다시 7일 만에 음식을 차려 반복하고 그제야 전부 철거하게 되므로 전후 21일간 계속된다.

1) 이월 초하룻날

(1) 영등맞이(할머니 고사)

이월 초하루가 되면 각 가정에서는 집안이 평안하고 한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며 고

사를 지낸다. 고사는 이월 초하루, 아흐레, 스무날에 주로 지내는데 자기 정성껏 지내는 것이므로 각 가정마다 지내는 횟수가 다르다. 할머니가 내려 올 때는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대문 양쪽에 황토를 일곱 군데 놓고 문 앞에 작대기를 세워 놓는다. 대를 세우고 오색 형짚과 솔가지를 매달아 신체로 삼으며, 대 밑에는 황토를 한 무더기 놓는다. 고사는 부엌 또는 장독대에서 지내며, 제물 차리는 곳 옆에 대나무를 세워 끝을 네 갈래로 잘라서 벌린 다음 그 위에 짚 따뎡이(또아리)를 놓고 그 위에 정화수를 올린다. 가정에 따라 정화수를 살갱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제물로 메(팥을 넣은 잡곡밥), 팥시루떡, 나물(콩나물, 고사리, 미역, 톳나물 등), 생선(명태, 청어) 등을 차리며, 술은 올리지 않는다. 음식은 바가지에다 깨끗한 짚을 추려 넣고 그 위에다 놓기도 한다. 고사는 주부가 직접 지내는데, 목욕재계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제물을 진설하며, 비손을 하고 식구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며 소지를 올린다. 일부 가정에서는 소지를 태운 재를 정화수 물에 넣어 아들에게 먹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충기가 생겨 공부를 잘한다고 여긴다. 할머니가 올라가는 스무날까지 매일 아침 일찍 정화수를 길어 와서 갈아 놓는 가정도 있다. 고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할머니 신체는 모두 태워 버리고 대는 보관해 두었다가 이듬해에 다시 사용한다. 현재는 할머니 고사를 지내는 집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 영동할만네가 승천하는 날마다 바람이 분다고 한다.
- 영동할만네 고사를 지낼 때 계집아이들이 작은 치마저고리, 골무, 주머니, 필대 등을 물대에 매어달고 치성을 드리면 바느질 솜씨가 늘어난다고 한다.
- 영동할만네에 차렸던 밥을 머슴에게 주는데, 이것을 ‘머슴밥’ 이라 한다.

(2) 기타

- 이월 초하루 날은 ‘머슴날’ 이라 하여 머슴을 부리는 집에서는 머슴들에게 술과 음식을 한 상 차려주고 옷을 한 벌 해준다. 이렇게 머슴들에게 봄, 여름, 가을에 각각 옷을 해 입힌다. 이 날 머슴들과 동네 일꾼들은 모여서 먹고 마시며 풍물을 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 이월 초하루에 보리 뿌리를 캐어보아 그 해 시절을 점친다. 보리뿌리의 수염이 많으면 그 해 날이 가물고, 뿌리가 적으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 이월초하룻날이 되면 마을의 갓임자(山主)들이 갓의 면적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주연을 베풀었는데 이것을 ‘갓 술먹기’ 라고 한다. 이는 도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월중

(1) 영동뒤틀시

‘영동뒤틀시’는 일 년 중 가장 물이 많이 빠지는 시기로 갯벌이 넓게 드러나므로 마을 사람들은 주로 갯일을 하며 바지락 등을 캔다.

(2) 꽃샘바람

이월 말과 삼월 초 꽃이 필 무렵에 부는 바람을 ‘꽃심이’ 또는 ‘꽃샘이’라고 한다.

(3) 기타

- 이월 초하루날 저녁밥을 먹은 뒤 조무싱이(좁생이) 별(昴星)과 달과의 거리를 보고 그 해 농사를 점친다. 이것을 ‘조생이 본다’고 한다.
- 이월 초엿새에 초저녁에 달과 함께 뜨는 별을 ‘조무싱이 별(산토싱이 별이라고도 함)’이라고 부른다. 조무싱이 별은 달을 따라 가는 별로 조무싱이가 달 위에 뜨면 밥그릇(달)을 넘겨다보고 있는 것이므로 그 해에 흉년이 들고, 조무싱이 별이 달밑에 뜨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 이월 스무날 비가 오면 그 해 시절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스무날 구름만 끼어도 입을 벌리고 모내기하고 떡 해 먹는다.’는 말이 있다. 날이 꺾어도 농사가 잘된다는 뜻이다.

3. 삼월

삼월 삼짇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전해오는 날로서 이때가 되면 제비를 볼 수가 있다. 또 이날은 기일(忌日)이 분명하지 않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며, 아들 낳지 못한 부녀자들은 절이나 산속에 가서 아들 낳기를 빌기도 한다. 동지 후 105일째 되는 한식날에는 술, 과일, 고기 기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조상의 묘에 가서 성묘를 하기도 한다. 이달 중에 ‘봄회치’라 하여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음식, 술을 장만하여 꽃 있고 경치 좋은 산이나 들로 가서 하루를 즐긴다. 한량들은 활터에서 활쏘기대회를 열어 승부내기를 하며, 그믐께는 시인들이나 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이 산골짜기나 강나루에서 시도 짓고 글도 쓰며, 술과 노래로 하루를 보낸다.

1) 삼짇날

(1) 머리감기

- 삼짇날에는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다. 이 날 물은 약물이기 때문에 머리를 감으면 운

기가 나 좋다고 한다. 아이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기도 한다.

-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삼짇날 절에 가서 집안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무탈하기를 기원하며 불공을 드린다.

(2) 기타

- 삼짇날이나 그 즈음에 산이나 들에 가서 맨 처음 흰나비를 보면 그 해 상주가 되고,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길하다고 한다. 그리고 노랑나비를 보게 되면 근심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 봄에 당산나무의 잎이 피는 모양을 보아 그 해 농사를 점친다. 당산나무 잎이 한꺼번에 피면 그 해 시절이 좋지만, 잎이 드문드문 피면 그 해 날이 가물어서 흉년이 든다고 한다.
- 삼짇날 도마뱀을 보면 그 해 운수가 좋다는 말이 있다.

2) 청명 · 한식

- 한식에는 찬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 하여 따뜻한 밥을 먹지 않고 일부러 식혀서 먹는다. 이날은 탈이 없는 날로 ‘동토신(動土神)이 잠이 드는 날’ 이라고 하여 무엇을 해도 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장(移葬)이나 사초(莎草) 등을 많이 한다.
- 한식날 날씨가 안 좋으면 그 해 시절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 한식과 청명은 길일이라고 하여 일부 가정에서는 집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정성을 드리기도 한다.

3) 월중

- 봄에 산에 가서 냉이나 달래를 캐어 보아서 그 뿌리를 보고 그 해 날씨를 점치기도 한다. 만약 냉이의 뿌리가 짧으면 올 겨울은 따뜻할 것으로 보고, 뿌리가 길면 추울 것이라고 예견한다.
- 봄에 대합이 바위에 많이 붙어 자라면 그해 농사 시절이 좋지 않다.
- 이 달은 간장을 담그기 적합한 달로 삼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말일(午日)에 담그면 장맛이 좋다고 하여 정성을 들여 부정이 타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장을 담근다.
- 봄에 비가오지 않아 가물면 비가 내리기를 비는 행사로 줄다리기를 벌이는데, 이때는 아낙네들끼리만 모여 줄다리기를 한다. 봄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날이 가물면 아낙네들끼리 줄다리기를 벌인다.
- 봄에 씨앗을 심을 때에는 책력을 보아 날짜를 선택한다. 특히 고초일(枯草日)에는 씨

앗을 심으면 안 된다. 고초일은 책력에 따라 날짜가 약간씩 변하지만 자(子), 인(寅), 진(辰)일이 해당된다.

4. 사월

사월 초파일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서 농가에서는 젊은 부녀자와 늙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절로 찾아가 불공을 드리고 식구 수대로 등을 켜 단다. 속불일(俗佛日)이라 하여 가가 호호 등을 켜 달아 밝게 한다. 이 날은 마을마다 남녀노소가 집에서 쉬거나 절을 찾아가 하루를 보낸다. 등에 켜 불이 밝아야 좋다고 한다. 1975년 1월 20일에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 초파일

- 불교 신자들은 이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연등을 달거나 탑을 돌면서 집안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이 날은 절에서 밥을 얻어먹고 온다.
- 절구통에 쌀을 까불러 놓았다가 초파일날 짚레꽃을 넣고 떡을 해 먹는다. 그러면 얼굴에 마른버짐이 피는 것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2) 월중

음력 사월 중에 날을 잡아서 당산나무 아래에서 회치를 한다. 회치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데 모여 노는 것으로 각자의 나이 또래 혹은 신분별로 모임을 만들어 술과 인주를 장만하고 재미있게 하루를 보낸다. 최근에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외지로 관광을 가는 것으로 회치를 대신한다.

5. 오월

오월 오일은 단오라고 한다. 이 날은 연중 3대 명절의 하나로서 ‘단오제례’ 라고 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가묘에 제사를 지내며, 남녀가 다 새 옷을 갈아입고 서로 모여서 씨름과 그네타기, 소싸움 등을 벌이며, 하루를 즐긴다. 또 이날 부녀자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와 얼굴을 씻고 홍록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창포 뿌리를 꺾어 비녀를 만들어 그 끝엔 연지를 발라서 머리에 꽂는다. 그러나 요즘은 찾아 볼 수 없는 풍속이다.

재액(災厄)을 물리친다 하여 농가에서는 이른 아침에 축을 베어 묶어 문 위에 달고 약용에 쓰기 위하여 특히 오시(午時)에는 축과 익모초를 캐어서 말린다. 대추가 많이 열린다

하여 대추나무 양쪽가지 사이에 자그마한 둥근 돌을 끼어 넣는다. 13일은 대 심는 날이라 하여 대개 이 날에 심으며, 이 달에는 소녀들이 봉선화를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인다.

1) 단오

- 단옷날 해가 뜨기 전에 약초를 캐어두면 약효가 있다고 한다. 고성에서는 익모초나 약썩을 베서 이슬을 맞혀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약으로 쓰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이를 먹으면 좋다고 한다. 육모초도 단오에 말려두는데, 특히 속이 좋지 않은 사람이 즙을 내서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 단오에는 참깨 잎을 담가 두었던 물로 머리를 감는다. 그러면 머리가 미끌미끌하고 윤기가 난다. 또 이날 상추에 맺힌 이슬을 받아 분을 개어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고와지고 여름에 더위도 타지 않는다.
- 단옷날에 아낙네들은 그네를 탄다.
- 찬물에 깨끗한 참깨 잎을 담가두면 기름이 우러나 약간 끈적해지고 미끄럽다. 이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윤이 나고 부드러워 진다고 하여 단옷날 갓잎 물에 머리를 감는다.

2) 망종(芒種)

오월의 망종을 ‘보리 환갑날’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날 보리 이삭을 꺾어 와서 죽을 쑤어 사당에 천신하고 시절음식으로 먹었다.

6. 유월

고성지방에서는 용신제(龍神祭)를 지내는데, 농촌 농부들이 행하는 풍속으로 음력 6월 첫 진(辰) 일에 행한다. 5월 중에 모심기를 다 마치고 농부(머슴)들이 하루 휴식을 취하는 계기도 되는 날이다. 6월 농사철에 용에게 비를 많이 내려 주십사 하는 뜻이다. 밥과 국, 밀떡, 밀부침(지짐), 막걸리 등의 음식을 준비하여 주인 또는 머슴들이 이 음식을 짚어지고 해가 질 무렵 자기네 논가에 가서 음식을 논두렁에 차려 놓고 절을 두 번 한 후에 빌기를, ‘용왕님네 용왕님네 용왕님네’ 3번 부르고, ‘금년 농사 풍년 되도록 비를 많이 내려주소서. 한재 춘재는 몰알로 제살하고 금년 농사 풍년 되기를 소원성취 하옵나이다.’ 라고 고사를 지낸 다음 술과 음식을 조금씩 사방에 뿌리고 그 자리에 따라간 목동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같이 먹기도 하며 남은 음식은 집으로 가져와서 이웃 머슴들까지 나누어 먹기

도 하는 풍속이다.

이런 풍속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연대는 잘 모르나 1960년경까지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가정의례가 간소화 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용신제라는 이름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1) 유두

(1) 농신제(용신제)

- 유두에는 각자 자신의 논이나 밭으로 나가서 고사를 지내는데 이를 ‘농신제(용신제)’ 라고 한다. 제물로는 밥과 국, 떡, 지짐, 막걸리 등을 준비하는데, 부자들은 쌀떡을 찌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밀개떡이라도 정성껏 부쳐서 간다. 논두렁에 제물을 진설하고 절을 두 번 한 후에 ‘농신님네 여기 음식 잘 차려 놓았습니다. 잘 드시고 병충해 없고 풍년들게 해 주소’ 라고 말하면서 비손을 한 후에 소지를 올린다. 고사는 가장이 지내는데,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고사를 지내도 무방하다.
- 이달 첫 진일(辰日)에 논에 나가서 용신제를 지낸다. 이 때는 벼가 거의 익어갈 시기로 해질 무렵 큰 머슴이 샷갓을 쓰고 도롱이(우장)를 입고 제를 지내러 간다. 샷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는 것은 비가 많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제물은 집주인이 직접 쌀떡이나 밀떡 그리고 참외, 수박, 나물을 간단히 장만하여 준비해 준다. 큰머슴이 논에 도착하면 도롱이를 펴고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하고, 나락이 많이 커져서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2) 기타

- 유두에는 반드시 비가 오는데, 이것을 ‘유두물 진다’ 고 한다.
- 유두날에 목욕을 하면 몸에 좋다.
- 유두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몸이 튼튼해진다. 머리를 감고 머리채의 끝을 잘라 삼밭에 묻으면 머리칼이 삼단처럼 무성해진다고 한다.

2) 월중

(1) 여름 날씨보기

- 맞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셋바람이 불면 큰 비가 오고, 갈바람이 불면 날이 가문다.
- 공기가 맑아 먼 산이 가까워 보이면 비가 오고, 옅은 안개가 끼어 흐리면 가문다.
- 아침 북새(노을)가 발강게 뜨면 3일 안에 비가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가문다.

다. 저녁복새가 뜨면 날이 가문다. 아침, 저녁 복새가 꺼떻게 변하면 곧 비가 온다.
○ 달무리가 작고 동남쪽으로 터지면 곧 비가 오고, 달무리가 크고 서쪽으로 터지면 비가 오지 않는다. 달 언저리에 별이 가까이 있으면 비가 온다.

(2) 두레 삼

낮에는 들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낙네들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한 집씩 돌아가면서 삼을 삼는다. 이것을 ‘두레 삼’ 이라고 한다. 이 때 주인집에서 찢 옥수수과 같은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며, 두 패로 갈라서 어느 쪽이 삼을 잘 삼는지 음식대기를 하기도 한다.

(3) 여름 음식

여름간식으로 밀, 보리, 옥수수, 콩 등을 볶아먹는데, 주로 장마 질 때 많이 해먹는다.

7. 칠월

칠월칠석날은 대표적인 명절날로 췌서폭의(曬書曝衣)라 하여 집집마다 책과 옷을 별에 쫓이며, 저녁에 처녀들은 견우직녀 두 별을 보고 절하고, 바느질이 늘기를 빌며, 문사(文士)들은 두 별을 제묵으로 시를 짓기도 한다. 그리고 이날은 명절날이라 하여 바쁜 농촌이라도 잠깐 일손을 멈추고 머슴도 놀린다.

15일은 백중일(百種日)로 백 가지 나물을 먹으면 좋다 하여 가지, 호박, 박나물 등 여러 가지 채소를 장만하여 먹기도 한다. 남녀가 서로 모여 온갖 음식을 갖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며, 장정들은 씨름대회를 갖기도 한다. 그리고 이 날 목욕을 하면 온갖 피부병들이 사라진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절에서는 승려들이 백 가지 나물과 꽃, 과일을 갖추어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며, ‘우란 분회’ 를 성대히 베푼다. 또 이 날은 망혼일(亡魂日)이라 하여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한조가 되어 두레삼을 삼으며, 농가에서는 입추 전에 무와 배추를 심는다.

1) 칠석

(1) 불공드리기

칠석날 주부들이 절에 가서 칠석님께 집안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불공을 드린다. 칠석날 불공을 드리면 집안이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2) 제사

탈상하지 않은 집에서는 칠석과 백중에 빈소에 제물을 차리고 제를 지낸다. 칠석날은 좋은 날이라고 하여 머리를 감아 빗고 하루를 즐겁게 지낸다.

(3) 기타

- 칠석날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번 만나는 날로 이날은 반드시 비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라고 하며, 칠석 전에 2~3일간 비가 와야 시절이 좋다고 한다. 이를 ‘칠석아래 비’ 라고 한다.
- 칠석날 참깨 잎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져 좋다고 하여 부녀자들이 이날 머리를 많이 감는다. 또한 이 날은 물이 좋다고 하여 약물을 맞으러 가는데, 인근의 도랑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칠석날 물맛이를 하면 ‘시집가서 잘 산다’ 고 한다.

2) 백중

- 백중날에는 백(百)가지 나물을 먹으면 좋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백가지나 되는 나물을 모두 장만해서 먹기는 어려우므로 이날 박나물 또는 흰(白)나물을 해서 먹으면 백가지 나물을 해 먹은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한다.
- 백중날에 내리는 물은 약물이라고 하여 찬물에 목욕을 한다. 이것을 ‘백중 물맛이’ 라고 한다.

3) 월중

(1) 풋굿(호미씻이)

무더운 여름에 머슴들이 공동노동을 하며 고된 농사일을 돕는다. 보릿겨름을 마련하기도 하고 김매기에 함께 동원되기도 한다. 보통 김매기는 세 번 정도 하는데, 마지막 논을 맬 때에는 한바탕 잔치를 벌여서 그 동안의 노고를 씻는다. 저녁 무렵에 논매기를 끝나치면 상머슴에게 샷갓을 씌우고 소 등에 태운 채 주인집으로 향한다. 그러면 주인집에서는 대문을 활짝 열고 술과 음식으로 일꾼들의 노고를 달래준다.

(2) 복달임

삼복 중 하루를 택해서 개를 잡아먹는다. 이 날 먹는 개를 ‘복개’ 라고 부른다. 초복이 지나면 벼가 한 살을 먹고, 중복이 지나면 두 살을 먹는다. 말복이 지나야 추수를 시작한다.

(3) 벌초

칠월 그믐에 벌초를 한다. 가장 윗대 조상부터 벌초를 시작해서 내려오는데, 추석 전에 모두 마친다. 그래야 추석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기타

-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에 천 석을 감한다’ 는 말이 있고 ‘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에 백 석 감한다’ 는 말이 있다.
- 칠월에 주로 밀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는 봄이 지나면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이며, 벼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밀가루로 만든 떡을 많이 해 먹고, 이때 호박전도 함께 부쳐 먹는다.

8. 팔월

팔월 상정일(上丁日)에는 유생들이 모여 문묘에서 추기석존(秋期釋尊)의 제향을 행하며, 15일은 ‘한가위’ 또는 ‘추석’ 이라 하여 일 년 중 두 번째로 큰 명절로 각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갖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가묘의 조상신위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마을의 공터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씨름대회를 열어 우승자에게는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주며, ‘장사’ 라고 불러주었다. 요즘은 읍면 체육대회로 바뀌어 행사를 간단하게 치르고 있다.

1) 추석**(1) 차례**

추석날 아침이 오면 4대 조상을 모두 모시고 차례를 지낸다. 차례 방식과 차리는 제물은 설 때와 거의 비슷하며 다만 햇과일과 햇곡식 중심으로 제물을 차린다. 추석에 콩이나 밤을 넣어 솔잎과 함께 찐 송편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송편을 빚지 않고 그저 찹쌀과 멥쌀로 기제사 때와 마찬가지로 떡을 찌서 올리기도 한다. 차례를 지내기 전에 성주 앞에 제물의 일부를 차려 놓는다.

추석은 큰 명절로 그네뛰기, 농악, 소싸움, 씨름 등을 하며 마을 사람들 모두 하루를 쉬는데,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주로 그네를 타고 놀며, 장정들은 농악과 씨름 등을 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한편 추석날 비가 오면 이듬해 보리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2) 성묘

차례를 마치고 나면 조상들의 묘소에 직접 찾아가 성묘를 하고 온다. 만약 추석 전에 별초를 하지 못했다면, 이 때 가서 별초를 끝내고 온다. 성묘 갈 때는 가족들 모두가 함께 올라가며, 약간의 제물을 가지고 간다. 가족들 모두 절을 하고 내려온다.

(3) 버꾸치기

추석날 마을 장정들이 나서서 풍물을 울리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이것을 ‘버꾸치기’ 라고 한다.

(4) 율놀이

추석날에 율놀이를 벌인다. 이때 쓰는 율짝으로 밤율(작은 밤톨만한 율짝)을 쓴다.

2) 월중

팔월에는 문풍지를 바르지 않는다. 구월이 넘어야 문풍지를 바르는데, 만약 부득이 하게 팔월에 문풍지를 바르게 되면 구멍을 뚫어 놓는다. 그러지 않으면 도둑을 맞는다는 말이 있다.

9. 구월

구월 구일은 제비가 강남으로 간다고 전해지는 날로서 이때가 되면 제비를 볼 수가 없다. 농가에서는 주식(酒食)을 가지고 단풍놀이를 가고, 시인들은 황국(黃菊)을 술잔에 띄워 마시면서 시를 지어 읊으며 하루를 한껏 즐긴다.

1) 중앙절

(1) 구일차례(중구제사)

음력 구월 구일은 홀수가 곁치는 길일이다. 이 날에는 후손이 없이 죽은 사람이나, 혼인을 하지 못한 채 죽은 처녀나 총각, 그리고 군대에 가서 죽었거나 바다에 나갔다가 실종되어 제사 일을 모르는 사람의 제사를 지내주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방식은 기제사와 같다. 이날은 국화로 술을 빚어 마신다.

(2) 중앙절 속설

중구일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뱀이 돌에 입을 닦고 땅속에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고, 모기가 들어가고 갈까마귀와 기러기가 온다. 뱀이 입을 닦은 돌에 사람이 입을 닦으면 그 사람은 설 아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속설이 있다.

2) 월중

메뚜기를 잡아서 먹으면 몸에 보가 된다고 하여 가을철에 메뚜기를 볶아서 반찬으로 먹는다.

10. 시월

이 달에는 ‘성주받이굿’이라 하여 시월 중에 길일을 택하여 새 곡식으로 떡을 하고 술을 빚어 과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추어 놓고 무당을 불러 들여 성주신에게 굿을 행하여 가정의 평안무사를 빈다. 그리고 이 달은 ‘시제(時祭)’라 하여 5대조 이상의 선조의 묘에 제사를 지낸다. 가을이 깊어 가면 무, 배추를 다음어서 김장을 한다.

1) 월중

(1) 시제

음력 시월 중에 각 문중에서는 조상들의 묘소를 모두 찾아다니며 시제를 지낸다. 이 때 시제에 모시는 조상은 5대조 이상이다. 대체로 10월 중순경으로 택일을 하며, 지내는 날짜와 방식은 각 문중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성주고사

시월에 추수가 끝나면 좋은 날을 받아서 성주단지(부릿독)에 제일 먼저 쫄은 햇곡을 갈아 넣는다. 그리고 한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집안이 무탈하기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주부는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드린다. 성주 앞에 새 곡식 위주로 제물을 차리며, 콩이나 팥고물로 만든 시루떡을 해 놓고 메와 나물, 생선, 고기, 과일, 술 등을 올린다. 주부가 성주 앞에서 비손을 하고 절을 하면서 추수가 끝났음을 고하고 집안의 평안을 빈다. 소지는 식구수대로 올린다. 고사가 끝나면 고사상의 음식을 조금 떼어 문밖에 나와 던진다. 이는 거리에 떠도는 잡귀를 먹이는 것이다. 일부 가정에서는 점쟁이를 데려다가 안택을 하기도 한다.

(3) 지붕 갈기

초가에 살던 시절에는 매년 가을에 지붕을 새로 이는데, 보통 시월에 한다. 지붕을 갈 때는 날을 가려서 하며, 시월 초하루와 초닷새에는 지붕을 갈지 않는다. 짙은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화(火)가 든 날은 특히 가린다. 불가피하게 이날 지붕을 갈게 되면 지붕 위에서 소변을 보고 내려온다. 그러면 양뱀(예뵙)이 되어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4) 가을 천신하기

시월이 되면 나락농사가 끝나기 때문에 햇곡식을 집안의 여러 신에게 올리며 한 해 농사에 감사하고 집안의 무탈을 기원한다. 가을이 되어 햇곡을 찧고나면 제일 먼저 성주단지와 조상단지에 넣는다. 단지에 햇곡을 갈아넣고 나면 그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데, 제물로 팔시루떡, 찰떡, 메, 나물, 고기, 전, 생선, 막걸리 등을 준비하여 진설을 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비손한다. 그리고 식구수대로 소지를 올린다. 고사가 끝나면 고사상에 있는 음식을 조금 떼어 문밖에 나와 던진다. 이것은 거리에 떠도는 잡귀를 먹이는 것이다. 지금은 천신을 하는 집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5) 기타

○ 무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겨울 날씨가 춥고, 얇게 박혀 있으면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

11. 동짓달

동짓날은 팔죽을 쑤어 먹는데, 먼저 사당에 차례를 지내고 또 악귀를 제거하기 위해 팔죽 윗물을 대문간, 방안, 광, 창고, 뒷간 등 구석구석에 뿌린다. 그리고 이날은 작은설이라 하여 설날 떡국을 먹는 것으로써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과 같이 이 날 팔죽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했는데, 이는 옛날에는 동지를 정월로 삼은 유풍에서 온 것이다. 이달의 시식으로서는 동치미를 먹는다.

1) 동지

-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다. 아침 일찍 팔죽을 끓여서 먼저 성주와 조상 앞에 떠 놓는다. 그리고 동지시를 맞추어 손가락으로 팔죽을 집안 곳곳에 뿌린다. 팔죽에 넣은 떡을 새알심이라고 하는데, 이 떡을 나이 수대로 먹어야 좋다고 한다.
- 동지가 일찍 들면 ‘애기동지’ 라고 하며, 애기동지에 팔죽을 쑤면 아이들이 일찍 죽는다는 속신이 있어 이때에는 팔죽을 쑤지 않는다.

- 8일에서 10일 사이에 드는 동지가 가장 좋다고 하며, 중순에 드는 동지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이듬해 가뭄이 심하게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 탈상하지 않은 상가에서는 동지를 지낼 때 팔죽 대신 녹두죽을 빈소에 차린다. 이것은 팔죽이 붉은 빛깔이어서 귀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조상이 팔죽을 음복하지 못한다는 까닭이다.

12. 선달

연말이 가까워 오면 세찬이라 하여 대개 생치(生雉), 생 제육, 대추, 고기 알, 굴 등을 친척이나 친지들 사이에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름에는 연중 거래관계를 청산하며, 밤중까지 빚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나 자정이 지나가면 정월 보름까지는 독축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또 이날 밤에는 ‘해지킴’이라 하여 사람이 거처하는 방에는 물론 마루, 부엌, 다락, 고방, 뒷간, 문간, 마굿간, 우물 등에 불을 밝히고, 부엌 솔을 조왕 솔이라 하여 참기름 불을 켜 놓고 집안 식구들 모두 새벽닭이 울 때까지 자지 않고 밤을 새운다.

1) 선달그름

- 선달 그름날에는 밤을 새며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보낸다. 이 날 잠을 자게 되면 굼벵이가 되어 게을러진다는 말이 있다.
- 선달 그름날에는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고 새해를 맞이한다. 방, 두지(뒤주), 정지(부엌), 뒷간, 우물, 마굿간, 장독대 등 집안 곳곳에 기름불(요즈음은 전깃불을 켜둔다)을 밝혀두고 날이 밝으면 끈다. 배가 있는 사람들은 배에도 불을 밝혀두고 사과 한 개와 술 한 잔을 같이 차린다. 주부들은 다음날 차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음식을 장만하고 진설을 한다.
- 선달 그름날 조그만 초를 구입해서 식구 뒤편으로 모두 불을 켜둔다. 그런 후 식구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소지를 올린다. 이 때 운수가 좋은 사람은 소지가 잘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지가 올라가다가 만다.
- 그름날밤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 위에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정초의 ‘용왕떡이기’와 같다.
- 자기 집 우물에 물이 잘 나지 않으면 선달 그름날 밤에 샘에 가서 물을 떠온다. 이때 떠오르는 물은 반드시 흐르는 샘물이어야 한다. 이것을 땅에 조금씩 흘려가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집안 우물에 붓고 물이 잘 솟기를 빈다.

- 선달 그믐날 산 속에 있는 좋은 샘이나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와 자기 집 우물에 붓는다. 이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하며 약수터에서 자신의 집까지 오는 동안 물을 바닥에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 집 샘물도 약수터 물처럼 좋아진다고 한다.
- 선달그믐날 저녁에 감나무에 요강의 일종인 ‘전오전’에 담긴 오줌을 가져다 붓는다. 이렇게 하면 감이 떨어지지 않고 수확이 좋다고 한다.
- 선달 그믐날에는 목은 근심을 없앤다고 하여 집안 청소를 하고 소금을 뿌린다.
- 선달 그믐날은 한해가 다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다 갚은 빚은 이날 안에 갚는다. 어장을 하는 사람은 뱃사람들에게 빌린 품삯을 다 갚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 선달그믐날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보낸다. 이렇게 적선하면 복을 받는다.
- 선달그믐날 저녁에 산을 마주보고 ‘메산아’ 하고 크게 외친다. 이때 되올려오는 메아리가 치면 제 소원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소원을 이룬다고 한다.
- 선달 그믐날 저녁에 맨발로 땅을 밟으면 무좀이 생긴다고 한다.
- 선달그믐날 저녁 달걀을 사람의 오줌에 담갔다가 꺼내어 삶아 먹는데, 이렇게 하면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 선달그믐날 각 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농 풍어를 위해 동제를 지낸다.

2) 월중

- 선달에 초가지붕을 들추면 참새들을 많이 잡을 수 있다. 마당에도 바구니를 막대기로 비스듬히 세워두고 그 안에 곡식을 조금 뿌려 놓는다. 그러면 한 겨울에 굶주린 참새들이 몰려온다. 이때 막대기를 연결한 끈을 잡아채면 한 번에 대여섯 마리가 잡히기도 한다. 잡은 참새로 국을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하는데 동지선달 참새가 제일 맛있다고 한다.
- 낚일에 내린 눈을 받아 녹여 간직해 두었다가 봄에 진달래 꽃잎을 그 물에 삭이고 아이들의 ‘경’이나 ‘단’의 약으로 쓴다.
- ‘설 아래 보리를 밟으면 떡 한 소쿠리, 설 지나 보리를 밟으면 뺨을 맞는다’고 하여 설 아래 보리를 밟아야만 한다.

13. 윤달

윤달은 ‘공달’이라고 하여 아무 탈이 없는 달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날 수의를 짓는다. 또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집안 수리를 하기도 한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장을 하기도 한다.

윤달에 세 군데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극락에 간다는 말이 있다.

14. 연중

- 정월이나 봄에 홍역 등 전염병이 돌면 마을의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방편이 있는데 특히 호열자가 돌면 어머니가 집안에서 바가지를 굽어댄다. 바가지 굽는 소리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긴다.
- 조금날은 탈이 없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때에 부뚜막을 고치거나 솔을 고치는 집이 많다. 바닷물이 들 때와 날 때를 살펴보아 집안의 운수를 점치기도 한다. 만약 집에 불이 나게 되면 우선 이 때가 들물인지 날물인지를 살핀다. 들물에 불이 났으면 그나마 채수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날물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 엄나무 가지를 대문이나 방문 위에 걸어두면 잡귀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귀신이 집에 들어오다가 엄나무 가시에 목이 걸리기 때문이다. 방문 위 양쪽에 못을 박아 놓고, 그 위에 엄나무를 걸쳐놓는다.
- 만약에 송사가 있어서 재판 중이면 문 바깥이나 지붕에 버선을 걸어둔다. 그러면 재판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있다.
- 머리카락은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평소에 머리카락이 빠지면 따로 모아 두었다가 손 없는 날에 태운다. 손 없는 날은 9와 10이 드는 날이다.
- 다른 집으로 이사 가거나 새로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으로 들어 갈 때에 솔에 요강을 넣고 들어간다.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트럭에 짐을 싣고 갈 수 밖에 없지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되면 반드시 여자가 솔을 이고 들어간다. 이사 할 집의 대문에 소금을 한 주먹 놓아두면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를 한 번씩 밟고 지나간다.
- 매월 초닷새를 ‘폐일’ 이라고 부른다. 폐일에는 머리를 감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이때 머리를 감으면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한다.
- 초저녁에 닭이 울면 매우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 특히 닭소리가 들리는 지역에는 액운이 온다고 하여 옆집에서 저녁닭이 울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닭은 곧바로 잡아먹는다.
- 이사를 가면 새로 살집 문 위에 소코뚜레를 걸어둔다. 이렇게 하면 잡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긴다.

V 토속신앙

제 1절 개관

민간신앙은 유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민중의 원초적 종교로서 인간생활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무속과 동제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상고시대부터 이어오면서 우리 민중의 심성생활(心性生活)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부족국가시대에 있어서의 무속이나 국중대회(國中大會)의 기능과 의의가 커 현재에 있어서도 민간신앙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민중 심리 속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동제는 상고시대의 동맹(東盟), 영고(迎鼓), 무천(舞天) 등에서 볼 때 전 부족 축제가 말해 주듯이 전 마을의 자발적 결합과 자주적 생산의 역량을 결속하는 신앙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인 가신신앙(家神信仰)과 혈연중심인 유교제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 동제는 마을의 안녕(安寧), 무사다복(無事多福), 풍작(豐作), 풍어(豐漁) 등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의식으로서 그 명칭, 모시는 신, 제일, 신역(神域) 등등이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제 2절 토속신앙

무속의 신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무속의 제의인 곳에 나타나는 신들은 어떤 삶의 공간이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영역신, 인간이 신격화된 존재들로서의 인물신, 그리고 비인격적인 신들로 나뉜다. 영역신은 다시 우주신, 지역신, 가신으로 세분된다. 우주신이란 하늘, 바다에 존재하는 신으로서 하늘과 바다로 표현되는 실제 생활공간을 넘어선 인간 삶의 우주적 영역을 표상하고 있다.

지역신은 마을과 같은 일정한 지역을 관장하면서 그 지역 거주민들과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살피는 수호신적 존재이다. 지역신의 대표적인 예는 흔히 산신으로 표상되는 부군과 도당이며, 한 마을과 다른 마을의 경계 또는 마을의 안과 밖과 같은 한 지역의 경계에 놓여서 한 지역을 독립된 삶의 영역으로 확인하고 있는 서낭 역시 지역신이라 할 수 있다.

가신은 한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공간인 집과 집터, 가족들의 삶을 관장하는 신들을 말한다. 지신은 집터를 관장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걸립 역시 가신의 하나로 모셔지고 있다. 성주는 가옥신이지만, 곳에서는 가정생활이 이뤄지는 집과 집터를 관장하고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 주는 집안 전체의 신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인물신의 특징을 본다면, 어떤 특정한 삶의 공간을 담당하거나 관련된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영웅신(장군, 별상, 신장), 조상, 무조신(대신, 창부, 맹인), 잡귀잡신(호구도 포함)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신들로서 모두 인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신들이다. 한마디로 넓은 의미의 죽은 자라고 할 수 있다. 한 집안의 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생존했던 역사적 인물이 신으로 모셔지는 장군신 및 다른 신들 역시 무장이나 벼슬아치, 무당, 광대, 원통하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죽은 인간들이 신으로 모셔지는 것이다.

고성의 대표적인 가정신앙은 하일면 수양리 효대마을과 학림리의 임포마을, 고성읍 우산리 외우산마을, 대가면 유흥리 신흥마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신앙대상

1) 세존

세존은 하늘에 계신 가장 높은 신으로 ‘제석’ 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조상을 모시는 부리동우 외에 쌀 2~3되가 들어가는 세주단지를 모시기도 했다. 부리동우와 세주단지의 쌀을 같이 갈아 주었다.

2) 조상

조상은 집안을 편하게 해 주기 때문에 조상을 모시는 부리동우는 쌀이 세말에서 다섯 말까지 들어가는 큰 장독이었다. 새 보리가 나면 새 보리를 넣고 새 쌀이 나면 새 쌀을 넣어 두었던 것인데, 장독에 곡식을 넣고 참종이를 덮어 원새끼로 둘러매고 뚜껑을 덮는다. 성주님께 정성을 들여 ‘손 비비기’ 를 한다. 이러한 처음을 의미하는 날은 음식을 부리동우 위에 올려놓을 뿐 아니라 제사를 모시는 날이면 시루떡을 접시에 담아 올려놓기도 한다.

3) 성주

성주를 위한 신체는 없지만 집을 새로 지을 때, 상량식을 하거나 안택을 할 때는 성주를 위한 상을 차린다.

4) 제앙(제왕)

제앙을 모시는 신체는 따로 없지만 아녀자가 아기를 낳으면 손 없는 방위를 봐서 제앙판을 차린다. 상 위에는 미역과 쌀, 물을 놓는데 아기가 아들이면 49일 동안, 딸이면 21일

동안 차려 놓는다. 매 7일마다 밥과 니물을 차려놓고 제왕님께 아기의 건강과 앞날을 위해서 비는데, “명(命)은 쇠뿔줄로 마련하고, 복(福)은 석세기로 마련하고, 만 사람이 추진하고, 만 사람이 칭찬하고, 녀의 눈에 꽃이 되고, 녀의 눈에 잎이 되거로 해 주이소” 라고 빌기도 하고, “제왕님네 묵고 자고, 노다 자고, 묵고 놀고, 노다 묵고, 어짜던 우리 아기 순딩이를 마련해 주이소” 라고 빈다.

5) 조왕

조왕은 밥을 먹게 해 주는 신이라서 부엌에 모신다. 하지만 조왕을 위한 신체는 따로 없다.

6) 지킴이

큰 구렁이가 집에서 나오면 집안에 안 좋은 징조가 있다고 한다. 구렁이는 절대로 죽여서는 안된다. 집을 지키는 지킴이이기 때문이다.

7) 칠성

칠성은 집안 식구 중에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장독대에다 물을 떠 놓고 칠성님께 그 사람의 건강과 무사귀환을 빈다.

8) 이월 할맘네(영등할머니)

이월 할맘네는 2월 초하루에 내려와서 열아흐레에 올라간다. 이월 할맘네를 제석할맘네라 하는데 정성을 들이면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자손을 태워달라고 빌기도 한다. 할맘네 신체는 50cm정도의 대나무에 색실과 형짚을 묶어서 준비하는데 자식을 기원할 때는 특별히 보리뿌리를 놓는다.

2. 정기적·일상적 의례

1) 안택

정월에 안택을 하는데 집안의 아녀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화랭이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다. 안택 날을 잡으면 부정 탈 일을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마당에 부정치기를 위한 상을 차린다. 상에는 중앙에 숯을 놓고 양편에 술을 놓고 앞쪽에 물그릇 그 앞에 황토를 세군데 놓는다.

부정치기를 위한 상 위에는 물과 숯, 술을 사발에 담아내고 그 상 앞에 물그릇을 둔다.

화랭이는 물그릇의 물을 댓잎에 묻혀 집안 곳곳에 있는 잡귀를 쫓는다. 물그릇 앞에는 황토를 세군데 놓아 잡귀의 침범을 막는다. 부정치기가 끝나면 제사 모시는 방에 조상상을 차리고 부엌에는 성주상을 차린다. 방과 부엌에서 안택이 끝나면 마당에 다시 사자상을 차려 놓고, 남은 음식은 구경 온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

2) 동지팔죽 쑤기

동지가 되면 집집마다 팔죽을 끓여 먹었다. 동지 시를 맞추어 팔죽을 집안 둘레에 조금씩 뿌리는데 이때는 반드시 웃국만 떠서 한다. 그래야 집 밖의 잡귀가 침범을 못 한다고 한다.

3) 신수보기

예전엔 해가 바뀌면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한 해 신수를 보았다. 한 해를 잘 넘기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만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택을 하곤 했다. 요즘은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찾아가며,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3. 비정기적 의례

1) 객구 물리기(객귀 물리기)

초상집에 다녀온 후에 혹은 특별한 원인 없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객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하여 ‘객귀 물리기’를 한다. 화랭이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 보통 마을사람 가운데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한다.

객귀를 물리기 위해서는 아픈 사람을 마당에 앉혀 놓고 칼과 짚단과 그릇을 들고 객귀를 위협한다. “네가 이 칼에 썩 안 물러가느냐. 무른 거는 목고 가고 된 거는 싸가 가라.” 하면서 대문 쪽으로 던진다. 칼끝이 대문 밖을 보면 객귀가 물러난 것으로 보며, 이렇게 하면 아픈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한다.

2) 애 태워오기(삼신받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이 있으면 제양님한테 가서 애를 받아 오기도 한다. 애를 태워 오기 위해서는 쌀을 담은 바가지와 원새끼, 미역을 마련하여 영험이 있는 산에가서 제양님께 아이를 태워 달라고 정성을 들인다. 그런 뒤 바가지를 깨끗한 참종이로 조심스럽게 덮은 뒤, 원새끼로 잘 묶어서 집으로 가져 온다. 바가지는 집안의 손 없는 곳에 잘 보관하면서 칠일마다 바가지 앞에서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빈다.

3) 제왕 바가지 모시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이 제왕을 치마로 싸 와서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집에 모셔 주기도 하였다. 제왕을 치마로 담아 와서 제왕 바가지에다 제왕을 모시게 되는데 잘못하면 제왕을 주는 집의 아이가 해를 입는다는 말이 있어서 자매간이 아니면 잘 모셔 주지도 않고 잘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4. 기타의례

1) 성주운 보기

집을 새로 짓게 되면 성주를 새로 모셔야 하며, 집 지을 운을 본다. 주로 집주인의 운으로 집을 짓는데 집 주인이 집 지을 운이 없으면 집안의 다른 사람 운으로 집을 짓기도 한다. 집을 새로 지을 때 상량식을 하는데, 집을 지키는 여러 신들과 조상들에게 신고하는 것이라 한다. 상량식은 모릿대가 올라가는 날 하게 되며, 이 날은 돼지머리와 시루떡을 비롯하여 제사 음식을 차려 목수와 모든 일꾼들 그리고 구경 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한다.

상량식을 할 때는 결혼식 때 입었던 아녀자 옷이나 상복을 상량에 걸치면 좋다고 하여 이런 옷들을 구해서 걸어 놓은 뒤 상량식을 하였다. 요즘은 돈을 걸기도 하는데, 그 돈에는 목수나 일꾼들에게 집을 더 잘 지어 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

2) 엄나무 걸기, 솔가지 걸기

아픈 사람이 있거나 집안의 신들에게 정성을 많이 드리는 집은 응게나무(엄나무) 가지나 소나무 가지를 집안사람이 지나다니는 안방 방문 위에 걸어 둔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나무를 대문간에 심어두기도 하는데, 이것은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한다.

3) 소코뚜레 걸기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을 경우 소코뚜레를 집 안에 걸어두면 집이 빨리 팔린다고 한다. 또한 장님의 지팡이를 구해다가 놔두면 집이 더 빨리 팔린다고 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제 3절 동제(洞祭)

1. 제명(祭名)

일반적으로 당산제(堂山祭), 동신제(洞神祭), 동제(洞祭), 동산제(洞山祭), 당제(堂祭)라 불리는데, 지방에 따라 탑신제(塔神祭), 야제(野祭), 동구제(洞口祭) 등등의 독특한 제명도 있다. 해안과 내륙지방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해안, 내륙지방 모두 당산제라는 명칭이 가장 많으며, 해안지방에서는 용왕제(龍王祭)라는 명칭이 있으나 내륙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비해 내륙은 산신제(山神祭)라는 명칭이 많은 편이나 해안은 적다. 그리고 내륙은 동산제라는 명칭이 많으나 해안에서는 전혀 볼 수 없으며, 내륙은 성황제(城隍祭)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곳이 적는데 반해 해안은 전혀 없고 야제(野祭)라는 명칭은 더러 있다.

2. 신명(神名)

일반적으로 당산신(堂山神), 동신(洞神), 산신(山神), 서낭신, 목신(木神), 골목신, 당신, 동산신, 용왕, 조상신, 골매이, 당산할미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해안과 내륙 모두 당산신이란 명칭이 제일 많다. 그리고 해안지방에서는 골목신이 있으나 내륙에서는 볼 수 없으며, 내륙에는 해안보다 산신이 훨씬 많다. 또한 해안에는 골매이가 있으나 내륙에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내륙에서는 성황신을 부르고 있으며, 해안에서는 이 명칭을 볼 수 없다.

3. 제관(祭官)의 선정

대개 생기복덕자(生氣福德者) 가운데에서 정인(淨人)을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특별하게 대를 잡아서 대가 내리는 집을 정하는 방법과 마을 총회에서 적당한 사람을 뽑는 경우와 동민이 합동으로 지내는 경우,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이장이 간략하게 하는 곳도 있고, 일정한 정해 놓는 곳, 무당이 선정하는 곳, 승려가 행하는 곳, 차례를 정해서 하는 곳, 일관(日官)이 정하는 곳, 경찰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하는 곳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생기복덕자 중 정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4. 당(堂)나무와 당집

동제의 신역(神域)으로서 대개 당나무와 당집이 있게 마련인데, 당나무의 종류에는 괴목

(槐木), 소나무, 회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종류를 볼 수 있다. 보통 1개소에 한 그루 혹은 여러 그루가 있으며, 2개소에 있는 것도 많다. 이 밖에도 신성지역으로 돌무덤, 산봉우리, 바위, 우물 등도 있다. 당집은 1개소가 있는 곳이 가장 많으며, 내륙지방에서 보다는 해안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5. 제일(祭日)

제일은 음력 정월 15일에 행하는 곳이 가장 많으며, 10월 15일, 12월 30일, 10월 1일, 정월 14일, 9월 9일, 1월 3일의 순서로 행해지고 있는데, 내륙지방은 정월 3일이 많은데 비해 해안은 적고, 그 대신 해안은 3월 3일과 9월 9일에 많은데 비해 내륙은 적다. 해안은 6월에 행하는 사례도 볼 수 있으나 내륙은 전혀 없으며, 내륙은 10월 1일에 행하는 예가 많으나 해안지방은 극소수이다.

제일은 연중 매월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5월에 지내는 곳은 없다. 제를 지내는 시간은 대부분 제일의 자정(子正)이나 정오(正午)에 지낸다.

6. 제관의 금기(禁忌)

제를 모시기 전,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떤 곳은 일정인이 제를 주관하는 곳도 있어 일정하지는 않다. 다만 제관이 결정되면 그날부터 제를 지내기 위한 신성성(神聖性)이 강조되어 분리의례(分離儀禮)인 금기에 들어간다.

금기의 양상은 대개 원새끼로 당나무, 당집 등의 신역과 제관 집 주위 등에 두르고 황토를 뿌려 신성소(神聖所)임을 표시하고, 제관은 부정한 곳이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체로 연중 부정한 일을 금하나 집중적으로 금기에 임하는 시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일에 한하는 곳이 가장 많으며, 심지어 1년을 잡는 곳도 있는데, 해안지방이 비교적 금기의 일수가 길고, 내륙지방은 해안지방보다 적다.

7. 제물(祭物)

제물은 보통 가제(家祭)와 비슷하여 주과포(酒果脯)를 중심으로 차리는 것이 상례인데, 특이한 제물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보면 소횃간, 밥3상, 닭, 쇠머리, 쇠간, 통돼지고기, 소 발목뼈, 해삼, 닭3마리, 소주1되를 땅에 묻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특유 음식 등을 특이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8. 여러 가지 무속(巫俗)

어떠한 교리나 계시 종교의 교조가 없이 자연 발생한 것이 무속신앙인데, 이것은 민족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민속의 하나로서, 주술적이면서 귀신이 초인적인 능력을 갖는다고 믿는 신앙이다. 무속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의 시작이나 일의 성공을 비는 고사(告祀)가 있고 전답에서 일할 때 야외에서 식사하기 전 음식을 던지는 고수례,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앙을 쫓는데 사용하는 부적(符籙)이 있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액막이 수단으로 쓰는 장승이 있다. 그리고 가뭄 때 비 오기를 기원하며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기우제(祈雨祭)가 있으며, 어업 종사자들이 풍어를 위해 지내는 풍어제나 강을 끼고 있는 곳에서 수해(水害)가 없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용왕제가 있고, 또한 가신신앙이라 하여 부녀자들이 가정의 안방, 마루대청, 부엌, 뒤꼍, 뒷간, 대문 등에 모시던 신이 있으며, 무당을 불러 집안의 태평을 빌기도 하는 등 서낭제, 동제와 같이 우리의 민간신앙은 다양하다.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1765) 김해진관 고성현편에 의하면, “그 지방 사람들이 매년 5월 초하루부터 초 5일에 이르기까지 서로 모여 양대로 나누어서 사당에 모신 신상을 싣고 채색된 기를 앞세우고 마을을 지나다니면 그 사람들이 앞다투어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고 무당들이 연회를 끝내면, 온갖 놀이를 베풀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고 한다.

9. 고성 각 마을의 동신제(洞神祭)

농촌 각 마을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동신제를 지내는데, 대개 음력 정월 대보름, 즉 정월 14일 밤 자정이 지나면 각 마을에서는 동신제를 지낸다. 이 동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대개 마을 입구 또는 마을 뒷산에 있는 제단(祭壇)이지만 마을에 따라서는 사당에서 지내는데, 부정을 막기 위해 외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이 동신제를 지내는 제주는 동네에서 비교적 연로(年老)하고 상기(喪期)에 있지 않는 청결한 이를 선정하여 제사를 주관하는데, 선정된 제주는 1주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상인(喪人)이나 병자를 만나지 않는다. 또 이 동신제를 거행하기 전날은 마을사람들도 되도록 근신을 한다. 이날 오전 중에 제주는 유사(有司)로 하여금 마을 회의를 열게 하여 제사비용의 지출 및 동신제의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 해 제사 비용 및 기타를 협의한 뒤에 마을 회의에서 신임 유사를 선출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찬 및 주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 동신제는 마을 사람들의 연중 무사태평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것이다. 동신제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마을명 : 거류면(巨流面) 당동리(塘洞里) 본당(本塘)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당동 탑
당 위치	마을 회관 앞
당 형태	괴목(둘레 10m, 높이 10m)과 둘레에 돌탑, 시멘트 바닥.
제신	없음(마을수호)
제관	•스님. •마을의 깨끗한 사람 3명이 동체에 참석함.
제의절차	•신목의 제단에 건토, 건구함. •삼헌례와 술 석잔을 올리고 제관이 음복 함.
제일(시간)	선달 그믐날 밤
기타	•상차림-술, 포. 어물은 금함. •동제를 모시지 않으면 마을민이 액을 당함. •논 300평을 주고 절에 동제를 위임하였음.

○ 마을명 : 거류면(巨流面) 용산리(龍山里) 용산(龍山)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돌탑
당 위치	마을 안 중앙. 마을회관 옆
당 형태	신목(왕버들 둘레 3m, 높이 10m내외)과 옆 돌무더기 제단
제신	없음(마을수호와 평안과 태평을 기원함)
제관	•마을에서 위촉한 스님. •마을이장 외 부정 없는 사람 2~3명 참석.
제의절차	•절에 스님은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함. •절에서 부처님께 공양드리는 형식과 동일. •돌탑과 큰샘에 차례로 제를 지내고 나면 음복을 함. •제사음식은 정월 초이튿날 마을 공동 세배 시에 나누어 먹음.
제일(시간)	선달 그믐날 밤 12시~ 1시
기타	•상차림-과일, 떡, 밥, 나물, 김. •제사준비는 일체 스님이 맡아서 하며 고기는 차리지 않음. •제물은 마을의 공동세배 때에 나누어 먹음.

○ 마을명 : 거류면(巨流面) 신흥리(新龍里) 마동(馬洞)마을(1)(2)

항목	내 용
당 이름	
당 위치	(1)초전(풀밭구미) (2)마을북서쪽
당 형태	(1)자연석 큰돌(높이 1.5m, 넓이 1.4m 내외) 1개. (2)자연석 큰돌(높이 1.5m, 넓이 1.4m 내외) 1개.
제신	마을수호신
제관	(1)마을의 상주가 아닌 사람 10명. (2)마을민 20명 내외
제의절차	제관은 강물에 목욕하고 술과 여자를 금함. 상주와 말을 하지 않음.
제일(시간)	(1)선달그믐 새벽 1시~3시. (2) 선달그믐.
기타	•상차림-술, 밥, 떡, 과일, 생선.

※지금은 10년 전부터(2005년)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거류면(巨流面) 감서리(甘西里) 감동(甘洞)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천제당(天際堂)
당 위치	마을 서쪽 거류산 아래
당 형태	괴목과 둘레에 토석제단
제신	없음(마을수호)
제관	마을에서 부정 없는 남자
제의절차	•제관은 강물에 목욕하고 술과 여자를 금한다.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음. •산신제 절차와 동일함. •음복, 마을회의.
제일(시간)	선달그믐날 밤 1시.
기타	•상차림-술, 백반, 백병(白餅), 소고기, 과일. •옛날 이곳에 감천이 있었음. •동제를 지내지 않으면 마을민에게 화가 온다고 함.

○ 마을명 : 거류면(巨流面) 신흥리(新龍里) 상원(上圓)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당 위치	마을 입구 상하(上下) 원산(圓山)제당
당 형태	등근 돌탑 1개와 남녀벽수 1쌍(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제신	목신(마을의 평안과 태평을 기원)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사람이 추천한 사람 1명. •마을민 전원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해 30일 기도. •음복, 마을회의 및 기타놀이.
제일(시간)	음 12월 30일 새벽 1시~3시.
기타	

○ 마을명 : 거류면(巨流面) 신흥리(新龍里) 상원(上圓)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상원탑(上圓塔)
당 위치	마을 입구
당 형태	등근 돌탑 2개
제신	마을수호신(마을의 평안과 태평을 기원)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서 추천한 삼헌관 및 마을 이장. •마을민 전원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해 30일 기도. •음복, 마을회의 및 기타놀이.
제일(시간)	음 정월초하루 12시
기타	80여 년 전 연안차공(延安車公) 일태(日泰)는 자손이 없어 자기소유 전장(田庄)을 마을에 헌납. 사후 분묘에 제사를 부탁하여 오늘날 까지 지내고 있음.

○ 마을명 : 거류면(巨流面) 은월리(銀月里) 정촌(亭村)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은정자(銀亭子) 제단
당 위치	마을 남쪽 들관
당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목인 은행나무 고사 •은행나무가 있던 곳에 제단 설치 •이곳은 무사 궁술 시험장이었음
제신	목신(牛疫大熾時 시제)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사 7일전 60세 이상 부정 없는 남자 3명을 지명하여 선출. • 4개 마을(山村, 亭林, 月峙, 新銀)민과 유지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제전 깨끗한 물에 목욕한 후 산신제 지냄. •별도 산제 후 삼헌관 헌작. •음복 후 마을 효열 추천 표창.
제일(시간)	음 1월 2일 오전 10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술, 백반, 떡 1시루, 과일. •현재에는 은정자제단 서쪽 5m 지점 포구나무(둘레3m) 아래에 반석으로 포석되어 있음. •조선 숙종이후 4개 마을의 안녕을 위해 시제하고 있음.

○ 마을명 : 거류면(巨流面) 화당리(華塘里) 남촌(南村)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산제당(山祭堂)
당 위치	마을 뒷산 중턱 골짜기
당 형태	큰 바위(마을수호신이라 함)
제신	미륵할매(마을에 축복과 아기를 접지 해줌)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사람 중 부정 없는 남자 1명~2명(祭主). •제주 부인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마을민 전체가 엄숙한 마음으로 임함. •상당에 제를 지냄.
제일(시간)	음 12월 30일(3년에 한 번 지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술, 백반, 백병(白餅), 소고기, 과일.

○ 마을명 : 고성읍(固城邑) 동외리(東外里) 남산(南山)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제목(洞祭木)
당 위치	남산정 위쪽
당 형태	동제목(느티나무 높이 약20m, 둘레 약4m)
제신	목신(마을의 평안과 태평)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마을이장, 집사-마을유지1명. •마을민 전원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근신함. •제관이 술 한 잔을 올리는 것으로 끝남. •음복, 마을회의.
제일(시간)	음 그믐밤 자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 술, 백병(白餅), 어육, 과일, 나물. •마을민 중 액운이 있는 사람은 수시로 제수를 차리고 비손. •백중제 지내기 전에 신목아래 우물과 주변을 청소함.

○ 마을명 : 고성읍(固城邑) 신월리(新月里)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제목(洞祭木)
당 위치	마을입구
당 형태	신목인 느티나무 있는 곳에 제단 설치
제신	없음(마을 수호와 안위, 풍어를 빚)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사람 중 신변에 부정이 없는 자 1명. •이장과 정결하고 정성 있는 마을 유지 중 희망자 제사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일 3일전부터 출입을 삼가하며, 타인과 인사교환을 피함. •마을의 중심에서 제를 지낸 후 바닷가로 가서 풍어를 기원함. •마을 회의.
제일(시간)	음 1월 14일 12시
기타	상차림- 술, 백병(白餅), 백반, 생선, 과일, 나물.

※지금은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고성읍(固城邑) 대독리(大篤里) 독실(篤室)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당 위치	마을 남쪽
당 형태	돌무더기
제신	동신(마을의 안녕을 기원)
제관	•스님. •마을에 부정 없는 남자 3명~4명 참석.
제의절차	•3일간 기도하며, 부정한 것 보지 않고, 상사, 임산부, 출산 시에는 제일 연기함. •불교의식에 의함. •음복.
제일(시간)	음 1월 15일 밤 12시.
기타	•상차림-술, 백반, 백병(白餅), 고기, 과일.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고성읍(固城邑) 수남리(水南里) 구암(龜岩)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당 위치	마을회관
당 형태	없음
제신	없음(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
제관	•마을유지들이 마을회의에서 선정. •마을 민 모두 참석.
제의절차	•제관은 택일 후 모든 금기사항을 지킴. •절차에 의해 제를 모심. •마을민의 행실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림. •축제분위기 속에 농악놀이를 함.
제일(시간)	음 선달그믐.
기타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고성읍(固城邑) 우산리(牛山里) 외우산(外牛山)마을(1)

항목	내 용
당 이름	당산탑(堂山塔)
당 위치	마을 입구 당산정(頂)
당 형태	석탑
제신	목신(갑오년 태풍으로 도괴된 거목신)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서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1명을 가려서 선정. •마을유지들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목욕재계하고 금녀하며, 부정한 자와는 접촉을 금함. •음복 후 매구를 침.
제일(시간)	음 선달그믐 밤 12시(除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술, 백병(白餅), 소고기, 생선. •갑오년 태풍으로 거목이 도괴되어 마을 사람들이 그 가지를 꺾어 불을 때웠는데 목신의 노함을 받아 화를 입자 신굿을 하고 제단을 모아 제사를 지내면서 화를 면했으며, 그 후로 시제함.

○ 마을명 : 고성읍(固城邑) 우산리(牛山里) 외우산(外牛山)마을(2)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제목(洞祭木)
당 위치	마을 입구
당 형태	동제목(높이 10m, 둘레 3.5m)과 그 아래 토석제단
제신	목신(갑오년 태풍으로 도괴된 거목신)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서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1명을 가려서 선정. •마을유지들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목욕재계하고 금녀하며, 부정한 자와는 접촉을 금함. •음복 후 매구를 침.
제일(시간)	음 선달그믐 밤 12시(除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술, 백병(白餅), 소고기, 생선. •갑오년 태풍으로 거목이 도괴되어 마을 사람들이 그 가지를 꺾어 불을 때웠는데 목신의 노함을 받아 화를 입자 신굿을 하고 제단을 모아 제사를 지내면서 화를 면했으며, 그 후로 시제함.

※지금은 나무가 없어서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구만면(九萬面) 저연리(亭蓮里)

항목	내 용
당 이름	귀목당
당 위치	마을 입구 정각(亭閣) 옆
당 형태	신목(느티나무 높이 12m, 둘레 4m)과 둘레에 시멘트 제단
제신	수호신(마을의 안녕을 지키며, 농사의 풍년과 잡신을 물리침)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민이 돌아가면서 하되, 부정 없는 깨끗한 사람을 선정. •마을이장과 부정 없는 50대 남자 및 마을유지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1개월전부터 목욕재계하고, 불결한 곳에 출입을 삼가며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가까이 하지 않음. •신목 앞에 제수를 차려놓고 정중히 절하며 기도함. •음복, 마을유지 어르신께 봉가함.
제일(시간)	음 선달그믐 밤 12시~1시경.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술, 백반, 백병(白餅), 고기, 생선, 과일. •마을 풍치립인 귀목을 통영세병관 건축 시 목재로 사용키 위해 벌채를 하여 마을이 망하자 다시 그 자리에 심은 귀목임.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구만면(九萬面) 주평리(酒坪里) 주천(酒泉)

항목	내 용
당 이름	석불(미륵불 石佛)
당 위치	마을 서쪽 입구
당 형태	1평 내외 기와집 내의 돌로 된 인형(원래는 석불만 있었음)
제신	마을수호신(마을의 평안과 태평을 기원)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민이 길인을 선정하며, 복인(服人)은 안 됨. •마을의 길인 1명이 수종으로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10일전부터 부정을 금하며, 복인은 마을 밖으로 나감. •석불앞에 제수를 차림. •마을의 길인이 모여 음복.
제일(시간)	음 1월 15일 새벽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술, 안주(肴), 과일. •제관으로 선발되어 정성이 지극하면 생남한다는 전설이 있음. •옛 초가신당이었을 때 길인이 여기서 기숙하다가 잘못하여 화재를 입히자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하며, 신당을 새로 지어 오늘에 이르렀음.

○ 마을명 : 대가면(大可面) 금산리(琴山里) 세동(細洞)

항목	내 용
당 이름	금산재(琴山齋)
당 위치	마을 중앙 남향 회관 뒤
당 형태	재실(김해허씨 종중)
제신	감정공 허씨 할배
제관	•매년 계회시 선정된 유사. •종원 전원 참석.
제의절차	•제관은 옥수에 목욕재계하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 •음복.
제일(시간)	음 10월 15일 오전 10시.
기타	•상차림-술, 백반, 백병(白餅), 소고기, 생선, 과일.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대가면(大可面) 척정리(尺亭里) 자실마을(尺谷洞)

항목	내 용
당 이름	운곡서원-숙청사(肅淸祠) 모의당(慕義堂)
당 위치	마을 북쪽 성지산(聖智山)록
당 형태	•사우 내에 모셔진 제갈공명 화상 •신목(800여년 된 은행나무 높이70m, 둘레 15m 내외)
제신	제갈공명
제관	•유회(儒會)에서 선출된 분(상을 당하지 않은 분). •군내 유림 전원 참석.
제의절차	•석채례 절차. •제가 끝나면 제물을 모두 익혀서 참석자 전원에게 분배함.
제일(시간)	음 3월 28일 운곡서원 제말 향사
기타	•상차림-술, 고기, 생선, 과일, 나물 등 전부를 생으로 함. •1951년 쯤 甲寅년 諸慶根, 延歡, 東默, 炳根 등이 전북 옥구에 가서 畫像을 寫하여 肅淸祠를 건립하여 배향하고 음력 9월9일에 儒林享祀를 지내고 있음. •은행나무 : 460여년전 諸哲孫 호 東皐가 심음.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내곡리(內谷里) 북촌(北村)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외당(洞祭木)
당 위치	마을 북쪽 당협산 산정
당 형태	소나무(높이 17m, 직경 70cm)
제신	할아버지 신(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
제관	•음력 11월에 부정 없는 사람으로 선출 .
제의절차	•제관은 상가 출입금지, 출산한 집에 전후 1개월간 출입금지, 상제와의 접촉금지, 제전 3일간 기도함. •외당~내당(밤12시~1시 사이) 모임. •음복, 음력 1월 3일 마을총회.
제일(시간)	음 1월 2일 오전 밤 12시~1시.
기타	•상차림-자연석 위에 술, 백반, 소머리, 생선, 과일. •북촌은 할배 제사, 남촌은 할매 제사. •제사 후 마을에 나쁜 일이 있으면 제관이 원성을 삼.

※지금은 절에 의뢰하여 스님이 시행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내곡리(內谷里) 남촌(南村)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제목(洞祭木)
당 위치	마을 남쪽 하천변
당 형태	동제목(400년 된 느티나무)
제신	목신(마을의 안과태평과 마을 민 각자의 소원성취를 기원함)
제관	•마을이장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마을 민 누구나 참석
제의절차	정월초하룻날 목욕재계하고 제각기 소원을 빔.
제일(시간)	음 정월초하루.
기타	옛날에 이 마을 7대 독자집의 며느리가 40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여 대가 끊어지게 되자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드렸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였는데, 마을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목욕재계하고 백일기도 끝에 옥동자를 낳아 온 마을에 경사가 났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이 나무 밑에서 치성을 드리게 되었고,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오고 있음.

※지금은 절에 의뢰하여 스님이 시행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외곡리(外谷里) 정북(井北)마을(1)

항목	내 용
당 이름	마을제당(洞祭)
당 위치	마을 동쪽 산 아래 서향
당 형태	당집 내 제단
제신	마을수호신(마을의 안과태평을 기원)
제관	•이장과 마을유지들이 선정한 40대 이상 부정없는남자(堂山主). •산주(山主), 이장, 40대 이상 마을유지 다수 참석.
제의절차	•제관은 강물에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 •상당→국시당→삼신당에서 별신굿 순으로 행함. •음복, 마을회의.
제일(시간)	음 1월 2일
기타	•상차림-술, 백반, 백병(白餅), 고기, 과일.

※지금은 폭포암 스님이 시행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외곡리(外谷里) 정북(井北)마을(2)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제목(洞祭木)
당 위치	마을 위쪽 산 아래
당 형태	신목(높이 10m 내외, 둘레 3m)과 둘레에 토석제단
제신	목신(마을을 수호하는 동신)
제관	•이장과 마을유지들이 선정한 40대 이상 부정 없는 남자(堂山主, 祭主). •산주(山主), 이장, 40대 이상 마을유지 다수 참석.
제의절차	•제관은 강물에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 •상당→국시당→삼신당에서 별신굿 순으로 행함. •음복, 마을회의.
제일(시간)	음 1월 2일
기타	•상차림-술, 백반, 백병(白餅), 고기, 과일.

※지금은 폭포암 스님이 시행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용정리(龍亭里) 가룡(駕龍)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상당(上堂)
당 위치	마을 중앙 회관 뒤
당 형태	돌탑(신목이 있던 자리임)
제신	상당 할매신(마을수호신)
제관	•부정 없는 자(堂山主).
제의절차	•제관은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3일간 기도함. •상당에 제후 3일간 기도함. •마을민 모두가 제물을 나누어 먹음.
제일(시간)	음 선달그믐날 저녁.
기타	•상차림-술, 백반, 백편, 고기, 과일. •매년 제기는 새것으로 사서 사용함.

※지금은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봉암리(鳳岩里)

항목	내 용
당 이름	수석정(水石亭)
당 위치	마을 중앙 회관 옆
당 형태	신목(높이 약15m 내외, 둘레 4.5m)과 둘레에 석단(石壇)
제신	목신(마을수호신 일명 선동 강씨 정자나무)
제관	•마을 원로들이 강씨 중에서 선출(동제주).
제의절차	•제주는 청수에 목욕재계하고, 상가출입금지과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을 보지 않음. 1주일간 기도함. •신목 주위를 깨끗이 하고 황토와 새끼줄을 칩.
제일(시간)	음 선달그믐 12시경.
기타	•상차림-청주, 백병(白餅), 고기, 생선, 포, 과일. •동제 후 제주가 부정하거나 정성이 부족하면 액이 온다는 설이 있음.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봉암리(鳳岩里) 장항(獐項)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탑
당 위치	마을 중앙
당 형태	•중앙에 돌탑이 있고, 양쪽에 신목 2그루가 서 있음. •포구나무(높이 3m 내외, 둘레 3m. 높이 6m 내외, 둘레 2m)
제신	돌무더기를 쌓은 할배신, 할매신(마을번영, 풍농풍어)
제관	•마을에서 부정 없는 자 1명. •부정 없는 마을사람 전원 참석.
제의절차	•제관은 제3일전에 목욕재계하고, 집 문 앞에 새끼줄을 침. 제단과 탑, 신목을 새끼로 짬.(부정금지). •상차림→재배→마을대표 기원(웅변가)→참관자 재배→신령굿. •음복, 마을회의, 신령굿.
제일(시간)	음 그믐밤 장의사 스님이 시행
기타	•상차림-술, 밥, 생선, 돼지고기, 꽃, 나물. •100여년전 마을의 한 부부가 땅을 개간하여 논을 만들면서 나온 돌들을 모아 마을 중앙에 쌓아 놓은 것이 동탑이 되고 신성시 되었으며, 탑 양쪽에 나무 2그루를 심은 것이 신목이 됨. 이곳에서 매년 마을의 안녕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제를 지내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양촌리(陽村里) 검포(檢浦)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제목(洞祭木)
당 위치	마을 서쪽
당 형태	정자나무
제신	목신
제관	•매년 이장이 지명하는 신목주(神木主). •유지 및 마을사람 전원 참석.
제의절차	•제관은 강물에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 제물을 살 때 말을 하지 않음. •상당(上堂)에 제를 지냄. •음복, 마을회의(새해 제반사).
제일(시간)	음 선달그믐날 밤 9시.
기타	•상차림-술, 밥, 생선, 과일.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양촌리(陽村里) 법동(法洞)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상당(上堂)
당 위치	마을 남쪽 중앙
당 형태	괴목(높이 7m, 둘레 5m)과 200m지점 돌탑(높이2m, 둘레10m)
제신	당산나무신(마을의 안녕을 기원)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을 추수 후 마을에서 선출한 부정 없는 자(당산주). •마을민 중 깨끗한 사람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강물에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 1달간 출타금지. •상당에서 별신굿 행함. •음복, 마을회의.
제일(시간)	음 선달 그믐 낮 1~2시
기타	•상차림-술, 밥, 백음(白飲), 소고기, 과일.

※지금은 절에 의뢰하여 스님이 시행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장기리(章基里)

항목	내 용
당 이름	당산목(堂山木)
당 위치	장기, 용흥마을 중앙
당 형태	정자나무
제신	당산나무신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장이 지명한 자(신목주). •마을유지 및 마을 사람 다수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강물에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 제물을 살 때 말을 하지 않음. •상당에 제를 지냄. •음복, 마을회의(마을 제반사).
제일(시간)	음 12월 30일 밤 12시.
기타	•상차림-술, 백반, 소고기, 생선, 과일.

※지금은 절에 의뢰하여 스님이 시행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장좌리(壯佐里) 우두포(牛頭浦)

항목	내 용
당 이름	상당(上堂)
당 위치	마을 서쪽 소머리(牛頭山)
당 형태	신목(지금은 없어진 개살구나무 높이 5m, 둘레 3m)과 토석제단
제신	동신(마을의 풍농풍어 기원)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돌아가며 마을에 깨끗한 자를 제 5일전 선정. •유지 및 남자 등 희망자는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제 5일전 목욕재계하고, 온가족이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출타하지 않음. •상당과 하당에 제를 행함. •음복 후 지신밟기를 함.
제일(시간)	음 서달 그믐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술, 백반, 백병(白餅), 생선, 과일. •마을민의 일치단결을 위해 동제 지냄.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외산리(外山里) 좌부천(佐夫川)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당산목(堂山木)
당 위치	
당 형태	당산목(귀목나무와 포구나무가 한동치로 둘레 약 7m)
제신	동신(마을수호)
제관	마을에서 선정
제의절차	
제일(시간)	음 선달그믐날 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 •당산나무는 약 200여년 전 천씨(千氏)가 심었다고 전함.

※지금은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동해면(東海面) 내산리(內山里) 전도(錢島)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제목(洞祭木)
당 위치	
당 형태	
제신	없음(마을의 안과태평과 마을민의 소원성취를 빚)
제관	•별도의 제관 없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마을 민 누구나 참석. •초상을 당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음.
제의절차	•제에 참여할 사람은 굿은 일을 당한 집에 가지 않음. •동제목 앞에서 제를 지냄.
제일(시간)	음 섯달그믐날 밤 11시.
기타	•상차림-일반가정의제사와 동일. •옛날 마을의 나무위에 학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살다가 어느 날 수컷 한 마리가 나무위에서 죽고 난 후 마을의 고기잡이 배가 돌아오지 않고, 소가 머리 둘 달린 송아지를 낳고, 일가족이 원인 모르게 죽는 등 마을에 재앙이 끊이지 않아 마을민들은 학의 노여움으로 생각하고 이 나무에 동제를 지냈다. 그러자 마을의 재앙이 없어져 오늘날 까지 동제를 지내오고 있다.

※사라호 태풍 때 나무가 사라지고 지금은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삼산면(三山面) 장치리(長峙里) 중촌(中村)마을(1)

항목	내 용
당 이름	말바구(말바위)
당 위치	마을 북쪽 국시산 중턱
당 형태	자연석 큰 바위
제신	없음(마을수호)
제관	•마을에서 깨끗한 사람 1명. •제관이 지명한 깨끗한 사람 1명 참석.
제의절차	•제관은 7일전부터 목욕재계 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함. •말바구→탑거리 순으로 제를 지냄. •음복, 마을회의.
제일(시간)	음 1월 14일 밤 1시.
기타	•상차림-술, 백반, 백병(白餅), 닭, 과일, 통대구.

※지금은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삼산면(三山面) 장치리(長峙里) 중촌(中村)마을(2)

항목	내 용
당 이름	탑거리 동제목(洞祭木)
당 위치	마을 저수지 밑, 서쪽 들 가운데
당 형태	동제목(포구나무 높이 10m, 둘레 3m)
제신	없음(마을 수호와 안과태평을 기원함)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서 깨끗한 사람 1명. •제관이 지명한 마을의 깨끗한 사람 1명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7일전부터 목욕재계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함. •말바구→탑거리 순으로 제를 지냄. •음복, 마을회의.
제일(시간)	음 1월 14일 밤 1시.
기타	•상차림-술, 백반, 백병(白餅), 닭, 과일, 통대구.

※지금은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삼산면(三山面) 삼봉리(三峰里) 해명(海明)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사당(祠堂)
당 위치	마을 뒷산
당 형태	사당과 푸조나무
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산 할매신(마을의 안전과 평화, 번영을 기원함). •목신(마을수호)
제관	마을 이장
제의절차	
제일(시간)	음 1월 14일 밤 해시(亥時), 음 선달그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력정월 14일은 당산할매신께 제를 지내며, 선달그믐 날은 마을의 수호신인 목신에게 제를 지냄. •200년 전부터 동제를 지내옴.

○ 마을명 : 영오면(永吾面) 연당리(蓮塘里) 본양(本陽)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음난정
당 위치	마을 입구
당 형태	소나무와 조산
제신	목신(마을의 평안과 태평)
제관	•마을에서 선정된 사람 1명.
제의절차	•제관은 3일전부터 목욕재계하고, 나무 주변을 청소함. •삼헌례를 행함. •제 후 3일간 나무 주변을 청소를 함.
제일(시간)	음 1월 3일 밤 2시.
기타	•상차림-술, 과일, 포.

○ 마을명 : 영오면(永吾面) 연당리(蓮塘里) 연촌(蓮村)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제목(洞祭木)
당 위치	마을 입구 북쪽 연행이 못둑 옆
당 형태	괴목(높이 15m, 둘레 4m)
제신	동신(마을의 안과태평)
제관	•마을의 50세 이상인 부정 없는 남자. •마을의 30세 이상 남자 및 유지 다수 참석.
제의절차	•제관은 강물에 목욕재계하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3일간 근신함.
제일(시간)	음 1월 3일 오후 3시.
기타	•상차림-백주, 백반, 병(餅), 과일.

※지금은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영오면(永吾面) 오동리(吾東里)

항목	내 용
당 이름	산신당(山神堂)
당 위치	마을 동쪽 황새목산 중턱
당 형태	넓이 1.5㎡의 바위(사암)
제신	나이 많은 할배신(마을수호)
제관	•50세 이상으로 상을 입지 아니하고 부정이 없는 자를 마을이장이 선출.
제의절차	•제관은 샘물에 목욕하고 제사 때까지 출입을 금하며, 타인과의 대화도 금함. •참신성(징)→분향→고사 순으로 지냄. •음복 한 후 마을에 내려가 마을민에게 보고.
제일(시간)	음 1월 15일 밤 1시~2시.
기타	•상차림-청주, 백반, 닭고기, 생선, 과일, 전.

○ 마을명 : 하이면(下二面) 덕호리(德湖里) 군호동(君湖洞)

항목	내 용
당 이름	당산목(堂山木)
당 위치	
당 형태	당산목(천연기념물 제308호로 지정된 수령 약 500년 팽나무로 둘레 9.6m, 높이 약20m)
제신	목신(마을의 안과태평과 풍년을 기원)
제관	이장.
제의절차	마을에 가뭄이나 한해가 계속되면 마을 이장이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나무 밑에서 지냄.
제일(시간)	음력 정월보름날.
기타	•나무를 심은 시기는 조선 초기쯤이라 전하고 있으며, 100여년전부터 신목으로 모심. •동네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이 나무 밑에서 100일 기도를 한 후 아이를 낳자 아이 이름을 당산(堂山)이라 지음으로 당산나무라 하였다고 전해져 옴. •이 나무에 녹음이 일찍 짙어지면 풍년이 든다고 함.

※나무의 고사로 지금은 동제를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하이면(下二面) 석지리(石芝里) 양촌(陽村)

항목	내 용
당 이름	당산목(堂山木)
당 위치	마을 앞 하천가
당 형태	당산목(물체나무 높이 15m, 둘레 1m)
제신	목신(마을의 안과태평)
제관	스님.
제의절차	불교의식에 의함
제일(시간)	음 선달그믐날 밤.
기타	

○ 마을명 : 회화면(會華面) 당항리(唐項里) 당항(唐項)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신목(洞神木)
당 위치	마을뒤 산록 남향 하천가
당 형태	신목(높이 8m, 둘레 2m)과 둘레에 돌제단
제신	할매신(동신의 위로와 마을의 안과태평을 기원)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회의에서 선정된 정성 있고, 부정 없는 남자. •부정 없는 마을 사람과 유지 등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3일전부터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사람은 마을 밖으로 추방함. •일반제례 절차와 같이 제를 행함. •음복 후 마을회의.
제일(시간)	음 1월 15일 밤.
기타	•상차림-일반제례와 같음.

○ 마을명 : 회화면(會華面) 배둔리(背屯里)

항목	내 용
당 이름	마을제당(祭堂)
당 위치	마을 중앙 우물 옆
당 형태	돌무더기 제단(높이 1.8m, 둘레 5m)
제신	동신(마을수호)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회의에서 선정된 부정 없는 남자(祭主). •마을유지급 부정 없는 성인 남자 참석.
제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관은 3일전부터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부정한 사람은 마을 밖으로 내보냄. •일반 제례절차와 같음. •음복 후 마을회의. 농악놀이. 달집놀이.
제일(시간)	음 1월 15일 밤 12시.
기타	•상차림-일반 제례와 같음.

○ 마을명 : 하일면(下一面) 동화리(東禾里)

항목	내 용
당 이름	동제목(洞祭木)
당 위치	마을
당 형태	당산나무
제신	목신(마을의 안녕과 풍농풍어 기원)
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회의에서 선정한 생기복덕한 사람. •마을유지급 부정 없는 성인 남자 참석.
제의절차	•제 3일전 당산나무에 금줄을 칩.
제일(시간)	음 선달그믐 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 일반제례와 동일 •마을이 5개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년 반을 돌아가며 지냄.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지신밟기를 하는데, 당산에 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매구를 칠 때 악기가 깨어진다고 하며, 매구는 당산→우물→바닷가 순으로 칩.

※지금은 절에 의뢰하여 스님이 지낸다

○ 마을명 : 마암면(馬岩面) 석마리(石馬里)

항목	내 용
당 이름	석마(石馬)
당 위치	마을 입구 중앙
당 형태	직경 6m 가량의 축대위의 석마 2필과 고목느티나무 4그루
제신	마신 또는 마장군(마을수호)
제관	•선달그믐날 마을회의에서 정한 생기복덕한 사람 2명.
제의절차	•제관으로 선정된 날밤에 콩 한 말을 석마 앞에 공양하고 촛불을 밝혔다 가 다음날인 정월 초하룻날 거둬들임. •제관은 제사 3일전부터 목욕재계하고 몸을 단정하게 함. •제사에 앞서 신역은 물론 마을에 황토를 부리고 왼새끼줄에 댓잎, 솔잎을 꽂음.
제일(시간)	음 1월 15일 밤 1시~2시.
기타	•상차림-통닭. •마을이 형성된 지는 300여년이 넘었고, 이곳의 석마는 언제 모셔졌는지는 모르 나 꽤 오래된 것으로 전함. 암수 한쌍으로 하나는 중도에 파손되어 새로 만들면 서 크기가 작아짐. 1974년 2월 16일에 도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음.

○ 마을명 : 마암면(馬岩面) 삼락리(三樂里) 평부(平釜)마을

항목	내 용
당 이름	삼신목(三神木)
당 위치	고성~마산간 국도변
당 형태	삼신목(팽나무 수령 약 400년)
제신	산신, 수신, 목신(마을의 발전을 기원함)
제관	•마을회의에서 1인 선정.
제의절차	•제관은 7일 동안 매일 찬물에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바깥출입을 금함. •주민들의 제관 집 출입을 금함.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제를 지내지 않고, 음력 이월 초하루 날에 지냄.
제일(시간)	음 .
기타	•상차림-삼찬. •삼신목(팽나무)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이 당항포 해전 때 장군의 배를 매어두었던 유서 깊은 나무임. •제관이 부정한 것을 보거나, 제를 조금이라도 잘못 지내면 꿈에 백발노 인이 잘못을 알려준다고 함. •20년 전 마을의 이동수씨가 동답(洞沓)을 회사하여 이 수익금으로 동제를 지냄.

○ 마을명 : 하일면(下一面) 학림리(鶴林里) 금단(琴丹)마을
마을 어귀 군나무로 지정된 고목(수령 약 500년 추정. 높이 60m, 둘레 4m) 아래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자시(子時)에 동신제(洞神祭)를 지냄.

○ 마을명 : 하이면(下二面) 월흥리(月興里) 월흥(月興)마을
마을 동편 뒷산 기슭의 당산나무(포구나무. 수령 약 850년 추정. 둘레 10m)에서 제관을 미리 선정하여 마을수호를 위해 음력 정월초순에 동제를 지냄.

○ 마을명 : 고성읍(固城邑) 동외리(東外里) 남산(南山) 2동
남산정(南山井) 윗편 고목(수령 300년 추정)에서 선달그믐날 마을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며 당산제(堂山祭)를 지냄.

○ 마을명 : 고성읍(固城邑) 동외리(東外里) 정동(鼎洞)마을
마을 뒷산 고소산(高蘇山) 남록제단 옆 고목(수령이 오래된 포구나무)에서 매년 음력 초이튿날 자시(子時)에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위하여 당산제(堂山祭)를 지냄.

○ 마을명 : 고성읍(固城邑) 대평리(大坪里)
마을 중앙의 고목(느티나무)과 마을 윗편 200m 지점에 있는 돌무덤에서 매년 음력 대보름 새벽에 마을 ‘대영회’ 주관으로 당산제(堂山祭)를 지냄.

○ 마을명 : 개천면(개천면) 용안리(龍安里) 용안(龍安)마을
마을 앞 정자나무(수령 약 400년 추정) 밑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이튿날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洞祭)를 지냈으나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 마을명 : 회화면(會華面) 배둔리(背屯里) 양지(良智)마을
옛날에는 방화산 계곡에서 산신제(洞神祭)를 지내왔으나, 1992년 마을 산55-5번지에 배둔리 4개 마을 동민이 합의하여 방화산 산신각을 건립하고 이곳에서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자시(子時)에 산신제(山神祭)를 지냄. 제후 행사로 농악놀이와 달집태우기 행사를 함.

○ 마을명 : 거류면(거류面) 거산리(巨山里) 거산(巨山)마을
마을 앞 동산 위 큰바위(예전에는 논두렁위에 얹혀 있었음)에서 매년 선달그믐날 자정,

마을의 안녕과 평안, 풍년농사를 위해 마을에서 제일 청결한 사람으로 제관을 선정하여 동제를 지냄.

2. 기우제(祈雨祭)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수리시설이 부족했던 예로부터 기우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한 비에 대한 관심은 단군신화의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하강했다는 기록에서부터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각각 시조묘, 명산대천 등에 기우제를 올렸던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있다.

그 중에는 왕이 직접 제사했다는 기록도 있고, 최근까지도 행해졌던 방법처럼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서 비를 빌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고려시대에도 기우제를 행할 때에는 국왕 이하 사람들이 근신하고 천지, 산천, 종묘, 부처, 용신에게 제를 지냈다. 비를 비는 법회도 열고, 도교의 태일(太一)에 초제(醮祭)도 올렸다. 그 중 잦았던 것은 무당을 모아서 비를 빌게 하는 취무도우(聚巫禱雨)이다. 많을 때에는 300명, 긴 날짜로는 6일씩 흠으로 용을 만들고 비를 빌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기우제는 잦았다. 왕조실록을 보면 기우제가 음력 4월에서 7월 사이의 연중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나라에서 지낸 기우제 중에는 국행 기우제의 12제차가 있어서 각 명산, 대천, 종묘, 사직, 북교(北郊)의 용신들에게 지내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대신들을 제관으로 파견하였다.

한편 민간이나 지방관청에서도 기우제는 다양했다. 1930년대의 유형은 먼저 일반적인 절차로서 제관들이 선출되고 소머리, 돼지, 닭, 술, 과일, 포, 식혜 등의 제물을 차리며 강신(降神), 헌주(獻酒), 독축(讀祝), 음복(飲福) 등의 절차를 지낸 다음 산상분화(山上焚火), 물병 거꾸로 매달기와 물 걷기, 시장 옮기기, 용제(龍祭), 줄다리기, 부정화(不淨化), 묘과기 등 기우제 나름의 독특한 방법들이 행해졌다. 그 중 시장 옮기기는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 모두 있었던 오랜 전통으로 조선 초기 서울에서는 시장을 종로에서 남대문 쪽으로 옮기는 동시에 남대문을 닫고 북문을 열었다. 이는 음양설에 근거하여 음기인 비구름을 맞으려는 주술적 신앙행위였다.

고성에서는 벽방산, 거류산 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Ⅵ 민속놀이

제 1절 개관

민속놀이는 오랜 세월 동안 민간에 전승되어 온 놀이로 강한 향토성을 수반하는 동시에 민간신앙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 민속놀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앙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적인 요소는 거의 없어지고 현대에는 유희적인 기능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민속놀이는 가무놀이, 경기놀이, 겨루기놀이, 아동놀이를 구분되며, 즐기는 계층에 따라 아동놀이와 어른 놀이로 나눌 수 있고, 성별에 따라 남자놀이와 여자놀이, 놀이의 방법에 따라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를 나뉜다. 이중에서 가무놀이는 춤과 노래가 반드시 수반되며, 어른놀이는 주로 농민들 중심으로 발달하여 집단성이 강하고, 낙천적인 기상과 풍부한 정서를 담고 있다. 민속놀이는 농경세시의 변화에 맞추어 세시풍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민속놀이 일람표

번호	놀이이름	노는계층	목적	시기
1	팔씨름	성인남자소년	내기놀이	연중
2	돌차기(패차기)	소녀	놀이	연중
3	나무치기	성인남자	내기놀이	연중
4	팽이돌리기	소년	놀이	겨울
5	연날리기	성인남자소년	놀이	정월·겨울
6	낫치기	성인남자	내기놀이	연중
7	닭싸움	성인남자	내기놀이	겨울·봄
8	칼퀴치기	성인남자	내기놀이	연중
9	장치기	성인남자	놀이	연중
10	못치기	소년	놀이	늦가을
11	골패	성인남자	놀이	연중
12	장기	성인남자	놀이	연중

13	농악	성인남녀	풍농·풍어놀이	연중
14	바둑	성인남자	놀이	연중
15	씨름	성인남자소년	체육놀이	연중
16	비녀돌리기	성인여자	놀이	정월대보름
17	널뛰기	성인여자	놀이	정월
18	그네뛰기	성인여자	놀이	단오·추석
19	활쏘기	소년·성인남녀	체육놀이	연중
20	화투	성인남녀	내기놀이	연중
21	쌍륙	성인남녀	놀이	연중
22	공치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23	화전놀이	성인남녀	놀이	봄
24	웃놀이	성인남녀	놀이	정월·연중
25	투호놀이	성인남녀	놀이	정월
26	제기차기	소년	놀이	연중
27	딱지치기	소년	놀이	연중
28	방아깨비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29	땅뺏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30	자치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31	말타기	소년	놀이	연중
32	서리	소년·소녀	놀이	연중
33	옛치기	소년	내기놀이	연중
34	쥐불놀이	소년	놀이	정월대보름
35	깡통차기	소년	놀이	연중
36	호디기불기	소년	놀이	봄·여름
37	여우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38	그림자밟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39	죽마타기	소년	놀이	연중
40	굴렁쇠돌리기	소년	놀이	연중

41	바람개비놀이	소년	놀이	연중
42	성냥개비놀이	소년	놀이	연중
43	군사놀이	소년	놀이	연중
44	어깨동무	소년·소녀	놀이	연중
45	돈치기	소년	내기놀이	연중
46	공기놀이	소녀	놀이	연중
47	실뜨기	소녀	놀이	연중
48	고무줄놀이	소녀	놀이	연중
49	각시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50	소꿉장난	소년·소녀	놀이	연중
51	도둑잡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52	땅빼앗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53	신발뺏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54	풀각시	소녀	놀이	봄
55	가마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56	숨바꼭질	소년·소녀	놀이	연중
57	구슬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58	수건돌리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59	눈(眼)싸움	소년·소녀	놀이	연중
60	닭잡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61	줄넘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62	기차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63	두꺼비집짓기	소년·소녀	놀이	여름
64	얇은뱅이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65	두레놀이	성인남자	풍농기원	정월
66	편싸움	성인남자	체육놀이	정월대보름
67	강강수월래	성인여자	놀이	한가위
68	길쌈놀이	성인여자	놀이	여름·한가위
69	달집태우기	남녀노소	풍년기원	정월대보름

70	탑돌이	성인남녀	종교행사	봄
71	줄다리기	성인남녀	풍농기원	정월대보름
72	다리밟기	남녀노소	무병장수기원	정월대보름
73	관등놀이	성인남녀	종교행사	봄
74	헛불싸움	소년	놀이	정월
75	쌍가락지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76	달맞이	성인남녀	풍농기원	대보름·한가위
77	지신밟기	성인남녀	풍농기원	정월
78	풍어놀이	남녀노소	풍어기원	정월·한가위
79	고기잡기	남녀	놀이	연중
80	무지개놀이	소년	체육놀이	겨울
81	콩돌줍기	소녀	놀이	연중
82	십자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83	문어다리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84	사또놀이	소년	놀이	연중
85	꽃쌈	소녀	놀이	연중
86	오자미놀이	소녀	놀이	연중
87	풀놀이	소년·소녀	놀이	여름
88	고누두기(꼰놀이)	성인남자소년	놀이	연중
89	잠자리잡기	소년	놀이	여름
90	문놀이	소년	놀이	여름
91	꼬리잡기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92	손가락감추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93	봉사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94	임금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95	진진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96	원놀이	소년	놀이	연중
97	시소놀이	소년·소녀	놀이	연중
98	풀무기	소년·소녀	놀이	연중
99	다리세기	소년	놀이	연중
100	투전(짓구멍)	성인남자	내기놀이	연중

참고자료 : 1989년 경상남도 『향토문화지』

제 2절 고성의 민속놀이

1. 정월

1) 윷놀이

정월초하루부터 대보름날까지 행해지는 전통놀이로 정초에 그 해의 농사의 풍흉을 짐치기도 하였다. 편을 갈라서 윷으로 승부를 하는 놀이 ‘척사(擲柶)’ 또는 ‘사희(柶戲)’라고도 한다.

목편 네 짝을 가지고 2사람 또는 인원수가 많을 때는 2패, 3패로 나뉘어 각각 4개의 말(馬)을 가지고 29발으로 된 윷판을 사용하여 놀이한다.

윷가락 네 짝을 던져서 젓혀진 윷의 개수에 따라 ‘도, 개, 걸, 윷, 모’라 부르는데 각각 ‘돼지, 개, 양, 소, 말’을 가리키며, 윷판에서 각각 ‘1발, 2발, 3발, 4발, 5발’을 갈 수 있다. 놀이 방법은 윷판에 쌍방이 말 4개를 놓고 윷을 던져서 네 개가 엮어지면 ‘모(馬)’로 다섯 발을 가고, 네 개가 다 젓혀지면 ‘윷(牛)’으로 네 발을 가며, 세 개가 젓혀지고 한 개가 엮어지면 ‘걸(羊)’로 세발을 가고, 두 개 엮어지고 두 개 젓혀지면 ‘개(犬)’로 두 발을 가고, 세 개 엮어지고 한 개 젓혀지면 ‘도(豚)’로서 한 발을 간다. 먼저 최종점을 통과하는 편이 이기게 되고, ‘모, 윷’이 나오면 1번 더 할 수 있으며, 자기편 말이 상대편 앞말과 같은 자리에 서면 상대편 말을 잡음과 동시에 1번 더 던질 수 있다. 또한 자기편 말이 한 자리에 겹치면 2말이 한꺼번에 뗄 수 있다. 따라서 윷놀이는 윷가락을 잘 던져서 승리 할 수도 있지만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좌우되기도 한다.

경남지방의 윷놀이는 대강 밤윷과 장작윷(가락윷)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밤윷

밤윷은 명석에다 윷판을 만들고 주로 야외에서 노는 것이나 집안에서도 할 수가 있다. 손가락만한 환목(丸木)을 반으로 쪼개어 약 2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4개의 윷짝을 만들어 돗잔에 넣어 서너 번 흔들어 섞은 다음 던진다. 던지는 곳은 ‘문’ (일정한 거리에 놓은 선)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만일 한 짝이라도 문에 걸리면 낙(落)이라고 하여 무효가 된다. 또 문에 미치지 못한 것도 낙이다. 또한 ‘방’이라 하여 문 밖에 일정한 구역을 구형(矩形)이든 원형이든 정해놓고, 그 방 안에 4짝이 다 들어야 된다든지, 방의 크기를 좁게 한다든지, 방까지의 거리를 멀게 한다든지 다양한 규정을 만들어 놀 수 있다.

경기내용에 있어서도 녁동나기(빠기)가 제일 많으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인원수도

2명 이상이면 다수가 참가할 수 있고, 또 편을 짜서 놀 수 있다.

② 장작웃

‘가락웃’ 또는 ‘나막신웃’ 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야외에서만 한다. 웃가락이 약 20cm 정도의 길이로 4짝을 한줌에 쥐기가 힘들 정도로 크고 굵다. 웃판이나 문 그리고 방의 규칙은 밤웃과 같으나 한 가지 다른 점은 문을 명석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친다는 점이다. 마치 배구 넷을 치듯이 하되 그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새끼줄을 양쪽 막대기에 가로질러 치며, 높이는 1m~1.5m로 하되 힘들게 하려면 더 높게 할 수도 있다. ‘방’도 문 밑에다가 원형으로 정하는 수도 있고, 문 양쪽에다 사방형으로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으며, 낙의 규칙도 나름대로 정한다. 가령 문을 4짝 다 넘어가야 하기도 하고, 문의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기도 하는데 그 매김새가 많다.

2)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경남 전 지역에서 행해지는 세시풍속의 하나로서, 음력 정월초하루에 시작하여 보름날 송액(送厄)의 뜻으로 멀리 띄워 보내는 남자들의 민속놀이이다.

정월 보름날 연을 멀리 날려 보내는데 그 해의 액을 연에 실어 띄워 보내는 원초적 속신관념의 표현으로 연에다가 액자(厄字)나 송액(送厄)이라 쓰기도 하며, 자기의 성명 또는 주소를 쓰기도 한다. 날려 보내는 방법은 연을 높이 띄운 다음 얼레에서 끊는 것과 솜에다가 불을 붙여서 연줄에 달아매면 점차로 타들어가서 끊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여 액연을 날린 후에는 연을 띄우지 않음이 보통인데, 보름날 뒤에도 연을 띄우는 이가 있으면 조롱하였다고 한다. 요즘은 정월이 아닌 때에도 연을 띄우며 노는 아이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연을 만드는 재료는 한지와 대꼬챙이가 필요하다. 먼저 대나무를 골라 칼로 가늘게 다듬어 연살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크기의 한지를 잘라 펼쳐 놓고 연살에 풀을 먹여 한지 위에 붙여서 만든다. 연줄은 명주실, 무명실, 양실 등을 사용하며, 연살을 감는 기구를 ‘자새, 얼레, 감개’라고 한다. 자새는 이간(二間)자새, 삼간(三間)자새가 있고, 어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알팍한 자새를 ‘주개자새’ 혹은 ‘납작자새’라 한다. 종류는 각 양각색으로 그 명칭과 모양 색깔이 지역마다 다르다.

① 꼭지연

가로보다 세로가 다소 긴 구형(矩形)에다 한가운데 봉창이 뚫렸고, 밑 양쪽에 연발이 달

렸다. 쪽지의 색깔에 따라서 홍(紅)쪽지, 청(靑)쪽지, 먹쪽지 등으로 구분되며, 쪽지의 모양에 따라서 반달(반벌베기, 흑반달, 홍반달), 사도반달, 눈썹반달, 귀머거리연, 또는 통영연, 기연, 세눈배기, 수리연 등으로 나뉜다.

② 벌연

연의 쪽대기 뒷 줄(糸)에다가 종이를 달기도 하고, 양쪽이나 사방에 달아서 벌이 우는 소리가 나게 한다.

③ 까치연

깐치연, 깐추연이라고 하며 까치의 흑백의 색깔을 본 따 만든 연이다.

④ 족제비연

족제비 모양의 꼬리와 꼬리를 달았다고 하여 족제비 연이라고 하며, 꼬리의 길이는 5척정도이다.

⑤ 가부리연

어린이들이 많이 띄우고 노는 연으로 가오리 모양으로 생겼다.

⑥ 치마연

연의 하반부 채색 여하에 따라 홍치마, 청치마 등으로 나뉜다.

⑦ 범연

범의 눈 모양으로 생긴 연이다.

3) 씨름

씨름은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이며, 전 지역의 민속놀이이다. 두 사람이 살바를 맞붙잡고 일정한 규칙아래 기량을 겨루어 상대방의 발바닥 이외의 무릎 위 몸부분을 땅에 닿게 넘어뜨리면 이기는 경기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조선시대 단오절의 씨름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도 나타나고 있고, 거슬러 올라가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씨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 씨름의 역사는 오래이다.

씨름은 원래 단오나 백중절, 추석 등의 명절에 많이 행하였던 민속놀이였지만, 경남지방에서는 단오보다는 추석에 하는 곳이 많다. 대부분 성인남자나 소년들의 운동이었으나 지금은 여자씨름도 행해지고 있다.

명절날이 되면 동서 양편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는데, 각 편을 기를 앞세우고 모래사장(경남 지방은 모래사장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씨름이 성행했다고 한다.)에 모인다. 기는 한지로 길이 약 4m, 너비 80cm 정도로 만들어 원수, 대장, 대원 등 선수 이름을 순서대로 적는다. 씨름이 시작되면 동서 양편의 응원단이 동원이 되어 줄다리기와 같이 열광적인 응원을 한다.

씨름의 종류에는 왼씨름, 오른씨름, 띠씨름 등 3가지가 있는데 왼씨름은 살바를 오른쪽 다리에 끼고 왼쪽 어깨를 맞대고 하며, 오른씨름은 살바를 왼쪽다리에 끼고 오른쪽 어깨를 맞대고 한다. 그리고 띠씨름은 허리씨름, 통씨름 이라고도 하는데, 허리에다 띠를 매고 그것을 잡고 한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겨루는 아기씨름으로 판이 열렸는데, 아기씨름으로 시작하여 차차 나이를 높여 나중에는 어른씨름을 하였다. 넓은 터에 모래판을 만들고 두 사람이 살바를 매고 마주 꿇어앉아 살바를 잡고 일어선다. 심판의 신호에 따라 경기가 시작되어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이기는 것인데 무릎 이상의 몸 가운데 한 군데라도 바닥에 닿으면 지게 된다. 모든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 5판 3선승제나 단판 승부제를 채택 할 수 있다.

씨름의 기술을 무수히 많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

- ① 배지기 : 상대의 몸을 안아들어 무릎으로서 옆을 친다.
- ② 잡채기 : 상대를 잡은 채로 좌우로 유도하다가 한쪽으로 팽개친다.
- ③ 팔잡아 돌리기 : 왼손으로 상대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쪽 다리에 받치면서 옆으로 돌린다.
- ⑤ 떡가리 : 오른발로 상대의 왼발을 걸고 어깨로 밀어버린다.
- ⑥ 안다리감기 : 오른발로 상대의 왼발을 감고 어깨로 밀친다.
- ⑦ 바깥다리감기 : 오른다리로 상대의 왼다리 바깥에 걸고 왼쪽으로 돌린다.
- ⑧ 벼락꼭지 : 오른손으로 상대의 등을 잡고, 오른발로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서 잡아당긴다.
- ⑨ 앞빼미(알) : 자기의 오른팔로 상대의 오른쪽 무릎을 누르고 당긴다.

4) 석전(石戰)놀이

음력 정월 대보름날 남자들이 하던 돌 던지기 민속놀이로 ‘편쌈’ 또는 편전(便戰)이라고도 한다. 직경 6~15cm, 높이 2m 가량의 통나무나 철봉을 수백 보의 거리에 세우거나 매달아 놓고 두 편으로 나누어 주먹만 한 돌로 던져서 맞히는 놀이로, 인원은 1대 1의 경기도 가능하나 대개 5명 이상의 단체전으로 한다. 1사람당 돌살을 5개씩 배당하여 쌍방이 교대로 던져 적중률이 많은 편이 이기게 되며, 이긴 편에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석전은 전쟁에 대비하여 연무(鍊武)하는 뜻의 전투적 놀이이며, 실전 연습이 강한 놀이로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차차 어른들의 싸움으로 바뀐다. 싸움이 고조되면 육박전을 벌이기도 한다. 지금은 주로 해안도서 지방에서 석전(石戰), 또는 돌살이라 하여 추석이나 축제 때 주로 한다.

5) 쥐불놀이

음력 정월 첫 쥐날(上子日) 밤에 농가에서 행하는 풍속의 하나로 이 날 해가 지면 마을마다 들로 나가 논둑, 밭둑의 마른 풀에 불을 놓아 태운다. 잡초를 태움으로서 해충의 알 및 쥐를 없애고 풍작을 기원하는 한편 그 태운 재가 거름이 되게 하는 의미도 있다.

쥐불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해의 풍흉 또는 그 마을의 길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불의 기세가 크면 좋다는 풍습이 있어 각 마을이 서로 다투어 불 기세를 크게 한다. 자정이 되면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데, 들에 놓은 불은 끄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 놀이를 하면 1년 동안 무병하고 액을 멀리 할 수 있다고 믿었다.

6) 널뛰기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날까지 처녀나 젊은 부인들이 널을 뛰며 노는데, 길다란 널빤지의 목판 밑에 짚단이나 가마니 묶음 또는 가마니에 흙을 넣은 베개모양의 물체를 괴고 널빤지 양쪽 끝에서 사람이 세차게 밟으면 그 반동에 의해서 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이자 운동이다.

준비 과정이 간단하고 소박한 놀이로 활동이 부족한 부녀자들에게 적합한 운동으로서 발과 다리를 단련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과학성도 없지 않으며, 풍작과 운수를 축원하는 의미도 들어 있다.

널뛰기는 온돌방에서 칩거하던 부녀자들의 화려하고 우아한 치마저고리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며, 널뛰는 여인은 활발무쌍하여 남자를 무색케 할

정도이다.

고성지방의 민요인 널뛰기 노래에 ‘고운 처녀 올라간다 / 옥황상제 문 열어라’ 이것을 반복하며 힘껏 뛰어서 하늘을 찌를 기세를 과시하였고, ‘우리 아배 떠온 댕기 / 우리 어매 접은 댕기 / 우리 동생 눈물 댕기 / 내한테는 좋은 댕기 / 우리 오라버이 분주 댕기....’ 라는 민요에서는 녹의홍상에 패물을 차고 뛰는 여인들의 고상한 품위와 처녀댕기의 고운 모습을 표현하였다. ‘성 안에 널뛰다가 / 성 밖에 잃은 댕기 / 열다섯 서지(서당)군 주는 댕기 / 나를 주라 / 치맛자락 마주칠 때 / 너를 주마 너를 주마 / 동 솔 걸고 큰 솔 걸고 / 살림 살 때 너를 주마’ 라는 가사는 처녀 총각의 낭만을 소박하게 표현하였다.

한편 경남 지방에서는 ‘처녀시절에 널뛰기를 하지 않으면 시집가서 아이를 못 낳는다느니, 널을 뛰면 가시에 찢리지 않는다느니, 대보름날 밤에 널을 뛰지 않으면 산이나 들에 나물 캐러 가서 가시에 찢린다.’ 는 속설이 있으며, 보름 이후에 뛰면 백정, 상년이라 하여 흉을 보는 속신이 있었다.

7) 지신밟기(매구치기)

정월 초사흘날부터 보름날까지 행해지는 민속놀이로 지신을 진압하여 마을과 가정에 안녕과 다복이 깃들기를 비는 마을행사이다. 지방에 따라 ‘마당밟기’ 또는 ‘매귀 놀이’ 라고도 부르며, 팽과리, 징, 북, 장구, 소고 등 민속악기로 구성된 풍물을 선두로 양반, 포수, 머슴, 탈을 쓴 각시 등이 당산굿을 비롯하여 집집마다 지신을 밟으면서 지신풀이 사설을 읊으며 춤과 익살, 재주로 한바탕 신나게 놀게 되는데, 선두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기와 마을의 대표기를 앞세우고 매구패와 잡색이 뒤따른다. 초사흘날 저녁 이장 집에 모여서 복색을 갖추고 동계 모시는 곳(당산)으로 가 간단한 고사를 지내고 마을의 평안을 빈다. 이어 마을 우물에 들러 굿을 한 후에 집집마다 다니는데, 매구패가 집 앞에 다다르면 ‘주인 주인 문여소’ 라고 외친다. 그러면 주인이 대문을 활짝 열고 매구패를 맞이한다. 마루에 고사상을 차려 놓는데, 상위에 쌀을 담은 그릇과 물그릇을 올려놓는다. 쌀그릇에는 초를 꽂고 불을 켜둔다. 이때 전곡을 많이 얻기 위하여 각시와 포수가 익살스런 행동으로 갖은 수단을 부린다. 매구패는 마당을 한 바퀴 돌고나서 성주에게 인사드리고 축원을 한다. 그리고 조왕, 터주, 마구간 등을 돌며 집안 잘 되기를 기원하고 나온다. 고사상의 쌀은 가지고 나와서 마을 기금으로 쓴다.

8) 줄다리기(줄싸움, 줄당기기)

줄다리기는 한 해의 길흉을 점치고 풍농과 풍어 등을 기원하는 뜻에서 시작한 마을 행사

로 주로 정월 보름에 행해진다. 마을 또는 구역으로 편을 갈라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어울려 줄을 마주 잡아당겨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가뭄이 들면 기우제로 행하는 곳도 있다.

줄다리기는 줄을 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대개 짚을 사용하나 칩닝쿨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줄은 수줄과 암줄을 각각 만들어 끝을 연결하고, 줄의 끝은 울가미 모양으로 틀어져 있는데 이를 ‘도래’ 또는 ‘머리’ 라고 한다. 암줄의 머리는 너비가 넓고, 수줄은 좁아 수줄을 암줄의 머리 속에 넣고 ‘고딩’ 이라는 나무빗장을 걸면 줄이 완성된다.

편은 마을에 따라 ‘동편, 서편’ 또는 ‘남자편, 여자편’ 으로 나누는데 이긴 편에 풍년이 들고 재난이 없다고 믿었다. 지역에 따라서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여 상대편이 일부러 쳐 주기도 하며, 줄을 당길 때는 호흡일치를 위하여 편장이 기를 흔들며 지휘를 하고, 선창에 따라 줄다리기를 하는데 승부는 중앙선에서 5-6m 떨어진 곳의 결승선까지 상대방의 머리를 끌고 오면 이기는 것으로 하였다. 이긴 쪽의 줄에 영험이 있어 거름에 섞으면 풍년이 들고, 지붕에 올려놓으면 아들을 낳고, 배에 실으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여 앞 다투어 잘라가기도 하였다.

줄 만드는 것부터 놀이까지의 전 과정이 완전한 협동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주민들은 줄다리기를 통해 단결심과 향토애를 키웠다.

9) 다리밟기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개천 또는 강에 놓여 있는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놀이이다.

주위에서 가장 긴 다리를 세 번 왕복하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으며, 사람의 다리에 생기는 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일 년 동안의 액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2. 연중

1)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고려시대 말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자들의 유희로 ‘추천(鞦韆)’ 이라고도 한다. 고려 고종 초년의 한림별곡(翰林別曲) 제 8장에 ‘가래나무에 맨 그네 줄에 홍실로 장식하고 밀고 뛰는 모양’ 이 노래되고 있으며, 동국세시기에는 ‘추천(鞦韆)은 원래 북방의 용적(戎狄)이 한식(寒食)에 이르러 그네를 뽀으로써 몸을 날쌔게 하였는데, 뒤에 중국 여자들이 이것을 배우게 되고 또 당(唐)에는 궁중에 까지 전파되었으며, 한식절에 이르면 다

투어 그네를 매어 뛰었으니 이를 반선지희(半仙之戲)라 하였다. 지금은 단오로 옮겨졌다'라 하고 있다.

그네뛰기는 단오의 세시풍속으로 내려오고 있었으나, 지금은 세시적 풍습이 쇠퇴하면서 추석이나 각종 축제 때에 대회를 여는 곳이 많아졌다.

그네는 장대한 기둥을 세우거나 큰 자연목을 이용하여 그 가지에 2줄의 동아줄을 매고 아래에 발판을 놓아 그 위에 몸을 실어 다리로 발판을 밀면서 그 힘으로 몸을 앞뒤로 높게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든 것이다.

경기의 승부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앞으로 올라가는 자리에 높이를 측정하는 장대를 세우거나 그 위에 방울을 달아놓고 이를 발로 차서 소리를 내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네는 혼자 뛰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뛰는 쌍그네도 있다. 형형색색의 고운 한복을 입고 그네를 뛰는 날렵한 모습은 마치 선녀가 춤을 추듯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2) 공치기

장치기, 짱치기, 타구(打毬)라고도 불리는 놀이로 지금은 중단되고 없으나, 예전에는 농한기에 즐겨하던 놀이로 지금의 '필드하키'와 비슷한 놀이이다.

우리나라의 옛 문헌인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격구의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 격구는 말을 타고 공을 치는 무사들의 경기인데 비해 타구는 육상에서 행하는 것이 다르다.

논바닥이나 넓은 장소에서 10명 이상씩 양편으로 나눠서 시합을 하는데, 공 채는 나무로 길이 약 150cm 정도로 하고, 공은 나무로 주먹만 하게 깎아 가죽을 감싸서 사용하기도 하며, 깡통 같은 것을 공처럼 만들어 안에 돌을 넣고 형겅으로 감싸 소리가 나게 하여 달밤에 노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노는 방식은 총 길이 50~100m, 너비 20~30m 로 구장을 만드는데, 길이의 끝을 횡선이라 할 때 횡선에 너비 5m의 구문(毬門)을 세우되 윗막이는 없이한다. 구문에서 옆과 앞 각 5m 지점에 선을 그어 표시를 하고 중앙선 가운데 공이 들어 갈 구덩이를 파고 약 1m 직경의 원과 5m 정도의 원을 그린다.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중앙선 가운데에 판 구덩이에 공을 놓고 양편이 동시에 쳐서 시작하는 '구덩이공' 과 공을 심판 위로 던진 다음 떨어지는 공을 쳐서 시작하는 '땡공(땡공)', 이긴 편 사람이 공을 구덩이에 놓고 양편이 한 바퀴 돌면서 공을 쳐서 시작하는 '물리공' 방법이 있다.

경기의 승부에 있어서는 엄격한 반칙과 벌칙이 있는데, 공치기의 반칙으로는,

- ① 공이 몸의 일부에 닿는 경우
- ② 고의로 몸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공을 저지 또는 움직이게 하는 행위
- ③ 상대방의 공채를 몸으로 막는 행위
- ④ 상대방의 몸을 공채로 치거나 치려고 하는 행위
- ⑤ 상대방의 공격을 몸으로 막는 행위
- ⑥ 공을 구장(중선) 밖으로 쳐 내는 행위
- ⑦ 공격의 공이 횡선 밖으로 나가는 경우이다.

공치기의 승부는 언제나 중앙선 가운데 구멍에서 시작되며 공채로 공을 쳐서 상대방 골문에 넣으면 득점을 하는데, 한 번 넣으면 1점이 원칙이나 서로의 합의에 따라 구문 안으로 들어가면 5점이고, 구문이 아니라도 중선만 넘으면 1점씩 계산하기도 한다. 또 시간을 정해 놓고 점수를 많이 얻는 편이 이기는 방식도 있다.

기타 승부를 가리는 방법으로는 양편의 공채를 서로 한 명 씩 쳐서 부러뜨리는 편이 이기는 공채싸움과 양편이 한 사람씩 공을 던져서 멀리 간 사람이 많은 편이 이기게 되는 공던지기가 있다.

3) 들돌

지금의 운동 종목인 역도(力道), 역기(力技)를 연상케 하는 운동경기로 운동기구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큰 돌을 들어 힘겨루기를 했던 들돌 들기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음력 정월 보름부터 2월초하루 사이에 마을 빈터에서 무거운 돌을 들어서 힘겨루기를 하는 놀이이다.

들돌의 무게는 30kg, 79kg, 105kg, 114kg, 126kg, 192kg 등이 있고, 시합 요령은 ‘들돌 들기’와 ‘던지기’가 있으며, 들돌 들기에는 ‘땅짐, 무릎치기, 배지기, 가슴배기, 어깨넘기기’ 등 돌을 들어 올리는 무게와 높이에 따라 등위가 정해지고, 던지기는 가장 멀리 던지는 순으로 등위가 정해진다.

등위는 가장 무거운 돌을 많이 들어 올리거나 멀리 던지는 사람이 장원(壯元)이 되고, 다음이 무상(務上), 그 다음이 수총각(數總角)이 된다. 이때 입상한 사람들은 1년간 마을에서 두레일을 할 때 협동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고 마을에 분규가 있을 때 중재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명절이나 마을의 축제가 있을 때 길놀이행사의 주재자가 된다. 길놀이에는 장원과 무상을 소에 태우고 길을 누비면서 신나게 놀며, 마을에 들어와서는 대농가집을 찾아다니며 소를 파는 흥대를 내면 그 집에서 음식대접을 받아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우

기도 하였다.

4) 소싸움

소싸움은 소를 중심으로 하는 놀이로, 소를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여겼던 옛날에는 두 마을 또는 여러 마을에서 그 마을을 대표하는 소를 끌고 나와 연례적으로 소싸움을 벌여왔다. 봄부터 여름까지 아이들이 소 먹이러 가서 소들끼리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이웃마을과 자기 마을의 소들 중에서 가장 힘 센 소(황소)를 대표로 뽑아 추석부터 있는 큰판에 나가 마을대항 소싸움을 붙인다. 큰판은 소전(우시장)이나 소전이 있는 인근 광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상머슴이 고삐를 잡고 소를 싸움터에 끌고 가서 소의 굴레를 벗기고, 코뚜레를 빼고 나오면 소끼리 뿔을 마주치며 겨루기를 한다. 승부는 소가 밀리거나 달아나면 지게 되는데, 서로 떨어지지 않아 소가 다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옷을 벗어 들고 때리거나 암소를 몰고 들어가서 뺨다. 이긴 소는 목과 뿔에 비단과 종이꽃으로 장식을 하여 머슴이 타고 풍물을 울리면서 의기양양하게 주인집에 오면 주인은 머슴한테 술을 한 톱 낸다. 이 소싸움은 여름 동안 어느 집 머슴이 소를 잘 먹여 소 힘이 썩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으며, 소를 잘 먹인 머슴을 치하하고 장려하던 놀이로 지방 부농의 세 자랑이 되기도 하였다.

5) 춘양아씨 놀리기

한가할 때 부녀자들이 방안에 모여서 ‘춘양아씨 놀리기’를 하며 논다. 평소 신이 잘 내리는 여자가 방 한가운데 앉고 나머지는 그녀를 둘러앉는다. 둘러앉은 사람들이 주문을 외워주면 가운데 앉은 여자가 신이 내려 일어나 춤을 추며 논다.

3. 아동놀이

경남의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동놀이이다.

1) 공기받기

주로 계집아이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작은 돌을 가지고 노는 유희이다.

땅바닥에 널려 있는 여러 개의 돌 가운데 3개를 집어서 손등에 얹고 그 것을 공중으로 던져 그 중 한 개만 손바닥에 받아서 그 한 개를 다시 높이 던지고 나서 그 돌이 내려오는 동안에 땅바닥에 깔려있는 돌을 두 개 이상 줍고 올렸던 돌과 함께 받는다. 이것을 되풀이 하는데, 만약 돌을 주을 때 떨어뜨리거나 한 개를 집으면 자격을 잃게 된다. 실수하지 않

고 오래 계속하여 돌을 많이 줍는 쪽이 이기게 되는 맨살구가 있으며, 맨살구와는 같으나 맨살구에서는 두 개 이상 계속 주어 올리는 반면에 처음에는 한 개, 다음은 두 개, 다음은 세 개, 다음은 네 개만 주워 올리는 콩쫂아먹기, 그리고 여러 개의 돌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 가운데 세 개를 집어서 손등에 얹고 그것으로 땅바닥에 깔려 있는 돌을 내리쳐서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돌중에 하나를 집어서 높이 던지고 나서 그 돌이 내려오는 동안에 땅바닥에 깔려 있는 돌을 하나만 줍고 나서 내려오는 돌을 다시 함께 받는다. 이렇게 하여 땅에 깔려 있는 돌을 하나씩 주워서 모두 다 줍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 이상 집든지 옆의 돌을 건드리게 되면 자격을 잃게 되는 깨먹기가 있다.

2) 구슬치기

남자아이들이 수시로 하는 놀이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땅바닥에다 삼각으로 선을 그어 놓고 삼각에서 줄 쪽으로 구슬을 던진다. 이것을 ‘정’ 이라 부르는데 던진 구슬이 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1위가 되고 선 밖에 나가면 말위(未位)이다. 이렇게 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줄에 서서 삼각 안에 있는 구슬을 맞추어 쳐내어 밖으로 나오면 따는데, 앞 순번이 못 뺏을 경우에는 뒤 순서가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앞 순위가 던져 놓은 구슬을 뺏 순위가 맞으면 뒤 순위는 하나를 잃게 된다.

또 삼각에 있는 구슬을 쳐 내려가다가 던진 구슬이 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를 잃게 되는데 이것을 ‘대뺨’ 이라 부르며, 삼각에 있는 구슬을 칠 때 친 구슬이 삼각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거나 그어 놓은 선에 걸리면 역시 하나를 잃게 되는데 이것을 ‘킵’ 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삼각치기’ 라 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대방의 구슬을 향하여 던지거나 손가락 사이에 구슬을 끼워 튕겨서 상대방의 구슬을 맞으면 따게 되는 ‘맨치기’ 와 땅바닥에다 4개의 구멍을 파고 출발점에서 범구멍으로 넣는다. 어느 구멍에서나 넣지 못하면 굴러간 곳에 그냥 두고 다음 순번이 한 후에 놓여 있는 곳에서 실패한 구멍에다 넣고 계속하여 다음 구멍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여 범구멍에 구슬을 넣은 쪽은 공격의 자격을 얻게 되어 구멍에 넣지 못한 상대방의 구슬을 맞추면 그 구슬을 딸 수가 있는 ‘구시넣기’ 가 있다.

3) 눈쌈

아이들이 처마 끝이나 양지쪽 담벼락 아래에서 두 세 명이 모여서 하는 놀이이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눈을 부릅뜨고 누구든지 먼저 눈을 깜빡이는 사람이 지게 된다.

4) 땅빼앗기

여름날 어린아이들이 나무 그늘 밑이나, 골목길, 빈터 등 평평한 곳이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놀이로 깨진 사기조각을 주워 동전 크기로 다듬거나 동글납작한 작은 돌을 주워서 하는 놀이로, 땅바닥에 크게 원을 그리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원의 한 귀 통이에서 안쪽에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뺀 돌려서 이것을 반경으로 원을 그리고 그 그린 땅바닥을 자기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되풀이 하여 땅바닥이 좁아지거나 완전히 다 빼앗긴 쪽이 진 것으로 한다.

5) 돌차기

어린 계집아이들이 나무그늘 밑이나 평평한 땅바닥에서 하는 놀이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편을 갈라서 한다. 먼저 다섯 칸씩 두 줄을 만든다. 그리고 넷째 칸에 한쪽은 세로로 줄을 긋고, 한쪽은 칸 안에 원을 그려 놓는다. 각자 손바닥만 한 납작하고 차기 좋은 돌을 장만하여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부터 시작한다. 처음에 돌을 첫째 칸에 놓고 왼 쪽 발로 차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둘째, 셋째 칸으로 나오면 되는 것인데, 돌을 찰 때 조금이라도 그어 놓은 줄에 돌이 닿든지, 잘못 차서 칸 밖으로 나가든지 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많은 수를 올리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노는 방법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 4, 5, 6 등의 수로 모여 똑같이 두 패로 나누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남으면 ‘깎두기’라고 해서 어느 편에서나 해 주게 된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편이 먼저 첫째 칸에 돌을 차례로 던지는데, 깎두기부터 차례로 돌을 차며 나가되 돌을 차는 사람 이외는 발을 움직이지 못하며, 한 칸에 돌씩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1, 2, 3, 4 등의 순서로 돌을 차며 자기 칸으로 돌아온다. 모두 무사히 끝이 나면 둘째 칸으로 진출해서 돌을 그곳에 차례로 던지는데, 돌끼리 마주치면 돌이 다 죽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한명이라도 반칙을 하면 모두가 죽게 되며,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상대방 칸에는 침범할 수 없고 건너서 뛰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는 모두 눈을 감고 그 칸에 가서야 눈을 뜰 수가 있으며, 성공하면 그 칸에서만은 한번 발을 떼었다 놓을 수 있다. 이때는 돌을 X표가 있는 칸을 거쳐 수직으로 내려 차는데 만일 돌이 X표의 공간에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한 칸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하여 먼저 열 칸 까지 마치는 편이 이기게 된다.

6) 말타기(말뚝박기)

대체로 겨울철에 남자아이들이 양지바른 곳에서 하는 썩썩하고 재미있는 놀이로 한쪽이 4~5명씩 두 패로 나누어서 한다. 먼저 ‘가위 바위 보’ 를 해서 진편이 말(馬)이 되고, 이긴 편이 타게 된다. 진 편 중 한명이 담 벽에 기대어 마부가 되어 서고, 나머지는 허리를 구부리고 양 손으로 앞 사람의 허리를 제각기 꼭 잡고 있으면 타는 사람이 차례차례 뛰어 와서 등허리에 올라탄다. 그리하여 말을 탄 맨 앞 사람이 마부와 ‘가위 바위 보’ 를 하여 몇 번이든 이기는 편이 말을 타게 되고, 진편은 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탈 때는 말 탄 사람들이 서로 붙잡은 허리에서 손이 떨어지게 되면 지는 것으로 다시 말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한 아이가 마부가 되고 한 아이는 구부려서 마부의 겨드랑이 밑에 엎드려서 눈을 감고 다른 아이들이 뛰어와 말이 된 아이의 등에 타는 놀이 방법도 있다.

7) 바람개비 돌리기

이른 봄과 늦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남자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종이(10cm~15cm) 네 귀퉁이를 가위로 중심을 향하여 적당히 자른 다음 하나씩 자른 것을 중심점으로 모아서 작은 못을 빠지지 않도록 꿰는다. 그리고는 30cm 가량의 가느다란 막대기에 꿰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바람 따라 뛰어 다니며, 누구 것이 잘 도나 봐가면서 신나게 논다.

8) 손바닥 치기

여자 아이들이 둘이서 마주보고 앉아 손바닥을 마주 치면서 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를 할 때 동요를 지어 부르기도 한다.

(예)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똥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라로.

9) 실뜨기

여름날 처마 밑이나 대문간 또는 나무 그늘 밑에서 둘 이상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실을 한 발 가량 길게 끊어서 양 끝을 매어 이 실을 양손에 팽팽하게 당긴 후 실을 한 번씩 손바닥에 감는다. 실을 감은 후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왼 손바닥에 한 번 감긴 실을 당기고 왼 손가락으로는 오른 손바닥에 감긴 실을 당기면 X자 모양으로 둘이 생긴다. 그러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실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안으로 혹은 밖으로 뒤집어서 실이 맺

히지 않도록 젓가락이나 절구통 모양으로 짜가며 노는 것이다.

10) 제기 차기

어린 아이들이 마당에서 하는 놀이로 예전에는 염소나 양털에 연(鉛)이나 쇠붙이 같은 것을 달아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나일론 종이를 길게 자르고 엽전 등 쇠붙이를 싸서 제기를 만든다.

한발로 한 번 차고는 발을 땅에 댔다가 다시 반복하는 ‘맨 제기’가 있으며, 한 발로 한 번 차고는 발을 땅에 대지 않은 채 계속하여 차는 ‘개척구’ 그리고 두발로 교대로 차는 ‘쌍발제기’가 있다.

11) 줄넘기

어린 계집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이다.

5미터 가량의 가느다란 새끼줄 하나를 양편에 서로 잡고 선다. 가운데 사람이 수에 맞추어 또는 노래에 맞추어 높이 뛰었다가 낮게 뛰었다가 하면서 일정한 형식을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한다. 뛰는 도중에 줄에 걸리거나 틀리게 할 때는 줄을 바꾸어 잡고 다른 사람이 줄을 넘게 된다. 두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잡고 또 한 쪽은 나무에 매어 놓고 하며, 네 사람 이상의 경우에 편을 갈라서 한다. 줄이 길고 인원이 많을수록 더 재미나는 놀이이다. 노래는 대개 2박자 4박자 형의 노래를 부른다.

(예)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 꼬마야 꼬마야 하늘을 보아라/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인사를 하여라 /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12) 고무줄놀이

주로 계집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고무줄을 길게 이어 두 줄을 만들어 발목이나 허리에 두르고 놀기도 하며, 삼각형을 만들어 놀기도 한다. 줄의 높이를 달리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발을 바꾸어 뛰면서 재미있게 논다.

(예)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 앵두 따다 실에 꿰어 목에 다 걸고 /
 검둥개야 너도 가자 냇가로 가자.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천리 / 무궁화 이 강산에 역사반만년 /
대대로 이어 사는 우리 삼천만 / 복 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라네.

13) 호드기 불기

이른 봄 나뭇가지에 물이 오를 때 쫘 사내아이들이 냇가 버드나무나 포플라 가지를 꺾어 비틀어 껍질을 통째로 뽑아 그걸로 피리를 만들어 불고 다니면서 노는데 이 버들피리를 ‘호드기, 햇대기, 홀때기’ 라고 한다. 어른들은 ‘호드기’ 를 불면, 뱀이 온다고 하여 집 안에서는 못 불게 하였다.

14) 낮치기

여름철 남자 아이들이 풀(풀)을 베기 위해 산에 올라가 하는 놀이이다. 먼저 ‘가위 바위 보’ 로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낮을 일정한 거리에 던진다. 이 때 던진 낮이 넘어지지 않고 낮 끝이 땅에 꼳꼳하게 꼳히면 이긴다.

15) 까막잡기

10명 내외의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이다. 먼저 ‘가위 바위 보’ 로 술래를 정하여 술래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다. 나머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피해 다니면 술래는 소리 나는 쪽을 따라가서 한 사람을 잡게 된다. 잡힌 사람이 술래가 되어 이 놀이를 반복을 하는데 한 사람이 세 번 잡히면 벌칙을 받는다.

16) 문 놀이

달이 환한 여름밤 골목에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이다.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 2명은 문지기로 삼고, 나머지는 일렬로 줄을 지어 어깨나 허리를 붙잡고 서서 노래를 부르며 차례차례 문으로 들어갔다 돌아 나왔다는 반복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문지기가 맞잡은 손을 아래로 내려 한사람을 잡는다. 잡힌 사람은 열에서 빠지고 나머지 사람이 다 잡힐 때까지 계속한다.

(예) 동동 동대문을 열이라 / 남남 남대문을 열이라 / 열두시가 되며는 문을 닫는다.

17) 수건놀이

보통 소풍 때나 야외에서 하는 놀이이다. 모두 원을 그려 빙 둘러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며 노는데, 먼저 한사람이 수건을 들고 원을 그려 앉은 사람들의 뒤를 뱅뱅 돌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놓고 싶은 사람의 뒤에다가 몰래 수건을 놓고 한 바퀴 돌고는 자기 자리에 앉는다. 앉아 있던 사람들은 자기 뒤에 수건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재빨리 일어나서 수건을 가지고 앞의 사람이 하던 것처럼 계속하게 되는데, 자기 뒤에 수건이 놓인 것을 모르고 계속 앉아서 노래 부르며 손뼉 치고 있다가 수건을 놓고 간 사람이 원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등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은 ‘엉덩이로 이름쓰기’ 등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된다.

18) 오자미 놀이

겨울철에 계집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로 형겁으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보리나 쌀 또는 모래를 가득 넣고 입구를 봉한 것을 ‘오자미’ 라고 부른다.

여러 개의 오자미를 만들어서 두 명 이상의 여자아이들이 모여 ‘가위 바위 보’ 를 하여 이긴 순으로 시작하는데, 오자미를 모아 놓고 손으로 한 개만 주워서 공중으로 올리면서 재빨리 또 한 개를 집어 올리고 앞에 올린 것을 되받는다. 이렇게 하여 오자미 모두를 손에 잡고 땅에 떨어뜨려 놓으면서 공중의 것을 받는 놀이이다. 또 오자미를 땅이나 마루에 놓지 않고 서서 한 손으로 오자미 2개를 번갈아 올리면서 하기도 한다.

19) 손가락 감추기

아이들이 모이면 하는 놀이로 ‘가위 바위 보’ 를 하고 이긴 사람부터 차례로 뒤로 돌아앉아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게 두 손으로 각지를 끼는데 마주 각지를 낄 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손가락을 각지 속에 집어넣고 다른 아이들이 감춰진 손가락을 찾게 한다. 이 때 숨겨진 손가락을 찾는 아이가 이기게 되고, 찾지 못한 아이들은 이마에 손가락을 튕기는 벌을 받게 된다.

20) 각시놀이

따뜻한 봄이 오면 어린 계집아이들이 나무쪽 끝에다 풀끝을 실로 매고 머리를 땅아 가는 다란 나무로 쪽을 지고, 형겁조각으로 나무 조각에 노랑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만들어 입혀 새각시 모양을 만들어 ‘요, 이불, 베개, 병풍’ 을 차려서 혼례식 흥내를 내면서 장난을 하고 노는 것이다.

21) 꽃쌈

주로 여자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6명 정도의 아이들이 각기 자기 짝을 정하여 ‘가위, 바위, 보’, 로 편을 갈라 놀이를 하게 되며, 자기편이 정해지면 다시 자기편의 대장이 나와 ‘가위, 바위, 보’, 로 승패를 가른다. 이긴 편은 진편을 향해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서고, 진편은 상대편을 바라보며 똑같이 선다. 이 때 각 팀은 7~10m의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놀이가 시작되는데 먼저 이긴 팀이 진 팀 쪽으로 발을 내디디고 ‘이겨서 재미나다 / 무궁화’ 하며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다가 ‘무궁화’ 하고 노래가 끝날 때 한 발을 획 올리며 ‘약 오르지’ 하는 투로 나와 제자리로 급히 돌아간다. 그러면 진편은 똑 같은 식으로 ‘쳐서 슬프다 / 장미꽃’ 하면서 역시 한 쪽 발을 획 올리며 ‘부럽지 않아’ 하는 식으로 내밀고는 제자리로 들어간다. 다시 이긴 편이 처음과 같이 ‘우리 집에 왜 왔니 / 왜 왔니 / 왜 왔니?’ 하면 진편은 ‘꽃을 찾아 왔도다 / 왔도다 / 왔도다’ 한다. 그러면 이긴 편은 또 ‘무슨 꽃을 찾겠니 / 찾겠니 / 찾겠니?’ 한다. 그러면 진편이 이긴 편사람 중에서 자기네들이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의 이름 뒤에 ‘꽃자’ 를 넣어 ‘누구누구 꽃을 찾겠다 / 찾겠다 / 찾겠다’ 하면, 이긴 편은 그 사람을 능가할 만한 사람을 상대편에서 물색하여 ‘누구누구 꽃을 찾겠다 / 찾겠다 / 찾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름이 불리어진 양쪽편의 사람은 대열에서 나와 한 쪽 다리를 내밀어 서로 발 측면이 닿도록 하여 서로 팔을 잡아 당겨 힘겨름으로 승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패지는 승자의 편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쪽 선수가 없어질 때까지 놀이를 계속한다.

22) 달집 그슬리기

음력 정월 보름날 경남 각지에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신적인 세시풍속 놀이이다. 음력 정월 보름날 달집을 만들어 놓고 마을 어귀나 산기슭, 언덕, 고개마루 등지에서 기다리다가 달이 떠오르면 달집에 불을 붙인다. 주로 한 마을의 소년들이 이웃끼리 몇 명씩 무리지어 하게 되는데, 막대기 셋을 원추형으로 세우고 2면만을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감싼다. 이엉으로 싸지 않은 1면은 반드시 동쪽을 향하게 하고 그 면 중앙에 새끼줄로 달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어 매어단다.

달이 뜨기 전 달집에 모여 달이 뜨기를 기다리다가 달을 맨 먼저 본 사람이 점화하며 달을 보고 절을 한다. 1년의 길흉화복을 기원하는 신앙적인 속신으로 점화를 하고 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녀자와 노인들도 나와서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며 절을 한다. 아이들은 그 불에 콩을 구워 먹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1년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어른들은 달의 모양을 보고 1년간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달이 맑고 둥글면 풍년이요, 달이 희미하고 흐릿하면 흉년이요, 달 옆에 별이 가까이

보이면 비가 많으며, 달 옆에 별이 멀리 보이면 가문다고 생각한다.

23) 돈치기

주로 음력 정월 명절이나 추석에 청소년들이 즐기는 놀이로 척전(擲錢) 또는 투전(投錢)이라고 한다. 땅바닥에 돈치기 판을 그리는데 던지는 곳에서 약 2m에서 2.5m의 거리에 구멍을 파기도 하며, 그 자리에 조개껍질을 박기도 한다. 사용하는 돈은 10원짜리 동전이며, 치는 물건은 알곡한 돌이다. 돈을 구멍에 던진 다음 순서대로 돌로 쳐서 여럿 중에 하나만 맞으면 그 사람이 모두 다 가지며, 두 개 이상을 맞으면 무효가 되는 ‘모떼기’와 맞힌 것 하나만 가지며 맞히지 못하면 다음순서로 넘어가게 되는 ‘푼내기’와 겹쳐져 있는 돈을 헤쳐 놓으면 가지게 되는 ‘사깨기’ 등이 있다.

24) 못치기

늦가을이나 겨울철 양지바른 곳에서 남자 아이들이 두세 명씩 어울려서 하는 놀이로 땅이 푹푹 얼어붙어도 안 되고, 질어도 안 되는 다소 습기가 있는 말랑말랑한 땅이 적합하다. 대못 몇 개씩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못 머리를 두 손바닥 사이에서 꼭 끼우고 힘을 주어 땅바닥에다 내려친다. 이렇게 한 후에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아이가 진 아이의 땅에 꽂혀있는 못에 힘껏 내려던져 못이 상대방의 못을 넘어뜨리면 이기게 되고, 넘어진 못은 자기 소유물이 된다. 이기기 위해서 못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 예리하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큰 못이 없을 때는 보통 굵은 철사를 끊어서 못과 같이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지금은 자취를 감춘 놀이이다.

25) 자치기

겨울철 주로 남자 아이들이 하는 놀이이다. 도구로는 나무막대기로 만든 어미자(60cm 또는 40cm)와 새끼자(약 12cm)가 있고, 땅바닥에 흙을 파서 구멍을 만들어 놓고, 2명이 하기도 하며, 여러 명이 하기도 한다.

노는 방법으로 ‘방구’가 있는데, 이것은 새끼자를 구멍 앞 쪽에 약간 나오도록 놓고 새끼자의 앞 끝을 어미자로 힘껏 치면 새끼자가 위로 튀어 오르게 되는데 튀어 오른 새끼자를 어미자로 다시 쳐서 멀리 날려 보낸다. 새끼자가 떨어진 곳과 구멍과의 사이를 어미자로 1, 2, 3자 식으로 세어 가장 멀리 나간 편이 이기게 되고, 새끼자가 공간에 날아가는 도중 상대방이 이것을 잡아버리면 친 편은 자격을 잃게 되고 상대방은 100자를 잃게 된다.

또한 구멍에 있는 새끼자를 어미자로 칠 때 실수하여 땅을 치거나 맞은 새끼자가 구멍 뒤 쪽으로 날아가면 자격을 잃게 되는 방법이다.

또 ‘걸어 던지기’ 는 구멍에 새끼자를 가로 걸쳐놓고 어미자를 새끼자 사이에 끼워서 걸어 던지는 방법인데, 이때 수비 측에서 새끼자를 잡아버리면 수비 측은 50자를 얻게 되고 공격 측은 0이 되어버리며 동시에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나 수비 측이 잡지 못하여 새끼자가 땅에 떨어졌다면 수비 측은 새끼자를 공격 측 진(陣)에 던져준다. 이 때 공격 측은 어미자로 던져오는 새끼자를 공중에서 멀리 쳐낸다. 새끼자가 떨어진 곳과 구멍과의 거리를 어미자로서 재어 그 자수를 센다. 새끼자를 쳐낼 때 수비 측에서 잡게 되면 수비 측은 150자를 얻게 되고, 공격 측은 0이 된다. 수비 측이 구멍이 있는 진에 새끼자를 던질 때 공격 측은 때리지 못하여 새끼자가 진 안에 들어가면 공격 측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여 자수가 많은 편이 이기게 된다.

26) 재 밟기

주로 여자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맨 앞 사람이 청마루나 섬돌 같은 데에 두 팔을 의지하고 엎드리면 다음 아이들은 앞사람의 허리를 붙잡고 쪽 늘어서서 엎드린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아이가 엎드린 사람들의 등을 밟으면서 꼬리 쪽까지 지나가게 되는데 밟을 때에는 엎드린 줄 양쪽에 사람이 서고 긴 막대기를 양쪽에서 서로 끝을 잡고 있으면 밟는 사람은 그 막대기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손을 땅에 대고 궁둥이를 높이 들면 다음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되 머리를 앞사람의 가랑이 사이로 넣는 식으로 연결을 한다. 그런 다음 그 위를 밟고 나서 맨 꼬리에 붙으면 맨 앞사람이 밟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27) 팽이 돌리기

주로 겨울철에 남자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팽이를 던져 돌려서 줄을 팽팽히 잡고 그 줄로 돌고 있는 팽이를 밀어서 서로 부딪치게 하여 가장 오래 남아서 도는 것부터 순위를 정하게 되는 ‘찌게 돌리기’ 와 동시에 던져서 가장 오래 도는 사람이 1등을 하게 되는 ‘옆치기 돌리기’ 긴 노끈으로 팽이의 몸을 감아서 던져 돌리는 것이 아니라 팽이채로 쳐서 돌리는 방법으로 자기 팽이를 채로 쳐서 상대방 것을 쓰러뜨리는 ‘채팽이’ 방법이 있다.

28) 업어주기

겨울철 남자아이들이 야외에서 많이 하는 놀이로, 대개 인원은 열 한 사람으로 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술래가 되고 나머지 열 사람은 두 패로 나뉜다. 돌이나 종이 등으로 물건 셋을 준비한 다음 ‘가위 바위 보’ 를 해서 진편이 술래에게 준비한 물건을 주면 술래는 정해진 구역 안에 이긴 편이 보지 못하게 물건을 감추고 나서 다 감추었음을 알린다. 그러면 술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긴 편이 감춰놓은 물건을 찾아 사방을 헤매는데, 만일 찾는 편이 감춘 물건 셋을 다 찾아내면 술래에게 주어서 다시 감추게 하고 반대편이 물건을 찾아 나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감춘 물건을 다 찾아 낸 편이 이기게 되는데, 진편은 이긴 편 한 사람씩을 업고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오는 놀이이다.

29) 도둑잡기

어린이들이 네 명 이상이 모이면 방안에서나 야외에서 하는 놀이로 종이를 조그맣게 자르고 거기에다 ‘서장, 형사, 도둑놈, 백성’ 등을 기입하는데, ‘서장, 형사, 도둑놈’ 을 제외한 나머지는 ‘백성’ 이 된다. 이렇게 다 쓴 종이는 글씨가 안보이게 접어서 뒤집은 후 아무것이나 하나씩 집어다가 펴보고 내가 무엇인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장’ 이라고 쓴 종이를 집은 사람이 스스로 ‘형사야 도둑놈을 잡아 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형사가 된 사람은 서장을 제외한 여러 사람의 눈치를 살펴보아 도둑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지적한다. 만약 바로 알아 맞추면 지적당한 사람은 서장에게 끌려가서 팔뚝을 맞는다. 허나 형사가 사람을 잘못 지적을 하게 되면 지적당한 사람이 형사의 팔뚝을 때린다. 그리고 가졌던 종이를 다 내어 놓고 다시 섞어서 반복하여 놀이를 한다.

30) 여우놀이

여름날 나무그늘 밑에서 계집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이다. ‘한 거리, 두 거리, 세 거리’ 하면서 맨 끝에 있는 아이를 술래로 정하고 이 술래를 ‘여우’ 라고 부른다. 여우가 멀리 가서 자는 척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고개 넘고 / 두 고개 넘고 / 세 고개 넘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술래가 있는 쪽으로 한걸음씩 옮긴다. 여우가 있는 곳에 이르면 일제히 입을 모아 여우를 부르며 ‘여우야 / 여우야 / 밖에 나가 놀자’ 하면 술래는 ‘잠잔다’ 하고, 다시 아이들이 ‘잠꾸러기’ 하면 (술래) ‘세수한다’ (아이들) ‘멋쟁이’ (술래) ‘밥먹는다’ (아이들) ‘무슨반찬’ (술래) ‘개구리반찬’ (아이들) ‘죽었나? 살았나?’ 한다. 이때에 술래가 ‘죽었다’ 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서서 움직이지 않아야한다. 만일 움

직이게 되면 술래가 된다. 반대로 술래가 ‘살았다’ 하면 재빨리 멀리 달아나야 하는데 달아나다 술래가 ‘제자리에 서’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면 술래는 최대한 발뚧을 크게 하여 한발, 두발, 세발까지 재어 손이 닿는 아이는 여우에게 잡아먹힌다. 여우에게 잡아먹힌 아이가 다시 술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즐겁게 논다.

31) 풀잎놀이

봄이나 여름철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로 사람 수대로 각각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풀잎을 따서 제각기 아무도 보지 않게 살짝 땅을 파고 숨겨 놓는다. 그리고 난 다음 숨겨 둔 풀을 하나씩 찾아내어 풀잎의 이름 맞추기를 하는데 풀잎 이름을 제일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32) 숨바꼭질(술래잡기)

달 밝은 밤이면 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이다. 여러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곳곳에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놀이로, 나무나 담벼락 등 일정한 장소에 술래 집을 정해 놓고 술래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술래를 제외한 아이들은 각자 흩어져 푹푹 숨는다.

조용해지면 술래가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데, 숨어 있던 아이가 술래가 찾기 전에 먼저 술래 집을 짚으면 술래는 계속해서 술래가 되어야 한다. 술래는 찾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보다 먼저 술래 집을 짚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찾긴 아이가 먼저 술래 집을 짚으면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술래가 아이들을 모두 찾으면 맨 먼저 찾긴 아이가 술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가위, 바위, 보’ 로 술래를 다시 정하기도 한다.

33) 굴렁쇠 굴리기

주로 아이들이 즐기던 놀이로, Y자형 막대 끝에 둥근 테 모양의 쇠 또는 대나무를 대고 굴리면서 달리는 놀이이다. 나무로 만든 술통을 뉘어 굴리며 놀던 데에서 유래하며, 이것이 변하여 대나무로 만든 둥근 테를 막대기 끝부분이 Y자 모양으로 된 손잡이로 넘어지지 않게 받쳐 굴리면서 놀았다. 대나무 테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굵은 철사로 만들기도 하며, 장구 테나 작은 수레바퀴, 또는 자전거 바퀴 같은 폐품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잊혀져 가는 옛 놀이 가운데 하나이나 민속놀이 행사장이나 체육행사장 같은 데에서 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전 행사 때 한 소년이 굴렁쇠를 연희

하기도 하였다.

34) 싹잡기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모이면 닭과 살팽이를 1명씩 정하고 나머지는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손에 손을 잡는다. 닭은 원안에 살팽이는 원 바깥에 있는데, 손을 잡은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손을 위 아래로 흔들며 밖에 있는 살팽이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안에 있는 닭은 살팽이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데, 살팽이가 안으로 들어오면 닭이 밖으로 나가도록 손을 쳐들어 문을 만들어 준다. 이때 닭이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고 살팽이에게 잡히면 닭과 살팽이가 바뀌어 다시 놀이는 계속된다.

35) 다리뽑기

주로 계집아이들이 방안에서 하는 놀이이지만 남녀 구분 없이 한다. 여러 명이 서로 마주보며 다리를 상대방의 다리 사이에 하나씩 엇갈려 들어가게 뽑는다. 그리고 다리 하나하나를 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예를 들면

(예) 이똥 저똥 간지똥 / 구렁내가 난다 뽕.

(예)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 진주맹건 또맹건 짝마리 행건 /

도래미춤치 장도칼 / 머구발에 떡서리 /

칠팔월에 무서리 / 동지선달 대서리 /

이렇게 하고 나서 ‘뽕’에 해당되는 다리는 오므리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리 하나가 남을 때까지 계속한다. 마지막에 남은 다리의 주인공은 심부름이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정해진 벌칙을 받는다.

36) 그림자놀이

전깃불이 없던 시절 등잔불이나 촛불로 밤을 밝혀가며 형제나 이웃 아이들끼리 모여앉아 그림자놀이를 하였다.

개, 토끼, 사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손 모양을 바꾸어 가며 불빛에 비추어 벽에다 그림자를 만들어 내는 놀이인데, 손만으로 모양을 만들기 어려운 때에는 종이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 놀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자를 마음대로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을 상상의 세계로 이끌기에 충분한 놀이였다.

제 3절 고성오광대

1. 고성오광대의 형성과정 및 구성

1) 형성과정

고성은 기름진 넓은 들판과 넉넉한 산세가 어우러진 곳으로 고성의 옛 지명은 철성(鐵城)이다. 철제련에 뛰어났던 가야와 관련된 이름이다. 실제로, 고성은 소가야(小伽倻)의 중심지였고 그 문화유적은 지금도 발굴되고 있다. 가야는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만들었을 정도로 문화적 창조력이 뛰어났던 곳이다. 현재의 고성사람들은 그러한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뿌리 깊은 전통 위에서 오늘의 고성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수천 년의 뿌리를 가진 문화전통 위에 넉넉한 경제적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고성만의 전통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 문화속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놀이가 바로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이다.

고성오광대는 고성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연희는 아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연희양식들을 재창조한 것이다. 철제련하듯 여러 양식들을 한 곳에 녹여내어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다. 그래서 고성오광대에는 고성사람들만의 넉넉함과 창조성이 조화되어 있으며 그 속에는 들판에서의 노동을 쉬게 하는 휴식이 있고 삶을 풍족하게 하는 여유가 있다.

고성오광대는 경남 고성지방에 전승되어 오는 탈놀이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로 지정되었다. 오광대는 다섯 광대 즉, 다섯 명의 탈을 쓴 등장인물이 연희하는 놀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설과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광대라고 칭한다는 설이 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가름할 수 없다. 다만 낙동강 서부지역에서 놀아지는 탈놀이의 일반 명사처럼 받아들이면 된다. 150~200년 전부터 낙동강동부지역(부산지역 : 동래야류, 수영야류)에서 놀아지는 탈놀이를 들놀음 혹은 야류(野遊)라 하고 낙동강서부지역(경남남부 : 김해, 통영, 가산, 창원, 진주, 합천군 등)에서 놀아지는 탈놀이를 오광대놀이라 한다. 야류는 들놀음의 한자표기인데 쓰기는 야유(野遊)음의 한자를 쓰지만 야류를 연희하는 사람들은 야류라 읽는다. 그래서 야유라 하지 않고 야류라 한다. 오광대놀이와 야류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오광대는 그 계통을 따져서 산대도감계통(山臺都監系統)탈놀이이라고 하고, 분포지역에 따라 한국 탈놀음의 영남형(嶺南型)이라고도 하며, 조선조 도시

발달을 배경으로 하여 성장해 온 것으로 보고 도시탈춤으로 갈래짓기도 한다.

고성오광대의 가면을 가면의 유형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예능가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능가면이라고 하여 예능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능가면이라고 해도 풍요제 의적 속성이나 벽사가면의 기능을 내재시키기도 한다. 고성오광대도 다른 탈놀이와 마찬가지로 고된 노동을 마치고 난 다음 고통을 덜면서 더불어 삶의 흥을 돋우는 예능의 기능을 우선시 했는데 병을 물리치며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禘)적 요소도 담고 있다.

고성오광대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① 예전에 관속들이 탈놀음을 하였는데, 가면은 지금의 것과 비슷하였으나 내용과 동작이 달랐다고 한다. ② 120여 년 전(1980년 현재)에 정화경이란 분이 탈놀음을 잘 하였다고 한다. ③ 홍성락(1887~1970)에 의하면 100여 년 전(2015년 현재) 통영(현 충무사) 미륵산의 용화사 뒤 잔디밭에서 노는 통영오광대를 고성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는 놀이이니 한 번 해보자고 하였다. 때마침 피괴질을 피하여 문수암에 머무는 기회가 있어 연습을 하고 놀이를 시작하였다한다. ④ 김창후(1887~1965)에 의하면, 자기는 창원의 이군찬에게서 오광대를 배웠는데 오광대는 밤마리, 창원, 통영, 고성 순으로 전파되었다. ⑤ 조선조말 고성읍의 선비들인 북촌파는 부유층이 모여 주로 오음육률(五音六律)을 즐겼고, 남촌파는 서민층이 모여서 시조창이나 농악을 즐겼다. 그런데 1900년경 창원 태생으로 고성의 관속이었던 이순오가 남촌파 사람들에게 탈놀음을 전수했다고 한다. ⑥ 통영오광대 연희자였던 장재봉(1896~1966)옹에 의하면, 고성오광대 연희자 홍성락(1887~1970)은 원래 통영 사람으로 자기의 맏형 장진국에게서 오광대를 배웠고, 오광대는 밤마리, 수영, 동래, 창원, 통영, 고성 순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⑦ 창원의 진양월이라는 기생(창원의 오광대 연희자 이군찬의 생질녀)이 창원의 오광대를 구경하고 고성에 와서 놀아 보았으나 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면 조선조 말기에 고성에는 관속들의 탈놀음이 있었으며, 이와는 달리 19세기말에 남촌파 인사들이 마산오광대를 전수받아 오늘날과 같은 고성오광대 놀이를 성립시켰다. 그 전파경로는 통영을 거쳤거나 통영보다 조금 뒤에 직접 마산오광대를 전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파 초기에는 고성과 통영의 오광대가 거의 비슷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고성에서는 연희자들이 일심계(一心契)를 조직하여 오광대놀음을 하였다. 이윤화(양반역)·정화경(말뚝이역)·김성범(양반역)·이태준(말뚝이역) 등이 초기 연희자로 활약하였고, 김인찬이 만든 목제가면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들에게서 놀이를 전수받은 김창후(1887~1965), 홍성락(1887~1970), 천세봉(1892~1971) 등이 1960년대에 재연에 참가하고 고성오광대를 오늘에 전하고 있다. 김창후옹은 1965년에 작고했는데 그의 회고담에서 “60여년 전에 정화경, 이윤화, 이태준, 김성범 등에게서 오광대를 배웠다.” 고 슬회한 바 있다고 한다. 이런 점으

로 미루어 보면, 고성오광대는 늦어도 십구세기 후반기까지 완전한 놀이의 격식을 갖추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19세기에 격식을 갖춘 탈놀이인 만큼 전통적 연희방식과 함께 개화기와 이후의 근대사 변화를 담아내는 연희방식과 내용이 고성오광대에 들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고성오광대 모습을 갖추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예인은 조용배(1929~1991), 허현도(1921~1995), 허중복(1930~1995), 허환세(1921~2000), 이윤순(1918~2011) 등이다.

궁궐의 나례가 그랬듯이 고성오광대 놀이 또한 주로 음력 정월 보름날에 주로 연희되었다. 정월 초순에 일심계원들이 농악대를 편성하여 고성읍내의 각 가정과 상점을 돌며 걸립을 하여 오광대놀이 비용을 마련했다. 한편 공연하기 7~8일 전에 도둑골 산기슭에 있는 잔디밭에서 오광대 탈놀이를 연습을 했다. 그리고 놀이 당일날 오후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 오광대패가 풍물을 울리며 읍내를 한 바퀴 돌고 탈놀음 장소인 고성장터 넓은 마당으로 가서 밤새워 놀았던 것이다. 이밖에 객사마당이나 무량리 잔디밭에서 놀이를 한 적도 있었다. 마당놀이였던 오광대의 놀이판은 특별히 무대를 마련한 것이 아니다. 놀이마당에서 연희자가 놀이하고 한편에 악공들이 앉아서 장단을 맞추며 관객들은 그 둘레에 앉거나 서서 구경하였다. 연희공간의 형태는 평면 원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놀이판의 넓이가 큰 명석 5~6장 정도의 크기였다고 한다. 저녁에 공연할 때에는 놀이판 가장자리에서 사람의 키보다 높게 장작을 쌓아 모닥불을 피워 놓고, 그 옆에 악공들이 앉았으며 또 놀이판 둘레에 몇 군데 횃불을 밝히기도 하였다. 저녁놀이는 탈이 자연 조명이라 할 수 있는 모닥불과 횃불의 일렁이는 불빛을 받는데, 움직임에 따라 그 받은 각도가 달라져 탈의 표정이 수시로 변하여서 놀이가 더욱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이 장작은 조명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정월달의 추위를 녹이는 난방의 역할도 했으리라 본다.

정월보름 외에 농한기를 이용해 자비추림의 공연을 하거나 봄철에 일심계 모임을 가지게 되면, 밤내 자갈밭에서 오광대를 놀고 시내에서 고기를 잡아 국을 끓여 술을 마시며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이때에도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다. 이렇게 해마다 놀던 고성오광대가 1930년대 말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광복이후 군민의 요청으로 정월 보름과 팔월 추석에 읍내 가야극장과 시민극장에서 상연한 일이 있었다. 고성오광대는 원래 놀이꾼이 스스로 즐거워서 노는 자족적인 놀이였다. 그러므로 걸립으로 받은 곡식과 돈으로 놀이비용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일심계원들이 부담하여 장터나 밤내의 공연에서는 관객에게 무료로 구경을 시켰으나 극장에서 상연할 때에는 입장료를 받았다고 한다.

1960년대에 들어서 고성오광대는 남산에 있는 노인정과 노인정 주변의 몰티재 등지에서 주로 연습하고 놀았다. 당시에는 독지가 몇 명의 지원이나 명절 때 회원들의 추림으로 공

연을 준비하거나 놀이판을 벌였다. 1970년대에는 남산에 작은 전수회관을 마련하여 전국민속경연대회 등에 참여하며 고성오광대 이름을 전국에 알렸고 이때부터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후락한 교통편이었지만 천리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고성오광대를 전수받기 시작했다. 그 전통은 2012년 현재의 전수회관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 구성

현재의 연회는 제1과장 문동복춤, 제2과장 양반과장, 제3과장 비비과장, 제4과장 승무, 제5과장 저밀주(제밀주) 순으로 공연한다. 고성오광대의 연출 형태는 다른 한국민속가면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면을 쓴 연희자가 춤을 추고 동작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때로는 노래하는 탈춤놀이이다. 춤은 굿거리 장단에 따라 덧배기를 춘다. 남사당의 탈놀음을 덧배기라 부르는 것처럼 탈춤 자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덧배기춤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토속무로 일자(一字)사위와 활개춤이 주류를 이루며 한 번 씩 배기는 허튼춤이다. 등장인물 일동이 추는 춤은 과장과 과장을 나누어주는 구실을 하면서 주제가 다른 과장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구실도 한다. 동작은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게 연기하는데, 대체로 몸짓의 폭이 큰 과장적인 표현을 한다. 대화는 흔히 재담이라 하며 재치와 풍자적으로 가사를 고쳐 부르기를 위주로 한다. 대사는 비교적 고정적인 구비관용구와 그 때 그 때 변하는 즉흥적인 말로 구성되어 있다. 연희공간이 원형이라 등장인물이 대화를 할 때에는 빙 돌면서 같은 말을 몇 번 말하는 경우가 잦아 반복적인 대화 표현이 많다. 노래는 사건의 줄거리와 관계가 있는 것도 부르고 극적 분위기를 돋우는 것도 있다.

고성오광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거리로 된 연희가 아니라 주제가 다른 몇 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었다. 그 과장의 주제는 다른 오광대와 같으나 앞뒤에 오방신장무나 사자무 같은 벽사진경의 의식무가 없고, 주로 오락성이 강한 과장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고사는 정기공연 때만 올리는데 탈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지신과 천신, 고성오광대를 놀았던 선사들께 탈놀이의 시작을 고하는 의식으로 유교적 제례절차와 굿의 부정거리 요소가 결합된 형식으로 진행된다. 탈고사는 젓상을 마련하고 주변에 깃발과 신간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세우며 제상 좌우에 공연 때 쓸 탈을 놓는다. 그리고 고인이 된 고성오광대의 예인들 사진을 놓는다.

가. 문동복춤 : 문동복춤의 여러 동작은 슬픔과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삶의 중요한 부분들도 보여 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농사짓는 모습, 수확하는 모습, 수확된 곡식(보리)을 갈아서 바람에 날려 깍지를 버리고 먹는 모습, 손에 붙은 파리를 잡기 위해 어르

는 모습, 잡은 파리를 입에 넣는 모습, 코를 푸는 모습 등도 보여 준다.

문동북춤의 특징은 한을 표현하는 전반부와 한의 승화를 표현하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천형의 한을 드러내는 슬픔의 춤이 전반부를 이룬다면 북과 북채를 켜 채 한을 승화하는 기쁨의 춤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다.

나. 양반춤 : 마부인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대사를 주고 받으며 양반과 어울려 춤을 추는 과장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원양반 1명, 짓양반(결양반) 2명, 양반3명이 등장했으나 요즘은 중앙황제양반, 동방청제양반, 서방백제양반, 남방적제양반, 북방흑제양반 5명과 흥백양반, 종가도령이 등장한다. 양반 중에는 중앙황제양반이 춤과 동작선을 주도한다. 특징적인 춤으로는 배김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반들과 말뚝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배김새는 힘차면서도 조화롭다. ‘고개사위’ 하면서 가운데를 향해 ‘안쪽보기’ 사위를 취하기도 하고 바깥을 향해 ‘앞아배기기’ 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 정적이면서 동시에 동적인 한국춤의 정수가 보여진다. 또 양반 5명과 흥백가, 종가도령 등 7명의 양반계 등장인물과 말뚝이가 함께 추는 군무, 그 중에서도 ‘까치걸음’ 과 그 중에서도 ‘칼뿔기’ 춤 사위는 우주의 기운을 모아들이는 신비로움을 보이면서 군무의 조화로움까지 보여 준다.

양반춤은 고성오광대가 민속연회에서 보여주기 위한 공연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말뚝이 춤은 양반춤보다 보폭이 크고 고개사위도 크다. 그래서 삶의 힘이 넘치는 존재로 그려진다.

다. 비비양반춤 : 양반 아흔 아홉 명을 잡아 먹은 상상의 동물 비비가 양반 한 명을 더 잡아먹어야 승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비양반을 격렬하게 몰아부치는 과장이다. 비비양반의 부채와 지팡이가 긴장감을 돋우는 소품으로 작용한다. 비비는 다른 오광대와 달리 ‘비비’ 하는 호드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악사석에서 태평소로 ‘비비’ 하고 소리를 낸다.

라. 승무 : 승무과장은 승려의 파계적 행동을 보여주는 과장이다. 선녀(소무에 해당)가 먼저 등장하여 춤을 추고 있으면 뒤이어 승려가 등장하여 선녀를 유혹하여 함께 퇴장한다. 유혹하려는 존재가 먼저 등장하여 유혹의 함정 즉, 유혹의 분위기를 형성한 다음 유혹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등장하여 이 분위기에 휘말리게 하여 개연적 공연이 되게 하였다. 대사는 없고 승려의 춤 위주로 된 과장이다.

리. 제밀주춤 : 제밀주(첩), 큰어미(할미), 시골영감 사이의 갈등이 그려지는 과장이다.

큰어미는 물레를 갖는 등 노동으로 평생을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시골영감이 가출하였다가 귀가하면서 제밀주를 데려온다. 저밀주가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를 다투다가 아이가 손에서 떨어져 죽고 이를 본 작은어미가 큰어미를 떠밀어 죽인다. 이어 큰어미의 상여가 나간다. 큰어미 탈의 좌측색깔은 녹색이고 우측은 고통색이다. 녹색 부분의 입은 위로 올라갔고 고통색 부분의 입은 아래로 내려갔다. 녹색은 젊음, 생산을 의미하고 고통색은 죽음을 의미한다. 고성오광대 공연에 철학적 깊이를 더한 과장이라 할 수 있다. 공연을 통해 보는 즐거움만이 아닌 삶에 대한 통찰을 전달하는 존재론적 공연이 되었다. 노동과 삶의 고통을 탈과 연기 전면에 표현하면서 신명의 넉넉함으로 고통을 잊게 하는 치유의 공연을 펼치는 것이다.



3) 전승의 변화 양상

고성오광대의 전승주체는 관속에서 빈한한 양반, 중인으로 변화되다가 현재는 고성지역의 예인들과 문화애호가들이 중심이다. 19세기말까지는 관속이 나례의식을 일반 백성들은 민가의 민속예능을 중심으로 탈놀이 부분만을 특화하여 전승을 시작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빈한한 양반들이 중심이었다.

1860년경에는 일심계회원들을 중심으로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민속행사로 연희하면서 전승되었다. 평상시 연희연습은 일정치 않았다고 한다. 연희시간은 해가 진 저녁시간이었고

장작불을 피워 추위도 막고 햇불을 피워 조명을 대신하였다. 많은 고성 사람들이 구경을 하였고 즐거운 연회 탓에 고성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지속되어 전승의 힘이 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는 국가적 지원과 함께 고성지역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고성오광대보존회 회원들의 노력 속에서 전승된다. 회원들은 일 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날에 보존회관에 모여 기량을 닦는다. 전국대학의 탈춤반원들의 전수연수도 많아 고성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고성오광대가 전승된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많은 농토를 가진 농민과 지주들이 고성오광대를 전승하였다. 이 전통은 지금도 대체로 유지되지만 도시화 되면서 자영업, 사무직장, 언론에 종사하는 전승주체들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회원들의 자체비용이나 걸림을 통해 전승비용을 마련했으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는 국가에서 그리고 고성군청에서 전승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고성오광대보존회에서 자체 연수와 공연을 통한 수익도 올리지만 이는 전승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정도가 충당되는 정도다. 2013년 6월에는 고성오광대보존회 전수관이 새로이 완공되어 고성오광대 전승을 넘어 새로운 전승콘텐츠 창조에 대한 기대로 부풀리고 있다.

1960년 이전에는 제1과장 승무, 제2과장 문등복춤, 제3과장 오광대, 제4과장 비비, 제5과장 제밀주 순서로 연회되었는데 이후 승무과장이 3과장, 4과장으로 옮겨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자료의 순서대로 제1과장 문등광대, 제2과장 오광대, 제3과장 승무, 제4과장 비비, 제5과장 제밀주로 연회된다. 과거에는 비비과장에서 호각을 불기도 했지만 지금은 불지 않는다. 양반을 공격하는 비비의 액션이 과거보다 좀 더 역동적이 된 점도 변화의 한 양상이다. 그리고 연회할 때 연회자들이 무선마이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목소리 연기술을 높이려는 변화도 생겼다.

돌아가신 선대 예인들은 김창후, 홍성락, 천세봉, 배갑문, 남상국, 최규철, 박진학, 이금수, 이운순, 허판세, 허현도, 조용복, 허중복, 이대수, 최응두, 박홍도, 최도종, 김인조, 문창주, 박갑준, 이진요, 정대식, 장용만, 허종원 등이고, 현재는 예능보유자 이윤석, 전수조교 최금용, 이호원, 이재훈, 이태영, 전광열, 황종욱 등이며 이수자는 이도열, 정채승, 이영상, 하현갑, 남진도, 안대천, 윤현호, 김성범, 허창열, 최영호, 최영권, 고석진 전수자로는 강경미, 허현미, 선영욱, 허태성, 최민서, 이돈근, 손혜정, 하갑영, 김진숙, 고석용 등이다.

고성오광대 보존회는 고성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 및 예술교육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일 년에 여러 차례 공개 공연을 한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예술 및 예절 교육도 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대학교 탈춤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성오광대 춤과 전통예능에 대해 연수를 하면서 고성오광대 보존에 힘쓴다.



VII 민속음악

제 1절 개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창작자, 향유자에 따라 정악(正樂)과 민속악으로 나뉜다. 정악은 가곡(歌曲), 가사(歌詞), 줄풍류, 영산회상(靈山會相), 여민락(與民樂) 등 양반계층이 즐기던 음악을 일컬으며, 민속악은 민요(民謠), 농악(農樂), 판소리, 선소리(立唱), 잡가(雜家) 등 민간에서 생겨나 민중생활의 일부로 전해 내려오는 음악을 말한다.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전해지는 노래를 두루 일컬으며, 악보에 기재되거나 글로 전하지 않고 구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래 민요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생활기능을 갖고 전승되어 오던 것이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노래로만 불리어지게 되었다. 민요를 보통 토속민요(土俗民謠)와 통속민요(通俗民謠)로 나누는데, 토속민요는 각 지방마다 선율이나 가사가 다른 것이 특징이며, 통속민요는 소리꾼들의 노래로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

제 2절 고성의 민속음악

1. 고성농요

고성농요는 1985년 12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4호-가로 지정된 민요로,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 7길 26의 “고성농요보존회”에서 전승되어지고 있다.

고성은 경남의 서남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통적인 농사(農事)의 고장이다. 토지가 넓고 비옥하여 일찍부터 논농사를 생활의 주업으로 삼아왔고, 이 논농사의 마디마디마다 거기에 따르는 노래가 구전되어 왔다.



“농요”란 농민들이 논이나 밭일을 포함한 모든 농사일에 관계되어 부르는 소리의 통칭을 일컬으며, 농경시대부터 전래되었을 것으로 본다. 농민들이 두레나 품앗이 같은 집단공동작업 때에 힘들고 바쁜 일손으로부터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던 노래이다. “뜰소리” 또는 “농사짓기 소리”라고도 한다.

고성농요는 하지 무렵부터 시작되는 “농사소리”가 주축을 이루며, “등지”라고도 한다. “등지”란 모내기 소리를 뜻하는 경남 지방의 사투리로 고성지방 농민들은 힘든 일을 할 때 농요를 부르면서 땀방울을 식히고, 고달픔을 달래 왔으며, 농요를 통하여 단결심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일의 능률도 올렸다.

조선 후기에 경상감사가 고성들판을 지나다가 모내기하는 농부들의 등지소리에 도취되어 행렬을 멈추고 해지는 줄도 모르고 듣다가 마을에서 밤을 새웠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오기도 한다. 그만큼 이 고장은 노동요가 발달된 고장이었다.

그러나 농업의 기계화가 시작되면서 농요가 점점 잊어져 가고 있는 때에 고성 출신 김석명(金石明)씨가 이를 안타까워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고성군 일대를 현지 조사하여 고성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노동요를 녹음하고 채록하기 시작하였으며, 10년만인 1977년 8월 9일에는 노동요에 예능이 있는 분들 56명과 함께 “고성농요전수회”를 창립하고 전승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회원들의 거듭되는 연수결과 1977년 11월 11일 제28회 개천예술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1978년 제10회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1978년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음으로서 농요의 민속적 가치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1979년 5월 7일 경남 지방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받았다. 그 후 1985년 12월 1일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4호-가로 지정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성농요는 모판에서 모를 찌면서 부르는 ‘모찌기등지’,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모심기등지’, 보리타작하며 부르는 ‘도리깨질소리’, 김맬 때 부르는 ‘상사소리’ 및 ‘방아타령’ 등으로 구성되며, 이밖에 부녀자들이 삼을 삼으면서 부르는 ‘삼삼기소리’, 물레질하면서 부르는 ‘물레질소리’ 등이 있다.

고성농요를 마당놀이로 공연할 때에는 모찌기소리, 모내기소리, 도리깨질소리, 삼삼기소리, 논매기소리, 물레질소리로 구성하기도 한다. 고성농요의 노랫말에는 이 고장 농민들의 생활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향토적인 정서가 물씬 풍긴다. 그리고 고성농요는 투박하고 역센 경상도 특유의 음악성을 간직한 소리로 가락이 구성되면서도 호쾌하며, 해학적이고,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성농요보존회”는 해마다 민요경창대회를 열어 군민의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성군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농요 반을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고성농요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연수훈련과 매년 정기발표회를 가지면서 한국민속음악대축제도 함께 열며, 타 지역과의 공연 교류를 통해 고성농요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성농요는 제1과장(모내기 소리), 제2과장(도리깨 타작소리), 제3과장(삼삼기 소리), 제4과장(논메기 소리), 제5과장(물레질 소리)로 진행된다.

1) 제1과장(모내기 소리)



두레나 품앗이의 농사일을 할 때 아침 일찍 농악대가 풍악을 울리면서 “모찌로 나오이소” 하고 모꾼들의 잠을 깨워 들판에 나와 모를 찌개 되는데, 40여명의 남녀모꾼들이 들판에 나와 모를 찌면서 작업의 고달픔을 잊고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등지를 부른다. 이때 부르는 등지는 긴 등지와 짧은 등지가 있다.

① 모찢 때의 소리(긴 등지)

들어---- 내세----- - - - - / 들--- 어-- 어- 내- 세-- 에 헤이 /
 이종--- 판---을을- 들-- 어-어 내 - 세/ 에- 에 와 아----- 아-- 내-- 세/
 에- 에 헤 와 - 내 에 세-헤- 이 / 이-- 모--- 자 리 에-- 에- 와- 내- 에 세 /

② 모찢 때의 소리(짧은 등지)

모찌기 작업이 끝나갈 무렵 빨리 모찌기를 마치자는 뜻으로 작업을 재촉하며 좀 빠른 가락으로 부르는 등지이다.

(받는소리) 조리자 조리자 이모자리로 조리자/ 조리자 조리자 이모-자리로 조리자(받)/ 여러분들 손-을-모아 이모-자리로 예우세(받)/ 염-천---초-목-에 호메야 손들 놀리소(받)/ 밀치라- 닥-치-라-아- 더우야 잡아 시기소(받)/ 예우세 예-우-세 이모-자리로 예우세(받)

③ 모심기 소리(긴 등지)

모를 모두 찢 다음 모흙을 논바닥에 던져놓고 모심기 작업에 들어간다. 이때 고된 노동의 지루함을 잊기 위하여 부르는 긴 등지로 님을 그리워하는 등지를 부르기도 하는데, 소리가 애조로우면서도 처량하다.

아래---- 웃-- 논- 모-꾼---들-아- 헤 / 에 헤-- 춘삼---- 월 ㄹ-이--- 어-느--
 댐-----고 / 우-러--- / -----님--이 가---실--적--에- / 헤-이 춘-삼--월-에--
 ----오마--더-라

④ 모심기 소리(점심등지)

오전의 모심기에 지친 모꾼들이 배도 고프고, 다리, 허리도 아픈데 빨리 오지 않는 점심을 기다리면서 해학과 장난을 섞어 등지를 부른다.

(받는소리) 더디고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 더디다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받)/ 손가락 단반-에-이 세니-라고 더디나(받)/ 바가지 죽반-에-- 키-니-
 라고 더디나(받)/ 미-나리 채국-에--- 맛본-다고 더디나(받)/ 짚신한짝- 메트리
 한-짝- ㄸ-니-라 고 더디나(받)/ 짜린치매- 진치매 ㄸ-니- 라 고 더디나(받)/ 작
 은에미- 큰에미 싸-운- 다 고 더디나(받)/ 삼간집-모랭이도-니- 라 고 더디나
 (받)/ 동세야 동세야 한꾸네가-자- 요네 점심도 다되었네(받)

⑤ 해거름 등지(저녁 무렵 등지)

하루 종일 지친 모꾼들이 해질 무렵에는 남을 그리워하며 ‘긴등지’ 를 부르다가 빨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작업을 재촉하며 ‘빠른등지’ 를 부른다. 이때 모꾼들의 일손은 더욱 빨라진다.

오--늘- -----해-----가 다--- 졌--는--가- / 헤--이- 골-골--마-다---- 연
 -기--나--네 / 우-러어--어--어-ㄴ-에 ㄸ-은 어-어데 가아고- /
 에 에이- 동절- 할-줄--- 모-르-----는-고

저건너- 너리석바-구 앵피배자를 널었더니/ 바람이 불까 말까 걷어-질까- 염려
 로세/ 여기도 꽃고 저기도 꽃고 주인네 마누레 살에도 썬제/ 쏘목쏘목 송거라---
 마맹이나 메우세/ 드문드문 송거라--- 고행이나 메우세

2) 제2과장(도리깨 타작소리)

① 도리깨 타작소리

삼베옷을 갖추어 입은 10여명의 타작꾼과 땅주인 내외가 덧배기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면서 소리에 맞춰 보리타작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도리깨질소리는 선후창으로 계속되며, 동작은 힘차고 경쾌하다. 도리깨질 방법은 고성특유의 “메어때리기” 이다.



(후렴) 어화- 어화- / 어화(후렴) 때리라(후렴)/ 보리로 보고(후렴) 때리라(후렴)/

보리로 보고(후렴) 때리라(후렴)/ 어화(후렴) 어하(후렴) / 보리로 보고(후렴) 때리라(후렴) / 이색이(후렴) 안붙거로(후렴) / 야무지기(후렴) 불피라(후렴)/ 아화(후렴) 어화(후렴) / 이삭을 보고(후렴) 때리라(후렴)/ 도리깨로(후렴) 돌리잡고(후렴) / 깨단을 보고(후렴) 때리라(후렴) / 어화(후렴) 어화(후렴) / 궁딩이는(후렴) 모우고(후렴) / 힘차게(후렴) 때리라(후렴) / 목이(후렴) 모리거든(후렴)/ 주인한테(후렴) 술주라꼬(후렴) / 많이(후렴) 목고서(후렴) / 힘차게(후렴) 때리라(후렴)/ 보리가(후렴) 나간다(후렴)/ 구름살 걸이(후렴) 나간다(후렴) / 뒤로(후렴) 물러서라(후렴) / 보릿대가(후렴) 나간다(후렴) / 염방- 나간다(후렴) / 어화(후렴) 어화(후렴)/

자-이제 좀 쉬었다가(후렴) / 술한잔 목고 합시다(후렴)

3) 제3과장(삼삼기 소리)

① 삼삼기 소리

삼삼기 소리는 정겨운 농촌마을의 모습들이 잘 묘사되며, 전통적인 4·4조의 가사에다 4음보의 가락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소리로 30여명의 부녀자들이 전지다리, 광주리 등의 도구를 들고 들어와 삼삼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여름밤 삼삼기의 지루함과 졸음을 쫓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며 일을 재촉하기도 하며, 조상승배와 이웃 간의 화목과 단결을 노래한다.



혼자삼는 삼가-래-는 목감기가 일-이-로다 / 둘이삼는 삼가-래-는 군데뛰기- 일-이-로다 / 서이삼는 삼가-래-는 줄-치기가 일-이-로세 / 이웃사람 동네-사-람 서로서로 모이-앉아 / 밀짚방석 깔고-앉-아 모개불을 피아-놓고/

관술가지를 불-불-여 분들우에 밝히-놓고 / 쌍을지어 마주-앉아- 두레삼을 삼을-적

에 / 동산우에 돋는—달—은 밀짚방석 비쳐—있다 / 전지다리 마주—쌍쌍— 삼가래를 걸어
 놓고 / 너도내도 쌍쌍—일세— 노래함서 삼을—삼자 / 두레꾼아 손째—아라— 밤중새별 높
 아—뻗다 / 네아모리 높이—뜯들— 닭안울고- 날아-셀까 / 삼을삼세 삼을—삼아— 두레꾼아
 삼을—삼세 / 삼가래가 능청—능청— 전지다리 쌍쌍—일세 / 이삼삼아 옷해—입고— 무덤산
 천 귀경-가세 / 무덤산천 찾아—가서— 우리부모- 산소-앞에 / 생모하고 돌아—오세

4) 제4과장(논매기 소리)

① 상사소리

고성지방의 논매기소리는 오전에는 상사소리를 하고, 오후에는 방애소리를 하는데, 논을 매는 농부들이 땀방울을 씻으며 흥겹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호쾌하면서도 구성지게 소리를 한다.

(후렴) 상사-디-여- / 상사-디-여- 상사-디-여-(후렴) / 상사—소리로 — 맞차-주
 소-(후렴) / 상사— 학교를— 베푸-르고-(후렴) / 성—훈을 -배우-기는-(후렴) / 도
 덕— 군자가— 할 일이네-(후렴) / 우리—겂은-농부-들은-(후렴) / 일만—하고서—
 술만-묵소-(후렴) / 금년—농사— 잘지은-짐에-(후렴) / 팽이—자리나— 한분-타자
 (후렴)

② 방애소리

자기 일에 충실한 농부들의 순박한 모습이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으며, 해질 무렵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받는소리) 오-방애 / 오-오우 방-애- 오우오우 방-애-(받) / 방애—소—리 한분-하
 자-(받) / 신농-씨-의 본-을-받아-(받) / 높은—데—에는 받-을-치와-(받) / 낮은—
 데-에는 논을-치와-(받) / 백과—종-자- 씨를-뿌려-(받)/

만사—풍-년- 이뤄-보자-(받) / 금년—농-사- 잘-지은-짐에-(받) / 팽이—자리-나
 한-분-타자-(받)

③ 치기나 칭칭소리

고성지방에는 3번의 논매기 작업이 마쳐지면 땅주인은 “맘논” 이라 하여 일꾼들에게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먹인다. 논매기를 마친 일꾼들이 큰 머슴을 붙들어 팽이자루에 태우고 한바탕 노래를 하면서 주인에게 닭을 잡아먹자고 조르기도 하고, 돼지머리를 차려놓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마을의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져 치기나



칭칭을 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풍년을 기원한다. 이때 부르는 노랫말에는 농부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엿볼 수 있으며, 애국심과 애향심 또한 함께 깃들어 있다.

(받는소리) 치기나 칭칭나래- / 치기나 칭칭나래-(반) / 얼시구나 농부들아-(반) / 이 내말을 들어보소-(반) / 아들자식 농거-들랑-(반) / 대농가에 보내-서는-(반) / 신-농씨를 맨듭시다-(반) / 고관대작- 내사-싫고-(반) / 농-사일이 제일-이요-(반) / 칭칭소리-한분하자 (반) / 아적부터- 저녁까지-(반) / 설새없이- 일을하니-(반) / 무쇠겉은- 우리 신체-(반) / 철석겉이- 튼튼하다-(반) / 먼데-사람은- 구경을 하고 / 절에- 사람은- 춤-잘친다-(반) / 금년농사- 잘지은짐에-(반) / 팽이자리나- 한분타자-(반)

5) 제5과장 물레질소리

① 물레질 소리

물레질 소리는 부녀자들의 시집살이의 고달픔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짓는 모습이 애조로운 곡조와 함께 잘 나타나는 소리로, 30여명의 부녀자들이 물레를 들고 나와 물레질을 하면서 부른다.

우리-마니 날 생길-세나 / 시어-마니-가 딸-생길-세나 / 생기-주소 생기-주소 / 딸강-겉이-만 생-기-주소 / 칭칭-물이 술겉-으-문- / 시-아-마니로- 생-길-긴데 / 칭칭-물-이- 술-아-닐-랑- / 시-아-마니로- 문-생-깃소 / 가랑-있-이- 떡-겉-으-문- / 시-어-마니로- 생-길-긴데 / 가랑-있-이- 떡-아-닐-랑- / 시-어-마니-로- 문-생-깃소 / 쪼각돌이 엿겉으문 씨누아이로 새길긴데 / 쪼각돌이 엿아닐랑 씨누이로 문새깃소 / 가랫씨가 붓대더문 씨아재로 새길긴데 / 가랫씨가 붓아일랑 씨아재로 문새깃소/

비오다가 뽀나는날 우리매로 본듯하고 / 뽀나다가 비오는날 씨어매로 본듯하요.

② 베틀노래

부녀자들의 고달픈 길쌈 일에 불리어지던 노래이다.

옥랑방에 베틀--- 채--리 베틀다리- 사형-제는 / 동서남북 갈러--- 농--고 앓을
 깨로도 돌듬- 농고 / 그우에라 앓인--- 양--은 옥난각-시 제기-한다 / 용두머리
 우는--- 소--리 청춘과부 우는-것고 / 잉엣대라 사남--- 매--는 수만군사 거느-리
 고 / 배기미가 가는--- 양--은 죽은범의 모양-일세 / 북나드는 그형--- 양--은 화
 살걸이 왕래-허네 / 북구멍에 치는--- 소--리 벼락치는 소리-걸고 /

북테두른 그모--- 양--은 허리안개 두른-걸네 / 쳇밭공이 가는--- 양--은 무지
 개선 형용-일세

2. 고성농악(고성매구)

고성농악은 ‘매귀’ 또는 ‘매구’ 라는 말로 통용이 되고 있으며, 토착화된 농촌형 농악으로 늦은 곳거리와 빠른 영산다드래기, 법고놀이, 길군악(질꼬래미)이 특색이다. 길군악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가락을 차츰차츰 줄여서 반 길군악으로 넘기는 것으로 고성만의 특색을 잘 표현하고 있고, 도입부의 빠른 삼채 장단은 그 흐름이 특이하고 느낌이 남다르며, 특히 소고의 어깨 짓은 보는 이의 어깨춤이 절로 나오게 한다. 또한 고성오광대의 영향을 받아 잡색놀이가 발달하였으며, 지신밟기와 열두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성농악은 유명한 상쇠였던 고성오광대 예능보유자 (고)허판세 선생께서 매년 정월대보름날 읍내에서 지신밟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 전수되어 명맥이 이어져 왔으며, 1996년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에 고성군 대표로 출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성농악을 지켜가는 단체가 없고,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지역문화단체들이 2010년도에 뿌리 찾기 작업을 시작하여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 가락을 채록하고 판제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영상으로 담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 중에 대가면에서 상쇠를 하셨던 배기석옹(90세)이 젊은 시절 농악 상쇠로 활동을 하면서 익혀온 지역의 지신밟기 판제와 고성농악의 판제를 모두 기억하여 가락 전체를 완벽하게 연주를 해줌으로서 재현에 큰 힘을 주었다. 지금은 고성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활발하게 그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읍면별 농악경연대회를 열어 고성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와 2013년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에 고성군 대표로 출연을 하였다.

진행순서(짜임새)는 다음과 같다.

- ◆ 첫째마당 : 진놀이
- ◆ 둘째마당 : 열림놀이
- ◆ 셋째마당 : 법고놀이

- ◆ 넷째마당 : 질꼬래이
- ◆ 다섯째마당 : 얼림풀이
- ◆ 여섯째마당 : 반법고놀이
- ◆ 일곱째마당 : 잡색놀이
- ◆ 여덟째마당 : 호호굿
- ◆ 아홉째마당 : 개인치배놀이
- ◆ 열 번째마당 : 진풀이
- ◆ 열한번째마당 : 다드래기
- ◆ 열두째마당 : 마침굿

3. 고성 이당(梨堂)상여(어울림)소리

상여소리는 죽음 중에 고종명(考終命) 죽음은 오복에 속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못다 한 행복을 저 세상에서나마 누리게 하기 위해 혼령이나마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아울러 생전에 못다 한 효도를 만분의 일이라도 실행하고자 마지막 하직 길에 상여(어울림)소리와 함께 슬픔과 눈물로 전송하는 상례의식 절차이다. 상여(어울림) 소리는 충효의식을 더욱 높이고, 이를 계승하는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고성 지방에는 초상이 나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운구하며 상여소리를 하는데, 집 앞에서는



는 “상여 어르는 소리” 를 하고, 장지로 향할 때는 “상여소리” 를 하며, 장지와 가까워 오거나 험한 길을 갈 때에 “찾은 상여소리” 를 한다.

고성읍 이당(梨堂)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성이당상여(어울림)소리는 전통고유의 특수성을 지닌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더구나 어느 지방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300여년으로 추정되는 오동나무 목상여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사람이 죽어서 출상을 마치고 반혼하여 초우제를 지낼 때까지 제1과장, 제2과장, 제3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상주의 구성지면서도 구슬픈 울음소리에 따라 상두꾼이 상여를 메고 힘준한 장도에 오르게 된다.

1) 제1과장

사람이 숨을 거두면 먼저 사자밥을 짓고 고복을 한 후 지붕에 옷을 엮고 소림과 대림 절차가 끝나면 시체를 입관하고 외변 하여 발인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2과장

출상 당일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에 관을 신고(앞소리), 여상주 울음(곡), 상주백관 상여에 태우기와 논두렁, 밭두렁, 외나무다리건너기, 오솔길 등을 지나서 산천에 무덤(봉분)을 지으면서 딸꾸소리(봉분다지기)를 한다. 혼령이 돌아오면(반혼) 여 상주는 상장을 짊고 곡을 하면서 영여를 맞이한 뒤 신위를 빈소에 모신다.

① 상여 어울림(어르는)소리

발인제를 마치면, 상여꾼들이 시신을 실은 상여를 메고 집을 향하여 선 뒤에 앞소리꾼이 상여의 머리를 잡고 장단이 없이 앞소리를 메기면, 상여꾼들이 ‘아어오홍’ 하고 뒷소리로 받는다. 소리말의 내용은 망자가 유족과 친지를 두고 저승에 가는 슬픔과 하직인사로 되어 있다.

(뒤소리) 아-어-오-홍

에-이 갑오년 오월열여드렛날 고성이씨 부인 사자생활 고생타가 정명팔십 몬다살고 북망산천이 웬말이오(뒤)

에-이 청산가네 청산가네 에이 청산가는 길에 일가친척 행상행화가 모다 잊지못할 혈족이로고나(뒤)

에-이 이세상 벗님네들 그리운 친우 껍인(동갑)들과 옛 놀던 추억이 모다 잊지못할 꿈이로구나(뒤)

에-이 애탄개탄 사던세간 먹고가며 쓰고갈까(뒤)

에-이 가련하다 인생살이 인생일사 못면하고 황천객이 되는고나(뒤)

에-이 이세상 사람들아 이세상 살았을제 좋은일 다못하고 떠나가는 이마당에 하직이나 하고 갈까(뒤)

에-이 상주 백관들아 울지말고 화목하게 잘살아라(뒤)

간다간다 나는간다 황천길로 나는 간다(뒤)

② 상여소리

상여꾼들이 집을 나와 장지로 향할 때 하는 소리로, 앞소리꾼이 북을 치거나 요령을 흔들며 중모리 장단에 앞소리를 메기면 상여꾼들은 두 장단에 “어허님 어허님 이과리 넘차 어화 넘” 하고 입타령으로 뒷소리를 받는다. 소리 말은 망자가 이승을 하직하고 저승으로 가는 슬픔을 읊은 것이다.

(뒷소리) 어-어호 어-어호 어이가리 넘차 어-어흥 / 아-어-어호 어아가리 넘차 어어흥
(뒷)/어어호 어어호 어이가리 넘차 어어흥(뒷) / 불쌍하고나 불쌍하네 이씨부인이 불쌍하
네(뒷) / 고생살이 문면하고 북망산천을 가는고나(뒷) / 북망산천이 머다더니 건년산이 북
망산이네(뒷) / 황천길이 어데건대 한분가몬 몬오는고(뒷)/

일가친척이 많건마는 어느누가 대신갈꼬(뒷) / 친구벗이 많건마는 어느친구가 동행할꼬
(뒷) / 명정공포가 앞을서니 황천길이 분명코나(뒷) / 앞동산에 두견새야 너도내를 기다리
나(뒷) / 뒷동산에 접동새야 너도내를 기다리나(뒷) / 두견아 접동아 우지마라 나도네를
찾아간다(뒷) / 북망산천을 찾아가서 초토로 집을짓고(뒷)/

송죽으로 울을삼고 두견접동이 벗이되야(뒷) / 밤적적 우수성하니 처량한 것이 혼백이라
(뒷)

(뒷소리) 어-허화 어-허화 어화리 넘차 어-허화 / 열두리 상도군아 발맞춰 소리하소(뒷)
/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뒷) /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뒷)
/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뒷) / 석가여래 공덕으로 이내일신 태어나서(뒷)
/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아을손가(뒷) /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은덕 못다값고(뒷)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승길이 웬말이냐(뒷) /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이네(뒷) /
잘있시소 잘있시소 동네사람 잘있시소(뒷) /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고(뒷) /
이웃간에 화합하고 만인간에 적선하소(뒷) / 막죽하직 가는길에 막내딸을 만나보자(뒷) /
아바아바 우리아바 아들딸 십남매를(뒷) / 좋은자리 마른자리 곱게곱게 길러내여(뒷) / 애
타도록 모은재산 먹고가나 쓰고가나(뒷) 배고프면 요구하고 노잣돈이나 가져가소(뒷) / 너
살기도 어려운데 노잣돈이 어딴너냐(뒷)

-이하생략-

③ 잣은 상여소리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다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또는
비탈길을 오를 때 하는 소리로, 험한 길에 힘과 발을 맞추기 위함이다.

앞소리꾼이 자진모리 반 장단(2박)에 앞소리를 메기면 상여꾼들이 자진모리 반 장단(2

박)에 뒷소리를 “어화 넘차” 하고 받는다. 소리는 상여꾼들에게 험한 길을 잘 넘어가 달라는 당부의 말로 되어 있으며, 씩씩한 소리로 한다.

(뒷소리) 어화 넘차 / 어화 넘차 넘차 넘차 / 어화 넘차 넘차 넘차 / 앞에 사람은(뒤) 땡겨주고(뒤) / 뒤에 사람은(뒤) 밀어주소(뒤) / 어화 넘차(뒤) / 열 두리(뒤) 상두꾼아(뒤) / 발맞추어(뒤) 운상하소(뒤) / 조심조심(뒤) 운상하소(뒤) / 태산준령(뒤) 험한길로(뒤) / 어이갈꼬(뒤) 한정없는(뒤) / 길이로다(뒤) 조심조심(뒤) / 운상하소(뒤) 우리인생(뒤) / 한분가면(뒤) 만수장림에(뒤) / 어화넘차(뒤) 어화넘차(뒤) / 자 이제 다왔으니 상여를 내립시다.

③ 딸꾸(봉분다지기)소리

묘의 무덤을 지을 때 봉분을 똑똑 밟고 다지면서 하는 구성진 소리

(뒤소리) 어-허연아 딸꾸여 어-허연아 딸꾸여 / 딸꾸여 딸꾸여 어-허연아 딸꾸여(뒤) / 다져주소 다져주소 곱게곱게 다져주소(뒤) / 곱게곱게 지은봉분 아들딸 곱게나요(뒤) / 상주백관 나오셔서 이봉분 다져주소(뒤) / 영상이네 영상이네 00가문에 영상이네(뒤) / 구십 평생 장수하고 아들딸 갖기두고(뒤) / 이묘지은 삼년만에 효자충신 많이나소(뒤) / 경사가 따로있나 오늘영상이 경사로다(뒤) / 경사로다 경사로다 이가문에 경사로다(뒤) / 다져주소 다져주소 비가와도 안꺼지고(뒤) / 지어주소 다져주소 대접봉분 무덤되게(뒤)

-이하생략-

3) 제3과장

빈소에 혼령을 모신 후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를 지낸다.

4) 행렬의 구성 및 순서

방상→명정→영여→제기 및 제물→만장→공포→운아→상여→상주→백관→조문객→걸인

4. 오동 길쌈 일소리

오동마을은 서북쪽으로 진주시 금곡면과 접하고, 뒤로는 연화산이, 앞으로는 영오천이 흐르고 있는 비교적 넓은 들판을 가진 마을로 토질이 비옥하고 농산물 생산이 풍부한 지역

이다.

달성서씨, 여양진씨, 전주이씨, 진양강씨 등이 살고 있으며, 달성서씨 집성촌으로 주민들이 충효예절을 마을의 덕목으로 삼고 옹기종기 정답게 살아가는 마을로 이 마을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1600년경부터 대마(삼)를 재배하여 우리 고유의 길쌈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길쌈은 부녀자들이 삼베, 모시, 명주, 무명 등의 직물을 짜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다. 삼베길쌈, 모시길쌈, 명주길쌈은 삼한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무명길쌈은 고려 말에 문익점이 원나라로부터 목화씨를 가져와 심으면서 비롯되었다고 전하여진다. 길쌈을 통하여 만들어진 직물은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이 되었고, 화폐의 대용으로 쓰이는 등 자급자족적 의류 충당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통을 위한 구실을 담당하였다. 조선말기까지 흔히 행해지던 길쌈은 개화 및 서양 직물의 수입으로 의류의 소비 형태가 바뀌면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삼은 다년생 식물로 3월 중순에 씨를 뿌려 대개 7월 초순경에 거두어들인데 이때의 키는 보통 2~2.5m에 달한다. 삼을 베어 삼잎은 삼칼로 쳐내고, 다발을 만든 다음 삼꽃에 넣고 오랫동안 삶은 뒤 껍질을 벗겨 다시 말린다. 삼베는 식물성 섬유로 대마포라 하여 서민의 옷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상을 당했을 때 삼베옷을 입고 망자(亡者)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상복으로도 이용되었다.

윤달에 삼베로 부모님의 수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부모님은 무병장수하고 또 자손이 번창 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 4년마다 반복되는 윤달에 수의를 준비해 두기도 한다.



삼은 파종 후 수확하여 삼삶기, 껍질벗기기, 삼제기, 삼삼기, 물레жат기, 베나르기, 베매기, 베짜기 순으로 직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베를 짜기 까지 여러 과정의 고된 노동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전 과정을 “길쌈”이라고 한다.

길쌈에서 삼을 삼는 과정은 매우 고되고 지루한 작업이기 때문에 두레삼이라는 협동 작업을 통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외부와 차단된 여건에서 길쌈을 하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애

환과 꿈을 노래에 담아 부르기도 하지만, 편을 갈라 내기도 하면서 길쌈을 하였다.

오동마을은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길쌈 일소리”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2005년 마을노인들을 주축으로 “오동길쌈소리연구회”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회원 30여명이 뜻을 모아 고성 출신 김열규 당시 서강대 명예교수와 함께 “오동길쌈일소리”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2005년 경상남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서정갑외 34명이 고성군 대표로 출연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2007년과 2009년에도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에 고성군 대표로 출연하였으며, 연구회를 중심으로 고성의 길쌈 일소리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지금은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고성 오동길쌈 일소리의 과정은

삼발매기소리→ 삼잎치기소리→ 삼꽃소리→ 삼째기소리→ 삼삼기소리→ 물레소리→ 베나르기소리→ 베날기와 매기→ 베짜기→ 뒤풀이 순으로 이루어진다.

1) 삼발매기소리

삼을 간 후 짝이 움트면 잡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김을 매면서 소리를 하는데, 혼자 또는 여럿이 돌아가면서 소리를 한다.

2) 삼잎치기소리

삼이 다 자라고 나면 삼을 베어서 삼잎을 삼칼로 치면서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하는 소리이다.

① 삼베는 긴소리

(매기는소리)

머-꿈-산-에- / 정-기-반-고-에-에- 헤이- / 영-천-개-울-영-힘-받-아-
(받는소리)

고성-이-라 / 오-동-땅-에-에-헤이- / 삼-베-옷-이-으-땀-일-세-

② 삼베는 짧은소리(긋거리장단으로)

(매기는소리)

고성-이라 / 오동땅이- 삼발-중-에 제일이네-

(받는소리)

고성-이라 / 오동당이-삼밭-중-에 으뜸일세- / (메) 영남-아-라 넓은 땅에-/(받) 삼밭-중-에 제일이네- / (메) 마른-잎-도 푸른잎도- / (받) 대마-초-라 죄를써도- / (메) 심고-을-오동마을- / (받) 삼베-일-로- 이어가네- / (메) 삼-대-가 치렁치렁- / (받) 삼-밭-이 너울너울- / (메) 춤-추-네 춤을추네- / (받) 너-울너-울 춤을추네- / (메) 이삼-해-서 옷해임고- / (받) 무덤-산-천 생모가세-

3) 삼꽃 소리

삼잎을 치고 나면 삼대를 베어서 삼꽃에다 넣고 삶는다.



삼을 삶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큰 드럼통으로 가마를 만들어 삶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래식인 개천이나 물이 있는 곳에 넓게 자갈을 쌓아 불에 달구고 그 위에 삼단을 세워 익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대부분 이 재래식을 이용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드럼통 가마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삼꽃에 삼을 삶기 전에 대주는 삼꽃에다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삼을 잘삶아 달라는 기원의 의식으로 고사를 지내는데, 이때 여자들이나 부정한 사람은 삼꽃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한다. 이때 삼꽃소리도 같이 한다.

4) 삼째기 소리

삶은 삼을 들어내어 마르기 전에 껍질을 벗긴 후 묽음을 만들어 물에 담가 우려낸 다음



햇빛에 말린 후 알맞은 분량의 삼을 물에 적서 짜서 마당이나 명석에 사려 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삼을 쨌다. 삼을 왼손 엄지손가락에 휘 감아쥐고 한 가닥씩 손톱으로 쪼개어 손가락을 넣어 훑어내려 쨌다. 삼의 질이 굵은 것은 굵게 쨌고 삼의 질이 좋은 것은 가늘게 쨌다. 쨌 삼을 머리 쪽이 위로 가게 왼손에 한

줌 쥐고 벌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삼톱으로 톱는다. 쨌 삼은 오래도록 햇빛에 말리는데 오래 말릴수록 빛이 좋아지고 질긴 울이 된다. 이 과정에서 베의 품질이 결정된다.

5) 삼삼기 소리

전지다리에 걸려있는 하나하나의 올을 하나는 삼 머리 쪽과 또 하나는 아래쪽을 이어 실을 만드는 과정을 삼삼기라고 하는데, 이웃끼리 또는 가족끼리 모여서 소리를 하면서 삼삼기를 한다.

혼자삼는 삼가래는 목감기가 일이로다 / 둘이삼는 삼가래는 그네뛰기가 일이로다 / 서이삼는 삼가래는 불티같이 날아간다 / 주인주인 요주인아 낭개열매를 다오너라 / 낭개열매 없거들랑 땅에 동삼을 파오너라 / 땅에동삼 없거들랑 찬물냉수를 떠오너라 / 잠아잠아 오지마라 시오마니 눈에난다 / 시오마니 눈에나면 나모눈에 절로난다 / 나모눈에 절로나면 사던시잡 중절된다 / 이삼삼아 옷해입고 무덤산천 구경가자/

6) 물레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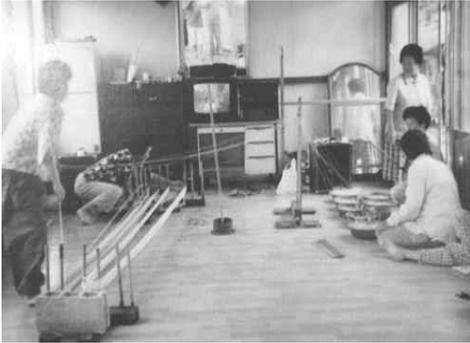
삼을 모두 삼고나면 삼은 삼을 채반에다 얹어 말린 다음 작은 물레질을 하여 꾸리를 만든 후 다시 큰 물레(돌곳)에 올리는데, 큰 물레에 올린 것을 한접이라 하고, 한접이 되면 물레에서 빼내어 말린다. 큰 물레질을 하여 빼어낸 여러 접의 삼을 모아서 탈색이 되거나 껍질이 다 벗겨지지 않은 삼 껍질을 벗겨내기 위하여 잿물(양잿물 또는 콩깍지 잿물)에 담궜다가 들어낸 후 이것을 따뜻한 방에 현 옷가지나 이불 등을 덮어서 4일정도 익힌 다음 꺼내어서 찬물에 행구어 다시 말린다. 이때 양잿물에 담구면 색상이 누런 빛깔이 나고, 잿물에 담구면 재색이 나는데, 잿물에 담근 삼이 실이 튼튼하고 질이 좋다. 삼이 마르고 나면 이것을 다시 큰 물레에 끼어서 실을 풀어 내린다. 내린 실은 날을 고르면서 물레소리를 한다.



칠낭개 팔낭개 홍갑사 땡기 / 곱은대도 안물어서 날받지가 왔구나 / 물레돌 베고서 잠지는 총각아 / 눈치만 알아채고 떡받아먹게 / 덕이랑 받아서 불매로 치고야/

홀목을 잡고서 낙도를 하노라 / 총각아 총각아 나 홀목을 놓겨라 / 지리상사 집저구리 등나간다 / 지리상사 집저구리 등나가면 / 전주색 더다가 등받아 주리라/

7) 베 나르는 소리



소리” 이다.

베를 짜기 위해 새의 결정과 날실의 길이를 결정하여 실을 마름질 하는 과정을 “ 베나르기” 라고 하는데, 큰 물레에 끼어서 풀어 내린 실의 날을 고르는 데는 열 가닥으로 고르는 것이 보통이나 스무 가닥으로 고르기도 한다. 이렇게 날을 고르는 작업을 베 나르기라고 하는데, 베를 나르면서 하는 소리가 “베 나르기

8) 베날기와 매기 소리

베짜기를 할 때 실의 강도를 높이고 날실 표면에 생기는 잔털에 풀을 먹임으로서 엉킴을 방지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솔로 날실에 풀을 먹인 다음 아래에 불을 지펴 풀이 빨리 마르게 하여 도투마리에 감는 작업으로, 보리를 껍질째로 맷돌에 갈아 치자물에 쏜 풀을 사용하여 베 날기를 한다. 흡습제로 소금을 약간 풀어 넣는다.



9) 베짜기 소리(베틀가)

베매기를 하여 감아올린 도투마리를 베틀 선다리에 고정시키고, 한줄, 한줄 띄워서 잉앗대에 걸어 여러 날의 줄을 잉앗대에 걸게 된다. 이것을 부테와 연결된 말코에 걸어 연결한 후 끝신을 발로 당기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 그 사이를 씨줄 꾸러미를 담은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디로 치며 베를 짜게 된다. 베짜기 소리는 베틀구조와 베짜는 과정을 다른 사물이나 고사에 비유하여 부른다.



오늘저녁에는 심심토로구나 / 베틀노래나 불러보자 / 베틀다리는 사형제요 요네 다리는

형제로다 / 베틀다리 사형제는 팔랑강에다 던져놓고 / 잉애대는 샘형제요 놀깃대는 독불장
고 / 부테라 두른양은 지리산 산중허리 / 허리안개 두른갈네 / 몰개라 찬양은 올오매가 날
벤건네 / 북보대집 나든양은 시냇강변에 뱀새가 나든것네/

챗발이라 하는것은 능금대로 호화잡고 / 차침차침 건너선다 /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
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도토마리라 하는것은 억만친구를 거느리고 / 얼거덕 철거덕 하
는구나 / 철귀신이라 하는것은 팔자가 좋아 / 크네기 발목을 잡고 오메가메 왕래하네/

*삼베소리

삼베가 무슨베고 자네가 아는가 / 그거야 말하나 마나 뉘감의 대왕이제 / 옷감의 여왕이
제 맞았다 맞았다 / 자네말이 맞았다 베라면 삼베지 / 무슨베가 따로있나 어화야 좋을시고
/ 우리함께 노래하세 베라면 삼베지 / 삼베면 베중의 베지 지화자 삼베야 / 좋을시고 삼베
야 좋을시고 삼베야 / 가실가실 삼베맛은 북중에도 갈바람이네 / 사각사각 삼베맛은 한여
름에 얼음이네 / 명주가 좋다지만 사치해서 나는싫다 / 모시가 좋다지만 손질하기 고생이
다 / 삼세를 갈고뒹고 내활개펴고 누우면 / 여름 잠자리가 태평천하 낙원일세 / 어화야 좋
을시고 지화자 좋을시고 / 어화야 좋을시고 지화자 좋을시고/

5. 민요

<보리타작소리(도리깨질소리)>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천의생(남. 69세)

“자. 이리 인자 다모이소 / 보리타작 한바탕 합시다아이” / “예 합시다” /
에화 에화 / 에화 에화 / 에화 에화 / 에화 에화 / 뒤를 에화 / 뒤를 에화 / 물러서고
에화 / 때려요 에화 / 때려라 에화 / 보리가 에화 / 많이 에화 / 붙는다 에화 / 에화 에화
/ 에화 에화 / 에화 에화 / 에화 에화 / 또나간다 에화 / 나간다 에화 / 나간다 에화 / 요
리 에화 / 조리 에화 / 지근지근 에화 / 뽕히라 에화 / 여뵤라 여 어어 / 때려라 어어 /
썰러라 어어 / 일변 에화 / 나간다 에화 / 구름살 같이 에화 나가구나 /

에야 에화 / 에야 에화 / 에야 에화 / 에야 에화 / 힘씨는 에화 / 소리다 에화 / 때려요
에화 / 썰러요 에화/썰러라 에화 / 에야 에화 / 궁딩이는 에화 / 모우고 에화 /

도리깨는 에화 / 벌리라 에화 / 에야 에화 / 에야 에화 / 썰러라 어어 / 때려줘요 어어
/ 보리 에화 / 이색이 에화 / 많이 에화 / 붙는다 에화 / 건져서 에화 / 때려요 어어 / 썰
러요 어어 / 때려줘라 어어 / 일변 에화 / 돌아간다 에화 / 나간다 에화 / 에야 에화 / 뒤

를 에화 / 물러서면서 에화 / 걸쳐서 에화 / 때려요 어어 / 썰러라 어어 / 때려요 어어 / 보리 에화 / 이색이 에화 / 많이 에화 / 붙는다 에화 / 먼데 에화 / 사람은 에화 / 구경을 에화 / 하두룩 에화 / 신내기 에화 / 때려요 어어 / 썰려요 어어 / 썰려요 어어 / 목이 에화 / 모르거든 에화 / 주인한테 에화 / 술주라꼬 에화 / 많이묵고 에화 / 힘차기 에화 / 때려요 에화 / 어이차 에화 / 어이차 에화 / 힘차기 에화 / 하는구나 에화 / “자, 한바탕 했은께 한 잔 묵고 쉬가 합시다” / “예에”

<도리깨 타작소리>

구술 : 고성읍 동외리 천의생(남. 58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후렴) 어화 어화 / 어화(후렴) 때리라(후렴) / 보리를 보고(후렴) 때리라(후렴) / 이색을 보고(후렴) 때리라(후렴) / 어화(후렴) 때리라(후렴) / 이색이(후렴) 안붙거로(후렴) / 야무지기(후렴) 불피라(후렴) / 이색이(후렴) 안붙거로(후렴) / 야무지기(후렴) 불피라(후렴) / 도리깨로(후렴) 돌리잡고(후렴) / 깨단을 보고(후렴) 때리라(후렴) / 궁딩이는(후렴) 모우고(후렴) / 도리개는(후렴) 벌리라(후렴) / 뒷걸음을(후렴) 쳐라(후렴) / 심씨는(후렴) 소리다(후렴) / 보릿대가(후렴) 나간다(후렴) / 구름살겉이(후렴) 또나간다(후렴) / 주인한테(후렴) 술주라쿠고(후렴) / 염방(후렴) 나간다(후렴) / 어화(후렴) 어화(후렴) / 앞으로(후렴) 땡기서라(후렴) / 이색이(후렴) 안붙거로(후렴) / 야무지기(후렴) 불피라(후렴) / 어화(후렴) 어화(후렴) / 심씨는(후렴) 소리다(후렴) / 뒤로(후렴) 물러서라(후렴) / 보릿대가(후렴) 나간다(후렴) / 염방(후렴) 나간다(후렴) / 구름살겉이(후렴) 나간다(후렴) / 자- 술한잔 묵고서(후렴)/

<모찌기 소리(짧은등지)>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최규철(남. 78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후렴)조리자 조리자 이모자리로 조리자 / 외우자 외우자 이모자리로 외우자(후렴) / 어서속히 들어내고 건너 등천에 쉬로가세(후렴) / 조리자 조리자 이모자리로 조리자(후렴) / 염천초목에 호미야 손들 놀리소(후렴) / 밀쳐라 닥쳐라 더우야잡아 시기소(후렴) / 일기미 다섯체 누가누가 메았소(후렴) / 서마지기 논배미에 반달같이 내려간다(후렴) / 니가무신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제(후렴) / 초승달만 반달이나 그믐달도 반달이다(후렴) / 조리자 조리자 이종판을 조리자(후렴) / 독장사는 독을지고 굽실뒹등 넘어가고(후렴) / 병장사 병을 지고 병자정촌 넘어가고(후렴)/

판장사는 판을 지고 햇답판장 넘어가고(후렴) / 외우자 외우자 이뫼자리로 외우자(후렴) / 강남땅 강대추 아개 자개가 열렸네(후렴) / 충청도 중복송 주지가지가 열렸네(후렴) / 물기는 청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갔소(후렴) / 문에전복 예려들고 첩의방에 놀로갔소(후렴) / 영감은 뚝떨어진 헌갓을 쓰고 두마누라 거천이 웬일이오(후렴) / 행자 처매 걸 쳐입고 강쇠 비기가 웬일이오(후렴)/

<모심기 소리(짧은등지)>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최규철(남. 78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물기는 청청 헐어놓고 주인네 할량 어디로 갔소 / 문에전복 외아들고 첩우방에 놀러갔소 / 그첩은 무신첩이건데 낮에가고 밤에가고 / 낮우레는 놀로가고 밤으로는 자로가네 / 갈때는 개가짓고 올때는 닭이우네 / 죽어서 영이별은 넘대두룩 하지마는 / 살아서 생이별은 인간세상 못하건네 / 본택에 울타리는 호박꽃이 피어났고 / 첩택에 울타리는 함박꽃이 피어났네 / 딸을 딸을 곱게길러 남의집에 보냈더니 / 장담죽은 녀시랑가 밤에울고 낮에우네 / 노랑노랑 새삼베 처매주름 행내나네/

명경창과 배떠오면 술도풀고 밥도푼다 / 논가운데 논고동은 향새울까 수심지고/

물기밑에 송사리는 물떨어질까 수심지고 / 주인양반 가슴에는 비안올까 수심지어 / 이농사에 풍년들면 장개가고 시집가서 / 아들놓고 딸놓고 알뜰살뜰 살아보세/

<모심는소리(짧은등지)>

구술 :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구상훈 외

조리조리 조조리 새야(반복)/나리나리 나나리 새야(반복) / 히나부는 꽃에서 놀고(반복) / 거 거무는 줄에서 논다(반복) / 산두넘어 해넘어 간다 (반복) / 곱은 각시 밥하러 간다 (반복) / 곱은처자 동자 간다 (반복) / 엷은 각시 물길로 간다(반복) / 꼬부랑할매 아보로 간다 (반복) / 꼬부랑할배 소물로간다(반복) / 일락서산에 해넘어 가고 (반복) / 월출동산에 달떠온다(반복)/

<모심는 소리(세모리 등지소리)>

구술 :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이진식(남.78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아래웃는 모꾼들들아 에에헤헤이 / 춘삼월월이 어어때뇨 / 우리님이 질떠나실 적적에 에
헤헤이 / 춘삼월월에 오시마고 하더라 / 적상에 승근 남방초초야 에헤헤이/

빛종거거든 맛도야 종종종데 / 두름치고 드란진 과과수에 에헤헤이 / 심애 풀풀이 남방
초초야 / 할몸할몸 어디로 가자고 에헤이 / 팔로 동자자자 시기나뎠고 / 땀복땀복 복승제
비는 에헤이 / 사오야 상에 다 올랐네 / 진주영장 큰 말을 타고 에헤이/

진양모 모뚝 썩 나셨네 / 연꽃은 피어 화초가 되되고 에헤이 / 수양버들 춤 잘 춘다 /
고성객사 단청 안에헤헤이 / 삼정승이 늘어섰네 / 사모관대 조복하고 에헤헤이 / 북행재배
늘어섰네/

<모심는 소리(두모리 등지소리1)>

구술 :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이열수(남. 65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아래 헤이 모꾼들아 에헤에이 춘삼월이 어는 때고 / 우러 님이 헤이 가실적에 에 헤이
춘삼월에 오마드라 / 해다지고 헤이 날저문데 에헤이 어느 장부 헤이 떠나오 / 이태백이
헤이 분쳐 죽어 에헤헤이 이별 상부 헤이 떠나오네 / 만고역적 헤이 김두봉아 에헤헤이 우
리 왕자 헤이 오있더노 / 충청도에 헤이 계룡산 밑에 에헤이 에헤이 / 충신 찾아 헤이 헤
매드라 / 배꽃 일레 헤이 배꽃일레 에에헤에이/

치녀 수건 헤이 배꼬칠레 / 배꽃 곁은 헤이 흰수건에 에헤이 거울 곁은 에헤이 눈매보소
/ 남산밑에 헤이 논을 치와 에헤에이 수양산골 헤이에 / 흙을 헤이대어/

그논에다 헤이 모를 심어 에헤헤이 너울너울 영화로세 / 주야장천 헤이 밤도질다 에헤이
남도뻘이 헤이 요리긴가 / 뻘이길고 방춤은 에헤이 임이 없는 헤이 탓이로다 / 다풀다풀
다방머리 에헤헤이 해다진데 에헤이 어디가노 / 우러마니 헤이 산소등에 에헤이 젓묵으로
헤이 나는 가네 / 밀양이라 헤이 영남숲에 에헤헤에 술역 헤헤이 / 도는 저 감사야 헤헤에
/ 잎이라도 헤이 사랑커든 에헤이 뿌리 한상 헤이 실어가소 / 이논에다 헤이 모를 심어 에
헤이 감실감실 헤이 영화로세/

우리부모 헤이 산소등에 에헤이 술을심어 헤이 영화로세 / 남해금산 헤이 관솔가지 에헤

이 꺼진 불을 헤이 살려낸다 / 각씨각씨 헤이 고은각씨 에헤이 죽든 낭군 헤이 살려낸다 /
 머리 좋고 헤이 수단처자 에헤이 들뽕낭게 헤이 앉아온다 / 들뽕갈뽕 헤이 받은 밥상 에헤
 이 니도 많고 헤이 돌도 많다 / 니기 많고 돌 많기는 에헤이 님이 없는 헤이 탓이로다 / 모야모
 야 헤이 노랑모야 에헤이 나온재 커서 헤이 열매 열래 / 이달 심고 헤이 훗날 자라 에헤이
 구시월에 헤이 열매 열재 / 모순것다 헤이 쪽있나서 에헤이 이슬 깰날 헤이 전혀없네/

<모심는소리(두모리 등지소리2)>

구술 :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유영례(여. 56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어린 동승 헤이 질로키야 에헤이 갓을 헤이 영화로세 / 올베 피어 헤이 고개지고 에헤이
 열무배채 헤이 살타기는 / 에헤이 봄이 왔은 헤이 탓이로다 / 꽃을 꺾어 헤이 머리꽂고 에
 헤이 산에 올라 헤이 들기경 가자 / 옥에 갇힌 헤이 춘향이는 에헤이 임오도록 기다리고 /
 모시적삼 헤이 헌적삼에 에헤이 연적겉은 헤이 저젓보소 / 모시적삼 헤이 안섭안에 에헤이
 함박꽃이 헤이 봉지졌네 / 그꽃 한분 헤이 질라쿠니 에헤이 호롱소리 헤이 벽락걸네 / 우
 러마니 헤이 죽던 날 밤 에헤이 우리 올케 헤이 나를 치네 / 올매만큼 헤이 울었던고 에헤
 이 배개모에 헤이 수이졌네 / 눈물강도 헤이 강이랐고 에헤이 오리 한쌍 헤이 겨우 한쌍 /
 쌍쌍이 들어오네 / 무정할싸 헤이 이겨우야 / 에헤이 대동강을 헤이 옆에 두고 눈물강에
 헤이 들어오나 / 시집가던 헤이 삼일만에 에헤이 서방님이 헤이 병이 나서 / 웃옷풀아 헤이
 약을 짓고 에헤이 머리 풀아 헤이 나무사고 / 약탄가늘 헤이 걸어놓고 에헤이 모진 연아
 헤이 / 잼이 들어 에헤이 님가는 줄 헤이 내 몰랐네 / 사랑섬중 헤이 큰애기가 에헤이 남
 에 총각 헤이 손을 권다 / 내아무리 헤이 손을 권들 에헤이 대동강이 헤이 수천리다 / 원
 수로다 헤이 원수로다 에헤이 대동강이 헤이 원수로다 / 네는 죽어 헤이 무엇될래에 에헤
 이 네는 죽어 헤이 양국되몬 / 내는 죽어 헤이 육모초 되어 에에헤이 오월이라 / 단오날
 밤에 에헤이 약방에서 헤이 만나고자/

<모심는소리(두모리 등지소리3)>

구술 :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강무근(여.72세), 동해면 장좌리 이태인(여.82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농사짓는 헤이 농부들야 에헤이 비안온다 헤이 한탄마소 / 저 건네 헤이 갈미봉에 에헤

이 비가 철썩 헤이 물어온다 / 농사는 헤이 천하대본인데 헤이 일 아니 헤이 하고 뿔하랴 / 진주염양 헤이 큰물하고 에헤이 진영못뚝 헤이 석나셨네에/

에헤이 수영버들 춤잘추네 / 수영버들 헤이 치는 춤은 에헤이 바람불어 헤이 치지마는 / 만인간이 헤이 치는 춤은 에헤이 신명있어 헤이 춤잘춘다 / 고성객사 헤이 조복하고 에헤이 삼정승이 헤에 늘어섰네 / 사모관대 헤이 조복하고 에헤이 북행재배 헤이 늘어섰네 / 담안에다 헤이 꽃으로 숨겨 헤이 담밖으로 헤이 벌어졌네 / 질로가는 헤이 호걸양반에 헤이 꿀꿀 듯이 헤이 후아잡네 / 해다지고 헤이 다저문데 에헤이 어떤 상부 헤이 더나가네 / 이태백이 헤이 본댁 죽어 에헤이 꽃을 송겨 헤이 사더라네 / 어여뿌다 헤이 황필선아 에헤이 그꽃밭에 헤이 물주어라 / 주름치고 헤이 앓은 과수에 헤이 심에품이 헤이 남방초야 / 남산 밑에 헤이 그너무집에 헤이 요조숙녀 헤이 크나신다요 / 제가 변변 헤이 숙닐라면 에헤이 군자호걸 헤이 내안갈보냐 / 청백나무 헤이 소녀쪽에 에헤이 오만 새가 헤이 다오더니 에헤이 / 청백나무 헤이 고목되니 헤이 아무새도 헤이 안오더라 / 사례질고 헤이 광넓은 밭에 헤이 처니다섯 목화따네 / 으렁땅에 헤이 신은 짚신에 헤이 여와보니 날이 났네 / 날난 짚신 헤이 모두 팔아 에헤이 처니다섯 모두 사서 헤이 / 백년첩을 삼고지야 / 처니다섯 헤이 하는 말이 에헤이 등짐장사 모두 사서 헤이 / 우리들이 시집갈대 헤이 가매 채나들게 하고 헤이 / 백년 종놈 삼고지야/

딸을딸을 헤이 곱기 키야 에헤이 남우집을 헤이 보냈더니 / 장담 죽은 헤이 녀일랑가 에헤이 낮에 울고 헤이 밤에 우네/

<모심기소리(점심등지소리)>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최규철(남.78세), 고성읍 울대리 강무근(여.72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더디고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 / 더디고 더디다 머단다고 더디노 / 숟가락 단반에 세나라고 더디나 / 미나리 채국에 맛본다고 더디나 / 질캥겘은 챗독에 찢낸다고 더디나 / 잔에미 큰에미 싸운다고 더디나 / 진치매 짜린치매 끈니라고 더디나 / 짚신한작 메터리 한짝 꼬니라고 더디나 / 초가집 모랭이 도니라고 더디나 / 더디고 더디다 머단다고 더디노 / 보리밥 조밥에 붙였는다고 더디나 / 열다섯 모꾼에 세니라꼬 더디나 / 청구석 방구석 씨니라고 더디나 / 더디고 더디다 머단다꼬 더디노 / 뒤축없는 신을신고 끈니라고 더디나 / 동세야 동세야 한꾼에가세 요내점심도 다되었네 / 우등치 뚝떨어진 갓을씨고 기생첩하가가 웬일인고 / 행자치매 떨쳐입고 강새보기가 웬일인고/

<모심기소리(해그름등지소리)>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최규철(남.78세), 고성읍 울대리 강무근(여.72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 긴등지소리

오늘 해가 다졌는가 헤에이 / 골골마다 연기나네 / 우러 님은 어디가고 헤에이 / 동절할
줄 모리는고/

• 짧은등지소리

저건네 너리석바구 양피배자 널었더니 / 바램이 불까말까 견어질까 염려로세/
충청도 중복성 주지 가지가 열렸네 / 강남땅 강대추 아개자개가 열렸네 / 여기도 꺾고
저기도 꺾고 / 주인네 마누라 살에도 꺾자 / 쏘목쏘목 숨거라 마녕이나 메우자 / 드문드문
숨거라 고랭이나 메우자 / 울밀에 사촌아 해나 잡고 나오니라/

<모내기 노래>

구술 : 고성읍 동외리 천의생(남. 60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육방관속 모였는데 맞칼시가 엔일이고 / 고성객사 서대청에 홀로 안진 저조조야/
적벽강에 불이나서 불탄군졸 절반이네 / 고성학동 긴골목에 처녀한쌍 떠나가네/
처녀댕기 끝만보고 총각한쌍 간곳없네 / 전전에 보던 곳은 담장안에 피엿고나/
보고만 갈뿐이지 꺾어보지 못하겠네 / 각시님 양세중에 숨은보배 있건마는/
정작으로 줄라면은 실한작자 날로주라 / 바람에 부지마라 임의탄배 오늘온다/
임의탄배 오시거든 어진순풍 불어주소 / 월명동창 해동창에 꽃더덤던 저나부야/
춘색이 좋다마는 가지마다 안절소냐 / 물끼청청 헐어놓고 주인양반 어디갔노/
문애전복 외아들고 첩으방에 놀로갔네 / 산도산도 봄산인가 풀이피여 산뒷었네/
우리님 내절에 누워 손을들어 날뒷었네 / 배고파 받은 밥상 니도 많고 들도 많네/
니 많고 돌 많기는 입없는 탓이로다 / 명관일세 명관일세 우리사또 명관일세/
우리고을 군수명관 만백성이 살아난다 / 각시님 눈매보소 반만후아 철낙수네/
그철낙수 그리고아 장부간장 다늑이네 / 비읍소사 비읍소사 임오거던 비읍소사/
줄대 끝에 전망인가 탈망치도록 비읍소사 / 파랑불이 끓은도령 떠뒷것도 베기 좋네 / 성

님이나 살아시모 지신아제 삼을거로 / 배꽃칠레 배꽃칠레 처녀수건 배꽃칠레 / 배꽃같은
 수건밑에 거울같은 눈매보소 / 바닥같은 이논배미 반달만치 남았고나 / 여기도꽃고 저기도
 꽃고 주인네 마누라 살에도꽃고 / 앵도창칼 오통수복 선부님의 노리개고 / 멧쟁살쪽 쪽지
 개는 각시님의 노리개라 / 모시적삼 반적삼에 연적같은 저젓보소 / 한분지고 두분지니 질
 적마다 잦이와요 / 잦아잠아 오지마라 오는잠을 어이하리 / 지각없는 이남자야 건삼가래
 삼고자자 / 한박꽃에 두영별기 발은적고 몸은크고 / 이리저똥 저리저똥 굵실굵실 넘어간다
 / 자중에 모인중에 눈가는데 있거마는 / 눈을주니 제모리고 손을치니 남이아네 / 남산밑에
 저벽수야 눈을읽고 어찌사노 / 처지총각 근원이좋아 약쓸라고 굽어가네 / 머리 좋고 수단처
 자 들뽕남게 임이오네 / 들뽕날뽕 날따주면 명지대기 너를주마 / 봄철아 일들지마라 소년
 과수 심양난다 / 네아모리 심양난들 살씩히는 날만한가 / 창밖에 창지는 인아 임을그러 네
 창지나 / 네보다 나신임이 내풀베고 잠들었네 / 처지총각 근언좋아 첩첩산중 들어가네 /
 그이논 그근언에 그제두면 바색이다 / 평풍치고 불썬방에 임도눓고 나도눓고 / 벽상에 붙
 은포리 네나날아 저불꺼라 / 철산같은 높은산에 발연초가 피어나네 / 그발연초 속녘안에
 이슬꺄줄 제모리네 / 산도산도 봄산인가 풀이피여 산뎡어네 / 내나라주던 한산소매 누넨허
 리 걸친는고 / 서울서산 연을떠아 거제옥산 연결렸네 / 아래웃방 시너들아 연줄치는 기경
 가자 / 이논에다 모를송거 금실금실 영화로세 / 어린동생 길러내어 갓을씩워 영화로세 /
 마상에앉은 저수재야 옆에긴책 무슨책고 /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녀는 불경이부로세 /

<등지소리>

채집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1972년~1976년)

일월햇님 돌아와도 이슬꺄줄을 모르는고 / 매화야대를 꺄어들고 이슬털려 가자시네 / 한
 강수다 모를부어 모찌기가 난감하네 / 하늘에다 목화를 심어 목화따기가 난감하네 / 바대
 장 같은 이똥자리 장기야 판마치 남았구나 / 장기야 판은 있건마는 돌이없어 못두겠네 /
 한재야 한섬모를부어 잡나락이 절반이네 / 성안에 성밖에 첩을두어 기생첩이 절반이로다 /
 에워싸세 에워싸세 이똥자리를 에워싸세 / 들어내자 들어내자 이똥자리를 들어내자 / 밀치
 라 닥치라 모를잡아 흙치소 / 영에엄친 초목에 호미손도 놀리소 / 여이자 여이자 이똥자리
 를 여이자 / 여이자 여이자 시누올케를 여이자 / 물고랑 처정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
 데갔소 / 문어야 전복을 손에들고 첩의집에 놀러갔소 / 이논뺨이다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
 화로다 /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술을심어 영화로다 / 아래야 웃논 모꾼들아 춘삼월이 언
 제던고 / 우리야 님이 길떠날 때 춘삼월에 올라더라 /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가 알을

냥네 / 그알 하나를 주웠으면 금년과거 내할꺼로 / 님이 죽어서 연자되어 춘쇠 끝에 집을
 짓네 / 날면보고 들면봐도 님인줄을 내몰랐네 / 처녀야 처녀야 너볼라고 채전밭에 새길났
 네 / 총각아 총각아 너볼라고 서젯골에 새길났네 / 머리도 좋고 실한처녀 줄뽕낭게 앉아우
 네 / 줄뽕날봉 내따주마 백년언약 내강하세 / 점심아 실어다 도복바에 어데만치 오시는고
 / 미나리다 소금쳐서 맛본다고 더디오나/

오늘낮에 점심반찬 무슨고기가 올랐는고 / 전라도라 고심청어 마리마리 올랐구나 / 낭창
 낭창 벼리 끝에 무장하다 울오라바 / 나도 죽어서 남자가 되어 처자부터 섬길라네 / 담장
 안에 꽃을심어 담장밖을 휘어넘네 / 서울가는 선비님네 그꽃보고 길못가네 / 덩봉덩봉 수
 집이 사우야 판에 다올랐네 / 우리야 할멈 어데가고 딸아이 동재 시키는고 / 서마지기 받
 고랑에 반달각시 떠나오네 / 제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 해다졌네 해다졌네
 고성땅에 해다졌네 / 빵긋빵긋 웃는애기 못다보고 해다졌네 /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
 이 떠나가네 / 이태백이 본처죽어 이별행상이 떠나간다 / 다풀다풀 다막머리 해다진데 어
 데가노 / 우리야 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로 내가가요 / 초롱아 초롱아 청사초롱 님의방에 불
 밝혀라 / 님도눕고 나도눕고 저초롱은 누가끝꼬 / 달이떴네 달이떴네 베개모에 달이떴네 /
 달도뜨고 꽃핀방에 잠한숨만 자고가소 / 설설이 어데갔노 서얼설이 산에갔다 / 있던들 볼
 란 듯이 오겨들랑 보고가소 / 앞집에 감자정자 뒷집에 국화정자 / 얼시구 그정자 놀기좋다
 / 놀기 좋거든 놀다가지/

<논매기소리(상사디여소리)>

구술 : 고성읍 동외리 천의생(남. 60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후렴) 상사디여

상사소리를 맞추어 주소(후렴) / 상설학교를 베푸르고 성훈을 비우기는 도덕군자가 할
 일이라(후렴) / 하관맥상 늦은봄에 주마루계 노닐기는 호협소년이 할 일이라(후렴) / 우리
 겹은 농부들은 일만하고서 술만묵네(후렴) / 두문도리 높은집에 부귀를 누리기는 경대부가
 할 일이라(후렴) / 천리준 총채를 쳐서 천하명신 구경하고(후렴) / 대장부 세상에서 주색
 에 누를벗고(후렴) / 고상한 뜻을갖어 대인잡물 하올작에(후렴) / 일호사정 없음으로 평생
 에 소위사를 남을 대하여(후렴) / 다말함이 대장부의 일이로다(후렴) / 철이준 총채를 쳐
 서 천하명승 기경하고(후렴)/

흉해가 훨씬 널리 만고문장 된 연후에(후렴) / 도처마다 응사결될 경동일세 하는것도 대

장부가 할 일이라(후렴) / 사회에 영수되어 일동일정 짚이지기(후렴)/

인기 세이도 지하야 개량풍속 하는것도 대장부의 일로다(후렴) / 국내 청년을 모아다가 교육계에 집어넣고(후렴) / 인재 양성한 연후에 학계주인 되는것도 대장부가 할 일이라(후렴) / 건국제민 연구하야 천하이익은 얻어다가(후렴) / 금고에 만정하고 상업저양 의미대로(후렴) / 경제대가 되는것도 대장부의 일로다(후렴) / 천하사를 경영할제 지진두가 될지라도(후렴) / 퇴보말고 전진하면 사필귀정 할터이니(후렴) / 임난인내 하는것도 대장부의 할 일이라(후렴)/

<방애소리>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이상수(남. 59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후렴) 오-오-방애

방애소리 한분하자(후렴) / 이방애가 누방앤가(후렴) / 강태공의 조작방아(후렴)/
강태공은 어디로가고(후렴) / 빈방애만 걸려있네(후렴) / 높은데는 밭을치야(후렴)/
낮은데는 논을치야(후렴) / 백과종자 씨를뿌려(후렴) / 만사풍년 이루어보자(후렴)/

<치기나 칭칭소리>

구술 :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박판갑(남. 74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군 동외리 김석명

(후렴) 치기나 칭칭나네

얼시구나 친구들아(후렴) / 칭칭소리 한분하자(후렴) / 아적부터 저녁까지(후렴)/
철새없이 일을하니(후렴) / 무쇠걸은 우리신체(후렴) / 철석걸이 튼튼하네(후렴)/
먼데 사람은 기갱하고(후렴) / 절에 사람은 춤잘 추네(후렴)/

<치기나 칭칭요>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칭칭하늘에는 별도많다 치기나 칭칭나네 / 시내강변에는 자갈도 많다 치기나 칭칭나네 /
헌누더기 이도많다 치기나 칭칭나네 / 상어개기 개길런가 치기나 칭칭나네 / 의붓애비 애

빌런가 치기나 칭칭나네 / 다신에비 에밀런가 치기나 칭칭나네/

작으나 크나 내동무야 치기나 칭칭나네 / 밤새도록 놀아보소 치기나 칭칭나네/

<물레노래1>

구술 :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이덕수(여.85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군 동외리 김석명

느거집에 만석이라 만석보고 내가왔나 / 조그마한 님을 보고 불원천리 내왔는데/

그라쿠니 말로하나 저라쿠니 말로하나 / 치마폭 뜯어 바람잡고 머리깎고/

송낙씨고 옥천절로 중되로 가네 / 진주만성 안모장에 장기뜨는 처남손아/

느거누우 날마다고 머리깎고 / 송낙씨고 치마폭 뜯어서 / 바람잡어 옥천절에 중되로갔다 / 네집 가품이 좋으래면 우리 누가 중되로 갈까/

<물레노래2>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조덕남(여. 55세). 고성읍 울대리 강무근(여. 72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우리마니 날생길세나 씨어마니가 딸생길세나 / 생기주소 생기주소 딸강걸이만 생기주소 / 청천물이 술거트몬 씨어바니 생길긴데 / 청천물이 술아닐랑 씨어바니로 몬생기소 / 가랑잎이 떡거트몬 씨어마니로 생길긴데 / 가랑잎이 떡아닐랑 씨어마니로 몬생기소 / 쪼약돌이 엇거트몬 씨누애기로 생길긴데 / 쪼약돌이 엇아닐랑 씨누애기로 몬생기소 / 가랫대가 붓대 드몬 씨아재로 생길긴데 / 가랫대가 붓아닐랑 씨아재로 몬생기소 / 비오다가 빨나는날 우리마니 본듯허니 / 빨나다가 비오는날 씨어마니로 본듯허요. 두레꾼아 손쇠아라 밤중새별 높이뜨다 / 저새별이 저리뜨몬 날새기가 아주습다 / 건넌방에 건초롱은 날강걸이 속이타나 / 걸이타야 녀미알제 속타는걸 녀미알까 / 축담밑에 피는목캐 날강걸이 속이타네 / 걸이타야 녀미알제 속타는 것 녀미알까 / 물레돌밑에 잠자는총각 언제커서 내낭군될래 / 사당앞에 국화로송거 국화꽃에 술을비쳐 / 그술익자 제장사오자 술거리자 임오신다 / 건넌방에 건초롱은 날강걸이 속만탄다 / 걸이타야 녀미알제 속타는줄 녀미아나 / 마당가에라 모닥불은 세우가와도 꺼내는데 / 이내간장 타는줄은 역수장마도 몬꺼내네/잠은죽어 화초되고 목동요절은 행화초라/

<길쌈노래>

구술 :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이덕수(여, 85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맹아대라 건근밭에 누매곶은 저처자야 / 누구간장 썩힐라고 저리곶게 생겼던고/
안무러몬 여자되어 장부간장 문녹힐까 / 저건네라 저무덤에 임재없어 묵었더냐/
종재없어 묵었더냐 임재종재 다있지만 / 효자음서 묵었다네 쪽을승겨 쪽저구리/
이를갈아 치매하고 주름잡아 떨쳐입고 / 옷나무라 신을신고 나무한쌍 학을듣고/
놀로가자 놀로가자 여네방에 놀로가자 / 여네방에 놀로가니 여네씨는 간곳없고/
황별당에 황도령이 사람홀목 덜쳐잡네 / 홀뻬이인 말을하나 허리로암 이로서주무시나 /
느거부모 우리부모 양집부모로 앉히놓고 / 백년사자 언약하소 머리속은 황도령아 / 석상에
다 접한님이 비뻬될줄 알았더냐/

<삼삼기소리1>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조덕남(여, 55세), 최명년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 먼데보니 달이로세 절에보니 처자로다/
처자애기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이로다 / 청도복숭 울오랍씨 거짓말씀 말아주소/
피꼬리라 기린방에 참새겘이 내누었소 / 동남풍이 디리불어 풍지떠는 소리로다/
남산밑에 남도롱아 오만나무 다치나마 / 오죽델랑 치지마소 울키우고 내년키야/
후얼라네 후얼라네 낚숫대로 후얼라네 / 낚을라네 낚을라네 옥단처자 낚을라네/
낚으며는 능사되고 못낚으면 상사로다 / 능사상사 고를맺아 고틀도록 살아보자/
이산저산 낭글비고 계우산천 절을지여 / 그 절안에 피는꽃은 반만되어 화초로다/
수양산 범나비는 화초국에 날아든다 / 걸려졌네 걸려졌네 거무줄에 걸려졌네/
살아올까 죽어올까 사상결단 하는고나 / 하늘에라 천강들에 달이뻬네 옥천절에/
선생앞에 글을비야 사장앞에 받쳐놓고 / 잼이들자 댁히울고 댁히울자 날이새네/
고성역담 자전골에 이슬 많아 어이갈꼬 / 목동아로 끊어쥐고 털던가로 내갈라네/
혼자삼는 삼가래는 목감기가 체제기요 / 둘이삼는 삼가래는 군데뛰기 재제기요/
서이삼는 삼가래는 끼자마자 다삼았네/

<삼삼기소리2>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조덕남(여. 55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혼자삼는 삼가래는 목감기기가 일이로다 / 둘이삼는 삼가래는 군데따기가 일이로다 / 서
이삼는 삼가래는 줄치기가 일이로세 / 이웃사람 동네사람 서로서로 모이았아 / 밀짚방석
깔고앉아 목캐불을 피와놓고 / 긴솔가지 불을붙여 불돌우에 밝히놓고 / 쌍을지아 마주앉아
두레삼을 삼을작에 / 동산우에 돋는달은 밀지방석 비쳐있네 / 전짓다리 마주쌍쌍 삼가래를
걸어놓고 / 너도나도 쌍쌍일세 노래함성 삼을삼자 / 두레꾼아 손세와라 밤중세벨이 높이뻗
네 / 내아무리 높이뜬들 닭안울고 날이썰까 / 삼을삼세 삼을삼아 두레꾼아 삼을삼세 / 삼
가래가 능청능청 전짓다리 쌍쌍일세 / 이삼삼아 옷해입고 무덤산천 구갱가세 / 무덤산천
찾아가세 우리부모 산소앞에 / 생모(성묘)하고 돌아오세/

<베틀노래>

구술 : 고성읍 월평리 최필단(여. 85세)

채록 : 1972~76년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월궁에 노던행화(姮娥) 할 일이 전혀없어 / 옥난간 베틀놓고 베틀다리 네다리는 동서편
에 갈라놓고 / 자리새 좋은양은 황룡이 부조할제 / 안질개 도테놓고 그우에 앉힌양은 / 한
태조 훈령인가 낭궁우에 자귀한다 / 물캐를 도디하고 허리안개 두린양은 / 하늘원앙 지해
미 생귀하야 북두칠성 휘두린다 / 나삼을 반만걸고 재피를 치켜들고 / 암산은 줄을대야 긴
산은 짜라하고 / 어여쁜 자질개는 이리홀랑 저리홀랑 / 천하보는 매기단속간에 목욕하는
지상얼레라 / 이내님 복나드는양은 은하수가운데 / 질디리는 황우가 알을안고 백운강을 나
르난 듯 / 보디집 치는양은 원구년 잔칠란가 / 범진이 불원해야 옥돌을 깨치난 듯 / 인국
에 저체통은 남원산 무지간가 북해산을 외두른다 / 부썸은 줄을내야 좌우를 제긴양은 / 양
모길쌈 저 환금줄을 내야에 긴것다 / 잉에대 눈썹대 체릴호삼 섬기서 논양은 / 목도진병
사십명이 더운 번방안에 체리를 수자리 하는듯다 / 나무 송궁니는 양은 칠월하고 칠성날밤
에 / 견우씨 직녀가 일년일차 한분 만나질테 / 저아꿈니난 듯 홀기대 뛰운양은 강태부 어
선인가 / 잉에로나 꼬러라고 우수강에 띄우난 듯 / 사춤 추수라고 베기미 썰은양은 / 항
우가 칠성장정 거느리고 장중에 들어가서 억만군사 다시린다 / 용두마리 우는양은 시월하
고 초파일날 / 짝있는 외기러기 빗부리는 지생일레라 / 처기신 꼬는양은 진압자의 흰끈에

목을 메고 친구정 향고간다 / 중절꿈 베령대 중절꿈 도투마리 베령대 듣는양은 / 상상땅
 조자룡이 젓벽국 싸움할때 화살이 비오난 듯 / 이방 사람들과 근사한필 이생일 베짜내야
 씨워잡도 시원하다 / 비자나무 관지통에 상나무 방마치에 지옥가를 담아이고 / 상수상간
 내린물에 얼룩상간 같이놓고 / 옥돌을 마주놓고 조각들로 공가놓고 / 점공걸은 포를 허푸
 거튼 손을 / 후덩덩 썩거내야 배꽃거치 바래여서 / 찬물에 이기내야 방마치로 난장마치/
 흥들깨 옷을입히 배굽을 잡아내야 / 금자를 자아내야 은사를 사리내야 / 세을쭈시내야
 찬시를 지러내여 / 이것간장 절세구나 / 천기외겨 걸은양은 그꿈도 좋거마는 썩길이 더욱
 좋다/

<지신밟기요>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대문) 주인주인 문여소 문안열면 갈라요

(주인) 문열었다 들어오소

(마당에서 한바탕 지신을 밟고)

(대청)

성주님네 구시여 XX년 새해대해

이집안 일몰홍운 일년열두달 넘어가도 하루아침같이 넘어가고

동서남북 다다녀도 모진놈한테 악담막고 관재구설 막아주고

눈큰놈 발큰놈은 몰알로 다보내고

남의눈에 기이뵈도 은전동전이 도부라(또생겨서)

묵고남고 씨고남고 이문전 이터전에 만대유전하고

부귀영화하고 자손홍성하고 우환이 재앙없이

안가태평하고 소원성취하소서

(부엌)

조왕님네 구시여 일년열두달 불때도 지체없이 태우소

(철룽)

철룽님네 구시오 천년만년 올리소

안가태평 소원성취하소서

(고방)

고방님네 구시여 금년 농사짓거든

들에자완 하시어 천석만석 재이소

(마굿간)

우쇠원님 구시오 이랴자랴 쟁기질

일년열두달 부리도 저림없이 다니소

(우물)

어 그샘이 물좋다

종평상(한평생) 무도(떡어도) 장유수로 나와주소

(장독)

장독각시 구시오 어 그장 맛좋다

된장간장 고추장 개떡장도 달아라

산채나물 무쳐서 어른상에 올리라

<갑사댕기>

구술 : 고성읍 울대리 강무근(여. 73세)

채록(1972~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우라부지 서울가서 갑사댕기로 떠왔더니 / 우리언니 눈물댕기 우리올케 눈치댕기 / 성안
에다 널뛰다가 성밖에다 잇었고야 / 올라가는 서당꾼아 열다섯에 서당꾼아 주었거든 나를
주소 / 줏기사 주었지마는 눈공없이 네줄소냐 / 염랑집어서 공하겐다 필랑집어 공하겐다 /
염랑필랑도 소용없고 열두쪽에 채알치고 / 나무접시 뛰놀적에 치매자락 도복자락 마주설
때 네주꺼마/

<달노래>

채집(1972~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달아달아 초생달아 어되갸다 인재왔노 / 새각씨가 눈썹같고 늙은이의 허리같고/
달아달아 초생달아 어서어서 잘아나서 / 거울같은 네얼굴로 우리동무 한테가서/
나와같이 비쳐주고 울아버지 자는창에 / 나와같이 비쳐주고 울어머니 자는창에/
나와같이 비쳐주고 울오람씨 자는방에 / 날과같이 비쳐주고 우리형님 자는방에/
날과같이 비쳐주고 우리동생 있는방에 / 내간 듯이 비쳐주고 거울같은 네얼굴로/
원세계를 비치어라/

<각씨놀이요>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앞산에는 빨간꽃요 뒷산에는 노랑꽃요 / 빨간꽃은 초마짓고 노랑꽃은 저고리짓고 / 풀껍
어 머리허고 그이딱지 술을거려 / 흙가루로 밥을짓고 술잎을낭 국수지여/
풀각시를 절시키네 풀각시가 절을하면 / 망근을쓴 실낭을랑 꼭지꼭지 흔들면서/
밥숯갈에 물마시네/

<효자 노래>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좋은음식 생기거던 부모님먼저 생각하고 / 좋은의복 생기거든 부모님먼저 생각하고 / 주
지사 못할망정 마음조차 없을소냐 / 우리부모 날키울작에 오유월염천 더울작에 / 더운자리
부모가눕고 서언한자리 자식넙히고 / 동지선달 설한풍에 차운자리 부모눕고 / 따신자리
자식넙혀 / 우리부모 날키울작에 애타게도 길렀는데 / 나는 어이하야 부모은공 갚을소냐/

<총각호래비요>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의령땅에 괄쳐지는 재간좋다 소문듣고 / 진주땅에 강수재는 금실좋다 소문듣고/
헐기다가 헐기다가 한이삼년 헐기다가 / 진진삼년 열여섯날 대사일을 받아놓고/
부고왔네 부고왔네 이령땅서 부고왔네 / 한손으로 받은부고 두손으로 페여보니/
신부죽은 부고로다 돌아서소 돌아서소 / 할머니도 돌아서소 아버님도 돌아서소/
뒤에오는 아래하인 돌아서게 돌아서게 / 기우지라 냇든장개 내가가서 단이오메/
싱고가마 다버리고 다술하인 다버리고 / 줄장망혜 단몸으로 한모퉁이 돌아서고/
또한모퉁 돌아섰네 청오치마 청도포에 / 백소아지 바지듭시 남소아지 배자닥에/
진주물인 백노토지 무주비단 한이불을 / 덮은 듯이 던져놓고 원앙금침 젓베개는/
두리베지 지여놓고 셋별같은 요강때는 / 발길마다 던져놓고 굴레같은 은가락지/
수아지 고름에 걸메자 놓고 / 전반같은 검은머리 어깨넙에 던져있네/
앉아우네 앉아우네 장인장모 앉아우네 / 우지마소 우지마소 장인장모 우지마소/
천태산 넓은벌에 살씩기는 제만할까 / 만태산 깊은골에 울고가는 내만할까/
날줄라고 지은밥상 사제밥에 매련하소 / 날줄라고 지은밥상 성복제에 매련하소/

<혼인요>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강남땅 강뚜껍이 부능땅 월레한테 / 장가간다 하옵시고 쪽닥이마 뱀시들고/
쫓지쿨냥 흘제끼고 체비눈을 뱀시들고 / 곰베팔랑 뽕스리고 짱체다리 후리치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자랑한다 하였도다 / 월레가 하는말이 테를매여 쓰것마는/
사발같은 내팔자야 아이고 아이고 어이할꼬/

<양반요>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양반은 가족신 쌍놈은 메투리 / 어른은 짚신 아이들은 맨발/

<강실도령요>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강돌강돌 강도래미 강실강실 옆에끼고 / 무암땅에 장가갈 때 서룬두칸 기와집에/
마은네칸 도벽장에 방치레는 종데마는 / 각시님은 맘수하데 울아버지 들어서면/
받은밥상 밀쳐놓고 한숨하고 들어서리 / 울어머님 들어서면 산간말내 뛰그르고/
울오라바지 들어서면 보든책을 밀쳐놓고 / 말나서리 중나서리 동동실로 가지시리 / 우리
성님 들어서면 살강머리 훔쳐잡고 / 가길낙은 가소마는 뒷동산 꼬치나무/
네아모리 맵다한들 씨누같이 매울손가/

<나죽으면요>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막개동 오라배야 내가죽거들랑 /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연대밑에 묻어주소 오라바니 날찾거든 / 담배대를 묻어주소 울어머니 날찾거든/
밥을한쌍 대접하소 울오라배 날찾거든 / 소주한잔 올려주소 우리형님 날찾거든/
은비너도 찢러주소 우리동생 날찾거든 / 금피꽃을 쥐여주소 우리동무 날찾거든/
은가락지 끼여주소/

<방귀노래>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저게가는 저가수나 방구통통 끼지마라 / 조개딱딱 벌어진다/

저게가는 저머슴아 방구통통 끼지마라/봉알덜렁 떨어진다/

<어깨동무요>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동무동무 씨동무/보리나도 씨동무/

<맹들기요>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물레먹고 맹맹 / 고초먹고 맹맹 / 소주먹고 맹맹/

<토끼화상>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길인다 길인다 이리저리 길인다 / 토끼화상을 기린다 / 오징어 불러 먹갈리고 토끼화상을
기리볼까 / 앞발은 짙뚝 뒷발은 질뚝 쫓지는 몽땅 / 허리는 잘쭉 두눈은 또리또리 / 두
귀는 쫓비쫓비 토끼화상을 기리볼까/

<까차>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까차까차 노랑까차 풍지풍지 물어다가 / 골작골작 집을짓고 개닥개비 물어다가/
서방각시 들랑날랑/

<자장가>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자장자장 우리애기 선녀같이 이쁜애기 / 곱게곱게 자는방에 쥐도새도 아니온다/
자장자장 우리애기 셋별같이 맑은눈에 / 조랑조랑 멧히어라/

<놀림노래>

문헌 : 1963년 경상남도지 하편(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앞니빠진 괴양이/뒷니빠진 쌍냥이 / 방절터에 가지마라/빈대한테 뽀뽀맞이나/

<머리깎은 아이를 보고>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중아중아 까까중아 배암잡아 회쳐줄까 / 중아중아 까까중아 포리잡아 떡쳐줄까/

<평풍바우>

문헌 : 1963년 경상남도지 하편(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악실악실 평풍바우 임의새끼 금붕어야 / 너날도록 바랬더니 내갈길이 속히슬쩍 넘어가네
/ 이후에 너날거든 무주산을 돌아오게/

<할라산>

문헌 : 1963년 경상남도지 하편(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수로로 철리 육로로 철리 / 제주 철리로 들어가니 / 양더(탕근)튼 저큰아가 / 저건너 저
산이름 무엇이라 / 밤낮없이 양더 틀어 / 부모소양 하드라도 / 그산이름 몰랐드니 / 옛날
은이 죽어가고 / 중늙은이 하는말이 / 제주한라산이라 하옵디다/

<새야 새야>

문헌 : 1963년 경상남도지 하편(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새야 새야 파랑새야 / 녹두밭에 앉지마라 / 녹두꽃이 떨어지면 / 청포장시 울고간다

<계모노래>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청태산 백마지기 평풍산 도랑뱀이 / 지슴동동 띠어놓고 물가득 실어놓고 / 녹제라 정자
밑에 시로시로 잠이들어 / 전실아기 잠자는데 다신애미 용심사서 / 와서보고 돌아간다 애
비에게 말을해서 / 지는애를 죽였구나 죽은아기 목속에서 / 과랑새가 날아나며 전실에난
자식두고 / 후실장가 가지마소 노래노래 부르면서 / 간곳없이 날아간다/

<성주풀이>

채집(1972년~1976년) : 고성군 동외리 김석명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본이 어디메뇨 / 경상도 안동땅의 제비원이 본일레라/
강남서 나온제비 슬씨한쌍 물어다가 / 이택문전에 던졌더니 그슬씨 점점자라/
낙낙장송이 되었구나 그재목을 비여다가 / 사모에다 평경달고 앞뒤로 쟁물리고/
열두대문 달아놓고 보기 좋게 쓰기 좋게 / 이집지은 삼년만에 아들놓으니 효자요/
딸을놓으니 열녀요 소를키우니 황소요 / 개를 키우니 삼살개요 닭을 키우니 봉닭이로구
나 / 에라만수 천하대신이야/

<성주풀이본요>

구술 : 고성읍 수남리 김임중

채집(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지신지신을 울리자 토지지신을 울리자 / 금년에 000씨로다 또한변에 부인이다/
천중세월 인증수요 춘마건곤이 복만가라 / 정월달에 드는악은 이월한식에 막아내고 / 이
월달에 드는악은 삼월삼진날 막아내고 / 삼월달에 드는악은 사월초파일 막아내고 / 사월달
에 드는악은 오월단오날 막아내고 / 오월달에 드는악은 유월유두에 막아내고 / 유월달에
드는악은 칠월칠성날 막아내고 / 칠월달에 드는악은 팔월보름날 막아내고 / 팔월달에 드는
악은 구월구일날 막아내고 / 구월달에 드는악은 시월상달에 막아내고 / 시월달에 드는악은
동지팔죽에 막아내고 / 동지달에 드는악은 선달그믐날 막아내고 / 일년하고 열두달에 가련
하고 / 열셋달에 삼백이라 육십일에 안가태평 하읍소서 / 성주님 근본이 어디메요 성주님
근본이 어디메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이로다 / 성주님 부친은 누구시며 성주님 모친은 누구시고 /
성주님 부친은 청룡황제요 성주님 모친은 옥질부인 / 인간사십 다테여도 일자혈육 전여없
어 / 비나이다 비나이다 명산대천에 비나이다 / 상탕에 머리감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손발씻고 / 향로촛대를 갖춘후에 소재삼장을 올린후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그날부터 태기있어 맛이없네 맛이없네 온갖음식
맛이없네 / 국에는 장네나고 밥에는 눈네난다 / 세월장차 여유하야 칠팔개월 잠간이다 /
노는구나 노는구나 굶실굶실 노는구나 / 청룡황룡이 노는 듯이 굶실굶실 노는구나 / 세월
이 점차 여유하여 열달이 잠간이네 / 열달이 지난후에 옥동자를 탄생하며 이름이나 지어보
자 / 이름을 부를적에 성수라고 불러주소/

한살먹어 흥진받아 두살먹어 손님받아 / 세살먹어 말을배워 네살먹어 글을배워 무벌통치
가 데엿구나 / 세월장차 여유하여 십오세가 잠간이다 / 인간십오세 되고나니 부모님 말씀
을 거역하여 향토섬 귀양가네 / 앞집에 박대목아 뒷집에 김대목아 / 서른세가지 여장망데
아주낙창 걸러메고 / 뒷동산을 치치올라 낙낙장송 술을 비어 / 등거러케 배을모아 향토강
에 띄워놓고 / 삼년먹을 식량실고 삼년입을 이복실이 / 가요가요 나는가요 향토섬 귀양가
요 / 향토섬 당도하니 산도설고 물도선데/

손나무를 울을삼아 날아든다 날아든다 온갖잡새가 날아든다 / 고향소식을 전할라하니 지
필이 없이 어이할꼬 / 세월이 장차 여유하여 석삼년이 잠간이다 / 식량도 떨어지고 이복도
남루하다 / 구만리 장천 소식조차 청조새는 왔건마는 / 청조새는 왔건마는 지필이 없어 어
이할꼬 / 도포자락은 한쪽찌져 손가락을 깨물어서 / 혈서한장을 써가지고 청조새 다리에
메었더니 / 청조새 거동보소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서 / 옥질부인 떼어보니 내자식 소식이
분명하다 / 찾아가자 찾아가자 내자식 찾아가자 / 맨앞에 타신배는 석가여래 타신배요 /
그다음에 타신배는 아미타불 타신배요 / 그다음에 타신배는 팔보살 타신배요 / 그다음에
타신배는 옥질부인이 타신배요 / 그다음에 타신배는 성주님 타신배요 / 고향산천아 잘있드
나 부모님요 잘있었소 / 반갑도다 즐겁도다 고향산천 반갑도다/

(선소리) 어이야로 지신아

(선소리) 뒷동산을 치치올라/(선소리) 이등저등 허쳐드니/

(선소리) 자라나네 자라나네/(선소리) 그술씨가 자라나네/

(선소리) 그술이 점점 자라나서/(선소리) 소부동이 데엿구나/

(선소리) 대부동이 데엿구나/(선소리) 낙락장송 키워놓고/

(선소리) 앞집에 박대목아/(선소리) 뒷집에 김대목아/

(선소리) 나무베로 가자시야/(선소리) 가기사 가지마는/

(선소리) 이장없어 못가겠네/(선소리)황해도 제룡쇠야/

(선소리) 경상도 대불메야/(선소리) 거제봉산 솟을체여/

(선소리) 국것국것 도끼체워/(선소리) 써거런써거런 톱을체워/

(선소리) 밀어라땡기라 데래체워/(선소리) 서른세가지 이장체워/
 (선소리) 일흠이장망데/(선소리) 아주남창 걸러메고/
 (선소리) 서울이라 삼각산에/(선소리) 높은봉을 솟아올라/
 (선소리) 한등넘고 두등넘고/(선소리)삼사세등 곁어나서/
 (선소리) 대동강이 앞에있소/(선소리) 배선개없어 어이갈꼬
 (선소리) 이돈받아 선개하소/(선소리) 대동강을 건너서니/
 (선소리) 우래안개 자복한데/(선소리) 무지개가 선을둘러/
 (선소리) 나무한극 누러섰네/(선소리) 그나무를 관상보니/
 (선소리) 천하학이 알을낱아/(선소리) 그나무가 부정하다/
 (선소리) 그나무를 태정하다/(선소리) 또한봉을 넘어서니/
 (선소리) 쌍무지개 선을둘러/(선소리) 그나무를 관상보니/
 (선소리) 가지로보니 삼천가지/(선소리) 잎을보니 억조만이/
 (선소리) 그나무가 좋을지다/(선소리) 청사탕기 흰밥짓고/
 (선소리) 청사도포 흑사띠에/(선소리) 원새끼 꼬아 낭계메고/
 (선소리) 그나무 밑에 제만을 지에/(선소리) 옥도끼 손에들고/
 (선소리) 한번을 쪼고나니/(선소리) 나무목신 통곡하요/
 (선소리) 두 번을 쪼고나니/(선소리) 산신령이 울고가네/
 (선소리) 삼사세번 거듭쪼아/(선소리) 온갖잡새가 울고가네/
 (선소리) 너머가네 너머가네/(선소리) 낙낙장송 너머가네/
 (선소리) 낙낙장송 넘겨놓고/(선소리) 먹물로 탱겨보자/
 (선소리) 굵은 나무는 굵다듬고/(선소리) 바린나무는 채다듬고/
 (선소리) 사무라치 담아놓고/(선소리) 집터보러 가자시야/
 (선소리) 쇠를받아 손에들고/(선소리) 서울이라 삼각산에/
 (선소리) 높은봉을 솟아올라/(선소리) 쇠를놓고 좌를보니/
 (선소리) 한줄기는 서울로 가고/(선소리) 한줄기는 경상도로 왔다/
 (선소리) 홀터졌네 홀터졌네/(선소리) 대명산이 홀터졌네/
 (선소리) 이집터가 분명하다/(선소리) 은가래 은줄매고 /
 (선소리) 늦가래 늦줄매고/(선소리) 아개다개 다져놓고/
 (선소리) 호박주치 유리지동/(선소리) 한툽과 잘라다가/
 (선소리) 성주고신 한지등하고/(선소리) 또한툽과 잘라다가/
 (선소리) 천년만년 대들보에/(선소리) 또한툽과 잘라다가/

(선소리) 상냥이나 얹어보자/(선소리) 어기여차 상냥이야/
(선소리) 옛가질랑 메어다가/(선소리) 여기저기 얹어놓고/
(선소리) 오황토 알매쳐서/(선소리) 경주옥돌 기와올려/
(선소리) 사모에라 핑건달고/(선소리) 핑건소리 완년하다/
(선소리) 이집짓고 삼년만에/(선소리) 아들애기 놓거들랑/
(선소리) 정승감사 마련하고/(선소리) 딸애길랑 놓거들랑/
(선소리) 하늘이라 옥황상제/(선소리) 만며느리 보우하소/
(선소리) 성주님네 덕택으로/(선소리) 일년농사 장원하여/
(선소리) 첫째는 나라봉양/(선소리) 둘째는 부모봉양/
(선소리) 셋째는 농사수발/(선소리) 일년삼백 육십일에/
(선소리) 안가태평하소서/

<치마노래>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유영례(여. 65세)

이치매가 요래뵈도 나라에서 충성치매 / 요치매가 요래뵈도 부모한테 호자치매/
요치매가 요래뵈도 자숙한테 덮을치매 / 요치매가 요래뵈도 일가친척에 화목치매 / 요치
매가 요래뵈도 행제간에 우애치매 / 요치매가 요래뵈도 노는데는 한량치매/
요치매가 요래뵈도 동서남북 출입치매 / 요치매가 요래뵈도 들에가든 농부치매/
요치매가 요래뵈도 부엌에가든 걷는치매 / 요치매가 요래뵈도 방에가든 걸린치매 / 요치
매가 요래뵈도 서방한테 사랑치매 / 요치매가 요래뵈도 밤되머는 서방보고 할딱벗는치매/

<이거리저거리>

구술 : 고성읍 우산리 조덕남(여. 65세)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 진주맹건 또맹건 짝바리 행건 / 도래미춤 장도칼 / 머구밭에
떡서리 / 칠팔월에 무서리 / 동지섣달 대서리/

<상여소리>

① 상여 어르는소리(상여가 집안에서 나가기 전)

앞소리 : 고성읍 우산리 김임중(남. 59세)

(뒤소리) 아~ 어~ 호오 / 아 어~호오(뒤) / 에이 갑자년 0월 학생 000공 / 정명팔십 다 못살고 북망산천 가는구나(뒤) / 에 ~헤이 청산가네 청산가네~ 이 청산 가는길이 에~ 이 / 일가친척 행상행하가 이모다 잊지 못할 혈족이로고나(뒤) / 에~이 세상 벗님네들 그리운 친구 갑인들과 / 아~ 예놀던 추억이 모다 꿈이로고나아(뒤) / 에이 애탄개탄 살던세간 안먹고가며 쓰고갈까(뒤) / 에~ 이 간다간다 나는간다 북망산천 나는간다 아(뒤)

② 상여소리(상여를 메고갈 때1)

앞소리 : 고성읍 우산리 김임중(남. 59세)

(뒤소리)어~ 호~ 어어~ 호 어이가리 넘차~ 어~ 호 / 어~호 어어 ~호 어이가리 넘차~ 어~호 (뒤) / 북망산천이 머~다더니마는 문전산이 북망산이네(뒤) / 황천수가 머~다더니마는 한분가면 못오는고(뒤) / 일가친척이 많건마는 어느일가가 대신갈꼬(뒤)/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서러마라(뒤) / 명년삼월이 돌아오면 너는다시 피련마는(뒤) / 우리인생 한 번가면 다시오지는 못하리라(뒤) / 명정공포가 앞을서니 황천길이 분명코나(뒤) / 앞동산에 두견새야 너도나를 기다리나(뒤)/

뒷동산에 접동새야 너도나를 기다리나(뒤) / 두견접동아 우지마라 나도너를 찾아간다(뒤) / 인제가면 언제오나 돌아올날이나 일러보자(뒤) / 동방화개 춘풍시에 꽃이피거든 내 가오지(뒤) / 사해에 너른바다 육지가되거든 다시오지(뒤) / 말머리에 빨이나면 이세상에 다시올까(뒤) / 까마구머리가 희어지면 이세상에 다시올까(뒤)/쫓꼬마한 조약돌이 널다란 광석되야(뒤) / 정이맞거든 다시올까 언제다시 돌아올꼬(뒤) / 석상에다가 진주를심어 싹이나거든 다시올까(뒤) / 병풍안에 그린장닭 두나래를 훨훨치며 깹깹울거든 다시올까(뒤) / 북망산천을 찾아가서 사토로 집을짓고(뒤) / 송죽으로 울을삼고 두견접동새 벗이되야(뒤) / 산첩첩하니 처량한 것이 혼백이라(뒤) 자손들이 늘어서서 평토제사 지낼적에(뒤) / 어동육서 좌포우혜 삼색과실을 채려놓고(뒤) / 방성통곡 슬피운들 먹는줄을 뉘가알며(뒤) / 꾸는줄을 뉘가알꼬 아이구아이구 내신세야(뒤) / 어화세상 벗님네들 살아생전에 많이먹고 재미있게 잘사시오(뒤)

(상여를 메고갈때2)

앞소리 : 고성읍 우산리 최규철(남. 78세)

채록(1972년~1976년) : 고성읍 동외리 김석명

(뒤소리) 어허님 어허님 이과리 넘차 어화 녀 / 아어 호 아어 호 어이가리 넘차 어어 흥
(뒤) / 아어호 어어호 어이가리 넘차 어어흥(뒤) / 불쌍하고나 불쌍하네 이씨부인이 불쌍
하네(뒤) / 고생살이 문면하고 북망산천을 가는고나(뒤) / 북망산천이 머다더니 건넌산이
북망산이네(뒤) / 황천길이 어데건대 한분가문 문오는고(뒤) / 일가친척이 많건마는 어느
누가 동행할꼬(뒤) /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뒤) / 명년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뒤) / 우리인생 한분가면 다시오지 못하리라(뒤) / 명정공포가 앞을서니 황
천길이 분명코나(뒤) / 앞동산에 두견새야 너도내를 기다리나(뒤) / 뒷동산에 접동새야 너
도내를 기다리나(뒤) / 두견아 접동아 우지마라 나도네를 찾아간다(뒤) / 인제가면 언제올
꼬 올날이나 일러보자(뒤) / 동방화개 춘풍시에 꽃이피거든 다시올까(뒤) / 높은산 상상봉
이 평지가 되몬 다시올까(뒤) / 사해너른 바다가 육지가 되몬 다시올까(뒤)/조그마한 조약
돌이 널다란 광석되야(뒤) / 정이 맞거든 다시올까 오느시절에 돌아올꼬(뒤) / 까마구리가
희여지몬 이세상에 다시올까(뒤) / 석상에다 진주를 심어 싹이나면 다시올까(뒤) / 어화세
상 벗님네들 잘계시오 잘사시오(뒤) / 이세상에 태어나서 온갖고생 다하다(뒤) / 한번죽
음 못면하고 황천객이 되는고나(뒤) / 만구고통 공부자도 한번죽음 못면하고(뒤) / 육국통
합 진시황도 아방궁을 높이짓고(뒤) / 삼천궁녀 시위하야 장생불사 하려하야(뒤) / 동남동
녀 오백인을 삼신산을 보낸후에(뒤) / 소식조차 둔절하고 사구평대 저문날에(뒤) / 더산황
초 뿐이로다 가련하고 가련하다(뒤) / 오관참장 관운장도 여동피에 작사하고(뒤) / 백전백
승 한신이는 기린각에 상팔자라(뒤) / 면만고 사마천과 황희지 소동파가(뒤) / 필법없어
죽었던가(뒤) / 그런만고 영웅열사 사추사적이 있건마는(뒤) / 우리초로 인생들은 한번세
상을 나왔다가(뒤) / 부유같이 쓰러지면 황천객이 되는고나(뒤) / 북망산천을 찾아가서 초
토로 집을짓고(뒤) / 송죽으로 울을삼고 두견접동이 벗이되야(뒤) / 밤적적 우수성하니 처
량한 것이 혼백이라(뒤) / 자손들이 늘어서서 평토제사 지낼적에(뒤) / 어동육서 좌포우회
삼색과실을 차려놓고(뒤) / 방성통곡 슬피운들 먹는줄을 누가알며(뒤) / 구는줄을 어이아
리 가련하고 가련하다(뒤) / 죽어서 만반진수 살아일배주만 못하나니(뒤) / 살아생전 먹고
쓰고 재미있게 잘사시오(뒤) / 가련하고 슬프도다 한일없이 나느간다(뒤) / 오늘 저녁은
여기놓고 내일 저녁은 어디놀꼬(뒤) / 열두발 상두꾼아 발맞추어 운상하소(뒤) / 막죽하직
가는길에 노수돈이 부족하오(뒤) 상주백관들아 이리와서 노수돈을 걸어주게(뒤) / 압록강
아 두만강아 강은어이 이리많노(뒤) / 이강을 건너자면 다리없이 못건너네(뒤) / 사위사위
내사위야 이다리를 놓아주게(뒤) / 외손자야 너도오고 손자사위 너도와서(뒤) / 노숫돈을
걸어주게 이만하면 만족하다(뒤) / 가자가자 어서가자 시가늦고 때늦었다(뒤) / 어허님 어
허님 이과리 넘차 어화 녀

③ 잦은 상여소리(언덕을 올라갈 때나 좁은 다리를 건널 때)

앞소리 : 고성읍 우산리 김임중(남. 59세)

문헌 : MBC 문화방송(1984년~1994년). 한국민요대전(경남민요해설집)

(뒤소리) 어화 넘차 / 넘차~넘차(뒤) 어이가리 넘차(뒤) / 열 두발(뒤) 상두꾼아(뒤) /
발 맞추어(뒤) 운상하소(뒤) / 앞에 사람은(뒤) 땡겨 주고(뒤) / 뒤에 사람은(뒤) 밀어 주
소(뒤) / 태산준령(뒤) 험한 길을(뒤)/언제 갈꼬(뒤) 다리 아파서(뒤) / 내 못가겠다(뒤)
/ 넘차 넘차(뒤) 어화 넘차(뒤) / 어이가리 넘차(뒤) 넘차 넘차(뒤).

VIII 의식 홀기

제 1절 고성의 의식 홀기

1. 석전홀기(釋奠筭記)

廟司謁者贊引入自東門先就階間拜位.(묘사알자찬인입자동문선취계간배위) 묘사와 알자 찬인은 동문으로들어와 절할자리에 차례로서시오.

北向西上立四拜.(북향서상입사배) 북향하여 사배하시오.

各就位.(각취위) 각자 맡은 자리로 가시오.

贊引入學生入就位.(찬인인학생입취위) 찬인은 학생을 인도하여 정한자리로 안내하시오.

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알자인헌관이하구취문의위) 알자는 헌관이하 제집사를 동문 밖에 자리하시오.

贊引入祝及諸執事入就階間拜位.(찬인인축급제집사입취계간배위) 찬인은 축과제집사를 인도하여 절할 자리에 차례로 서게 하시오.

北向西上立.(북향서상입) 북향하여 서시오.

祝以下皆四拜.(축이하개사배) 축 이하 모두 사배하시오.

俱詣盥洗位.(구예관세위) 모두 관세위(손씻는 곳)로 나아가시오.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시오.

各就位.(각취위) 각자 맡은 자리로 가시오.

開扉開櫝啓蓋點燈燭.(개비개독계개점등촉) 전내 집사는 문을 열고 신위함을 열고 제기 덮개를 열고 등축을 켜시오.

司尊詣爵洗位.(사준예작세위) 사준은 작세위(잔씻는 곳)로가시오.

洗爵拭爵.(세작식작) 잔을 씻고 닦으시오.

置於篚捧詣尊所.(치어비봉예준소) 광주리에담아 준소(술따르는 곳)에 받들어놓으시오.

謁者引獻官入就位.(알자인헌관입취위)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정한자리로 안내하시오.

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알자진헌관좌좌백유사근구청행사) 알자는 초헌관 왼쪽에 가서 삼가 예를 갖추어 행사할 것을 청하시오.

獻官以下在位者皆四拜.(헌관이하재위자개사배) 헌관이하 참사자 모두 사배하시오.

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點視陳設.(알자인초헌관승자동계점시진설) 알자는 초헌관을 동계로 오르게 인도하여 진설한 제수를 점검하게 하시오.

還出.(환출) 되돌아 나오시오.

行奠幣禮.(행진폐례) 향 피우고 폐백드리는 의식입니다.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알자인초헌관예관세위) 알자는 초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시오.

搢笏.(진홀) 홀을 꽂으시오.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씻고 수건으로 닦으시오.

執笏.(집홀) 홀을 잡으시오.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인예대성지성문선왕신위전) 대성지성문선왕신위전으로 나아가시오.

北向跪.搢笏.(북향궐 진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꽂으시오.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워 올리시오.

祝以幣篚授獻官.(축이폐비수헌관) 축은 폐비(폐백담은 그릇)를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幣獻幣.(헌관집폐헌폐) 헌관은 폐를 받아 헌폐하시오.

以幣授祝.(이폐수축) 폐를 축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폐를 신위전에 올리시오.

執笏俯伏興平身.(집홀부복흥평신) 홀을 잡으시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次詣兗國復聖公神位前.(차예연국복성공신위전) 다음은 연국복성공신위전으로 나아가시오.

東向跪 搢笏.(동향궐 진홀) 동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꽂으시오.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번 피워올리시오.

祝以幣篚授獻官.(축이폐비수헌관) 축은 폐비(폐백담은 그릇)를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幣獻幣.(헌관집폐헌폐) 헌관은 폐를받아 헌폐하시오.

以幣授祝.(이폐수축) 폐를 축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폐를 신위전에 올리시오.

執笏俯伏興平身.(집홀부복흥평신) 홀을 잡으시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次詣邳國宗聖公神位前.(차예성국종성공신위전) 다음은 성국종성공신위전으로 나아가시오.

西向跪 搢笏.(서향궐진홀) 서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꽂으시오.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워 올리시오.

祝以幣篚授獻官.(축이폐비수헌관) 축은 폐비(폐백담은 그릇)를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幣獻幣.(헌관집폐헌폐) 헌관은 폐를 받아 헌폐하시오.

以幣授祝.(이폐수축) 폐를 축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폐를 신위전에 올리시오.

執笏俯伏興平身.(집홀부복흥평신) 홀을 잡으시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次詣沂國述聖公神位前.(차예기국술성공신위전) 다음은 기국술성공신위전으로 나아가시오.

東向跪 摺笏.(동향계 진홀) 동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꺾으시오.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워 올리시오.

祝以幣篚授獻官.(축이폐비수헌관) 축은 폐비(폐백담은 그릇)를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幣獻幣.(헌관집폐헌폐) 헌관은 폐를 받아 헌폐하시오.

以幣授祝.(이폐수축) 폐를 축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폐를 신위전에 올리시오.

執笏俯伏興平身.(집홀부복흥평신) 홀을 잡으시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次詣鄒國亞聖公神位前.(차예추국아성공신위전) 다음은 추국아성공신위전으로 나아가시오.

西向跪 摺笏.(서향계 진홀) 서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꺾으시오.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워 올리시오.

祝以幣篚授獻官.(축이폐비수헌관) 축은 폐비(폐백담은 그릇)를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幣獻幣.(헌관집폐헌폐) 헌관은 폐를 받아 헌폐하시오.

以幣授祝.(이폐수축) 폐를 축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폐를 신위전에 올리시오.

執笏俯伏興平身.(집홀부복흥평신) 홀을 잡으시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제자리로 내려오시오.

行 初獻禮.(행 초헌례) 신위전에 첫 잔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謁者引初獻官文宣王尊所.(알자인초헌관문선왕준소) 알자는 초헌관을 문선왕준소로 인도하시오.

西向立.(서향립) 서향하여 서시오.

司尊舉幕酌酒.(사준거막작주) 사준은 술뚝경을 걸고 술을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봉작이작수주) 봉작은 술잔으로 술을 받으시오.

謁者引獻官詣神位前.(알자인헌관예신위전) 알자는 헌관을 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北向跪 摺笏.(북향계 진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꺾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少退跪.(헌관소퇴궤) 헌관은 조금 물러나 앉으시오.

祝晉獻官之左東向跪.搢笏(축진헌관지좌동향궤 진홀) 축은 헌관의 좌측에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쫓으시오.

在位者皆跪.(재위자궤) 참석자 모두 꿇어앉으시오.

讀祝文.(독축문) 축문을 고하시오.

在位者皆平身.(재위자궤평신) 참석자모두 몸을 바로하시오.

祝退復位.(축퇴복위) 축은 제자리로 가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詣配位尊所.(인예배위준소) 배위준소로 인도하시오.

西向立.(서향립) 서향하여 서시오.

司尊舉罇酌酒.(사준거罇작주) 사준은 술뚝경을 걷고 술을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봉작이작수주) 봉작은 술잔으로 술을 받으시오.

謁者引詣復聖公神位前.(알자인예복성공신위전) 알자는 헌관을 복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東向跪 搢笏.(동향궤 진홀) 동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으시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詣宗聖公神位前.(인예종성공신위전) 종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西向跪 搢笏.(서향궤 진홀) 서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詣述聖公神位前.(인예술성공신위전) 술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東向跪 搢笏.(동향궤진홀) 동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시오.
 引詣亞聖公神位前.(인예아성공신위전) 아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西向跪 搢笏.(서향궐 진홀) 서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꼳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으시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제자리로 내려오시오.

行 亞獻禮.(행 아헌례) 신위전에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알자인아헌관예관세위) 알자는 아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시오.
 搢笏.(진홀) 홀을 꼳으시오.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시오.
 執笏.(집홀) 홀을 잡으시오.
 引詣文宣王尊所.(인예문선왕준소) 문선왕준소로 인도하시오.
 西向立.(서향입) 서향하여 서시오.
 司尊舉冪酌酒.(사준거떡작주) 사준은 술뚜껑을 걷고 술을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봉작이작수주) 봉작은 술잔으로 술을 받으시오.
 謁者引亞獻官詣神位前.(알자인아헌관예신위전) 알자는 아헌관을 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北向跪 搢笏.(북향궐 진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꼳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詣配位尊所.(인예배위준소) 배위준소로 인도하시오.
 西向立.(서향입) 서향하여 서시오.
 司尊舉冪酌酒.(사준거떡작주) 사준은 술뚜껑을 걷고 술을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봉작이작수주) 봉작은 술잔으로 술을 받으시오.

謁者引詣復聖公神位前.(알자인에복성공신위전) 알자는 헌관을 복성공 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東向跪 搯笏.(동향께 진홀) 동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詣宗聖公神位前.(인예종성공신위전) 종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西向跪 搯笏.(서향께 진홀) 서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詣述聖公神位前.(인예술성공신위전) 술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東向跪 搯笏.(동향께 진홀) 동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詣亞聖公神位前.(인예아성공신위전) 아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西向跪 搯笏.(서향께 진홀) 서향하여 꿇어앉으시고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제자리로 내려오시오.

行 終獻禮兼分獻禮.(행 종헌례겸 분헌례) 신위전에 마지막 잔을 올리는 의식과 분헌례

謁者引終獻官分獻官詣盥洗位.(알자인종헌관분헌관예관세위) 알자는 종헌관과 분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시오.

搯笏.(진홀) 홀을 깨끗이 씻으시오.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시오.

執笏.(집홀) 홀을 잡으시오.

終獻官引詣文宣王尊所.(종헌관인예문선왕준소) 종헌관을 문선왕준소로 인도하시오.

分獻官詣從享尊所.(분헌관예종향준소) 분헌관은 종향준소로 나아가시오.

各向立.(각향입) 각향하여 서시오.

司尊舉冪酌酒.(사준거떡작주) 사준은 술뚜껑을 걷고 술을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봉작이작수주) 봉작은 술잔으로 술을 받으시오.

謁者引終獻官分獻官詣神位前.(알자인종헌관분헌관예신위전) 알자는 종헌관과분헌관을 각 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各向跪 搯笏.(각향궐 진홀) 각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씻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分獻官從享位獻爵如上儀.(분헌관종향위헌작여상의) 분헌관은 종향위헌작을 위와 같이 계속하시오.

謁者引終獻官詣配位尊所.(알자인종헌관예배위준소) 알자는 종헌관을 배위준소로 인도하시오.

西向立.(서향입) 서향하여 서시오.

司尊舉冪酌酒.(사준거떡작주) 사준은 술뚜껑을 걷고 술을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봉작이작수주) 봉작은 술잔으로 술을 받으시오.

謁者引詣復聖公神位前.(알자인예복성공신위전) 알자는 종헌관을 복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東向跪 搯笏.(동향궐 진홀) 동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씻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詣宗聖公神位前.(인예종성공신위전) 종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西向跪 搯笏.(서향계 진홀) 서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詣述聖公神位前.(인예술성공신위전) 술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東向跪 搯笏.(동향계 진홀) 동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詣亞聖公神位前.(인예아성공신위전) 아성공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西向跪 搯笏.(서향계 진홀) 서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執爵 獻爵.(헌관집작 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제자리로 내려오시오.

行 飲福禮.(행 음복례) 제사술과 음식으로 음복하는 의식
 執事者詣文宣王尊所.(집사자예문선왕준소) 집사자는 문선왕준소로 나아가시오.
 以爵酌福酒置于坫上.(이작작복주치우점상) 복주를 따라서 음복상위에 놓으시오.
 執事者持俎進減神位前胙肉.(집사자지조진감신위전조육) 신위전 조육(제사고기)도 조금 내려놓으시오.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알자인초헌관예음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음복위로 인도하시오.
 西向跪 搯笏.(서향계 진홀) 서쪽을 향해 꿇어 앉아 홀을 쫓으시오.
 祝進獻官之左北向跪.(축진헌관지좌북향계) 축은 헌관왼쪽에서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祝以爵授獻官.(축이작수헌관) 축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受爵飲卒爵.(헌관수작음졸작) 헌관은 음복잔을 드시오.
 祝受虛爵復於坫上.(축수허작복어점상) 축은 빈잔을 받아 제자리에 놓으시오.
 祝以胙授獻官.(축이조수헌관) 축은 조육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受胙以授執事.(헌관수조 이수집사) 헌관은 조육을 받아 집사에게 주십시오.
 執事受胙降自東階東出門外. 집사는 조육을 받아 동계로 내려와 동문으로 나가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제자리로 내려오시오.
 獻官以下在位者皆四拜.(헌관이하재위자개사배) 헌관이하 참석자 모두 사배하시오.
 祝入撤籩豆.(축입철변두) 축은 들어가서 변두(제기)를 조금 돌려놓으시오.
 闔櫝.(합독) 신위함을 닫으시오.
 謁者引初獻官望瘞位.(알자인초헌관망예위) 알자는 초헌관을 망예위로 인도하시오.
 北向立.(북향입) 북향하여 서시오.
 祝取祝板及幣降自西階置於坎.(축취축판급폐강자서계치어감) 축은 축판과 폐를 가지고 서계로 내려가 구덩이에 놓으시오.
 可燎置土半坎.(가료치토반감) 축문과폐백을 사라서 흙으로 반쯤 묻으시오.
 獻官及祝降復位.(헌관급축강복위) 헌관과 축은 제자리로 내려오시오.
 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알자진헌관지좌백예필) 알자는 헌관 왼쪽에 나아가 향례를 마쳤음을 아뢰시오.
 遂引初獻官以下出.(수인초헌관이하출) 초헌관이하 차례로 나가시오.
 祝及諸執事皆四拜以出.(축급제집사개사배이출) 축과 제집사는 모두 사배하고 나가시오.
 學生以次出.(학생이차출) 학생은 다음으로 나가십시오.
 贊者謁者贊人就拜位.(찬자알자찬인취배위) 찬자 알자 찬인은 절할 자리에 서시오.
 四拜以出.(사배이출) 사배하고 나가십시오.

2. 승충사 제전홀기(崇忠祠 祭禮笏記)

獻官及諸執事皆盛服入庭(헌관급제집사개성복입정). 헌관과제집사는 제복을 갖춰입고 제단을 향하여 차례로 서시오.

迎神奏樂(영신주악). 제례악단은 영신주악을 연주하시오.

祝及諸執事先就拜位(축급제집사선취배위). 축과 제집사는 절하는 위치로 서시오.

皆再拜(개사배). 모두 두 번 절하시오. (국궁배 흥 배 흥)

平身(평신). 몸을 바로하시오.

祝及諸執事俱詣盥洗位(축급제집사구예관세위). 축과 제집사는 관세위(손씻는 곳)로 가시오.

盥手(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시오.

各就位(각취위). 각자 맡은 위치로 가시오.

司尊詣爵洗位(사준예작세위). 사준은 작세위(잔씻는 곳)로 가시오.

洗爵(세작식작). 잔을 씻고 닦으시오.

捧詣尊所(봉예준소). 준소(술 따르는곳)에 잔을 받들어 놓으시오.

謁者引初獻官點視陳設(알자인초헌관점시진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진설한 제수를 점검하시오.

還出復位(환출복위). 되돌아 자리로 내려오시오.

祝開釐燭(축개독점촉). 축은 신위함을 열고 촛불을 켜시오.

謁者進初獻官之左白謹具請行事(알자인초헌관지좌백근구청행사). 알자는 초헌관 왼쪽으로 나아가서 행사를 고하고 청하시오.

獻官及在位者皆再拜(헌관급재위자개재배). 헌관과 참석자 모두 두 번 절하시오.(국궁 배 흥배흥)

平身(평신). 몸을 바로 하시오.

行奠幣禮(행전폐례) (향 피우고 폐백 드리는 의식)

奠幣奏樂(전폐주악). 전폐주악을 연주하시오.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알자인초헌관예관세위). 알자는 초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시오.

搯笏.盥手(관수세수). 헌관은 홀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고 홀을 잡으시오.

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인예신위전북향궤진홀). 신위전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하시오.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워 올리시오.

祝以幣篚授獻官(축이폐비수헌관). 축은 폐비(폐백 담은 그릇)를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幣獻幣(헌관집폐헌폐). 헌관은 폐를 받아 헌폐하시오.

以幣授祝(이폐수축). 축에게 폐를 주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축은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내려오시오.

행초헌례(行初獻禮) (신위전에 첫잔을 올리는 의식)

初獻奏樂(초헌주악). 초헌주악을 연주하시오.

謁者引初獻官詣尊所.西向立(알자인초헌관예준소 서향입). 알자는 초헌관을 준소로 인도하여 서쪽을 향해 서시오.

司尊舉冪酌酒(사준거떡작주). 사준은 술을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봉작이작수주). 봉작은 술잔에 술을 받으시오.

獻官引詣神位前(헌관인예신위전). 헌관을 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北向跪 搢笏(북향궐 진홀). 꿇어앉으시고 홀을 쫓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爵獻爵(헌관집작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小退跪(헌관소퇴궐). 헌관은 조금 물러나 앉으시오.

祝進獻官之左東向跪(축진헌관지좌동향궐). 축은 헌관 왼쪽으로 가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在位者皆跪(재위자궐). 참석자 모두 꿇어앉으시오.

讀祝文(독축문). 축문을 고하시오.

在位者皆平身(재위자궐평신). 참석자 모두 몸을 바로하시오.

祝退復位(축퇴복위). 축은 제자리로 가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 잡으시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내려오시오.

행아헌례(行亞獻禮) (신위전에 두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亞獻奏樂(아헌주악). 아헌주악을 연주하시오.

贊引引亞獻官詣盥洗位(찬인인아헌관예관세위). 찬인은 아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시오.

搢笏盥手 執笏(진홀관수세수집홀). 헌관은 홀을 쫓고 손을 씻고 홀을 잡으시오.

贊引引獻官詣尊所西向立(찬인인헌관예준소서향입). 찬인은 헌관을 준소로 인도하여 서쪽을 향해 서시오.

司尊舉冪酌酒(사준거떡집주). 사준은 술을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봉작이작수주). 봉작은 술잔에 술을 받으시오.

獻官引詣神位前(헌관인예신위전). 헌관을 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北向跪搯笏.(북향궤진홀). 꿇어앉으시고 홀을 꺾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爵獻爵(헌관집작헌작). 헌관은 잔을 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잡으시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내려오시오.

행중헌례行終獻禮(신위전에 마지막 잔을 올리는 의식)

終獻奏樂(종헌주악). 종헌주악을 연주하시오.

贊引引終獻官詣盥洗位(찬인인헌관예관세위). 찬인은 종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시오.

搯笏盥手帨手執笏(진홀관수세수집홀). 헌관은 홀을 꺾고 손을 씻고 홀을 잡으시오.

贊引引獻官詣尊所西向立(찬인인헌관예준소서향입). 찬인은 헌관을 준소로 인도하여 서쪽
 을 향해 서시오.

司尊舉羈酌酒(사준거떡작주). 사준은 술을 따르시오.

奉爵以爵受酒(봉작이작수주). 봉작은 술잔에 술을 받으시오.

獻官引詣神位前(헌관인예신위전). 헌관을 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北向跪搯笏(북향궤진홀). 꿇어앉아 홀을 꺾으시오.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爵獻爵(헌관집작헌작). 헌관은 잔을받아 헌작하시오.

以爵授奠爵(이작수전작). 잔을 전작에게 건네시오.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전작은 잔을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집홀부복흥평신). 헌관은 홀을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내려오시오.

獻官皆再拜(헌관개사배). 헌관은 모두 두 번 절하시오. (국궁배홍배홍)

平身(평신). 몸을 바로하시오

행음복례行飲福禮(제사 술과 음식으로 음복하는 의식)

飲福奏樂(음복주악). 음복주악을 연주하시오

執事神位前福酒及胙肉置于坵(집사신위전음복급조육치우점). 집사는 신위전 복주와 조육
 을 음복상에 내려놓으시오.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알자초헌관예음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음복위로 인도하시오.
 西向跪搢笏(서향궐진홀). 서쪽을 향해 꿇어 앉아 홀을 꽂으시오.
 祝進獻官之左北向跪(축진헌관지좌북향궐). 축은 헌관 왼쪽에서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祝以爵授獻官(축이작수헌관). 축은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獻官受爵飲卒爵(헌관수작음졸작). 헌관은 음복잔을 드시오.
 祝受虛爵復於坫上(축수허작복어점상). 축은 빈잔을 받아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祝以胙授獻官(축이조수헌관). 축은 조육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受胙(헌관수조). 헌관은 조육을 받으시오.
 還授祝置于坫執笏(환수축치우점집홀). 축에게 돌려주고 홀을 잡으시오.
 獻官俯伏興平身(헌관부복흥평신). 헌관은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내려오시오.
 獻官皆再拜(헌관개재배). 헌관은 모두 두 번 절하시오. (국궁 배흥배흥)
 平身(평신). 몸을 바로하시오.

송신례送神禮(신을 보내는 의식)

送神奏樂(송신주악). 송신주악을 연주하시오.

祝及諸執事降復位(축급제집사강복위). 축과 제집사는 자리로 내려와 서시오.

獻官及在位者皆再拜(헌관급재위자개재배). 헌관과 참석자 모두 재배하시오.(국궁 배흥배흥)

平身(평신). 몸을 바로하시오

祝入撤籩豆闔櫝(축입철변두함독). 축은 변두를 옆으로 조금 돌려놓고 신위함을 닫으시오.

행망예례行望座禮(축문과 폐백을 살아서 땅에 묻는 의식)

瘞坎奏樂(예감주악). 예감주악을 연주하시오.

謁者引初獻官詣望座位(알자인초헌관예망예위). 알자는 초헌관을 망예위로 안내하시오.

北向立(북향입). 북향하여 서시오.

祝取祝板及幣詣望座位(축취축판급폐예망예위). 축은 축문과 폐를 가지고 망예위로 서시오.

可燎瘞坎(가료예감). 불살아서 묻으시오.

獻官及祝并退復位(헌관급축병퇴복위). 헌관과 축은 제자리로 가시오.

謁者進獻官之左告禮畢(알자지헌관지좌고예필). 알자는 초헌관의 좌측으로 가서 예를 마쳤음을 고하시오.

獻官及諸執事以次出(헌관급제집사이차출). 헌관과 제집사는 차례로 나가시오.

執事監撤饌闔戶以降乃退(집사감철찬합호강내퇴). 집사는 철찬하고 문을 닫고 내려와 나가시오.

[참고문헌]

- 경상남도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 하권 1963.
-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 1978.
- 경상남도편찬위원회 『경상남도사』 하권 1988.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경상남도 향토문화지』 1989.
- 고성군지편찬위원회 『고성군지』 1995.
- 고성문화원 『고성사료집』 제1~2권 2005. 2010.
- 김석명 『고성농요』 고성농요보존회 1990.
- 김석명 『중요무형문화재 제84호 고성농요』 고성농요보존회 1990.
- 제37회 경상남도민속예술축제팸플렛 「2013 고성농악」 고성군놀이패회몰이 2013.
- 제29회 대한민국민속음악대축제 『기획공연 자료집』 고성농요보존회 2014.
- 제27회 경남민속예술축제 팸플렛 「고성영오 오동 길쌈일소리」 2007.
- 제28회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 팸플렛 「고성이당상여(어우림)소리」 1996.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남도 편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소실 『한국인의 일생의례』 경상남도편 2010.
-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소실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제7권 경상남도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어촌민속지』 2002.
- 『한국민요대전 경남민요해설집』 MBC 문화방송 1994.
- 『세계대백과사전』 동서문화 2001.
- 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3집 경상남도편』 문화공보부 1971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경상남도-부산편 2003.
- 경상남도 『경남의 문화』 도민생활자치발전기획단 1996.
- 김혁규 『경상남도의 민속예술』 경상남도 1998.
- 강성구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1994.
- 제37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자료집 경상남도 2013.
- 남해문화원 『가례의범』 가례의범편찬위원회 2000.
- 전경수 『민속학연구』 「무형문화재 개념의 적합성과 문화유산론의 검토」 2002.
- 임재해 「물질문화의 재인식과 문물로서 유무형 문화의 유기적 해석」 2007.
- 이용범 「한국무속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성격」 『민속학연구』 제13호 2003.
- 金烈圭 『아리랑...역사여, 겨레여, 소리여』 朝鮮日報社 出版局 1987.

- 배영동 『농경생활의 문화읽기』 민속원 2000.
- 임동권 『여성과 민요』 「일하면서 노래하던 멋」 집문당 1989. • 김무현 『한국 노동 민요론』 집문당 1986.
- 고정일 『세계대백과사전』 동서문화 2000.
- 박성석 『한국 민속의 이해』 경상대출판부 2008.
- 조희봉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1993.